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6. 10. 27(목)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참석위원 : 신승운(위원장), 곽노봉, 김명규,
오용섭, 유창종, 이원복, 진화수, 최응천

목 차

【심의사항】 12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공개
2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
3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	"
4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일괄	"
5	부산 북천동 출토 금동관	"
6	정조 어찰첩	"
7	조선경국전	"
8	묘법연화경 권5~7	"
9	묘법연화경 권4~7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10	국보 제283호 통감속편 보존처리 현상변경	공개
11	보물 제1672-1호 송준길 행초 동춘당필적 보존처리 현상변경	"
12	보물 제1888호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 보존처리 현상변경	"

【검토사항】 8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예고>	
13	보물 제398호 월인천강지곡 권상	공개
14	보물 제139호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15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공개
16	국새 황제지보	"
17	국새 유서지보	"
18	국새 준명지보	"
19	협주명현십초시	"
20	박동형 분무공신 관련 유물 일괄	"

【보고사항】 4건

21	석조불상의 관리방안 개선사항 보고	공개
22	오대산사고 전시관 관련 보고	"
23	간송미술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 및 소장품 지정 확대 계획 보고	"
24	국보 제209호 보험인식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방안 관련 소위원회 구성(안) 보고	"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6-05-001

1.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高敞 文殊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가. 심의사항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에 대한 지정신청(14.10.2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0.2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6년 제3차 회의(6.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는 있으나 “발원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추가조사를 실시(16.7.20)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위원회 2016년 제4차 회의(8.11)에서 발원문에 대한 의구심이 없다고 의결됨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8.30~16.9.28)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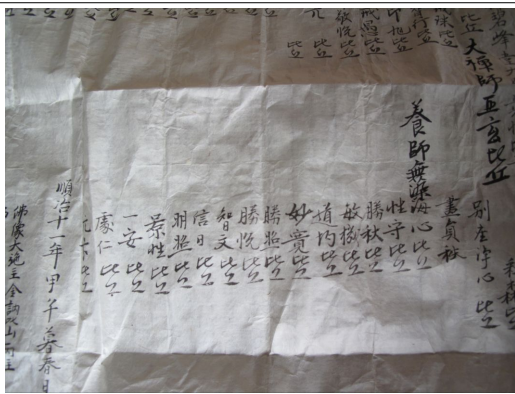
- 지정현황: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07호(2006.06.16.지정)
- 명 칭: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高敞 文殊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 소유자(관리자):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 소재지: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칠성길 135 문수사
- 수 량: 3구

- 규격(cm): 석가여래 높이 104.5cm 무릎폭 84cm
아미타여래 높이 87.5cm, 무릎폭 64.5cm
약사여래좌상 높이 88.5cm, 무릎폭 64.0cm
- 재 질: 나무
- 형 식: 석가여래 아미타여래 약사여래의 삼불형식
- 조성연대: 1654년(효종 5)
- 제 작 자: 海心, 性守, 勝秋, 敏機, 道均, 妙寬, 勝照, 勝悅, 智文, 信日, 明照, 景性, 一安, 處仁, 元辨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조성발원문 재검토 의견】

○



2016년 7월 20일에 실시된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추가조사에서 본존 석가여래좌상의 발원문 원본을 확인하였고, 향좌측의 아미타여래좌상에서도 조성발원문을 찾아 조사하였으나 향우측의 약사여래좌상에서는 발원문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조사된 2장의 발원문은 한지에 묵서된 것으로서 본존석가여래좌상의 조성발원문은 가로 70cm x 세로 51.5cm, 아미타여래좌상의 발원문은 가로 71cm x 세로 50cm 크기였으며 쓰여진 내용은 거의 같았다. 이 밖에도 법화경과 달라니가 함께 나왔고, 본존상의 손목 안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11장의 색지에는 시주물목과 시주자들 이름이 적혀 있었다.

불상의 조성발원문은 원래 앞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조선 후기 발원문에서 보통은 조상불사의 배경에 대한 긴 설명이 앞부분을 장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응전과 명부전 여러 존상의 시주질과 화원질(조각승)에 대한 기재는 상세하게 되어 있다. 특히, 새로 발견된 아미타여래상의 발원문에 쓰여진 화원질에서 수조각승 해심의 스승인 무염의 이름이 해심의 이름 앞에 “양사무염(良師無染)”이라고 짚은 먹으로 추가한 점은 흥미롭다(참고사진).

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은 향우측의 약사여래좌상 복장 바닥을 막고 있던 10.5cm x 10.5cm 크기의 봉합목에는 “좌보 유리광불 약사여래 동방만월세계(左補 琉璃光佛 藥師如來 東方滿月世界)”라는 목서가 있어 약사여래상이 본존석가상의 좌보처로서 봉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존 석가여래좌상의 손목 안쪽에서 발견된 11장의 색지 가운데 가로 7cm, 세로 27cm의 색지에는 “문수사 개금대시주(文殊寺 改金大施主)…”라는 명문이 쓰여 있어 이 삼불상이 처음부터 문수사에서 조성·봉안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삼불상이 문수사에서 尙裕스님이 화주를 맡아 1654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은 문수사에 전해오는 「문수사창건기(文殊寺 創建記)」(1758년) 현판과 「고창현축[취]령산문수사한산전중창기(高敞縣 鷲嶺山 文殊寺 寒山殿 重 創記)」(1843년)에도 보이고 있어 불상 조성발원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불상 조성발원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대덕질(大德秩)과 증명(證明)으로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년)이 올라있는 점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승군을 이끌었고, 팔도도총섭(八道都總攝)이 되어 남한산성을 축조하였으며 전란에 훼손된 사찰을 중건하는 일에 앞장서 쌍계사 구례 화엄사, 완주 송광사, 하동 쌍계사 중건의 주축이 되었던 벽암각성이 문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의 조성에도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

2016년 7월 20일, 불상 3존 속에 봉안된 조성발원문을 조사한 결과, 목조석가모니불좌상과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발원문이 각각 1매씩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목조삼세불좌상이 조성되던 조선시대 1654년에는 원래 3매의 조성발원문이 작성되어 3존에 각각 1매씩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2매만 남아 있다. 이들 조성발원문은 목조석가모니불좌상과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들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불상 3존 전체의 대시주자로 戶長 李時一이 확인되며, 목조석가모니불좌상은 金訥山 부부가, 목조아미타불좌상은 李叅內 부부가 공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매의 조성발원문 중에서 목조약사불좌상과 관련된 발원문이 없어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셋째, 목조삼세불좌상 중에서 좌협시 불상이 약사불좌상이라는 것은 불상 밑바닥의 복장 봉합판 안쪽에 “左補 琉璃光佛 藥師如來 東方滿月世界”라는 묵서명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넷째, 문수사 목조삼세불좌상은 2매의 조성발원문에서 “文殊寺”나 “文殊寺 寒山殿” 등 문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금은 없어진 또 다른 조성발원문에서 절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절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비록 조성발원문에서 명확하게 문수사나 문수사 한산전과 같은 절 이름이 확인되지 않으나 목조삼세불좌상이 조선시대 17세기 중반에 조성된 불상의 조형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고, 특히 조각승 無染과 海心の 작품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 조성발원문과 목조삼세불좌상과의 관련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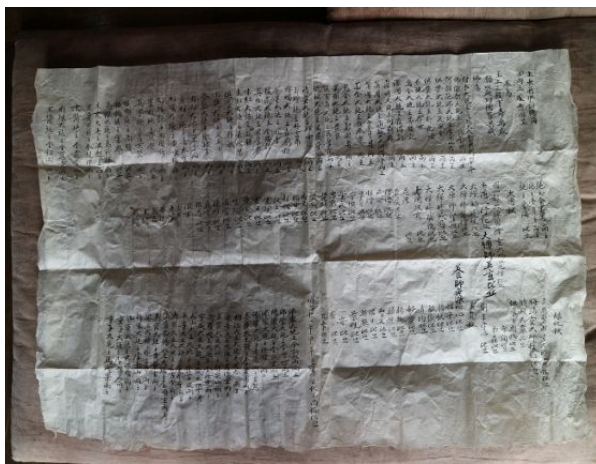
따라서 문수사 목조삼세불좌상은 조선시대 1654년에 조성된 기년명 불상이라는 것이 분명하며,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

<석가여래좌상 발원문> 51.5×70.0



<아미타여래좌상 발원문> 50×71.0



2016년 7월 20일 문수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가여래·아미타여래·약사여래 3구에 대한 발원문(복장유물 포함) 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장유물은 표지를 뜯어 납입한 落張의 『묘법연화경』과 낱장으로 이루어진 다리니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조성발원문은 석가여래좌상과 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2001년 개금불사 시 납입한 발원문과 후령통도 확인하였다. 석가여래좌상의 발원문은 이미 조사되어 소개된 바 있고, 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것은 기존에 소개되지 않았던 발원문이다. 약사여래좌상에서는 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미타여래좌상에서는 석가여래상에서 발견된 것과 인명의 위치나 순서, 한자음의 표기 등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거의 같은 내용의 발원문이 발견되었다. 이들 발원문은 조사 후 관리상의 문제로 다시 복장하였다.

발원문에는 문수사라는 봉안 사찰명이 등장하지 않아 애초부터 문수사에 봉안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1758년의 「文殊寺朔建記」 현판과 1843년의 「高敞縣鷲嶺山文殊寺寒山殿重朔記」 등에는 1654년에 化主僧 尙裕에 의해 삼불존상과 시왕존상 제작을 하였다는 기록과 발원문의 기록이 꼭 일치하므로 원래부터 문수사 대웅전에 봉안하고자 제작된 불상이 분명하고, 발원문 역시 제작 당시인 1654년에 작성하여 납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금 중수때 색지에 시주물 목록과 시주자를 기록한 11점(크기는 대략 25.5×7.5cm)의 ‘시주헌납기’ 중에 ‘文殊寺改金大施主 長城…’라고 적은 있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 해준다.

○ 아미타여래좌상(우) 발원문

上來所修功德海

回向三處悉圓滿

奉爲

主上三殿下壽萬歲

願以此功德皆共成

佛道

村木大施主 通政大夫曹終得 單身

佛像都大施主 戶長李時一 兩主

阿彌陀佛大施主 李恁乃 兩主

供養大施主 文風金 兩主

供養大施主 朴光海 兩主

布施大施主 洪存世 兩主

烏金大施主 吳樓訖 兩主

蒲團大施主 崔得訓 兩主
蒲團大施主 閑影勝 兩主
蒲團大施主 通政大夫洪得守 兩主
面金大施主 曹白(+ㄱ) 兩主
面金大施主 白奉連 兩主
烏金大施主 鄭閑男 兩主
褰布大施主 貴良 兩主
喉靈通大施主 高厚元 兩主
琉璃大施主 朱連守 兩主
清蜜大施主 理西非 兩主
引燈大施主 朴言希 兩主
燈燭大施主 崔影相 兩主
座臺大施主 禮生 兩主
腹藏大施主 金樓訖 兩主
眞粉大施主 宋厚景 兩主
朱紅大施主 朴龍孫 兩主
朱紅大施主 梁德男 兩主
供養大施主 朴敏 兩主
末醬大施主 文玉末 兩主
食塩大施主 張祿立 兩主
引灯大施主 宋丁同 兩主
引灯大施主 姜太雲 兩主
灯燭大施主 黃順梅 兩主
灯燭施主 斑俊暎 兩主
褰布施主 覺澄 比丘
眞墨施主 崔忞山 兩主
鐵物施主 尙明 比丘
鐵物施主 雪岑 比丘
魚膠大施主 馬戒祥 兩主
木末大施主 洪起立 兩主
末醬大施主 金龍伊 兩主
末醬施主 金貴金 兩主
明珠大施主 金應龍 兩主

末醬施主 金_釧同 兩主

施主 金末男 兩主

施主 金白_卜 兩主

施主 會海 比丘

大德秩

國一都大禪師碧峰堂大師覺性比丘

老德一行比丘 大禪師正玄比丘

大禪師戒珠比丘

大禪師智行比丘

大禪師印旭比丘

大禪師戒愚比丘

大禪師敬悅比丘

老德 仅元比丘

道淳 比丘

覺俊比丘

信悟比丘

戒倫比丘

性_衍比丘

曇日比丘

宗海比丘

曇花比丘

惠默比丘

覺林比丘

道默比丘

戒文比丘

勝甘比丘

性林比丘

仅云比丘

靈現比丘

靈日比丘

廣全比丘

靈瑞比丘

海澄比丘

德雄比丘

萬言比丘

哲忍比丘

海生

玉生

者ㄋ卜

春桂

龍吉

末龍

鳳鶴

緣化秩

證明碧峰堂大師覺性比丘

晦跡堂大師性悟比丘

持殿 大嚴比丘

供養主 明悟比丘

智詢比丘

釋森比丘

別座 淨心比丘

畫員秩

養師無染 海心比丘

性守比丘

勝秋比丘

敏機比丘

道均比丘

妙寬比丘

勝照比丘

勝悅比丘

智文比丘

信日比丘

明照比丘

景性比丘

一安比丘

處仁比丘

元卞比丘

順治十一年甲午暮春日化主尙裕比丘

佛像大施主 金訥叱山兩主

佛像大施主 金白ㄱ世兩主

佛像大施主 金仁生兩主

佛像大施主 徐鉉 兩主

佛像大施主 亓德 兩主 靈駕

秦廣大王施主 李貴男兩主

初江大王大施主 德春兩主

宋帝大王大施主 高億生兩主

五官大王大施主 鄭莫山兩主

閻羅大王大施主 金汝建兩主

變成大王大施主 愛玉單身

太山大王大施主 崔言風兩主

平等大王大施主 李今守兩主

都市大王大施主 崔吉金兩主

五道轉輪大王大施主 李順生兩主

判官大施主 黃葉生兩主

鬼王大施主 朴言希兩主

將軍大施主 李南山兩主

童子大施主 李盤石兩主

童子大施主 馬戒宗兩主

○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추가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발원문 및 복장 전적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존 석가여래좌상과 향좌측의 아미타여래좌상에서 확인된 조성발원문

은 내용을 비교할 때 동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된 2장의 발원문은 한지에 묵서된 것으로서 쓰여진 내용은 같으나, 인명의 표기에서 음이 같은 다른 한자의 사용 그리고 추기(追記)한 인명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발원문에 보이는 상유(尙裕)스님이 화주를 맡아 문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을 1654년에 조성하였다는 사실은 문수사에 전해오는 「문수사창건기(文殊寺創建記)」(1758년) 현판과 「고창현축[취]령산문수사한산전중창기(高敞縣鷲嶺山文殊寺寒山殿重創記)」(1843년)에도 보이고 있어 불상 조성발원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둘째, 향우측의 약사여래좌상에서는 발원문 없이 2종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만을 확인하였으나 본존 석가여래좌상과 향좌측의 아미타여래좌상에서 확인된 복장 전적가운데 『묘법연화경』이 같은 판본이라는 점에서 본래 같은 내용의 발원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존 석가여래좌상의 손목 안쪽에서 발견된 11장의 색지 가운데 가로 7cm, 세로 27cm의 색지에는 “문수사 개금대시주(文殊寺 改金大施主)…”라는 명문이 쓰여 있어 이 삼불상이 처음부터 문수사에서 조성·봉안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넷째, 문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에서 확인되는 복장 전적류 가운데 1584년(선조17) 전라도 부안 지능가산(地楞伽山) 실상사(實相寺)에서 개판한 『묘법연화경』은 석가여래좌상 복장에서 卷1(1장~15장)/卷5(12장~29장)/卷7(45장~54장), 아미타여래좌상 복장에서 卷3(17장~23장), 약사여래좌상 복장에서 卷3(1장~16장) 등이 확인되고 있어 동시기 인출하여 같은 시기에 복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석가여래좌상 복장 발원문 및 전적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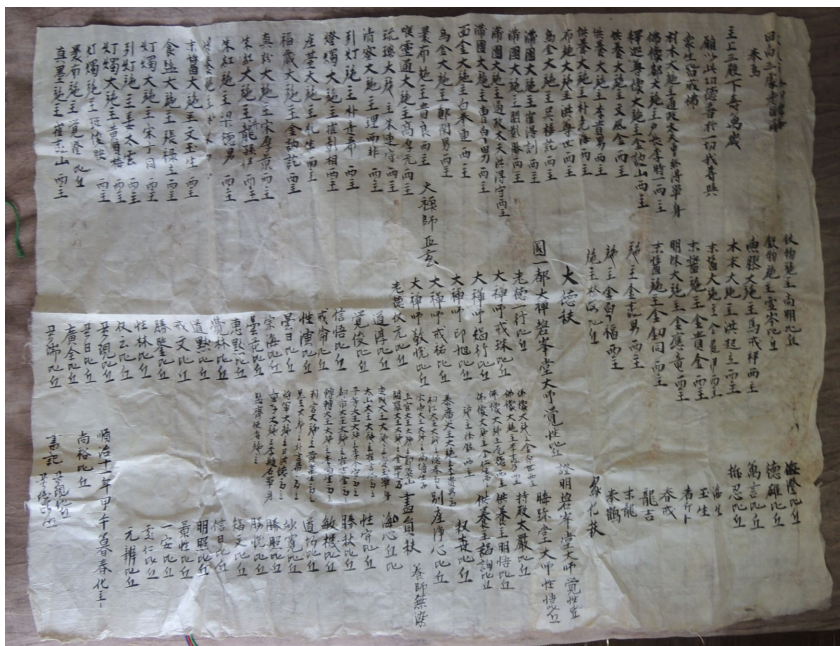
① 조성발원문(造成發願文)

수 량 : 1장
규 격 : 51.5×70.0(cm)
판 종 : 필사(筆寫)
형 식 : 낱장

작성연대 : 1654년(順治十一年, 효종5)

날장 1매의 백지(白紙) 위에 필사하였다. 전체를 크게 3단으로 구획하여 시주질(施主秩), 대덕질(大德秩), 연화질(緣化秩), 화원질(畫員秩)에 속하는 인물 104명을 나열하였으나, 2단과 3단 사이에 시왕전의 불상 조성에 참여한 시주자 20명의 명단 그리고 화원의 명단을 적기 전 양사(養師) 무염(無染)을 함께 적고 있어 흥미롭다.

1단의 시주질은 전체 40행으로 재목대시주(村木大施主) 통정대부(通政大夫) 조종득(曹終得)으로부터 진묵시주(眞墨施主) 최말산(崔耒山) 양주(兩主)까지 34명이 수록되었다. 1단에 이은 2단의 시주질에 나오는 인물은 11명이다. 시주질에 이어 나오는 대덕질은 국일도대선사(國一都大禪師) 벽봉당대사(碧峰堂大師) 각성비구(覺性比丘)로부터 영서비구(靈瑞比丘)에 이르기까지 27명의 스님이 나열되어 있다. 마지막 3단에는 2단의 대덕질에 이어지는 11명의 스님 명단이 있고, 연화질에는 증명(證明)인 각성(覺性)으로부터 별좌(別座) 정심비구(淨心比丘)까지 7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화원질은 해심비구(海心比丘)로부터 원변비구(元卮比丘)까지 15명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 끝부분에는 순치11년(順治十一年)의 간기와 함께 화주(化主)인 상유비구(尙裕比丘)와 함께 영현비구(靈現比丘)와 영서비구(靈瑞比丘)가 서기(書記)로서 기록되어 있다.



釋迦如來坐像 順治十一年 造成發願文

②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수 량 : 卷1(1장~15장)/卷5(12장~29장)/卷7(45장~54장)

규 격 : 반곽20.7×13.5, 31.5×19(cm)

관 종 : 목판본(木版本)

형 식 : 낱장(紙심으로 가철)

작성연대 : 1584년(萬曆12, 선조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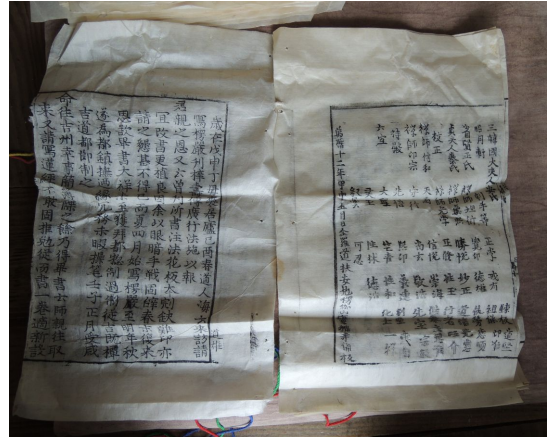
조사본은 『묘법연화경』 권1(15장), 권5(12~29장), 권7(45~59장)의 일부만 남아 있는 잔질본(殘帙本)이다. 책이 흩어지지 않도록 종이 심지로 묶어 책을 고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한 역본에 송(宋)의 계환(戒環, ?~?)이 주해(註解)한 7권본가운데 일부이다.

이 판본은 1443년(正統8, 세종25) 당대의 명필가인 성달생(成達生)이 필사하고 효령대군(孝寧大君) 및 영흥대군(永興大君) 등 왕실에서 대거 참여하여 전라도 고산지화암사(高山地花岩寺)에서 찍은 『묘법연화경』을 1584년(선조17) 전라도 부안 지능가산(地楞伽山) 실상사(實相寺)에서 개판한 것이다. 판식의 특징을 보면, 광곽은 사주단변으로 반곽의 크기는 20.7×13.5(cm)로서 10행 20자로 되어 있다.

이 판본으로 지정된 자료는 영광 연흥사소장 묘법연화경(전남 유형문화재 제 175호)이 있다.



妙法蓮華經 卷七 跋



妙法蓮華經 卷七 萬曆十二年 跋

③ 다라니(2종)

수 량 : 대불정수능엄신주 14매/진언다라니 5매

규 격 : 14.2×43.6(cm)/20×46.2(cm)

판 종 : 목판

형 식 : 낱장

작성연대 : 조선 중기



大佛頂首楞嚴神呪



진언다라니

④ 시주물목(施主物目)

수 량 : 11매

규 격 : 26.3~26.5×7.0~7.5(cm)
판 종 : 필사(筆寫)
형 식 : 낱장
작성연대 : 1654년(順治十一年, 효종5)



시주물목

본존상의 손목 안에서 발견되었다. 11장의 색지에 문수사가 위치한 본현(本縣)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시주한 물목과 시주자들 이름이 적혀 있다.

특히 11장의 색지 가운데 가로 7cm, 세로 27cm의 색지에는 “문수사 개금대시주(文殊寺 改金大施主)…”라는 명문이 쓰여 있어 이 삼불상이 처음부터 문수사에서 조성·봉안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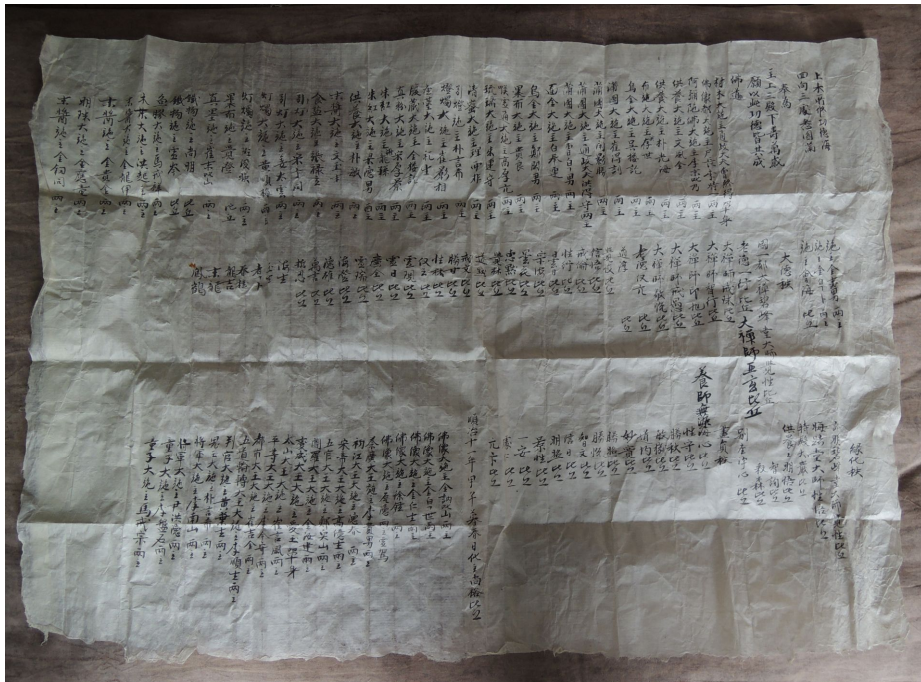
2. 아미타여래좌상 복장 발원문 및 전적류

① 조성발원문(造成發願文)

수 량 : 1장
규 격 : 50×71.0(cm)
판 종 : 필사(筆寫)
형 식 : 낱장
작성연대 : 1654년(順治十一年, 효종5)

석가여래좌상 복장에서 확인된 발원문과 내용상 일치하나 1단의 시주질이 전

체 47행으로 되어 있는 차이에서 보듯이 세필(細筆)을 사용하여 정서하였다는 차이가 나타난다. 낱장 1매의 백지(白紙) 위에 필사하였는데, 전체를 크게 3단으로 구획하여 시주질(施主秩), 대덕질(大德秩), 연화질(緣化秩), 화원질(畫員秩)에 속하는 인물을 나열하였다. 석가여래좌상의 발원문과 비교하여 인물은 동일하나 음이 같은 다른 한자를 사용한 사례가 일부 확인된다. 또한 석가여래좌상의 발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대선사(大禪師) 정현비구(正玄比丘)는 먹색이 다른 것으로 보아 추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석가여래좌상의 발원문에서 2단과 3단 사이에 적어 놓았던 시왕전의 불상 조성에 관여한 시주자 명단은 문서의 끝에 있는 순치11년(順治十一年)의 간기 뒤에 옮겨 적었고, 명단도 1명이 추가되어 21명이 확인된다.



阿彌陀如來坐像 順治十一年 造成發願文

②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2중

수 량 : 卷3(17~23장) [능가산(楞伽山) 실상사(實相寺) 개판본]

卷1(42~51장)

규 격 : 반곽20.7×13.5, 31.5×19(cm)

반곽20.7×13.5, 31.5×19(cm)

판 종 : 목판본(木版本)

형 식 : 종이 심지로 가철

작성연대 : 1584년(萬曆12, 선조17)

『묘법연화경』 권3(17~23장)은 석가여래좌상 복장에서 확인된 1584년(선조 17) 전라도 부안 지능가산(地楞伽山) 실상사(實相寺)에서 개관한 판본이다. 석가여래좌상의 복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권3의 잔질이다.

한편, 『묘법연화경』 권1은 8행 13자본으로 판각 및 인출시기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다라니

수 량 : 대불정수능엄신주

규 격 : 14.2×43.6(cm)/20×46.2(cm)

판 종 : 목판

형 식 : 낱장

작성연대 : 조선 중기

석가여래좌상 복장에서 확인된 다라니와 동일하다.

3. 약사여래좌상 복장 발원문 및 전적류

1.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2종

수 량 : 卷3(1장~16장) [능가산(楞伽山) 실상사(實相寺) 개관본]

卷1(1장-13장)

규 격 : 반곽20.7×13.5, 31.5×19(cm)

반곽20.7×13.5, 31.5×19(cm)

판 종 : 목판본(木版本)

형 식 : 종이 심지로 가철

작성연대 : 1584년(萬曆12, 선조17)

『묘법연화경』 권3(17~23장)은 석가여래좌상 복장에서 확인된 1584년(선조 17) 전라도 부안 지능가산(地楞伽山) 실상사(實相寺)에서 개판한 판본이다. 석가여래좌상의 복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권3의 잔질이다.

한편, 『묘법연화경』 권1(1장~13장)은 아미타여래좌상 복장에서 확인된 『묘법연화경』 권1(17장~23장)의 잔질이다.



妙法蓮華經 卷三



妙法蓮華經 卷一

【1차 지정조사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조형적으로 뛰어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발원문을 통해 1654년이라는 제작연도와 해심을 비롯한 무염과 조각승들이 제작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어 조선후기 17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불상조성의 여러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고창 문수사 목조삼세불좌상은 목조석가모니불좌상에서 발견된 1654년명 조성 발원문과 1758년의 [문수사창건기文殊寺創建記], 1843년의 [고창현축령산문수사한산전중창기高敞縣鷲嶺山文殊寺寒山殿重創記]를 통하여 1654년에 조각승 해심海心 등에 의해 조성된 불상으로서, 조선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의 중요한 기준작이다.

고창 문수사 목조삼세불좌상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조각 수준도 뛰어난 편으로, 조각승 해심과 그의 스승 무염의 작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불상이다.

비록 불상과 관련된 여러 기록에서 불상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으나, 도상적인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 삼세불상일 가능성이 높다.

고창 문수사 목조삼세불좌상은 역사성과 예술성, 희소성을 갖춘 불상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정 명칭에서 선례를 통하여 불 때 “고창 문수사 목조삼세불좌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문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은 임진왜란·정유재란 이후 황폐해진 불교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신앙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았던 시·공간적 의미를 담은 삼불좌상이다. 불상은 17세기 전반기 불상에 비해 양감이 강조된 중량감 있는 형태미와 얇고 힘 넘치는 간결한 선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불상 양식은 17세기 전·중엽경 전라도 지역을 기반으로 크게 활동한 조각승 무염과 조각의 특징이다. 이 삼불좌상은 수조각승 해심이 조각한 것으로, 그는 무염의 조각을 계승한 조각승으로, 이곳에는 그의 스승의 조각풍에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조각적 의지를 더해 담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조각승 해심은 1930년대부터 스승인 무염의 문하에서 조각수업을 배웠으며, 1640년대 후반부터는 일군의 조각승을 이끌 수조각승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해심이 1648년에 師翁 幸思, 養師 無染을 위로 모시고 首畫員으로 참여한 해남 도장사 석가여래삼존좌상이 있지만, 현재 1구가 결손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스승의 지도 하에 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문수사 불상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수조각승 해심의 조각 작품 중, 완성도와 완결성 등을 두루 갖춘 그 첫 번째 작품이라는데 중요한 조각사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복장 발원문을 통해 당시의 최고승 벽암각성, 회적성오, 상유 등 벽암각성의 문도들에 의해 불사가 주도되고 있다는 점도 조선후기 불교사에서 중요한 대목이며, 그리고 제작시기, 제작주체와 조각승, 그리고 발원목적 등이 두루 알려져 있어 17세기 조각사에 중요한 기준 자료가 되는 점도 물론 중요하다. 한편 대좌에는 불상이 제작된 이후 190년이 지난 1844년에 백과 공선의 증명으로 원담 내원이 중수화원으로 참여하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불상의 수리 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삼불상은 17세기 중엽 경 불교 조각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고창 청량산 문수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24교구 선운사의 말사이다. 이 절의 대웅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 51호)은 효종 4년(1653)에 중창되었는데, 그 이듬해 3월에 석가·약사·미타의 석가여래삼불좌상이 조성·봉안되었다. 문수사 한산전(寒山殿)에 걸려있는 <문수사창건기>(1758년) 및 <고창현취령산문수사한산전중창기>(1843년)에는 1653년에 회적당(晦迹堂) 성오대사(性悟大師)가 대웅전을 창건하였고, 1654년에 상유비구(尙裕比丘)가 불상삼존과 시왕을 새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최근 본존 석가불상의 복장에서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어 1654년에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세 구의 불상은 모두 몸을 앞으로 약간 굽힌 자세로 앉아 있는데, 좌우 협시 불상들에 비해서 중앙의 석가불좌상이 크다. 머리와 육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구형(球形)의 두부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髻珠)와 반달형의 중계주가 새겨져 있고, 수평적인 발제선 아래에 비교적 넓은 이마가 표현되었다. 방형에 가까운 둥근 얼굴은 이마가 넓고 뺨은 통통하며 눈은 반개하였다. 콧날은 위쪽의 콧부리 부분이 돌출되어 오뚝함이 강조되었고 인중은 선명하며 입가에 미소를 띠었다.

중앙 본존상은 오른쪽 어깨에 대의(大衣, 袈裟)가 살짝 걸쳐진 편단우견식(涼州

式 偏袒右肩)으로 착의하였고 가슴에는 내의(內衣)가 수평으로 표현되었다. 수인은 오른손을 내려 아래를 향한 향마촉지인을 결하였고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살짝 맞대어 설법인(說法印)을 나타내었다. 결가부좌한 다리를 덮은 옷자락은 양쪽 다리에는 대칭적인 3단의 층단 주름을 이루었고 발목부근에서 접하여 바닥으로 둥근 주름을 이루며 흘러내렸다. 상의 바닥에는 道光 24년 甲辰年에 중수되었다는 묵서명(墨書銘)이 쓰여있다.

좌우의 약사불과 아미타불상은 기본적으로 본존 석가불상과 유사하나, 수인과 착의형식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향 우측의 약사여래상은 가사를 두 벌 겹쳐 입어 2중 착의 형식으로도 불리며, 오른쪽 어깨에 부견의(覆肩衣)를 걸친 변형 편단우견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내의 및 다리와 무릎 아래의 옷주름은 본존상보다 단순하고, 두 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설법인[下品中生印]을 결하고 있다. 향 좌측의 아미타불좌상은 수인이 반대로 된 것 외에는 약사불상과 동일하다.

편단우견(偏袒右肩)의 착의형식으로 표현된 대의(大衣)는 오른쪽 어깨에서 팔꿈치를 지나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가면서 가슴에 넓은 U자형의 곡선을 이루어 드러난 내의는 수평을 이룬다. 두 손은 가슴 앞으로 모아서 오른손 검지위에 왼손의 검지를 올린 지권인(智拳印)을 결했다.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려 향마좌의 좌세로 앉은 다리 위에는 옷주름이 복잡하게 새겨져있고 오른발 끝은 치마[裙] 자락에 덮혀 있다.

○ 내용 및 특징

석가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1654년 3월에 봉안된 삼불상의 제작에 벽암각성(碧峰覺性), 회적성오(晦跡性悟)가 증명(證明)으로 참여하였고, 해심(海心)이 수조각승을 맡아, 성수(性守), 승추(勝秋), 민기(敏機), 도균(道均), 묘관(妙寬), 승조(勝照), 승열(勝悅), 지문(智文), 신일(信日), 명조(明照), 경성(敬性), 일안(一安), 처인(處仁), 원섭(元變) 등, 모두 15명의 조각승들이 조성하였다. 이들 조각승의 이름이 기록된 화원질(畫員秩) 아래에는 ‘養師 無染’이라고 적혀있어, 문수사 조상불사에 해심의 스승인 무염이 직접 관여하였다기보다는 무염의 제자들이 스승의 이름을 적어 자신들의 위상을 밝히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같은 해에 조성된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발원문의 화원질(畫員秩)에도 이와 유사하게 ‘良師無染 兄正玄 首海心’이라고 쓰고 있어, 실제로는 해심이 수조각승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수사불사에서 불상제작을 총지휘한 것은 해심이었던 것 같다.

수조각승 해심의 스승으로 알려진 무염은 17세기 중엽 호남지역 조각계를 대표하는 조각승으로 그가 제작한 불상은 선운사 대웅보전 삼신삼세불좌상(1633년)을 비롯해서, 영광 불갑사 대웅전 삼세불좌상(1635년),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50년),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좌상(1651년)과 지장보살좌상

상, 불갑사 명부전 지장보살상과 시왕상(1654년), 완주 송광사 나한전 석가삼존상과 십육나한상(1656년, 발원문傳)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무염의 상수제자로 생각되는 해심은 1633년에는 무염의 보조 조각승으로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삼세불좌상조성에 참여하였고, 수조각승으로는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1648년), 고창 문수사 대웅전과 명부전 불상(1654년),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1654년)을 제작하였다. 차조각승 성수性守, 性修는 무염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고창 선운사 목조삼신불좌상(1633년)와 영광 불갑사 목조삼세불좌상(1635년)의 제작에서 道祐와 勝一에 이어 제 4위의 조각승으로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1651년) 제작에서는 무염의 차조각승이 되었고 ‘養師’로 불리는 것으로 보아서 조각승들 가운데 비교적 연배가 높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제 3위 조각승인 승추勝秋는 해심의 보조 조각승으로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불상과 보살좌상(1648년)을 제작하였던 인물이고, 제 4위 조각승인 민기敏機 역시 수조각승 해심을 따라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불상과 보살좌상(1648년) 제작에 참여하였고, 무염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지장보살좌상(1651년)의 제작에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하였으며, 해심이 수조각승을 맡은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1654년)을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제 5위 조각승 도균道均은 해심과 함께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불상과 보살좌상(1648년) 제작에 참여하였고, 수조각승 무염을 따라서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오백나한상(1656년) 제작에 참여하였다. 제 6위 조각승 묘관妙寬은 해심과 함께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1654년)과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1654년)을 제작에 참여하였고, 응원·인균계 조각승으로 추정되는 삼인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고흥 금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에 참여했다. 제 7위의 조각승 승조勝照는 수조각승 해심과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1653년) 제작에 참여하였고 승일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동학산 용밀사 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1660년, 현재 서울 청룡사 봉안) 제작에 次조각승으로 참여한 바있다. 제 8위 조각승 승렬勝悅은 해심을 따라 고창 문수사 불사에 참여한 기록만 전하고 있고, 제 9위 조각승 지문智文은 해심과 고창 문수사와 영광 불갑사 조상불사에 참여했다. 제 10위 조각승 신일信日은 고창 문수사, 영광 불갑사 불사 외에 惠熙가 수조각승을 맡았던 고산 용유사 목조약사불좌상(1677년, 현재 전주 일출암 봉안)제작에 참여했다. 제 11위 조각승 명조明照는 수조각승 해심과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불좌상,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1654년) 제작에 참여하였다. 제 12위 조각승 경성敬性은 대전 비래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51년)과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1652년) 제작에 수화승 무염의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수조각승 해심과는 고창 문수사 불사에 함께 참여했으며, 이 밖에 수조각승 자수(自修)와 응천 성흥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1673년, 해인사 명부전 봉안), 수조각승 계주와는 고창 선운사 참당암의 불단(1684년)을 제작하였다. 제 13위 조각승 일안一安은 수조각승 해심과 고창 문수사와 영광 불갑사 불사에 참여한 기록만 전한다. 제 14위 처인處仁은 수조각승 무염과 함께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지장보살좌상(1651년)의 제작에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하였으며 海心과는 고창 문수사, 영광 불갑사 불사에 참여했다. 마지막 제 15위 원변元變은 고창 문수사 불사에만 이름이 보인다.

□

○ 현 상

고창 문수사 목조삼세불좌상과 관련되는 절의 역사는 조선시대 선조 40년(1607)에 증건하고 효종 4년(1653)에 대웅전을 증창한 것이다. 문수사는 백제 의자왕 3년(643)에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의 도량으로 창건된 절이라고 전해져 내려오지만, 자장이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 643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기록은 못된다. 조선시대 중기에 증건과 증창을 거쳐 다시 영조 40년(1764)과 헌종 1년(1835)에 중수하고, 1876년 고창현감 김성로의 시주로 목암스님이 중수한 후 지금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문수사 목조삼세불좌상은 현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 51호인 대웅보전(도1)에 봉안되어 있다. 불상 조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이 남아 있다. 즉 한산전寒山殿에 걸려있던 1758년의 [문수사창건기文殊寺創建記]와 1843년의 [고창현축령산문수사한산전중창기高敞縣鷲嶺山文殊寺寒山殿重創記], 목조석가모니불좌상에서 발견되었던 1654년명 조성발원문, 불상 중수와 관련된 1844년의 목조석가모니불좌상 대좌 위의 묵서(도2) 등이 그것이다. 즉 1653년 회적당晦迹堂 성오대사性悟大師가 대웅전을 창건한 후 1654년 상유비구尙裕比丘가 불상 3구와 시왕상 등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회적당 성오가 벽봉당碧峰(巖)堂 각성覺性과 함께 불상 조성의 증명을 맡았으며, 상유의 총지휘 하에 조각승 해심海心, 성수性守, 승추勝秋, 민기敏機, 도균道均, 묘관妙寬, 승조勝照, 승열勝悅, 지문智文, 신일信日, 명조明照, 경성敬性, 일안一安, 처인處仁, 원섭元變 등이 조성하였다고 한다. 또한 2001년, 목조삼세불좌상을 개금 과정에서 석가모니불좌상의 좌대 아래 부분에서 도광 24년(1844) 5월 18일 해운당의 시주에 의해 중수하였다는 묵서가 발견되었다.

불상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중수와 개금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조아미타불좌상의 왼손 약지가 부러져 접착해 놓은 것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다. 불상은 목조석가모니불좌상의 오른손을 제외하곤 손은 따로 제작하여 끼운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목조삼세불좌상(도3)은 부분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형식과 양식 면에서 거의 비슷하다. 조성발원문에서 각 존상에 대한 존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기년명 불상들의 예를 통하여 볼 때, 삼세불상으로 추정된다. 즉 중앙의 불상이 약간 크고, 축지인을 결한 점, 양옆 불상이 크기와 조형적인 면에서 거의 같다는 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삼존의 불상은 중앙의 석가모니불상을 중심으로 왼쪽의 약사불상과 오른쪽의 아미타불상으로 구성된 횡삼세불상이다.

목조석가모니불좌상(도4)은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숙인 살찐 모습으로, 조형적인 비례는 적절한 편이다. 불상은 양쪽 어깨를 덮은 변형식 통견 착의법으로 법의를 착용하고 있으며, 가부좌를 하고 있다. 무릎 폭이 넓고 두꺼워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준다. 오른손은 축지인을 결하고 있으며,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채 왼쪽 무릎 위에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올려 놓았다. 법의는 양쪽 무릎 앞을 옆으로 가로지르는 서너 가닥의 옷주름에 보이는 형식적인 모습을 제외하곤 불신의 윤곽을 따라 유기적으로 처리된 편이다.

목조석가모니불좌상은 둥근 형태의 머리에 육계와 머리카락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편이며, 원통형의 낮은 정상 계주와 반원형의 중앙 계주를 하고 있다. 머리카락은 나발로 표현되었으며, 작고 촘촘한 편이다. 상호는 전체적으로 살찐 듯하지만, 후덕하고 인자한 모습이다. 얼굴은 이마의 좌우 폭이 턱의 폭보다 약간 넓은 둥근 형태를 하고 있으며, 오관은 집중된 편이다. 부은 듯한 눈두덩이와 가늘게 뜬 눈, 이등변 삼각형 형태의 오뚝한 코, 짧은 인중, 살짝 미소 띤 입, 크고 두꺼운 귀를 갖추고 있다. 입술 아래 중앙에는 작은 흠이 패여 있으며, 턱에는 음각선으로 이중턱이 표현되어 있다.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어 있다. 가늘고 긴 손에는 손톱이 표현되어 있으며, 개금이 두꺼워서인지 희미하게나마 손금도 확인된다.

목조석가모니불좌상의 복부 위에는 승지지의 띠매듭이 형식화된 듯 가로선이 여러 갈래 표현되어 있다. 목조석가모니불좌상은 목조약사불좌상,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달리, 대의가 오른쪽 어깨 위를 살짝 걸친 다음 오른쪽 팔꿈치 아래로 돌아 배 앞의 균의 자락 속으로 끼워 넣어져 있다. 따라서 오른쪽 어깨의 상당한 부분과 오른팔이 노출되어 있다.

목조약사불좌상(도5)과 목조아미타불좌상(도6)도 목조석가모니불좌상과 같이 살찐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비례는 적절한 편이다. 두 불상은 양손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도상적으로나 양식적으로 동일하다. 즉 목조약사불좌상은 왼손을 왼쪽 어깨까지 들어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채 손바닥을 위로하여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 놓았다. 목조아미타불좌상

은 오른손을 위로 들어 올렸으며, 왼손을 무릎 위에 두었다. 한편 두 불상은 목조석가모니불좌상과 달리, 대의가 오른쪽 어깨와 팔을 완전히 감싸고 있으며 눈꼬리가 더 올라가 있고, 인중이 약간 긴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배꼽 아래에서 다리 사이로 흘러내린 법의 자락의 표현에서 목조석가모니불좌상이 등간격의 부채꼴로 단순하게 처리된 반면, 목조아미타불좌상은 법의 주름을 입체적이고 부드럽게 표현하였으며, 목조약사불좌상은 가는 주름을 자연스럽게 펼쳐 놓은 듯하다. 이들 불상은 목조석가모니불좌상에 비해 보다 입체적으로 처리된 것이 특징이다.

목조삼세불좌상에서 보이는 이러한 조형적인 특징은 조성발원문에 기록된 화원 해심의 스승인 무염無染의 작품에서부터 보인다. 해심이 스승으로부터 사사했던 작품이 여전히 이들 불상에도 나타난 것이다. 불상은 1654년 3월에 조선 시대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조각승 해심 등 무염의 제자들에 의해 조성되었다. 해심은 1633년에 스승 무염이 조성한 전북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삼세불좌상 조성에 참여한 후, 수화승의 자격으로서 1648년에 전남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을 시작으로, 1654년에 문수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상과 목조시왕상, 같은해 7월에 전남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을 조성하였다.

한편 해심과 함께 참여한 조각승들은 대부분 조각승 무염의 유파에 속하는 사람들로, 1635년의 불갑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과 귀신사 대적광전 삼세불좌상 등의 조성에 참여하였는데,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17세기 전라도 지방의 조각승의 활동과 교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 내용 및 특징

고창 문수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의 말사로 백제 의자왕 3년 자장율사가 문수보살 도량으로 창건하였다고 전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사찰의 중창은 「文殊寺 勑建記」 현판(1758년), 「高敞縣 鷲嶺山 文殊寺 寒山殿 重勑記」 현판 (1843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보면 문수사는 1607년(선조 40)에 사찰을 중건하고, 사십여 년이 흐른 1653년에는 대웅전을 건립하고 1654년엔 대웅전 삼존상과 명부전 지장시왕상을 조성하여 가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후 1764년(영조 40)에 신화, 책영에 의한 중수, 1835년(헌종1)에 우흥에 의한 중수, 1844년(헌종 10)에 해운당의 시주에 의한 대웅전 삼불상을 중수하였고, 1876년에는 고창현감 金星老의 시주로 默庵이 중수하였다.

대웅전 삼불좌상과 관련하여 「문수사창건기」와 「고창현 취령산 한산전 중창

기」에는 공히 ‘1654년에 晦跡堂 性悟和尚의 제자인 尙裕和尚이 삼존을 새로 만드는 일과 시왕을 단청하는 일을 맡아 속히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상유화상의 주관 아래 불상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삼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사적현판들이 정확한 사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삼불상은 1654년 暮春(3월)에 尙裕和尚의 化主로 당시 불교계의 최고승인 碧巖 覺性(1575-1660)과 晦跡 性悟를 증명법사로 내세워 수많은 승속의 시주자들이 참여하여 만든 불상이다. 불상 제작에 참여한 조각승은 수조각승 海心과 보조조각승 性守, 勝秋, 敏機, 道均, 妙寬, 勝照, 勝悅, 智文, 信日, 明照, 敬性, 一安, 處仁, 元變 등이 참여 하였다. 이해심은 17세기 전반기 대표적인 조각승 중 한 명인 無染의 조각 전통을 계승한 조각승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런 관계로 이 작품에는 아직 무염의 조각적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하지만 이 불상은 그가 스승 무염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조각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그 첫 장을 장식하는 조각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본존불상 대좌에 묵서로 기록된 중수기에 의하면, 불상이 造成된지 190년이 지난 1844년(헌종10))에 白坡 巨璇(1767-1852)의 증명으로, 불화승으로 잘 알려진 圓潭 內圓이 중수에 참여하여, 삼존불상의 개금뿐만 아니라 명부전의 시왕상까지 개채하였다.



그림 1 고창 문수사 대웅전



그림 2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그림 3 목조석가여래좌상 대좌



그림 4 본존불 대좌 상면 중수문서

문수사 대웅전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는 삼존좌상은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따르면, 1654년에 조성된 것으로서 사적현판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한다. 이 삼존상은 중앙의 석가여래를 주존으로 좌우에 각각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를 봉안하여 시·공간적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삼불형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삼불형식은 임진왜란 이후 비로자나·약사·아미타로 구성된 삼불형식과 더불어 크게 유행한 삼불형식중 하나이다.

삼불좌상은 방형의 불단 위에 하대·중대·상대로 구성된 팔각대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하대는 마대와 족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족통과 족통 사이에는 운각을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중대는 3단의 받침대를 갖추고 있고, 궁판에는 꽃 무늬를 투각하였다. 상대는 4단의 받침대로 이루어져 있고, 연화좌는 남아 있지 않다. 조선 후기 일반적인 목조대좌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삼불상은 반구형의 머리에는 따로 제작한 나발을 촘촘하게 부착하였다. 머리와 육계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나 발제선부터 위로 5단 지점에 반달모양의 중앙계주를 두었고, 중앙계주를 중심으로 둥글게 나발을 붙여 나가는 일반적인 나발 부착 방식을 취하였다. 머리의 정상부에는 원통모양의 정상계주를 조각해 못으로 고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마는 넓고 편평하며 양미간에는 작은 백호를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부드럽게 솟은 눈썹 골 위로 푸른색 눈썹을 그려 넣었고, 양미간 사이에서 반듯하게 내려온 코는 살집이 풍만한 얼굴에 비해 작게 표현되었으며, 이에 상응하게 인중과 얼굴도 작고 아담한 모습이다. 얇은 입술 끝을 올려 상큼한 미소를 만들었으며, 턱은 길고 두툼하며 귀도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모습이다. 이렇게 양감이 풍부한 얼굴은 신흥사 아미타여래삼존상이나 완주 정수사 아미타여래삼존상 등 17세 중엽 경에 조성된 무염파의 말년 작품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하지만 무염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여 만든 작품에 비해, 양감은 줄고 이목구비는 작아져 중후한 중장년에서 귀엽고 통통한 청장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본존 석가여래는 가슴선과 맞물려 선의 강약을 조절하여 삼도를 표현하였고, 움푹하게 파낸 쇄골선은 추상적이며, 가슴은 듬직하지만 평면적이다. 착의는 오

른쪽 어깨를 살짝 덮는 형식의 편단우견이며, 왼쪽 어깨로 한번 접어 길게 드리워진 목깃 주름은 무염과 조각의 특징적인 주름 표현으로 볼 수 있고, 가슴에는 수평으로 야무지게 마무리한 치마의 끝단이 노출되었다. 군의 주름 아래의 복부는 볼록하게 표현하여 중후한 신체 굴곡을 드러내었다. 佛衣를 두텁게 걸쳤고, 주름은 불필요한 선들은 가급적 자제하고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수인은 석가여래의 가장 대표적인 수인중 하나인 항마촉지인으로, 오른손은 무릎 위에서 地神을 가리키는 촉지인을 결하였고 왼손은 선정인을 대신하여 중지와 약지를 느긋하게 구부려 엄지와 맞댄 설법인을 결하였다.



그림 5 아미타여래좌상(우)



그림 6 석가여래좌상(본존)



그림7 약사여래좌상(좌)

주름은 대체로 변화가 단조로운 직선과 곡선을 얇게 사용하였으며, 불필요한 주름은 최대한 배제하고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특히 왼쪽 어깨에 한번 뒤집어져 길게 내려오는 목깃 주름과 무릎 아래로 띠 주름을 중첩하여 형성한 부채살 주름, 오른쪽 발가락을 슬며시 감싸고 흘러내린 반달모양의 주름은 무염과 조각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지만, 주름의 깊이가 얇고 비례에 있어서도 얼굴이 작아지고 무릎이 넓어진 것은 수조각승 해심의 조각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좌협시 약사불상과 우협시 아미타불상은 본존 불상보다 약간 작게 만들어 존격의 차이를 두었으며 표현방식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좌우협시 불상의 착의법은 본존불상과 달리 두 장의 대의를 걸쳐 입은 이중착의법이고, 따로 제작하여 꽃은 두 손의 위치만 달리하여 좌우대칭을 이뤘으며, 수인은 모두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말아 맞댄 설법인을 결하였다.

이 삼불좌상은 조선후기 불상의 특징인 대중성 짙은 평담미(平淡美)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통통한 양감이 강조된 귀여운 얼굴, 싱그럽게 웃고 있는 자비충만한 상호, 역양의 변화가 드문 간결함이 느껴지는 선묘를 구사한 점, 무릎 앞으로 시원스럽게 펼쳐낸 부채살 형태의 주름 등에서 무염과 불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스승의 조각에 비해 널찍하게 자리 잡은 무릎과 양감이 줄어

든 작은 얼굴, 그리고 좀 더 작고 오밀조밀하게 표현된 이목구비, 얇게 회화적으로 표현된 주름선 등은 수조각승 해심이 추구하고자 했던 조각적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조각을 만든 수조각승 해심은 17세기 중반에 왕성하게 활동한 조각승으로, 그는 1633년에 수화승 무염을 도와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을 조성한 후, 1648년에 수화승으로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이외에도 1654년 수조각승 무염을 도와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시왕상을 조성하였고, 같은 해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시왕상을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한 무염과 조각승으로 파악되고 있는 인물이다.

○ 조성발원문(재복장)

上來所修功德海

回向三處悉圓滿

奉爲

主上三殿下壽萬世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

衆生皆成佛

材木大主通政大夫 曹終得 單身

佛像都大施主 戶長 李時一 兩主

釋迦尊像大施主 金訥(叱)山 兩主

供養大施主 文風金 兩主

供養大施主 李貴男 兩主

供養大施主 朴光海 兩主

供養大施主 洪尊世 兩主

烏金大施主 吳樓訖 兩主

蒲團大施主 崔得訓 兩主

蒲團大施主 閑影勝 兩主

蒲團大施主 通政大夫 洪得守 兩主

蒲團大施主 曹白(ㄱ)男 兩主

面金大施主 白奉連 兩主

烏金大施主 鄭閑男 兩主

褰布大施主 貴良 兩主

喉靈通大施主 高厚元 兩主

琉璃大施主 朱連守 兩主

清蜜大施主 里西非 兩主

引燈大施主 朴彥希 兩主

燈燭大施主 崔影相 兩主
座臺大施主 礼生 兩主
福藏大施主 金訥訖 兩主
眞粉大施主 宋厚景 兩主
朱紅大施主 朴龍孫伊 兩主
朱紅大施主 梁德男 兩主
供養施主 朴敏 兩主
末醬大施主 文玉生 兩主
食監大施主 張祿立 兩主
灯燭大施主 宋丁同 兩主
引灯施主 姜太雲 兩主
灯燭大施主 黃順梅 兩主
灯燭大施主 班峻映 兩主
褰布施主 覺澄 比丘
眞墨施主 崔忞山 兩主

鐵物施主 尙明 比丘
鐵物施主 雪岑 比丘
魚膠大施主 馬戒祥 比丘
木末大施主 洪起立 兩主
末醬大施主 金龍伊 兩主
末醬施主 金貴金 兩主
明珠大施主 金應龍 兩主
末醬施主 金劬同 兩主
施主 金末男 兩主
施主 金白(ㄱ)福 兩主
施主 檜海 比丘

大德秩
國一都大禪師碧峰堂大師 覺性比丘

老德 一行 比丘
大禪師 戒珠 比丘
大禪師 智行 比丘

大禪師 印旭 比丘
大禪師 戒祐 比丘
大禪師 敬悅 比丘
老德 仅元 比丘
道淳 比丘
覺俊 比丘
信悟 比丘
戒倫 比丘
性演 比丘
曇日 比丘
宗海 比丘
曇花 比丘
惠默 比丘
覺林 比丘
道默 比丘
戒文 比丘
勝鑿 比丘
性林 比丘
仅云 比丘
靈現 比丘
靈日 比丘
廣全 比丘
靈瑞 比丘

佛像大施主 金白(ㄅ)世 兩主

佛像大施主 李恣乃 兩主

佛像大施主 亓德 兩主 兩主

佛像大施主 金仁生 兩主

施主 徐鉉 兩主

秦廣大王大施主 李貴男 兩主

初江大王大施主 德春 兩主

宋帝大王大施主 高億生 兩主

五官大王大施主 鄭莫山

閻羅大王大施主 金汝建 兩主

變成大王大施主 愛玉 單身

太山大王大施主 崔言風 兩主
平等大王大施主 李今守 兩主
都市大王大施主 崔吉金 兩主
轉輪大王大施主 李順生 兩主
判官大施主 黃葉生 兩主
鬼王大王大施主 朴言希 兩主
將軍大施主 尹洪德 兩主
童子大施主 李般石 單身
監齋使者施主

海澄 比丘
德雄 比丘
萬言 比丘
哲忍 比丘

海生

玉生

春斤卜

春戒

龍吉

末龍

奉鶴

緣化秩

證明 碧峰堂大師 覺性 比丘

晦跡堂大師 性悟 比丘

持殿 太嚴 比丘

供養主 明悟 比丘

供養主 智詢 比丘

釋森 比丘

別座 淨心 比丘

畫員秩

海心 比丘

性守 比丘

勝秋 比丘

敏機 比丘

道均 比丘

妙寬 比丘
勝照 比丘
勝悅 比丘
智文 比丘
信日 比丘
明照 比丘
景性 比丘
一安 比丘
處仁 比丘
元辨 比丘

順治十一年甲午暮春 化主
尚裕 比丘

書記 灵現 比丘
灵瑞 比丘

○ 대좌목록서

道光二十四年甲辰五月十八日重修改彩大雄殿?

大施主 海雲堂 慎英
金坡堂 軌宗
枕月堂 允成
文谷堂 致成靈駕
璣峯堂定吾靈駕
沙月堂 惠?
蓮溪堂 ?如
中菴堂 藕弘
正觀堂 快逸
正峯堂 幸仁
永寬

本縣邑內郭應大

兩主 願得
妻洪氏 男子

鄭得龍
金諸尹

大法堂

合

十王殿

黃金?二百十二兩

丹青彩色八十~兩...

十王尊像彩色○三十

九兩...

山中秩

奉云 演訓 謹惠 奉益 奉信 斗僖 奉明 學律 敬雲 敬元 ?元

云宣 善云 善永 善奇 善奉 景修 彰旬 致文 普珉 成守 太煥

振輝

緣化秩

證師 白坡堂 亘璇

金魚 圓潭堂 乃圓

青松堂 仁默

誦呪 昶昨

持殿 玩松堂 讚○

別座 普恩堂 贊○

供養主 洪均 智翰 道儀

義彦

化主 正峯堂幸仁

雲溪堂榮準

都監 中菴堂藕弘

香閣 龜峯堂仁裕

來往 智贊

○ 문헌자료

문명대, 「무염파(無染派) 목불상의 조성과 설악산 신흥사(新興寺) 목아미타삼존 불상」, 『강좌미술사』 20,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3.

2.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奉化 淸涼寺 乾漆藥師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가. 심의사항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
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09.6.2)이 있어 지정조사('10.4.23, '10.5.4)후 본위원회('12.2.9) 검토에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지정예고를 하였으나 예고 기간('12.2.22~3.21) 중 이견(불입 1)이 제출('12.3.19)됨
- 이에 재조사('12.5.15)후 본위원회('12.6.14) 심의사항으로 부의되었으나 ‘과학적조사(탄소연대측정), 내부묵서확인 후 재심의’라는 사유로 보류되었음
- 이에 시료채취('15.7.17)를 하여 방사성탄소연대측정('15.8.4) 결과, AD900~945로 측정되었으나 소위원회('15.8.28)와 본위원회('15.10.8)에서 또 보류되었음(사유:앞·뒤 판을 껴맨 실의 연대측정 필요, 카슈의 사용 여부 확인)
- 이에 또 시료채취('16.4.25)를 하여 방사성탄소연대측정('16.6.6, '16.6.11) 결과, 칠 제거 전 직물의 연대는 AD770년으로 측정되었고 최대한 칠을 제거한 직물의 연대는 AD780~870년으로 측정되었음
- 이 사안에 대해 본위원회 2016년 제4차 회의(8.11)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8.30~'16.9.28)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奉化 淸涼寺 乾漆藥師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247 청량사
- 수 량 : 불상 1구, 복장유물 일괄(19건 208점)

- 규격(cm): 상 높이 90, 불두 높이 35.6, 어깨 폭 54.2, 무릎 폭 72.5
- 재 질 : 건칠
- 제작연대 : 통일신라~고려초
- 제 작 자 : 초창 미상(初創 未詳)
 - 중수화원(1560년) : 성연(省衍), 세준(世峻)
 - 중수화원(1715년) : 혜주(慧珠), 원책(圓策), 삼해(三海), 정행(淨行)

라. 조사자 의견 요약

구분	조사자 의견
1차 조사	지정가치 있음
2차 조사	지정가치 부족
	과학적 분석 후 재평가
소위원회 검토	지정가치 있음
	과학적분석을 신뢰한다면 이 불상이 고려시대 제작된 건칠불상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도 있다고 생각됨
	지정가치 미흡(보물 지정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정가치 미흡(지방유형문화재로 권고)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건칠불의 조성연대는 10세기 중후반으로 추정, 근대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일부 보이는 수리 흔적은 수리 복원과정에서 최초 불상 당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3차 조사	본 불상의 제작연대에는 더 이상의 의문사항이 없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함. 다만, 공정한 심의자료 획득을 위하여 목 보강제(종이죽), 목에 덧댄 천의 시료를 채취하여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나온 목 보강제 분석 결과는 보조자료로, 목에 덧댄 천의 시료 분석 결과는 주자료 사용하기로 함.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불상 시료채취 및 지정가치 평가회의 검토의견서

- 앞·뒤판을 제외 한 신의 시료 채취는 불가능하였음.
- 카슈는 분석되지 않은 몰립 표준 시료와 다른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는 기재자료로 인정함
- 2회(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대학원) 과학조사 결과는 검토 했을 때, 제작연대 판정에 필요한 기타 다른 시료 채취는 불필요 하다고 판단함
- 본 불상의 제작연대에는 더 이상의 의문사항이 없으므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공재한 상의 자료 획득을 위하여 목보강제(정미죽), 목이 깎던 천의 시료를 채취하여,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나온 목보강제 분석 결과는 보지자료로, 목이 깎던 천의 시료 분석 결과는 구자료로 사임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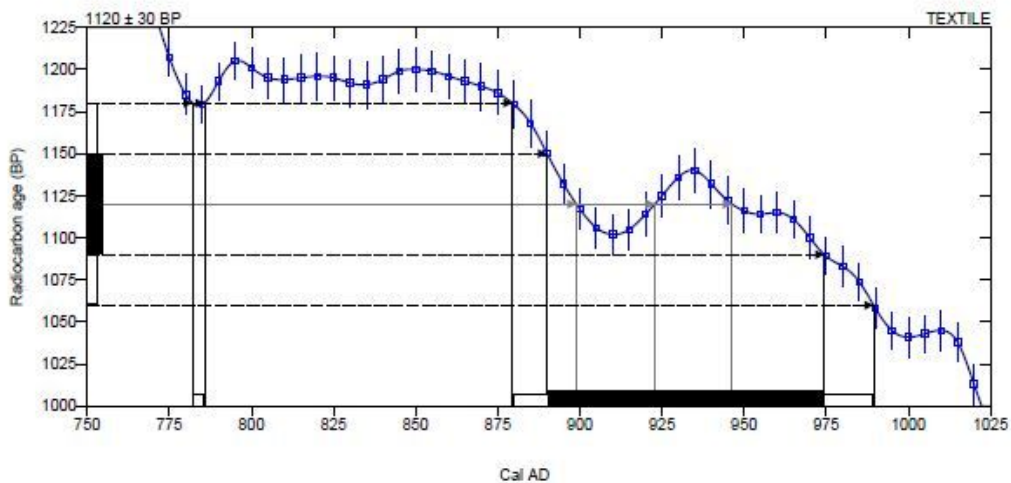
마.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

【2015.8.4. 측정 결과】

CALIBRATION OF RADIOCARBON AGE TO CALENDAR YEARS

(Variables: C13/C12 = -26.3 o/oo : lab. mult = 1)

Laboratory number	Beta-415823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1120 ± 30 BP
Calibrated Result (95% Probability)	Cal AD 780 to 785 (Cal BP 1170 to 1165) Cal AD 880 to 990 (Cal BP 1070 to 960)
Intercept of radiocarbon age with calibration curve	Cal AD 900 (Cal BP 1050) Cal AD 925 (Cal BP 1025) Cal AD 945 (Cal BP 1005)
Calibrated Result (68% Probability)	Cal AD 890 to 975 (Cal BP 1060 to 975)



Database used
INTCAL13

References

Mathematics used for calibration scenario

A Simplified Approach to Calibrating C14 Dates, Talma, A. S., Vogel, J. C., 1993, Radiocarbon 35(2):317-322

References to INTCAL13 database

Reimer PJ et al. IntCal13 and Marine13 radiocarbon age calibration curves 0–50,000 years cal BP. Radiocarbon 55(4):1869–1887., 2013.

Beta Analytic Radiocarbon Dating Labora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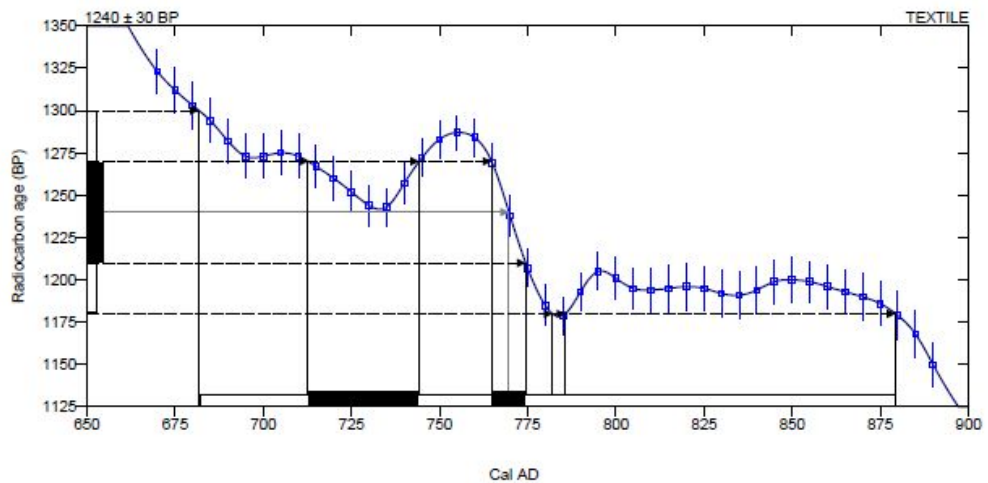
4985 S.W. 74th Court, Miami, Florida 33155 • Tel: (305)867-5167 • Fax: (305)863-0964 • Email: beta@radiocarbon.com

【2016.6.6. 칠 제거 전 측정 결과】

CALIBRATION OF RADIOCARBON AGE TO CALENDAR YEARS

(Variables: C13/C12 = -26.3 o/oo : lab. mult = 1)

Laboratory number	Beta-438334 : 1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1240 ± 30 BP
Calibrated Result (95% Probability)	Cal AD 680 to 880 (Cal BP 1270 to 1070)
Intercept of radiocarbon age with calibration curve	Cal AD 770 (Cal BP 1180)
Calibrated Result (68% Probability)	Cal AD 715 to 745 (Cal BP 1235 to 1205) Cal AD 765 to 775 (Cal BP 1185 to 1175)



Database used
INTCAL13

References

Mathematics used for calibration scenario

A Simplified Approach to Calibrating C14 Dates, Taima, A. S., Vogel, J. C., 1993, Radiocarbon 35(2):317-322

References to INTCAL13 database

Reimer P.J et al. IntCal13 and Marine13 radiocarbon age calibration curves 0–50,000 years cal BP. Radiocarbon 55(4):1869–1887., 2013.

Beta Analytic Radiocarbon Dating Laboratory

4985 S.W. 74th Court, Miami, Florida 33155 • Tel: (305)867-5167 • Fax: (305)863-0964 • Email: beta@radiocarbon.com

【2016.6.11. 최대한 철을 제거한 후 측정 결과】

CALIBRATION OF RADIOCARBON AGE TO CALENDAR YEARS

(Variables: C13/C12 = -26.3 o/oo : lab. mult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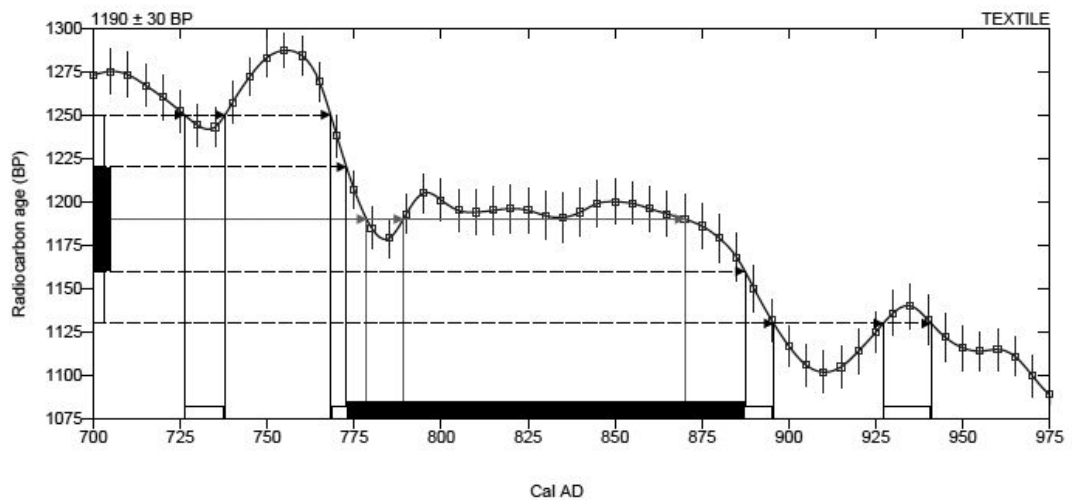
Laboratory number **Beta-438335 : 1-1**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1190 ± 30 BP**

Calibrated Result (95% Probability) **Cal AD 725 to 740 (Cal BP 1225 to 1210)
Cal AD 770 to 895 (Cal BP 1180 to 1055)
Cal AD 925 to 940 (Cal BP 1025 to 1010)**

Intercept of radiocarbon age with calibration curve Cal AD 780 (Cal BP 1170)
Cal AD 790 (Cal BP 1160)
Cal AD 870 (Cal BP 1080)

Calibrated Result (68% Probability) **Cal AD 775 to 885 (Cal BP 1175 to 1065)**



Database used
INTCAL13

References

Mathematics used for calibration scenario

A Simplified Approach to Calibrating C14 Dates, Talma, A. S., Vogel, J. C., 1993, Radiocarbon 35(2):317-322

References to INTCAL13 database

Reimer PJ et al. IntCal13 and Marine13 radiocarbon age calibration curves 0–50,000 years cal BP. Radiocarbon 55(4):1889–1887., 2013.

Beta Analytic Radiocarbon Dating Laboratory

4985 S.W. 74th Court, Miami, Florida 33155 • Tel: (305)667-5167 • Fax: (305)663-0964 • Email: beta@radiocarbon.com

바. 조사자 검토 의견

【소위원회 참석위원 종합의견서】

○ (지정 가치 있음)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흙으로 대체적인 형태를 만든 다음 그 위에 삼베를 입히고 칠을 바르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서 일정한 두께를 얻은 후 조각하여 만든 건칠불이다. 섬유 겉면에는 칠과 토분(土粉)을 혼합한 토회칠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불상의 뒷면 하단에 노출된 포층의 두께는 약8-9mm, 층수는 최소한 7겹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여래상은 수인이라든지 양감있는 신체와 대의 표현 그리고 안정감있는 비례 등 전체적으로는 8세기 통일신라시대 석굴암 불상의 전통을 계승한 상이다. 그러나 재료는 물론 긴장감이 있는 생경한 얼굴과 과장된 불신, 옷주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불상은 방사선탄소연대측정 결과 900-945년 사이에 제작되었음이 밝혀졌는데 이는 양식적으로 파악되는 연대와도 부합된다. 이를 통해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건칠불상으로 확인된 점은 매우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조형적 우수성은 물론 제작연대의 추정이 가능한 最古의 건칠불로 파악되는 등 그 중요성과 가치가 증명되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지방유형문화재로 권고)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전체적으로 통일신라시대 불상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고려시대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과학적 시료 분석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건칠약사여래좌상은 동반하고 있는 복장 유물을 통하여 여러 번 보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근대 이후에 대대적인 수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근대적 방법으로 수리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게 하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불상 내부의 삼베 표면의 색이 검은 끼가 약간 섞인 붉은 색이라는 점, 눈을 감입하거나 흙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도된 절개선이 다른 건칠불상과 달리 육계의 가장자리 외에 목에서도 확인된다는 점, 잘라낸 목 부분에 나무로 덧댄 흔적이 있다는 점, 그리고 불상 내부의 목 부분에서 허리 뒷부분으로 좌우로 내려오면서 께맨 자국이 보인다는 점 등이다.

비록 건칠약사여래좌상이 고려시대 초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높으나 이후 대대적인 수리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 원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문화재로서의 역사성은 갖추고 있으나 원 모습에 대한 예술성이나 그에 따른 희소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보다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고한다.

○ (지정 가치 있음)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지정예고 기간 중 제작시기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어 관계전문가의 재조사를 거쳤으며, 재조사(‘12.5.15)에서도 제작기법과 제작시기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12.6.14)의 검토결과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에 2015년 7월 17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과학적 연대분석을 위한 시료채취를 실시하였고, 시료는 불상의 표면을 이루고 있는 7-8층으로 포접층 중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시료를 채취하여 미국의 BETA연구소에 의뢰하여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료의 탄소연대는 900-945년으로 측정되어 불상의 양식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불상은 내부를 관찰하면 앞면과 뒷면을 바느질 하여 이어붙인 흔적이 확인되는데, 이것이 제작 당시의 것인지 아니면 근대기의 기법으로 제작된 것인지 좀더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되지만, 현재로서는 비교할 만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이 불상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해인사 건칠회랑대사좌상이 앞면은 건칠, 뒷면은 나무로 제작하여 이어붙인 것이 확인되고, 나말여초기 가장 성행했던 철불에서는 외틀을 이어 붙여 성형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던 바, 이러한 제작기법이 당시에 유행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건칠불상은 재료적 특성상 후대에 손상되어 다시 보수하면 그 흔적이 분명히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X-Ray촬영 사진을 보면 불상의 팔뚝에 나무를 덧대어 보강·보수한 흔적과 이마부분에 다른 재질로 보강한 흔적만 뚜렷이 확인될 뿐, 불상의 윤곽을 이루고 있는 포접층은 대체로 수리 흔적 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다. 한편 육안으로 내부를 관찰하면 목 부분에 하얀 이물질로 접합한 흔적이 확인되는데, 이는 불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목이 부서져 후대에 접착제로 보수·접합한 흔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수하는 과정에서 뒷부분을 정확하게 잘라 내어 수리하여 이를 이어 붙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불상은 고려전기 어느 시점에 제작되어 어느 불상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보수(기록상으로 고려후기와 1560년, 1715년 중수되었음)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해온 것으로 생각되며, 제작 당시의 원형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작기법 등 추가적인 연구과제는 남아 있으나 불상의 양식과 소지층의 방사성탄소연대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고려 초기 건칠 불상의 귀중한 자료로 생각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미흡)

봉화 청량사는 천년고찰로 사찰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훌륭한 문화재가 전하고 있다. 이 사찰에 봉안되어 있는 건칠약사좌상은 통일신라 8세기 중엽 석굴암 본존상의 형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외형상으로 통일신라 조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석굴암 본존상의 도상은 나말여초에도 유행하였으나 양식적인 면에서는 시대에 따른 변화가 반영됨으로써 석굴암 본존상과 동일한 상호(相好)가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석굴암 본존상의 도상뿐 아니라 양식적인 면에서도 거의 일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나말여초 조각에서 벗어나 있다. 또한 제2차 조사에서 이 건칠불상의 복장물들도 일부는 청량사에 함께 전해오는 고려시대 14세기의 건칠문수보살좌상의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 문수보살상은 등판이 훼손되어 복장 안에 납입되었을 복장물들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건칠불상의 내부를 관찰해 보면, 앞, 뒤의 두 부분을 나누어 불상을 제작한 후, 이를 고정시켜 접합하기 위해 끈으로 기운(이어붙인)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띠 형태의 천을 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른쪽 팔은 따로 제작하여 붙였으며,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안쪽에 목심(木心)을 넣어 보강하고 있음이 X-ray 사진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앞뒷면을 따로 제작하여 접합하는 방법은 석고틀[逆型]을 이용한 것으로 근대기에 일본에서 창안되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는 건칠 제작기법이다.

건칠불상의 복장에서는 조선시대 1560년명의 「천인동발원문」과 1715년의 중수 기록이 발견되었는데, 「천인동발원문」에는 청량산 연대사(蓮臺寺) 약사여래상을 지원(至元) 5년(1339)에 개금하였고, 그 245년 후에 다시 중수하면서 좌우보처 보살상과 광배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당시에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약사여래좌상과 조선시대 1560년에 조성된 일광·월광보살상으로 이루어진 약사여래삼존상이 봉안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건칠불상 내부에서 채취한 시료편을 이용한 AMS탄소연대측정을 통해 알려진 10세기 전반의 연대와 부합한다.

그러나 석굴암 본존상을 그대로 모방한 건칠불상의 형태와 석고틀을 사용한 건칠제작기법은 이 상이 後代에 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10세기 전반이라는 탄소측정연대는 조선시대까지 이 사찰에 봉안되어 있던 고려초기 건칠불상의 제작시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건칠불상은 조선시대까지 전해오다가 어느 시기에 크게 훼손되어 다시 제작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훼손된 불상 몸체의 남은 부분을 새로 만드는 불상의 내부에 넣어 불상을 조성하였다고 추측된다. 석굴암 본존상을 모방한 점과 석고틀을 사용한 후대의 제작기법이 보이는 점은 탄소연대측정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제작시기를 올려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오류 가능성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보물지정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상은 1차 조사 당시 고려시대 건칠불상으로 판단되어 보물지정이 추진되었으나, 제작기법과 양식상 의문점이 제시되어 2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상의 제작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BETA연구소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실시한 바 있다.

불상의 밑 면 건칠 층 가운데 부분의 삼베를 측정한 결과 방사성탄소연대가 AD900~945년경으로 측정되었다.

과학적 분석을 신뢰한다면 이 불상이 고려시대 제작된 건칠불상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도 있다고 생각된다.

○

이 불상은 직물포와 옷칠을 여러 겹 중첩시켜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건칠 불로, 관계전문들의 청량사 현장조사 당시 외형 틀로 조형할 때 생기는 연결부분 등 전통기법으로 조성된 건칠불과 다른 흔적들로 인해 근대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 되었음.

그러나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외형 틀을 이용한 건칠불 조형방식이 우리 고유의 전통기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불상의 조성연대나 역사적 가치를 결정 지을 수 없으므로 건칠불에 사용된 직물을 시료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시행할 것을 문화재청 관계자에게 요청하였음.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불상조성에 사용된 직물포 중 중간층 부분에서 채취한 시료를 전문기관[베타연구소]에 의뢰하여 방사성탄소연대측정[AMS]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직물시료의 연대는 A.D. 900년대로 확인되었음.

이와 같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로 볼 때 오염에 의한 오차 범위를 고려하더라도 건칠불의 조성연대는 10세기 중·후반일 것으로 추정되고, 근대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다만 1차 조사 당시 외형 틀의 사용흔적으로 생각되었던 불상 내부의 연결부분, X-선 투과사진에서 보이는 일부 수리 흔적 등으로 볼 때 이 불상은 수리 복원과정에서 최초 불상조성 당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2차 조사자 의견】

○ (지정가치 부족)

재조사 결과,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석고틀을 사용한 근대기의 건칠 기법으로 제작된 불상이라고 판단되므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와 같은 조사와 함께 탄소연대측정과 같은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과학적 분석 후 재평가)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도상적·형식적으로 나말여초 불상들의 특징과 연결된다. 건칠기법으로 조성된 약사여래좌상의 문화재적 가치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제작 기법적인 전통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현상, 내용 및 특징에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에 알려진 건칠불상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불상 속 칠폴로 붙여진 삼베의 색깔이 검은 색이 아닌 붉은 끼가 많이 보인다는 것, 삼베 표면에 미세하게 남아 있어야 하는 흠이 전혀 없다는 것, 육계 가장자리의 절개선에 의해 잘려나간 부분이 다른 이물질로 마감되었다는 것, 목에서부터 허리 뒤쪽으로 내려오면서 삼베를 깨맨 것으로 보이는 흔적 등이 그것이다.

고려시대 후기나 조선시대에 조성된 현존하는 건칠불상들과 달리,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이러한 특징들이 조성 시기가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과학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과학적 분석 결과가 나온 후에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 (지정가치 부족)

청량사 건칠불좌상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제작기법이나 양식적인 면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건칠불로 보기는 어렵다. 그 보다는 석고틀을 사용하여 제작한 근대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렇게 석고틀을 사용한 건칠기법으로 작품을 성형한 예는 극히 드물며, 특히 청량사상처럼 불상으로 제작되어 사찰에 봉안된 예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청량사 건칠불좌상은 근대적 기법으로 제작된 최초의 건칠불상이란 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므로 도지정문화재 등 합당한 지위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좀 더 명확한 불상의 제작연대를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미량의 시료라도 채취하여 성분 분석이나 방사성탄소동위원소 분석 등 과학적 조사를 추가로 실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된다.

○ (육안 구분 불가)

시대를 파악하기 어려운 직물의 경우 대체로 직물의 조직, 무늬, 폭, 실의 꼬임 등에 의해 어느 정도 시대구분이 가능하다. 특히 문직물의 경우는 시대마다 무늬의 구성이 달라 구분이 쉬우나 평직으로 제작된 직물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삼베와 같은 마직물은 고려시대 이전에는 모두 꼬임이 있는 실로 제작하였으나 점

차 꼬임이 없는 실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동과 곡성을 중심으로 현재 까지도 꼬임을 약간 주어 제작하기도 하므로 고려 이후의 시대 구분은 사실 어려운 실정이다.

청량사 건칠불 내부에 배접되어 있는 직물과 복장된 직물은 모두 평직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던 직물들이다. 이 직물들을 육안으로 시대를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방사성탄소연대에 의한 측정에 의해 정확한 시대 구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과학적 분석 후 재평가)

불상 내부의 상태로 볼 때 일반적인 건칠불상 제작기법이 아닌 역형(逆形) 방식으로 제작된 불상으로 판단된다.

불상 내부의 직물편(또는 옷칠)의 AMS 탄소연대측정을 통해 조성연대를 확인한 후 문화재 지정여부를 결정해야한다.

【1차 조사자 의견】

○(지정 가치 있음)

비록 상의 정확한 제작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상의 양식으로 보아 통일신라의 전통을 이어주는 신라 말 고려 초의 철불 조성에 이어 고려 전반기 언젠가 건칠로 불상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을 추정할 수 있어 건칠상 조성의 상한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상이다. 상에서 나온 복장물 중의 기록을 보면 여러 번의 재복장이 이루어진 듯 1560년의 결원문(結願文)이 있고 이 후 1715년에 중수한 기록이 있다. 복장물 중에 고려의 시종 최종준이 1239년에 납시(納施)한 다라니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연대추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이 건칠상을 지지하는 층이 파손되고 있어 상 내부에서 목조로 보강하고 있으므로 국가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 가치 있음)

청량사 건칠여래좌상은 고려 13세기에 중수된 상으로 재료인 건칠과 수정을 이용한 눈동자 감장기법 등 고려 시대에 등장하는 특징을 지닌 작품이다. 또한 눈, 코, 입의 생경한 표정이라든지 건장한 어깨에 비해 허리가 짧고 무릎이 낮은 점도 특징으로 고려 전기의 영천 선원동 철불, 충주 지역의 철불들과 비교된다. 이들 불상들과의 양식적 공통성은 충주에서 소백산맥으로 이어지는 육로라든지 남한강과 낙동강 수로와 연결되는 지역적 특징과도 연결되어 양식적인 유향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건칠여래좌상은 조형성이 뛰어나고 고려 전기 불상의 지역성 연구에 중요

한 자료인 점 그리고 건칠불상 가운데 초기 작품에 해당하는 상징성을 참고해 볼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상은 정확한 조성 시기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1560년), 그리고 조선 후기에 걸쳐 중층적으로 중수된 사실을 전하고 있어 불상의 중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 불상은 얼굴, 팔이나 어깨, 손 등 부분적으로 어색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후대의 후보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며, 양식적 특징상 통일신라 전성기 양식을 모델로 해서 고려 전기에 제작한 불상으로 추정된다. 비록 후보된 부분이 있지만, 그 범위가 미미하고 고려 전기 건칠기법으로 제작된 불상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례 중 하나로 주목된다.

이 불상은 건칠불상 연구에 있어서 선구적인 예일 뿐만 아니라 고려 전기에 유행한 복고양식 불상 연구에도 귀중한 사례로 평가되므로, 함께 발견된 복장유물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12년 제1차 본위원회 검토사항 시)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불의 복장전적은 불경류와 다라니류이다. 시기는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경류는 대부분 고려 후기 및 조선 전기 또는 후기의 인본 내지는 필사본으로 단간(斷簡) 또는 낙장(落張)이 많아 온전한 것이 거의 없다. 다라니류는 복장의식의 사상적 의미로서도 표현되고 복장품의 후령통을 싣다거나 충전용이라 양(量)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복장전적은 불량답시주목록 2책과 다라니류 4종만을 복장유물과 함께 일괄로 하여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2차)

□

이 불상은 건칠기법으로 제작된 상으로서 고려 후기 건칠불상으로 판단되어 국가 보물로 신청되었으나 지정예고 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조사 결과, 불상의 앞면과 뒷면이 서로 이어져 있었고(노끈류로 연결하여 그 위에 천테이프를 발라 이어서 고정), 두부(頭部)도 따로 제작하여 이어붙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건칠불상의 앞, 뒷판을 따로 만들어 이어 붙여서 조합하는 것은 전통적인 건칠기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석고를 이용한 역틀의 제작기법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전통적인 건칠기법은 흙을 사용하여 모형을 만들고, 그 위에 베를 여러 겹 입히며 칠을 바른 뒤에 두부 뒷면과 몸통의 등판 혹은 밑판의 구멍을 통해 안에 있는 흙을 빼내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서, 근대의 석고기법은 석고로 만든 모형 안쪽에 베를 입히고 칠을 바르기 때문에 상의 두께가 균일해지며 불상 내부에 흙이 남아있지 않다. 또한 앞, 뒷 판을 이어 붙여 조합하므로 이어붙인 흔적이 반드시 남아있게 된다. 이처럼 석고를 이용한 건칠제작기법은 근대 일본에서 창안된 기법으로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에 처음 알려진 기법이다.

불상의 복장에서는 조선시대 1560년명의 결원문과 1715년의 중수기록이 발견되었고, 고려 후기 철원최씨 집안의 시중(侍中) 최종준이 1239년에 인시(印施)한 다라니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최종준 다라니는 약사여래상의 조성시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종준 인시의 다라니가 처음 알려진 것은 서울 수국사(水國寺)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조사에서였으며, 수국사의 다라니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데 반해서, 청량사의 다라니는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먹이 짙게 묻친 조악한 상태로 찍혀져 있어 청량사 약사여래좌상에서 나온 다라니와 차이가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약사여래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가정(嘉靖) 39년(1560)의 「천인동발원문」에는 약사여래상을 지원(至元) 5년 10월에 개금하였고, 그 245년 후에 다시 중수하면서 좌우보처 보살상과 광배를 만들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즉, 이 기록에 따르면, 청량산 연대사(蓮臺寺)에는 고려시대의 약사여래좌상과 조선시대 1560년에 조성된 일광·월광보살상으로 이루어진 약사여래삼존상이 봉안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석굴암 본존형 건칠불상의 복장 속에 약사여래상과 관련된 묵서들과 복장이 발견되었다면 원래의 약사삼존여래상이 어느 시기에 훼손되어 그 복장물이 근대기에 새로 조성된 건칠여래좌상의 복장 속에 넣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청량사에는 이번에 재조사를 실시한 건칠약사여래좌상 외에 또 다른 건칠상이 전하고 있다. 이 상은 보살좌상으로 전통 건칠기법으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칠불 제작에 쓰이는 ‘베’가 아닌 ‘모시’가 사용되어 고려 후기의 고급 건칠상으로서 주목된다. 이 보살상은 배면(背面)이 크게 훼손되었고 내부의 복장물도 잃어버린 상태여서 복장물의 교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 현 상

현재 청량사 유리보전에 주존으로 봉안되어 있는 불좌상은 건칠기법으로 조성된 것이다. 근년에 발견된 복장물에는 「천인동발원문(千人同發願文)」과 「결원문(結願文)」 등의 중수 원문이 있다. 이들 중수원문(重修願文)은 가정(嘉靖) 39년(1560, 명종 15) 불상을 중수 할 때 참여한 사부대중의 목록을 적은 것이다. 이중 「천인동발원문」은 이전의 중수 상황까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불상의 내역을 알려 준다. 즉 약사여래상(藥師如來像)이 파색(破色)되었기에 지원(至元) 5년 10월에 개금하고, 그로부터 245년 후 화사(化士) 순묵(淳默)이 파색(破色)된 것을 다시 중수하고 좌우보처(左右補處)인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 그리고 화광(火光) 등을 가정(嘉靖) 39년 10월에 만들기 시작하여 12월에 완성하였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중수기에 기록된 약사불좌상의 협시보살이었던 일광보살상과 월광보살상은 현재 없어진 상태이며, 문수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대좌는 1734년에 새로 조성한 것이며, 조성에 관한 목서가 남아 있다. 그러나 불상이 처음 조성할 때 넣었을 조성 발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하게 언제 조성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건칠약사여래좌상은 편단우견의 착의법에 결가부좌하고 있다. 향마촉지인을 결한 오른손은 촉지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왼손에는 약합이 놓여 있다. 이 약합은 왼손바닥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적당한 나무를 잘라서 올려 놓은 것으로 불상 조성 당시부터 전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불상은 나말여초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양식적으로 생경한 느낌도 없지는 않다. 특히 불신에 비해 상당히 크고 길게 만든 양 손은 나말여초 불상의 손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과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즉 손바닥과 손가락의 미세한 부분을 질감이 풍부하게 모델링하였는데, 이러한 조형적인 특징은 고려 초기 불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건칠약사여래좌상을 X-ray로 촬영한 결과, 몇 겹의 삼베를 접착제로 발라서 불상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난히 돌출된 백호와 그 주변이 다른 재질로 마감되었고, 오른쪽 팔뚝에는 나무가 끼어 있으며, 양 손도 성분을 알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건칠불상은 불두와 불신은 건칠로 마감하지만, 양손은 나무로 제작하여 끼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한편 현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것은 다른 건칠불상들이 짙은 검은색으로 마감된 것과는 달리 칠의 농도가 약하여 삼베가 검은 끼를 머금은 붉은 색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칠불상이 완성된 후에 불두 속에 있는 흙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두의 일부를 절개한 절개선이 X-ray 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육계 가장자리 부분에 도려 된 흔적과 도려진 부분을 다른 재질로 마감한 것이 확인되었다.

○ 내용 및 특징

우리나라 조각 중에서 건칠 기법을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가장 이른 것은 해인사의 희랑대사상으로 알려져 있다. 건칠불상의 역사는 당과의 교류가 빈번했던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헌기록이나 건칠불상의 유례는 남아 있지 않다. 우리나라 건칠불상은 현존하는 작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건칠불상의 제작기법이나 양식적인 특징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비록 조성 연대는 차이가 있지만, 최근 조사된 건칠 불상의 예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불상 내부에 칠풀로 발라진 삼베가 매우 검은 색을 띠고 있다는 점, 불상 내부 삼베 표면에 불상을 모델링할 때 사용되어진 흙이 묻은 흔적, 불두 부분에 있던 흙은 빼내기 위하여 불두의 일부를 절개한 절개선 등이 그것이다.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백호와 육계, 양 손 등 일부분이 다른 재료로 마감되었다. 약사여래좌상의 도상적인 특징들은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시대 초기까지 조성된 불상들과 유사하다. 고려시대 초기의 충주 대원사와 단호사 철불좌상이나 영천 선원동 철불좌상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도상적 전통을 답습하면서 양식적으로는 약간 생경한 모습이 건칠약사여래좌상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건칠약사여래좌상은 기존에 알려진 건칠불상과 현재 청량사 유리보전에 봉안된 건칠문수보살좌상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다른 점이 확인된다. 즉 불상 내부의 삼베 표면의 색이 검은 끼가 약간 섞인 붉은 색이라는 점, 불상 내부 삼베 표면에 남아 있어야 할 흙의 미세한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절개한 부분이 육계의 가장자리 외에도 목에 나타난다는 점, 잘라낸 목 부분에 나무로 덧댄 흔적, 그리고 불상 내부의 목 부분에서 허리 뒷부분으로 좌우로 내려오면서 꺾맨 것으로 보이는 자국 등이 그것이다.

[사진 자료]



사진1.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사진2. 건칠약사여래좌상 양손의 조형적인 모습



사진3.
건칠약사여래좌상
오른팔 이은 흔적



사진4. 건칠약사여래좌상 내부 꿰맨 자국



사진5. 건칠약사여래좌상 내부 삼베 붉은색

사진6. 청량사 건칠문수보살좌상(우) 및 내부 삼베 검은색



□

○ 현 상

건칠불의 제작기법은 크게 고전기법과 근대기법의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고전기법은 소조로 원형을 제작한 후, 원형의 표면에 칠과 풀을 섞어 만든 호칠(糊漆)을 접착제로 사용하여 인피(靱皮)섬유(삼베나 모시)를 바르고 경화시킨다. 이때 형태를 유지 시키며 한 층씩 천을 붙이고 경화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천을 올리는 횟수는 불상의 크기나 천의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천에 바른 호칠이 완전히 경화하면 안쪽에 있는 원형(소조)의 흙을 제거하고, 표면에 각회(角灰), 자설(磁屑), 골회(骨灰), 합회(蛤灰), 진회(甄灰), 배설(坯屑), 지회(砥灰) 등의 광물질 성분과 칠을 혼합하여 만든 회칠(灰漆)의 하지를 도포하여 표면을 연마한 후 금박이나 채색을 하여 상을 완성하는 것이 고전적인 협저 제작기법이다. 따라서 완성 후에는 안쪽에 소조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육안으

로 확인되거나, 혹은 X-ray 사진에 투영되며, 형태를 유지시키면서 천을 바르기 때문에 옷주름 선이나 무릎 부분 등은 층의 두께를 달리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마무리 부분에서 회칠로 형태를 수정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감층의 두께를 부분에 따라 달리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또 다른 제작기법으로는 근대에 고안된 기법으로 석고틀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건칠기법이 있다. 점토로 소조의 원형을 제작한 후 석고로 외형을 제작한다. 석고틀은 상의 앞과 뒤를 나누어 2개의 자형(雌型-凸)으로 만들고, 팔이나 다리 부분 등 복잡한 부분은 자형(雌型-凸)의 틀을 따로 제작 한다. 앞면과 뒷면의 각각의 석고틀 안쪽에 이탈제(離脫劑)를 바른 후 그 위에 붓으로 회칠을 칠하여 경화시킨다. 회칠이 경화하면 그 위에 호칠로 천을 바르고 경화시키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한다. 천이 완전히 경화하면 앞면과 뒷면을 접착시키는데, 접착 부분에 곡소 [호칠+목분(木粉)]를 칠한 후 2개의 틀이 맞물리도록 하여 합체시킨다. 이때 석고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철사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곡소로 접착한 부분이 경화하면 끈 형태로 자른 천을 접착 부분에 붙여 보강한 뒤, 석고틀에서 건칠을 떼어내어 표면을 마무리 하여 완성시킨다. 이 기법은 결국 겉 부분에서 속 부분으로 천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의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칠의 두께나 천의 두께가 일정한 특징을 가진다.

청량사 건칠불좌상은 상의 아래 부분에서 7겹 정도의 천을 붙여 만든 것이 확인되었으나 칠의 성분이 적고 풀의 성분이 많은 것을 육안관찰 만으로도 판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내부를 관찰해 보면 상은 크게 앞, 뒤 부분을 나누어 제작한 후 이를 고정시켜 접합하기 위해 끈으로 기운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끈 형태의 천을 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X-ray 사진에서도 상이 앞, 뒤로 나뉘어져 접합된 선이 확인되며, 그 부분은 상의 표면에서도 접합 부분이 도드라져 요철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오른쪽 팔은 따로 제작하여 붙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안쪽에 목심(木心)을 넣어 보강하고 있음이 X-ray 사진에서 확인된다.

○ 내용 및 특징

청량사 건칠여래좌상은 표면의 회칠층이 아주 얇고 균일한 층을 이루고 있고, 앞뒷면을 따로 제작하여 접합해 만든 것이 확인되는 등 석고틀을 이용한 근대의 건칠제작기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

○ 현 상

1. 건칠불의 배접직물

건칠불의 내부에는 성근 직물로 배접이 되어 있는데, cm당 7~8올 정도의 밀도를 보이는 성근 직물이 사용되었다. 이 직물은 곳곳에 삼기를 한 흔적으로 보아 마직물이 확실하며 직물의 태로 보아 삼베로 여겨진다.



사진1. 건칠불 내부 삼베 배접상태



사진2. 삼베의 확대

우리나라의 삼베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모든 계층에서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던 직물이다. 고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는 삼실에 S방향으로 꼬임을 주어 사용하였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점차 꼬임이 거의 없는 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과 곡성에서는 지금도 꼬임을 준 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에 꼬임이 많으면 직물의 강도가 높아지나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이 더 요구되므로 점차 꼬임을 주지 않고 짜고 있다. 그러므로 실의 꼬임은 마직물에 있어서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건칠불의 삼베에는 꼬임이 잘 남아 있으나 청량사는 인동 인근에 위치하므로 안동포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삼베의 폭은 고려시대부터 33cm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 건칠불에 배접되어 있는 삼베의 폭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2. 복장 직물

복장직물은 목서가 적힌 황초폭자(黃綃幅子)를 비롯하여 총 5점이다. 이 가운데 4점은 양 가장자리에 식서가 남아 있어 직물폭을 알 수 있으며, 청색주 1점만이 작은 직물편으로 되어 있다.

- 황초폭자(黃綃幅子)

황색주(黃色紬)로 만든 황초폭자(黃綃幅子)이다. 가운데에는 남(南), 동(東)의 방향을 나타내는 목서가 적혀있으며, 가장자리에는 ‘귀비보체양주(貴非保体兩主)’라는 목서가 있다. 밀도는 약 22올 정도로 그다지 치밀하지 않으며 섬유가 손상이 되어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



사진3. 황초폭자(黃綃幅子)



사진4. 황초폭자(黃綃幅子)의 묵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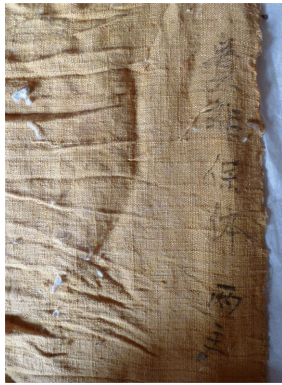


사진5. 황초폭자(黃綃幅子)의 묵서



사진6. 황초폭자(黃綃幅子)의 묵서의 확대

- 삼베

직물의 밀도는 cm당 16×15올이며 폭이 35cm 정도이므로 7세에 해당되는 삼베이다. 윗부분이 잘려서 손상되었는데 현재는 ‘…天德, …氏保体’라는 묵서만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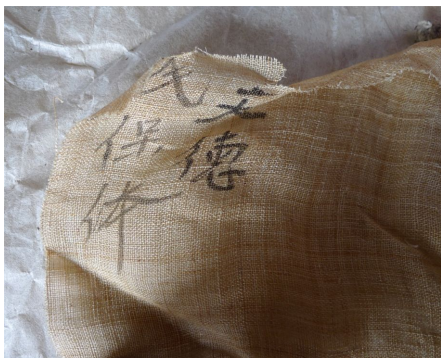


사진7. 삼베의 묵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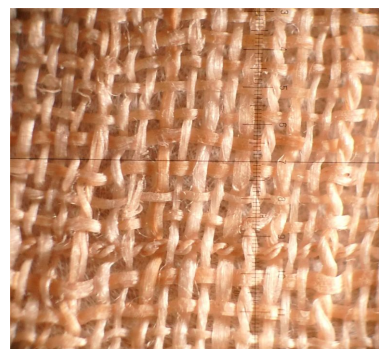


사진8. 삼베 확대

- 청색주(靑色紬)

청색주의 크기는 31.5×46.5cm로 장방형이다. 실의 굵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친 직물이며 밀도는 38×35올 정도이다.



사진9. 청색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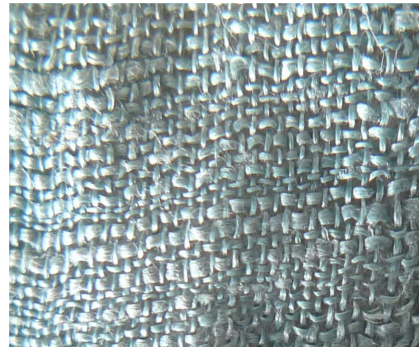


사진10. 청색주 확대

- 무명

물들이지 않은 소색(素色) 무명이다. 실의 직경은 0.1~0.4mm까지로 차이가 많이 나며 밀도는 cm당 21~22올로 10새 정도의 무명이다.



사진11. 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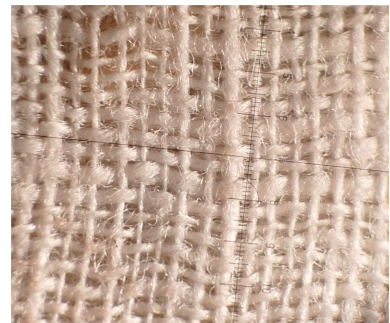


사진12. 무명 확대

- 청색주(靑色紬)

크기가 11.5×13.0cm인 작은 직물편이다. 재질은 청색주이며 밀도는 48×45올로 치밀한 편이다. 한 쪽에는 식서가 남아있다.



사진13. 청색주



사진14. 청색주 확대

□

○ 현 상

- 외관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외관 상태로 보아 근래에 카슈 등의 합성도료를 이용하여 다시 개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에 시행된 X-ray촬영의 사진을 통해 볼 때 불상의 오른쪽 팔은 따로 만들어져 몸체에 근접한 부분에서 연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관조사에서도 확인된다.

- 내부 상태

불상 내부는 직물(삼베)로 깨끗하게 마감되어 있으며 흙이나 기타 오염물이 보이지 않고 색상은 약간 붉은 황색을 띄고 있다. 불상 내부의 어깨 쪽에 몸체의 전·후 부분을 조립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끈(?)의 흔적이 보이며 불두의 상부와 전·후 부분은 연결부를 곡소(옷칠+풀+툽밥 등의 혼합물)로 접합한 흔적이 남아있다.

[사진 자료]



사진1 . 건칠불상 외관



사진2. 건칠불상의 바닥마감 상태



사진3. 건칠불상 팔부분의 연결부



사진4. 건칠불상의 내부 상태



사진5. 건칠불상의 내부 마감 및 연결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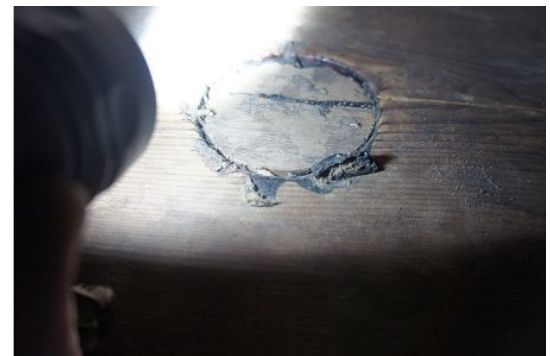


사진6. 건칠불상의 바닥마감 불상 내부 쪽 목서

조사보고서(1차)

□

이 상은 높이 90cm이고 무릎 폭이 72.5cm인 항마촉지인 불좌상으로 약함을 왼손에 들고 있어 약사불로 알려져 있다. 상의 비례에서 어깨의 폭이나 결가부좌의 무릎 폭이 비교적 넓은 편이다. 상의 재질은 건칠로 조성되었으며 상이 일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속으로 목재로 받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건칠상들은 대부분 고려시대 말기의 예들이 많이 알려져 있으나 해인사의 회랑조사상이 건칠로 된 것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고려 초부터 건칠의 상들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상의 양식을 보면,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 초 까지 유행한 항마촉지의 수인이나 얼굴의 눈꼬리가 길고 옆으로 올라간 모습은 고려시대 초기의 특징으로 특히 충주의 단호사와 대원사에 있는 두 구의 철불좌상과 양식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얼굴 표정과 상 전체의 비례로 보면 보물 제513호의 영천 선원동 철불 좌상과도 유사하다.

□

청량사 유리보전 내에 있는 건칠여래좌상은 항마촉지의 수인에 오른발을 위로 한 결가부좌로 앉아 있으며 넓은 어깨에 건장한 불신이 특징이다. 얼굴은 비교적 큰 편이지만 탄력 있는 모습에 위로 치켜 올려진 눈과 뚜렷한 코와 입이 중앙으로 몰려 생경한 분위기를 보인다. 머리의 작고 촘촘한 나발은 불상의 재료인 건칠과는 다른 재료로 판명되는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주목된다. 기법적인 면에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넓고 건장한 어깨와 블록 솟은 가슴, 편단우견의 대의, 두 무릎 사이로 흘러 내린 부채꼴의 옷자락, 간결한 옷주름 등은 항마촉지인과 더불어 통일신라 이후부터 유행한 석굴암 불상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얼굴의 표현이라든가 넓은 어깨에 비해 짧은 허리, 넓은 무릎 너비에 비해 매우 낮은 무릎 등 비례 면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이 여래좌상은 내부 조사와 엑스레이 촬영 결과 눈에는 수정으로 눈동자를 감입하였으며 7~8겹의 삼베를 이용한 건칠상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백호 주위와 오른손, 목 부위에 수리한 흔적이 있으며 오른쪽 어깨 내부에는 나무로 보강을 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오른쪽 팔 역시 나무를 넣어 원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외형상으로도 머리 부분이 앞으로 나온 듯하며 오른쪽 어깨는 안

에 나무로 보강하였지만 심하게 내려 앉은 상태로 이에 따라 양 무릎의 높이도 차이를 보인다.

이 여래상은 고려시대 철불인 영천 선원동 철불좌상(보물 제513호)과 견장한 어깨라든지 편단우견의 착의법과 육계의 표현 그리고 위로 올라간 눈꼬리와 입 가장자리를 판 모습까지도 닮았다. 같은 얼굴 모습은 충주 지역의 대원사나 단호사 철불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다.

이 불상 안에서는 개금중수기(改金重修記)와 다라니 등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복장에는 시중(侍中) 최종준(崔宗峻)이 인시(印施)한 만다라에 나타난 기해년(己亥年, 1239년) 간지(干支) 라든지 1560년(명종 15) 순묵(淳默)이 중심이 된 개금중수 시의 천인동발원문(千人同發願文)에 적힌 지원 5년(至元 5年, 1268년) 등이 있어 제작연대 추정에 참고가 된다.

□

1) 건칠약사여래좌상

현재 청량사 유리보전(琉璃寶殿)의 주불(主佛)로 봉안되어 있는 이 불상은 X-ray 조사결과 칠(漆)과 포(布), 회(灰)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건칠불상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기법으로 제작한 불상은 중국의 남북조시대부터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히 언제부터 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칠상 가운데 가장 시기가 앞선 것은 고려 전기에 제작된 합천 해인사 희랑대사상(希朗大師像, 보물 제999호)이다.

이 불상은 엄숙한 상호, 당당하면서도 육감적인 양감, 균형 잡힌 신체 모습, 탄력과 절제 넘치는 선 등에서 분명 통일신라 전성기의 양식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칠기법의 기원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불상의 복장에서는 불상의 초창과 관련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불상의 복장에서는 법사리(法舍利) 겸 충전용(充塡用)으로 납입된 경전과 다라니, 그리고 중수와 관련된 원문 2점이 발견되었다. 중수 관련 원문은 「천인동발원문(千人同發願文)」과 「결원문(結願文)」이다. 이 2점의 중수원문(重修願文)은 가정(嘉靖) 39년(명종 15, 1560) 불상을 중수 할 때 참여한 사부대중의 목록을 적은 것이다. 특히 중수원문 중 하나인 「천인동발원문」에는 이전의 중수상황도 소략하게 기록하고 있어 이 불상의 제작시기 추정에 일말의 단서를 제공한다. 즉 이 기록에서 초창은 알 수 없으나 약사여래상(藥師如來像)이 파색(破色)되었기에 지원(至元) 5년 10월에 개금하고, 그로부터 245년 후 화사(化土) 순묵(淳默)이 파색(破色)된 것을 다시 중수하고 좌우보처(左右補處)인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 그리고 화광(火光) 등을 가정(嘉靖) 39년 10월에 만들기 시작하여 12월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처음 중수가 있었던 지원(至元) 5년은 원대(元代)에 2번 사용된 연호이다. 즉 지원 5년은 1268년과 1339년에 해당하지만, 발원문

에 간지(干支)가 없으므로 어느 해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더욱이 1268년의 245년 후는 1513년이고, 1339년의 245년 후는 1584년이므로 두 가지 모두 중수발원문이 쓰여진 1560년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북장에서 함께 발견된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이다.

이 진언의 오른쪽 모퉁이에는 세로로 ‘기해시월일 시중 최종준 인시(己亥十月日 侍中 崔宗峻 印施)’라는 간기(刊記)가 찍혀 있는데, 이 진언을 인시(印施)한 시중(侍中) 최종준(崔宗峻, ?~1249)은 최유청(崔惟淸, 1095~1174)의 손자로 신종(神宗) 3년(1201)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이부상서(吏部尙書)를 거쳐 대몽항쟁 기간이었던 고종 재위 시에 15년 간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역임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곳에 등장하는 기해년(己亥年)은 1239년에 해당한다. 이 진언으로 정확한 중수연대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불상의 중수 시 불상의 중수 시점과 가까운 시대의 전적이나 다라니 등이 납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39년과 가까운 지원 5년에 중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후 1715년에도 약사여래와 좌우보처에 대한 중수가 있었다. 대좌는 1734년에 새로 조성한 것이며, 조성에 관한 목서가 남아 있다.

우선 약사불상의 현상과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머리에는 높고 큼직한 육계가 표현되었으며, 작고 둥글둥글한 나발은 별도로 만들어 촘촘히 부착하였다. 큼직한 육계에서 지발부(地髮部)로 이어지는 헤어라인은 부드럽고 완만하다. 이마는 좁고 면이 다소 거칠며, 양미간에는 어색할 만큼 큼직한 백호가 박혀 있는데 후보된 것이다. 반개한 눈꺼풀은 물결치듯 표현하였고 긴 눈초리를 치켜 올려 사바세계를 굽어보듯 처리한 시선은 다소 강인해 보인다. 이러한 눈매는 통일신라시대 중엽 경에 조성된 불상들에서 볼 수 있는 눈매와 달리 고려 전기로 추정되는 부석사 소조여래좌상이나 고려 전기의 단호사, 대원사 등 충주 지방의 철조여래좌상의 강인한 눈매 등과도 비교된다. 가름하게 정돈된 얼굴은 양감이 팽창하여 탄력적이며, 광대뼈는 도드라졌고 입술 아래쪽을 깊이 눌러 엄숙한 미소를 만들어 내었다. 턱 아래로는 자연스럽게 군살 턱이 자리 잡았다. 귀는 어깨 부근까지 길게 늘어졌으며, 귓불은 물방울 모양으로 크게 구멍을 뚫었다. 상하각의 표현은 불분명하며 이공(耳孔)의 형태는 1274년에 중수된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그것과 유사하다.

굵기와 길이가 알맞은 목에는 삼도의 표현이 뚜렷하다. 팽팽한 근육이 자리 잡은 가슴은 넓고 당당하며 허리는 잘록하다. 무릎은 낮고 넓은 편이며, 오행은 깊다. 불신에는 대의(大衣)를 편단우견으로 걸쳤는데, 주름은 절제미가 돋보이는 가운데 육감적인 불신에 착 감기듯 얇게 밀착되어 이상적인 불신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팽팽하게 걸친 대의자락 위로 도드라지게 드러난 왼쪽 젖가슴이나 가슴 아래로 흘러내린 두 가닥의 짧은 주름, 그리고 겨드랑이와 양 발목을 향해 팽팽하

게 감겨 들어가고 있는 요철이 있는 입체적인 주름과 무릎 앞으로 자리 잡은 부채꼴 형 주름, 팔자형(八字形)으로 처리한 등 주름 등은 석굴암 본존불상이나 경주 남산 냉골 석조여래좌상, 그리고 경주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등 8세기 중엽 경의 전성기 불상을 연상시키지만, 이들 보다 과장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은 무릎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 축지인을 취하였고, 왼손은 복부 앞에서 선정인(禪定印)을 취하고 구슬 모양의 약기(藥器)를 올려놓아 약사불상의 도상적 특징을 보이지만, 제작 당시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560년에 작성된 발원문에 약사불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사불상으로 조성, 봉안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으며, 1560년 중수 개금 때 새로 조성된 협시보살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이 상에서 보이는 불륨감 넘치는 불신의 표현, 긴장감 넘치는 선, 균형 잡힌 몸매, 간결함 속에 긴장감이 돋보이는 옷 주름 등은 석굴암 본존불이나 경주 남산 냉골 석조여래좌상, 그리고 경주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등 8세기 중·후반 경에 조성된 불상들과 양식적 친연성이 엿보인다. 하지만 작고 촘촘한 나발, 물결치듯 표현한 강인한 눈매, 다소 과장된 근육의 표현, 귀의 형태나 옷 주름 등의 세부 표현에서 영천 선원동 철조여래좌상이나 광주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등 고려 전기에 제작된 복고풍 불상 양식 계통과의 유사점이 확인된다. 이 불상 역시 고려 전기 통일신라 전성기 불상을 모본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복장유물

후령통은 종이로 만든 것으로 표면에는 옷칠하였다. 후신(喉身)에는 사방주(四方呪)를 묵서하였고, 후개(喉蓋)는 팔엽개(八葉蓋)의 형태로 팔엽대홍련지도(八葉大紅蓮之圖)를 나타내었다. 후령통 내에는 종이로 만든 원통형의 오보병(五寶瓶)을 납입하였다. 오보병은 오방색을 띠며, 표면에는 묵서로 방위에 따라 범자를 적었다. 밑면에는 비단으로 만든 오륜(五輪)을 부착하였으나 청(靑), 백(百), 흑색(黑色) 보병(寶瓶)에만 남아 있고 황색은 따로 떨어져 있다. 보병 내에는 오곡(五穀), 오보(五寶), 오향(五香), 오황(五黃), 오약(五藥), 오개(五芥), 오보리수엽(五菩提樹葉) 등을 한지로 싸서 넣고 양면에 물품명과 봉자(封字)를 묵서하였고<표 2 참조>, 이외 비단으로 만든 오산개(五傘蓋), 저(杵) 등을 납입하였다. 동(東) 마노병(瑪瑙瓶)에는 대맥(大麥), 대황(大黃), 나청(蘿菁), 화(花), 청백저(靑帛杵), 청개(靑蓋), 반월형(半月形) 조각, 묵서가 없는 한지 4첩 등을 납입하였고, 서(西) 산호보병(珊瑚寶瓶)에는 도(稻), 소황(小黃), 괘향(藿香), 계피(桂皮), 백개자(白芥子), 화(花), 야합수엽(夜合樹葉), 백백저(白帛杵), 백개(白蓋), 삼각형(三角形) 비단 조각, 묵서가 없는 한지 2첩 등을 납입하였다. 남(南) 마니보병(摩尼寶瓶)에는 진주(珍珠), 감초(甘草), 정향(丁香), 옹황(雌黃), 자개자(紫芥子), 화(花), 추엽(楸葉),

홍백저(紅帛杵), 홍개(紅蓋), 목서가 없는 한지 2첩, 적색 비단 조각 1점 등을 납입하였고, 북(北) 유리보병(琉璃寶瓶)에는 청녹두(靑菉頭), 유리(琉璃)(?), 아리(阿利), 침향(沈香), 자황(紫黃), 만청(蔓靑), 흑개자(黑芥子), 화(花), 흑개(黑蓋), 흑백저(黑帛杵), 반월형 비단 1점, 목서가 없는 한지 2첩 등을 납입하였다. 중(中) 수정보병(水晶寶瓶)에는 마자(麻子), 우황(牛黃), 황개자(黃芥子), 성루엽(聖樓葉), 화(花), 황개(黃蓋), 목서가 없는 한지 1첩 등을 납입하였다.

이외 다라니, 전적류, 황초폭자, 제보향(諸寶香)이라는 목서가 있는 한지 뭉치 1점, 한지로 만든 오보병 2점, 시주자명이 있는 삼베편, 비단편 등이 발견되었다. 후령통의 형태나 납입방식 등은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상(1586년 작)의 복장 납입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어 1560년 중수 때 납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 천인동발원문 千人同發願文(1560년)

1.

性海」釋空」戒峯」性一」正堅」能了」智蟾」雪仁」玉連」處澄」智安」雪熙」思允」信雄」玉澄」道文」儀淳」信道」行淳」善弘」雪旭」性天」雪還」

2.

學敬」敬熙」智空」道文」海連」熙祖」處敏」能印」信澗」法澄」靈隱」智湖」釋熙」玄牛」佛行」靈機」印贊」學敬」能印」志優」學靈」

3.

正衍」智安」惠弘」惠澄」雪岑」覺淳」元旭」雪雲」信峻」性玉」智雲」雲熙」克湖」元悟」性峯」一宗」戒澗」熙尙」靈秀」道軒」法根」信峻」覺月」

4.

信敬」印草」智還」天寶」永貞」法淳」法修」法源」崇印」崧悅」贊崇瓊」崇解」崇彦」惠雄」僅文」靈默」玄則」熙晟」性修」處林」天雲」尙澄」印祖」學淳」祖玄」僅敬」

5.

天一」性連」敬仁」僅敬」性熙」雙雲」雙明」熙允」熙牛」雙勳」崇坦」自澄」學敏」惠澄」惠林」宗敬」印玉」竹林」法修」贊 靈贊」戒林」淡行」祖仁」省雲」宗印」智宥」

6.

小童秩」漢元」鳳壽」眞伊」億從」鶴壽」壽量」宓伊」鶴守」連守」雲鶴」連壽」億良」億良」靈贊」

7.

東方藥師如來造成卽不知年數年久破色改金則」至元五年十月日畢造其後計數二百四十五年 又於化土淳默」破色重修」

左右補處日光++(=菩)++(=薩)月光++(=菩)++(=薩) 及火光等造成 嘉靖三」十九年十月

爲始十二月日 畢造」

證明 釋空」持殿 惠峻」禪宗維那 祖澄」法堂持寺大化主 雪旭」

畫員 省衍」世峻」供養主 信罔」戒幢」

書寫 寶鏡」

嘉靖三十九年庚申仲冬日目錄」

○ 결원문 結願文(1560년)

1.

大施主 白裴山兩主」大施主 李莫同兩主」大施主 張挨貞兩主」大施主 崔世元兩主」大施主 李屎仇知兩主」大施主 崔莫松兩主」大施主 盧銀孫兩主」大施主 金永孫兩主」大施主 永眞兩主」孔內隱孫兩主」琴元補兩位」琴仰尙兩位」琴億兩位」琴守億兩位」

2.

琴文淳兩位」權繼林兩位」權繼根兩主」崔貴男兩主」崔元補兩主」崔武金兩主」崔莫同兩主」今德兩主」禹莫孫兩主」劉苐叱之兩主」鄭苐叱同兩主」林武金兩主」林順山兩主」李銀孫兩主」金忠男兩主」

3.

金千兩主」金大山兩主」全龍金兩主」李亨兩主」林碩金兩主」姜玉連兩主」全自孫兩主」金內ㄱ同兩主」必非保体」千德保体」朴元兩主」林無作只兩主」林承良兩主」林每邑孫兩主」林孫兩主」黃延孫兩主」

4.

金萬碩兩主」裴守貞兩主」金世長兩主」崔碩兩主」金今孫兩主」林成武兩主」朴長孫兩主」金有永兩主」金牢兩主」朴命孫兩主」

畫員 省衍」惠峻」證明 釋空」持殿 惠峻」法堂持寺 雪旭」禪宗維那 祖澄」

5.

供養主」信星比丘」戒幢比丘」化主」淳默比丘」

6.

嘉靖三十九年庚申十二月初一日蓮臺寺 藥師三世如來改金重修記錄」

○ 발원문 發願文(1715년)

聞夫發願者造成者現增福壽當生淨刹是以有善君子同願發心各出珍財重修補」

滿月教主藥師如來與左右補處日光月光兩大菩薩尊像安于清涼山蓮臺寺共結良」

緣同願發心各各施主與緣化各各比丘大化士等同往西方極樂國土見佛接引親見彌陀佛即」

蒙授記同證菩提之願者茲記后祿」

1.

施主秩」

黃金大施主李氏良春」黃金供養兼大施主金士奉兩主」黃金大施主比丘竺靈」
烏金大施主金石松兩主」黃金施主嘉善大夫鄭善兩主」黃金大施主崔己哲兩主」
供養大施主全貴奉兩主」黃金施主鄭戒玄兩主」布施大施主鄭氏禮梅兩主」布施供養
大施主朴一先兩主」供養施主盧應積兩主」供養施主尹勝積兩主」供養施主崔仁發兩
主」供養施主趙男兩主」黃金施主李億孫兩主」黃金施主戒琳靈駕」黃燭施主趙禮山
兩主」施主朴伯萬兩主」施主崔己先兩主」施主羅一先兩主」施主李億萬兩主」施主
比丘禪鑒」施主比丘德祐」施主比丘密順」施主權宗京兩主」施主比丘處默」施主比
丘寶明」施主比丘縉侃」施主比丘就晉」施主金戒弘兩主」

2.

施主文悟奉兩主」施主劉氏心禮兩主」施主朴業龍兩主」施主比丘彩日」施主崔一龍
兩主」施主金氏召史兩主」施主金奉 兩主」施主鄭戒先兩主」施主金氏三禮」
緣化秩」證師 比丘圓澤」持殿 比丘法察」善手良工」比丘慧珠」比丘圓策」比丘三
海」比丘淨行」別座」比丘密瓊」供養主」比丘覺明」比丘禪月」負木」朴一先」居
士得行」大化士」剋念」

3.

山中老德」比丘片雲」和尚」比丘密謙」三剛」比丘大欽」山中老德比丘清學」比丘
應梅」比丘竺海」比丘敏惠」比丘德祐」比丘圓鑑」比丘法勝」比丘呂閑」

4.

康熙五十四年乙未六月日清涼山蓮臺寺」
藥師如來與左右補處塗金重修記」

○ 대좌목록서(1734년)

雍正十二甲寅秋七月～龍席(?)造成記」

釘鐵施主姜龍男兩主」

山中老德 比丘竺靈」

持殿 廣訥」

三綱」 三寶 ○倫」

書記 日淵」

和尚 碩梅」

造工比丘 三印」

化主比丘 覺清」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

我等与衆生」皆共成佛道」

○ 참고문헌

- 崔聖銀, 「13世紀 高麗 木造阿彌陀佛像과 腹藏墨書銘」, 『韓國史學報』 30, 고려사학회, 2008

- 林南壽, 「清涼寺 傳藥師如來坐像考」, 『民族文化論叢』 43, 嶺南大學校, 2009

□

○ 내용 및 특징

건칠약사여래좌상 복장유물 가운데 인쇄자료 중, 지정가치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순번	명칭	수량	연대	규격 (세로×가로cm)	특징
1	불량답시주목록	1책	1698	37.5×32.5	寫本. 蓮臺寺시주기
2	불량답시주목록	1책	1713	36.5×30.5	寫本. 蓮臺寺시주기
3	별칭	1책	조선 후기	30.8×21	寫本
4	총림사찰사명일영혼규	1책	조선 후기	38×33	寫本
5	삼십칠존종자만다라팔엽일륜	1매	16세기	66×54.5	목판본, 己亥十月日侍中崔宗峻印施.
6	금강계만다라	166매	조선 후기	37×38	목판본. 날장임
7	범자다라니	3매	조선 후기	51×57	목판본. 날장임
8	주사범자다라니	21매	조선 후기	42×48	주색으로 필사한 다라니. 날장

1. 불량답시주목록(佛糧畚施主目錄)

蓮臺寺 編.

寫本. [肅宗 24(1698)] 1冊(5張). 37.5×32.5cm.

年紀 : 康熙三十七年(1698)年戊寅三月初七日始入.

첫머리에 ‘연대사(蓮臺寺)’라 표기하고 행을 바꾸어 집강(執綱) 의철(義哲), 지전(持殿) 해선(海善), 삼강(三綱) 극념(克念), 산중노덕(山中老德) 종흡(宗洽), 삼익(三益) 등 10인의 명단이 있다. 이어서 ‘불량답시주목록(佛糧畚施主目錄)’이라 쓰고 시주자 직함, 이름순으로 필사하였으며 작성 시기는 1698년(숙종 24)으로 추정된다.

2. 불량답시주목록(佛糧畚施主目錄)

蓮臺寺 編.

寫本. [肅宗 39(1713)]. 1冊(8張). 36.5×30.5cm.

年紀 : 康熙伍拾貳年(1713)年癸巳七月日蓮臺寺佛糧畚施主唱魂冊重錄一件以置於山中滿月庵.

첫머리에 ‘연대사(蓮臺寺)’라 표기하고 행을 바꾸어 집강(執綱) 여심(呂謹), 지전(持殿) 취책(就策), 삼강(三綱) 인봉(印鵬), 산중노덕(山中老德) 편운(片雲) 등 7

인의 명단이 있다. 이어서 불량담시주자(佛糧番施主者) 명단을 시주자 직함, 이름 순으로 필사하였으며 작성 시기는 1713년(숙종 39)으로 추정된다.

3. 총림사찰사명일영혼규(叢林寺刹四名日迎魂規)

寫本. 1冊(3張), 38×33cm.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 멸악취진언(滅惡趣眞言), 보소청진언(普召請眞言) 등의 진언이 수록되어 있다. 앞 뒤 표지가 없고 장정이 해제되어 낱장 형태이며 얼룩이 있다.

4. 별청(別請)

寫本. [年紀未詳], 1張. 30.8×21cm. 낱장
원문(願文) 형식임.

5. 삼십칠존종자만다라팔엽일륜(三十七尊種字曼陀羅八葉一輪)

木板本. [고려 후기]

1매 : 圖. 13.3×16.5cm. 전체크기 66×54.5cm.

刊記 : 己亥(1239)十月日侍中崔宗峻印施.

목판본 다라니로 상단 첫단은 삼십칠존종자만다라팔엽일륜(三十七尊種字曼陀羅八葉一輪) 4판을 연결하여 인쇄하였는데 1판은 결락되었다. 둘째 단에는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이라 쓰고, 왼쪽에 ‘己亥(1239)十月日侍中崔宗峻印施’ 라는 시주자명이 있는 다라니를 2단으로 하여 4판을 연결하여 인쇄하였고 동심원이 아닌, 안쪽부터 바깥으로 7겹을 풀어 나오면서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은 시중(侍中) 최종준(崔宗峻)이 시주하여 판각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 고려 문종 때 설치된 중서문하성의 최고 관직(종1품)이며, 유일한 종1품 실직으로서 명실상부한 수상직이었다. 최종준(崔宗峻)은 고종 년간에 시중을 지냈으므로 여기서의 기해년은 1239년(고종 26)으로 추정된다.

6.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陀羅)

木版本.

166매. 사주단변 34×37.5cm.

만다라를 둘러싼 광곽은 사주단변이고 왼쪽에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오른쪽에 ‘팔엽심연자삼십칠존만다라(八葉心蓮子三十七尊曼陀羅)’라 적고 네 모서리의 사방을 범자로 표시하였다.

이 만다라와 관련된 아무런 기록이 없어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복장 시 대량으로 인출하여 납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7. 범자다라니(梵字陀羅尼)

목판본. 3매, 四周單邊. 匡廓 45.6×23.1cm. 전체 크기 50×57cm.

다라니를 둘러싼 광곽은 45.6×23.1cm이며, 상단에 연화대좌가 있고 하단에는 3행의 범자가 있다. 아미타삼존 다라니로 추정된다.

8. 주사범자다라니(朱寫梵字陀羅尼)

寫本. 21매, 42×48cm.

주색으로 필사한 5행의 범자 다라니이다.

《복장유물》

<표1> 복장유물 목록

구분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cm)	비고
발원문	1 結願文	종이	1	1560년	65.6×41.8	*嘉靖三十九年庚申十二月初一日蓮臺寺 藥師三世如來改金重修記錄
	2 千人同發願文	종이	1	1560년	66.0×41.5	*嘉靖三十九年庚申仲冬日目.
	3 發願文	종이	1	1713년	36.5×30.5	*康熙五十四年乙未六月日清涼山蓮臺寺 藥師如來與左右補處塗金重修記
	4 願文	종이	1	조선시대	27.3×28.4	*稽首歸命十方三寶慈尊特……
복장유물	5 喉鈴筒	종이	1	조선시대	높이 23.3 폭 6.8	*내부에 오보병을 납입함. 오보병 납입물목은 <표2>참조. *보병의 크기는 높이 18.5cm, 폭 2.5cm임.
	6 西方寶瓶	종이	1	조선시대	21.0×31.0	*표면에 西方 封, 藿香 小黃 無를 묵서함. 중수시 납입한 오보병 중 서방으로 추정됨. *내용물은 없음.
	7 南方寶瓶	종이	1	조선시대	21.0×31.0	*표면에 南方 封이라고 묵서함. 중수시 납입한 오보병중 남방으로 추정됨. *내용물은 없음.
	8 黃綃幅子	비단	1	조선시대	37.5×98.0	*南, 東, 言, 貴非保体兩主라는 묵서가 있음.
	9 諸寶香	종이 나무 금속	1몽치 (일팔)	조선시대	23.0×32.5	*표면에 諸寶香 封이라고 묵서함. * 금속제 후령통, 향목편 및 五方鏡 중 三角, 半月鏡 그리고 메달형태의 柄鏡을 납입함.
	10 삼베	삼베	1	조선시대	35.0×68.0	* 天德, …氏保体라는 墨書가 있음.
	11 청색직물편	비단	2	조선시대	①31.5×46.5 ②11.5×13.0	
	12 백색직물편	면	1	조선시대	37.0×93.0	
	13 封緘紙片	종이	2	조선시대	①23×38.6 ②10×41	① ‘梵’字와 ‘封’字를 주서로 씀. ② ‘封’字를 주서로 씀.
	복장전적	14 불량답시주목록	”	1책	1698	37.5×32.5
15 불량답시주목록		”	1책	1713	36.5×30.5	寫本. 蓮臺寺시주기
16 삼십칠존종자만다라팔엽일륜		”	1매	16세기	66×54.5	목판본, 己亥十月日侍中崔宗峻印施.
17 금강계만다라		”	166매	조선 후기	37×38	목판본. 낱장
18 범자다라니		”	3매	조선 후기	51×57	목판본. 낱장
19 주사범자다라니		”	21매	조선 후기	42×48	주색으로 필사한 다라니. 낱장
계	19건 208점					

<표2> 오보병 내 납입물목

	物目	동	남	서	북	중앙	비고
오보병	五輪	靑絹暗輪		白絹鑊輪	黑絹哈輪	黃絹 坎輪	각 방위에 따른 범자오류를 묵서
	五穀	大麥		稻	靑菘頭	麻子	
	五寶		珍珠		琉璃(?)		
	五藥		甘草	桂皮	阿利		
	五香		丁香	藿香	沈香		
	五黃	大黃	雄黃	小黃	紫黃	牛黃	
	五芥	蘿菁	紫芥子	白芥子	蔓靑 黑芥子	黃芥子	
	五色彩幡						
	五色線						
	五時花	花	花	花	花	花	
	五菩提樹葉		楸葉	夜合樹葉		聖樓葉	
	五吉祥草						
	五傘蓋	靑蓋	紅蓋	白蓋	黑蓋	黃蓋	비단
	五杵	靑帛杵	紅帛杵	白帛杵	黑帛杵		각 방위 색 비단에 '杵'字 묵서

【붙임 1】 지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이견

청량사 건칠불좌상 보물지정에 대한 재검토

지난 문화재위원회에서 보물로 지정한 청량사 건칠불좌상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분석해본 결과 이 불상은 고려시대 불상으로 볼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되어 일단 재검토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첫째, 양식상 고려시대에는 석굴암 불상과 똑같은 양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예배대상일 경우 옛 상을 모작한 예가 현재까지 한 예도 없으며, 그에 가까운 상을 제작한다고 해도 상당히 다른 양식이 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광주 칠불 등). 특히 삼국시대, 통일신라(上·下기), 고려 전후기, 조선 전후기 등 시대양식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으며, 그 틀을 벗어난 예는 아직까지 거의 없습니다.

둘째, 외형 기법 문제입니다. 대의의 옷주름 각도가 너무 날카로운 점, 손과 구슬 등이 어색한 점 등은 옛 불상기법에서 볼 수 없는 점이고, 육계와 나발 형태, 앞뒷면 가령 앞면의 가슴과 가슴 옷주름, 다리와 다리의 옷주름, 뒷면의 대의자락 접힘이나 기법 등이 석굴암 본존과 너무 일치해서 이미테이션적인 기법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셋째, 내부기법과 손상 상태입니다. 내부들 형성하고 있는 천과 이들 도포한 색도 거의 고태를 찾아볼 수 없으며, 근래 작품에서 예스럽게 꾸밀려고 한 예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단 내부들 직접보지 않고 사진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확정적으로 결론은 내리지 못하겠으나 우선 이런 몇 가지 점만을 분석해본 결과 급하게 지정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재검토를 요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문화재청의 선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2년 3월 일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전 문화재위원) 문명대

3.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 (高敞 文殊寺 木造地藏菩薩坐像 및 十王像 一括)

가. 심의사항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에 대한 지정신청(‘14.10.2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0.2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위원회 2016년 제4차 회의(8.11)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8.30~’16.9.28)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08호(2006.6.16지정)
- 명 칭 :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
(高敞 文殊寺 木造地藏菩薩坐像 및 十王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문수사
-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칠성길 135 문수사
- 수 량 : 11구(지장보살상 1구, 시왕상 10구)
- 규격(cm) : 지장보살좌상 : 앞은 높이 84, 무릎 폭 64
제1 진광대왕상 : 전체높이 120, 어깨 폭 34
제2 초강대왕상 : 전체높이 125.5, 어깨폭 37
제3 송제대왕상 : 전체높이 123, 어깨폭 40
제4 오관대왕상 : 전체높이 117.5, 어깨폭 39
제5 염라대왕상 : 전체높이 121, 어깨폭 37
제6 변성대왕상 : 전체높이 127.5, 어깨폭 40
제7 태산대왕상 : 전체높이 121, 어깨폭 41.5
제8 평등대왕상 : 전체높이 128, 어깨폭 42
제9 도시대왕상 : 전체높이 126

제10오도전륜대왕상 : 전체높이 135, 어깨폭 42.5

○ 재 질 : 나무(木)

○ 조성연대 : 1654년(효종 5)

○ 제작자 : 海心, 性守, 勝秋, 敏機, 道均, 妙寬, 勝照, 勝悅, 智文, 信日, 明照, 敬性, 一安, 處仁, 元卞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은 조각적으로 뛰어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발원문을 통해 1654년이라는 제작연도와 해심을 비롯한 무염과 조각승들이 제작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어 조선후기 17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불상조성의 여러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문수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목조시왕상은 금강역사상 등 일부 권속들이 현전하지 않지만, 명부전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존상들이다.

문수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목조시왕상은 시왕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하여 조각승 해심 등에 의해 1654년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각승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17세기 최고의 조각승인 무염의 제자들로서 존상들에서도 무염의 조형적인 특징이 간취되고 있다.

문수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목조시왕상은 [문수사중창기文殊寺創建記](1758년)와 [고창현축령산문수사한산전중창기高敞縣鷲嶺山文殊寺寒山殿重創記](1843년) 등의 기록에서도 존상 조성에 관한 전말이 확인되고 있어서 조성발원문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들 존상은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조각 수준도 높을 뿐만아니라 조선시대 불교조각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년작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보존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문수사 지장보살상 및 시왕상은 ‘造成發願文’을 통해 당시의 최고승인 벽암각성과 회적성오, 그리고 회적당의 제자 상유 등 벽암각성의 문도들이 주도하여 이룩한 불사라는 점에서 17세기 불교사에서 중요한 자료이며, 그리고 제작시기, 제작주체와 조각승, 그리고 발원목적 등이 두루 밝혀져 17세기 조각사 연구에 기준자료이다. 이와 더불어 대좌에는 묵서로 제작 이후 190년이 지난 시점인 1844년에 백파 공선의 증명으로 원담 내원이 중수화원으로 참여하였다는 기록을 남기

고 있어, 우리나라 불상의 수리 전통을 이해하는 데도 유익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지장시왕상을 조각한 수조각승 해심은 1930년대부터 무염의 문하에서 조각 수업을 배운 조각승으로, 1640년대 후반부터 수조각승으로서의 조각적 역량을 갖추어 나갔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는 1648년에 師翁 幸思와 養師 無染을 위로 모시고, 首畫員으로 참여한 해남 도장사 석가여래삼존좌상이 있다. 그의 현존 작품이 많지 않아 단언할 수 없지만, 스승이 추구한 조각적 전통을 존중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지장시왕상 역시 중후한 양감을 중시한 무염의 조각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17세기 중엽경의 해심의 대표적인 작품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지장보살상과 시왕상은 일부 권속들이 험난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소실과 도난을 당해 완전하게 전해오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고색찬연한 채색과 명부존상으로서의 위엄있는 기품과 감각적인 표현기법을 추구하고 있는 17세기 중엽경의 우수한 존상임에는 틀림없다. 더불어 이 시기 명부조각의 도상과 불상 양식 연구에 기준 자료가 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전북 고창군 고수면 청량산에 있는 문수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24교구 선운사의 말사이다. 조선 효종 4년(1653)에 대웅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 51호)이 중창되면서, 이듬해 3월에 대웅전의 석가·약사·미타의 석가여래삼불좌상이 조성·봉안되었고, 같은 해인 효종 5년(1654)에 명부전의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이 조성되었다. 시왕 가운데 평등대왕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는 순치(順治) 11년(1654) 3월에 수조각승 해심(海心)이 이끄는 14명의 조각승들이 조각하였고, 증명(證明)은 벽암각성(碧峰覺性), 회적성오(晦跡性悟) 스님이 담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장보살상은 삭발한 승형의 머리에 이마가 넓으며 얼굴은 둥글고 양 뺨이 통통한 얼굴이다. 눈은 반개하였고 콧날은 위쪽의 콧부리 부분이 돌출되어 오뚝한

매부리코이며 인중은 넓고 선명하다. 입가에 미소를 띠었으며 턱의 중앙에는 흠이 파이고 살이 많다.

신체는 몸을 앞으로 약간 굽힌 자세이며 옷은 여래상의 착의형식과 마찬가지로 가사를 두 벌 겹쳐 입었다. 이와 같은 착의방법은 ‘2중 착의형식’으로도 불리기도 하며, 오른쪽 어깨에 ‘부견의(覆肩衣)’ 혹은 ‘편삼(偏衫)’을 걸친 ‘변형 편단우견’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가슴에는 내의(內衣)가 꽃잎처럼 접힌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이와 같은 표현은 17세기에 널리 유행하였던 양식이다.

두 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설법인[下品中生印]을 결하고 왼손에는 지장보살상의 지물(持物)인 보주(寶珠)를 들고 있다. 결가부좌한 다리를 덮은 옷자락은 넓은 부채꼴 주름을 이루고 있는데, 양쪽 다리에는 대칭적인 3단의 층단 주름을 이루었고 발목부근에서 접히어 바닥으로 둥근 주름을 이루며 흘러내리고 있다. 상의 바닥에 ‘道光 24년 甲辰年’에 중수되었다는 묵서명(墨書銘)이 쓰여 있어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이 개금된 해에 같이 보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장보살좌상의 좌우에는 시왕상이 5구씩 모두 10구가 봉안되어 있다. 보통은 지장보살상의 좌우협시로 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시립해있고, 그 좌우에 시왕상이 홀수(1, 3, 5, 7, 9), 짝수(2, 4, 6, 8, 10)로 나뉘어 봉안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무독귀왕과 도명존자의 두 상은 전하지 않는다.

시왕상들은 대체로 인간적인 표정으로 얼굴이 정면을 향하거나 반측면을 향하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내렸거나 반가좌의 자세로 앉아있거나 발아래 강아지처럼 작게 표현된 사자를 밟고 있는 상(진광대왕)도 있다. 모두 화려하게 장식된 문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원유관을 쓰고 있으며 염라대왕만 책관을 쓰고 있다. 손에는 홀을 들거나 긴 수염을 쥐고 있거나 책이나 붓을 들고 있는 상이 있으나 지물을 잃어버린 상들도 있다.

○ 내용 및 특징

평등대왕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1654년에 봉안된 명부전 제(諸)존상의 제작에 벽암각성(碧峰覺性), 회적성오(晦跡性悟)가 증명(證明)으로 참여하였고, 수조각승 해심(海心)이 성수(性守), 승추(勝秋), 민기(敏機), 도균(道均), 묘관(妙寬), 승조(勝照), 승열(勝悅), 지문(智文), 신일(信日), 명조(明照), 경성(敬性), 일안(一安), 처인(處仁), 원변(元卞) 등을 이끌고 조각을 담당하여, 모두 15명의 조각승들이 제작에 참여한 불사(佛事)였다.

수조각승 해심은 17세기 중엽에 호남지방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조각승 무염(無染)의 제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로 같은 해 조성된 문수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의 발원문에는 화원질(畫員秩)의 수조각승 해심의 이름 앞에 “良師無染”이라고 추가로 기재된 것이 보인다. 이를 보면 무염이 직접 제작에 관여하였다기보다는 무염의 제자들이 스승의 이름을 적어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

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또한 같은 해에 해심이 수조각승을 맡아서 제작한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발원문의 화원질에도 이와 유사하게 ‘良師無染 兄正玄 首海心’이라고 쓰여져 있다. 불갑사 불사에서 불상제작을 맡아 총지휘한 것은 해심이었으나 존경하는 스승에 대한 예우 혹은 자신들의 조각승 유과를 밝히기 위한 의도로 무염의 이름을 써 넣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조각승 해심의 스승으로 알려진 무염은 17세기 중엽 호남지역 조각계를 대표하는 조각승으로 그가 제작한 불상은 선운사 대웅보전 삼신삼세불좌상(1633년)을 비롯해서, 영광 불갑사 대웅전 삼세불좌상(1635년),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50년),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좌상(1651년)과 지장보살좌상, 불갑사 명부전 지장보살상과 시왕상(1654년), 완주 송광사 나한전 석가삼존상과 십육나한상(1656년, 발원문傳)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무염의 상수제자로 생각되는 해심은 1633년에는 무염의 보조 조각승으로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삼세불좌상조성에 참여하였고, 수조각승으로는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1648년), 고창 문수사 대웅전과 명부전 불상(1654년),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1654년)을 제작하였다.

○ 문헌자료

- 문명대, 「조각승 무염, 도우과 불상조각의 연구」, 『講座美術史』 26-1, 2006.
최선일, 『朝鮮後期僧匠 人名辭典 - 佛教彫塑 -』, 양사재, 2007.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

○ 현 상

문수사 명부전(도1)에는 목조지장보살좌상 1구와 목조시왕상 10구 등 총 11구의 존상이 봉안되어 있다. 전언에 의하면, 원래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상 1구와 목조시왕상 10구, 금강역사상 2구 등 총 13구이 있었으나 2004년 3월, 제1 진광대왕상秦廣大王像, 제4 오관대왕상五官大王像, 제5 염라대왕상閻羅大王像, 제9 도시대왕상都市大王像 등 4구의 시왕상과 금강역사상 2구가 도난되었는데, 이후 시왕상 4구는 다시 찾았으나 금강역사상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한다.

2004년, 시왕상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에 의하여 순치11년(1654)에 일괄 조성된 것이 밝혀 졌다. 문수사 한산전에 걸려 있는 1758년의 [문수사창건기文殊寺創建記]와 1843년의 [고창현축령산문수사한산전중창기高敞縣鷲嶺山文殊寺寒山殿重創記]의 기록과 같이 이들 존상은 조선시대 1653년에 회적당晦迹堂 성오대사性悟大師가 대웅전을 창건한 후 그 다음해에 승려 상유尙裕가 대웅전의 목조삼세불좌상과 함께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목조지장보살좌상의 대좌 윗부분에

쓰여진 목서(도2)를 통하여 조선시대 1844년에 중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수사 명부전에는 현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목조시왕상이 남아 있지만, 명부전이 이들 존상 외에 금강역사상, 동자상童子像, 판관상判官像, 녹사상錄事像, 사자상使者像 등의 도상으로 구성된다는 면에서 많은 존상들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복부와 양 무릎 부분에 도금이 일부 도금이 벗겨진 것을 제외하고는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양손은 따로 제작하여 끼운 것이다. 목조시왕상 중 책관을 쓴 염라대왕상의 책이 없어진 것을 제외하곤 목조시왕상은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1) 목조지장보살좌상(木造地藏菩薩坐像)

목조지장보살좌상(도3)은 민머리를 하고 있는 승려 모습으로, 머리와 상체, 하체가 각각 장방형에 가까운 장대한 느낌의 존상이다. 즉 장방형에 가까운 두꺼운 하체 위에 세로로 긴 장방형의 상체와 머리를 포개어 올려놓은 듯하다. 보살상은 어느 정도 긴장감이 보이는 살짝 웅크린 모습이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법의를 입고 가부좌를 하고 있다. 오른손은 오른쪽 어깨까지 들어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채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하였으며,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왼쪽 무릎 위에 올려 놓았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은 개금과 채색을 입혀 조성 당시의 표정이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오관五官이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이마는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미간에는 백호가 표현되어 있으며, 가늘고 긴 눈은 양옆으로 약간 치켜 올라가 있다. 이등변삼각형에 가까운 오뚝한 코와 뚜렷한 인중, 작은 입을 갖추고 있다. 양 볼은 살이 찢 듯 부풀어 올라 있으며, 턱도 이중턱이다. 어깨를 움츠리고 있어서 목이 몸과 거의 붙어 있는 듯하며, 삼도가 표현되어 있다. 복부 위에는 승지지의 옷주름이 연꽃잎처럼 접혀져 있으며, 하체를 덮고 있는 법의 자락은 무릎 앞에서 서너 줄의 주름이 양옆으로 잡혀 있다.

목조지장보살좌상에 보이는 이러한 조형적인 특징은 1635년 불갑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1651년 신흥사 극락보전 아미타불삼존상과 같은 해의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54년 불갑사 지장보살상, 1656년 전주 송광사 나한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전언에 의하면, 보살상은 2004년, 명부전에 함께 봉안되어 있는 제1 진광대왕상, 제7 태산대왕상泰山大王像, 제8 평등대왕상平等大王像에서 복장물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이들 자료와 조형적인 특징을 통하여 조선시대 순치 11년(1654)에 시왕상과 함께 조각승 해심海心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해심에 의해 조성된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보다 조각이 입체적인 것을 제외하곤 전체적인 비례나 조형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2) 목조시왕상(木造十王像)

목조시왕상은 원래 지장보살상과 함께 불단 위에 배치되며, 이 때 왼쪽에는 제1 진광秦廣대왕상(도4)·제3 송제宋帝대왕상(도6)·제5 염라대왕상(도8)·제7 태산泰山대왕상(도10)·제9 도시都市대왕상(도12) 등 홀수 대왕이, 오른쪽에는 제2 초강初江대왕상(도5)·제4 오관五官대왕상(도7)·제6 변성變成대왕상(도9)·제8 평등平等대왕상(도11)·제10 오도전륜五道轉輪대왕상(도13) 등 짝수 대왕이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수사 목조시왕상에는 두 다리 사이로 흘러내린 의대衣帶에 ‘제일第一’, ‘제이第二’ 등 대왕의 이름이 묵서되어 있다. 이들 묵서에 의하면, 문수사 목조시왕상들은 현재 배치 순서를 정확하게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조시왕상은 원유관遠遊冠(염라대왕만 책관冊冠)을 쓰고 화려한 꽃문양으로 장엄된 옷깃의 문관복을 착용한 제왕의 모습이다. 시왕상은 등받이가 없는 간단한 의좌 위에서 의좌식으로 앉아 있다. 목조시왕상은 언제 채색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홍색과 청색 등 원색으로 모자와 옷을 표현하고, 얼굴과 손은 백색을 발라서 창백한 모습으로 명부세계를 다스리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목조시왕상은 정면관을 하고 있는 방형의 얼굴과 조형적인 비례는 유사하지만, 다양한 자세와 얼굴 표정을 통하여 실제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목조시왕상들은 모두 가죽신을 신고 있으며, 홀笏(오관대왕상, 오도전륜대왕상)과 연꽃(변성대왕상), 책(송제대왕상)을 들고 있고 있는 존상을 제외하곤 모두 지물을 들고 있지 않다. 한편 조선시대 17세기 조각에서부터 보이는 장단지 앞의 술 장식은 오도전륜대왕상과 도시대왕상의 왼쪽 무릎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태산대왕상에서는 사타구니 아래부분에서 밖으로 나온 두 가닥의 도포 끈이 좌우로 펼쳐지고 있다. 목조시왕상 중에서 조형적으로 가장 주목되는 존상은 진광대왕상으로서, 왼발로 아기 호랑이를 밟고 있다.

제8 평등대왕상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하는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목조시왕상은 조선시대 1654년에 벽봉당碧峰(巖)堂 각성覺性이 증명證明, 상유尙裕비구가 화주化主가 되어 발원하고 조각승 해징海澄, 해심海心, 성수性守, 승추勝秋, 묘각妙覺, 민기敏機, 도균道均, 승조勝照, 승열勝悅, 지문智文, 명조明照, 신일信日, 경성敬性, 일안一安, 처인處仁, 원변元卞 등이 조성하였다고 한다.

문수사 목조시왕상은 1640년에 조성된 전주 송광사 명부전의 시왕상과 착의법 등 조형적인 특징이 매우 유사하다. 즉 목조변성대왕상의 흰 눈썹과 코밑의 수염, 좌우로 넓게 퍼진 턱수염 등은 송광사 명부전의 송제대왕상과, 목조태산대왕상의 가늘고 긴 눈, 팔자형의 콧수염, 수염을 쓰다듬는 모습 등은 송광사의 태산대왕상과 유사하다. 또한 목조초강대왕상의 착의법과 무릎 위에서 약간 벌린 두 손은 송광사 오관대왕상과, 목조도시대왕상의 오른손을 이마에 대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한 모습은 송광사 평등대왕상과 비슷하다.

문수사와 송광사 시왕상의 유사성은 조각승들의 교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문수사 목조시왕상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 중에서 해심은 1656년에 송광사 나한전 불상을 조성할 때 대선사大禪師로 참여하였고, 무염의 제자 도균은 1656년에 송광사 오백나한상 조성에 참여하였다. 일안은 1636년에 송광사 법당 단청과 1638년에 송광사 명부전 단청에 참여하였다.

사실, 조성발원문에 해징海澄이 수조각승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조각승으로서의 그의 행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명부전의 존상들은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조성의 수조각승이었던 해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수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목조시왕상은 조성발원문을 통하여 1654년에 함께 조성된 것으로서, 조선시대의 중요한 기년명 불상이다. 이들 존상은 무염과 그 유파가 조성한 1635년의 불감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1651년의 신흥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상 및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54년의 불감사 지장보살상, 1656년의 전주 송광사 나한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 등과 유사한 양식을 보여주는 조선시대 17세기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조성발원문]

上來所修功德海	大施主 高厚元 兩主	施主 李順生 兩主	緣化秩
回向三處悉圓滿	大施主 朱蓮守 兩主	施主 黃葉生 兩主	證明 碧峰堂大師 覺性比丘
奉爲	大施主 里西非 兩主	施主 朴彥希 兩主	晦跡堂大師 性悟比丘
主上殿下壽萬世	大施主 崔影祥 兩主	施主 尹洪德 兩主	持殿 太嚴比丘
王妃殿下壽齊年	大施主 宋馬同 兩主	施主 李南山 兩主	供養主 明悟比丘
世子邸下壽千秋	施主 姜太云 兩主	施主 李盤石 兩主	智詢比丘
國泰民安法輪轉	施主 黃順梅 兩主	施主 馬戒宗 兩主	釋森比丘
材木大主通政大夫 曹終得 單身	施主 班峻映 兩主	大德秩	別座淨心比丘
平等大王大施主 李今守 兩主	施主 學澄 比丘	國一都大禪師碧峰堂大師 覺性比丘	書員秩
都大施主 李時一 兩主	施主 金樓訖 兩主	老德 日行比丘	海心比丘
大施主 宋厚瓊 兩主	施主 朴龍孫 兩主	大禪師 戒珠比丘	性守比丘
大施主 徐鉉 兩主	施主 張得男 兩主	大禪師 智行比丘	勝秋比丘
大施主 金訥叱山 兩主	施主 朴敏 兩主	大禪師 印旭比丘	敏機比丘
大施主 金白 兩主	施主 張祿立 兩主	大禪師 敬悅比丘	道均比丘
大施主 李恁乃 兩主	施主 文玉生 兩主	儀元比丘	妙寬比丘
大施主 金仁生 兩主	施主 崔恁山 兩主	道淳比丘	勝照比丘
大施主 芑德 兩主 靈駕	施主 尚明 比丘	覺峻比丘	勝悅比丘
供養大施主 李貴男 兩主	施主 馬戒上 比丘	信悟比丘	智文比丘
供養大施主 文風金 兩主	施主 洪己立 兩主	戒倫比丘	信日比丘
供養大施主 朴光海 兩主	施主 金龍 兩主	性衍比丘	明照比丘
供養大施主 洪存世 兩主	施主 金應龍 兩主	曇日比丘	敬性比丘
大施主 白峰連 兩主	施主 金貴金 兩主	曇花比丘	一安比丘
大施主 吳樓訖 兩主	施主 金鈞同 兩主	惠默比丘	處仁比丘
大施主 崔得訓 兩主	施主 金末男 兩主	覺林比丘	元卞比丘
大施主 通政大夫 洪得守 兩主	施主 金白 兩主	道默比丘	靈瑞比丘
大施主 韓影勝 兩主	施主 金白 兩主	性林比丘	書記 靈現比丘
大施主 曹白 兩主	施主 李貴男 兩主	戒文比丘	元卞比丘
大施主 貴良 單身	施主 高億生 兩主	勝甘比丘	靈瑞比丘
施主 鄭閑男 兩主	施主 鄭莫山 兩主	儀云比丘	各 結願隨喜施主等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皆共成佛道
	施主 金汝建 兩主	靈日比丘	順治十一年甲午季春 化主 尙裕 比丘
	施主 愛玉 單身	廣全比丘	
	施主 李錦守 兩主	海澄比丘	
	施主 崔吉金 兩主	德雄比丘	

□

○ 조사내용

문수사 지장시왕상 일괄은 대웅전 전방 좌측 편에 자리 잡은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다. 원래는 지장보살을 비롯하여 십대왕, 귀왕, 판관, 동자, 장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대웅전 불상의 발원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좌우협시인 무독귀왕과 도명존자, 판관, 귀왕, 동자 등 일부 권속은 어느 시점엔가 소실(消失)되어 전해왔다. 그러던 중 2004년 3월 18일에는 명부존상 중 도시대왕, 오관대왕, 진광대왕, 염라대왕, 장군상(또는 인왕상) 2구 대한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들 중 시왕상 4구는 회수되어 제자리로 돌아 왔으나 장군상(또는 인왕상) 2구는 아직 미회수된 상태이다.¹⁾ 현재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10구) 등 모두 11구가 봉안되어 있다.

이들 존상들은 平等大王像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에 따르면, 이들 존상들은 1654년 3월에 대웅전 삼불상을 조성하면서 함께 조성한 것이다. 이 불사에는 대웅전 삼불상과 마찬가지로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國一都大禪師 碧峯堂 碧巖覺性’과 ‘晦跡堂 性悟’를 증명으로 내세워 많은 사부대중들이 동참하였다. 이 불상을 조각한 사람은 대웅전 삼불상과 마찬가지로 해심을 비롯한 10여명의 승려 조각가들이었다. 해심은 17세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조각승 중 한 분인 무염의 조각계통을 이어받은 조각승이다. 한편, 평등대왕상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복장유물은 요사채(한산전)에 따로 보관해 오던 중 2008년 1월 12일 새벽에 일어난 화재 때 건물과 함께 모두 소실되었다.



그림 1 목조지장보살좌상



그림 2 대좌 윗면 중수목서명

1) 문화재청 홈페이지 도난정보 참조



그림 3 고창 문수사 시왕상 ①



그림 4 고창 문수사 시왕상 ②

본존인 지장보살상은 민머리의 삭발비구형(削髮比丘形)으로, 팔각삼단대와 위에 결가부좌 하였다. 민머리는 불화에서 흔히 볼 수 있듯 남색바탕에 녹색라인을 두텁게 돌려 칠했으며, 얼굴은 통통하게 살이 올라 양감이 유달리 강조되었다. 특히 눈두덩과 양 볼은 도톰하게 부풀리고, 턱은 이중으로 중후하게 살집을 잡아 양감을 충만시켰다. 콧날은 양미간에서 우뚝하게 돌출하였으며, 귀의 귓바퀴는 둥글게 돌려 날렵하게 귓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쇠기모양으로 깊게 파낸 상·하각과 3자형으로 귓구멍의 윤곽을 뚜렷하게 나타내었고, 작은 주머니모양으로 늘어진 귓볼에는 귀고리를 부착하여 장엄하였다. 착의(着衣)는 이중(二重)으로 걸친 통견이며, 힘 있는 직선과 호선의 주름으로 간결하게 처리하여 단순미를 추구하였다. 목에는 삼도의 표현이 뚜렷하고, 가슴은 편평하지만 듬직하고, 목과 가슴 사이의 둔덕을 이루는 쇠골선은 추상적이다. 군의는 명치까지 올려 입고 다섯 개의 꽃모양으로 주름 잡아 멋을 주었는데, 17세기 중엽경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가슴에서 단전으로 이어지는 복부는 불룩하게 윤곽을 잡아 신체의 볼륨감을 표출하였다. 두 손은 따로 제작하여 끼워 넣었으며, 오른손은 들어 엄지와 중지를, 왼손은 무릎 위에서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었으며, 왼손의 바닥 위에는 보주를 올려놓았다.

보살상의 무릎 앞으로는 여러 겹의 띠 주름을 세밀하게 겹쳐 부채살 모양을 이루었으며, 상체의 주름과 달리 요철이 깊어 입체적이다. 이와 같은 무릎 앞의 입체적인 부채살 주름은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주로 무염의 후반기 조각에서 엿볼 수 있어서 무염의 조각전통이 해심에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이 불상을 조성할 당시 무염이 이 작품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참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같은 해에 같은 조각 집단에 의해 제작된 문수사 대웅전 삼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는 수화원 ‘해심(海心)’ 위에 추기(追記)하는 방식으로 ‘양사 무염’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그의 스승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시왕상들은 통천관을 쓰고 수염을 길게 길렀으며, 붉거나 푸른 곡령대수포를 입고 엉덩이가 꼭질 정도의 좁은 의좌에 앉아 지옥중생을 심판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얼굴은 명부의 심판자답게 위용이 있으며, 이마나 눈언저리, 입가 등에는 시왕이 짓는

표정에 따라 생긴 미세한 주름까지 놓치지 않고 조각하여, 조각자의 섬세한 표현감각도 엿볼 수 있다. 관복의 어깨와 가슴에는 능화형(稜花形)으로 꾸며진 흉배를 표현하고 임금과 신하의 그것과 같이 용과 학, 구름 등을 그려 넣었다. 양다리 사이에는 광다회를 길게 늘어뜨렸다. 시왕상은 손을 이마에 대고 미간을 찡그려 심각하게 고민하는 표정을 짓거나 앞니를 드러내고 개구지게 웃거나 책을 펼쳐보거나 긴 수염을 매만지는 등 비교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인다. 채색은 오래되어 박락이 있으나, 고색찬연한 색채가 오히려 고고한 존상의 품격을 더욱 돋보게 한다.

지장보살상의 대좌 윗면에는 중수 때 기록한 묵서명이 남아 있다. 이 묵서명은 1844년에 지장보살상을 개금하고 시왕상을 개채하면서 기록해 둔 것이다. 이때 참여했던 화원은 '19세기 불화 화단에 큰 족적을 남긴 '圓潭 乃圓'이다.

<대좌 묵서명>

道光二十四年甲辰五月十八日改金地藏菩薩改彩十王各像

상단

大施主秩

愼英

軌宗

郭應大

學律

英玉

敬源

智閒

仁暉靈駕

演訓

永寬

禩(?)弘

羲教

중단

化主

鷲岩堂敬倍(?)

住持淸月堂映(?)河(?)

大施主 忽必

하단

緣化秩

證師 白坡堂 亘旋

金魚 青松堂 仁默

圓潭堂 乃圓

誦呪 昶昨

香閣 龜峰堂 仁裕

別座 普恩堂 贊韻

供養主 弘均 智瀚

都監 中庵堂 藕弘

化主 雲溪堂 榮準

冥府殿丹青

金魚 琬?堂 寬(?)俊

幻波堂 德岸

淸?堂 映(?)湜

?元

4.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일괄(梁山 金鳥塚 出土 遺物 一括)

가. 심의사항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
- 관계전문가 회의('15.2.5)를 통해 지정조사 추진 대상으로 검토된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일괄’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조사('14.12.24)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위원회 2016년 제4차 회의(8.11)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8.30~'16.9.28)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일괄(梁山 金鳥塚 出土 遺物 一括)
- 소유자(관리자) : 국유(동아대학교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 동아대학교박물관
- 수 량 : 6건40점
- 규격(cm) : 금제태환이식 2쌍 (길이 9.4, 7.2)
금제조족 1쌍(전체길이 2.8)
금제팔찌 1쌍 (직경 7.6)
은제허리띠 1식(鉸具 4.5, 폭 3.5, 鎊板, 垂飾 직경 2.9,
帶端 金具 길이 11.2)
청동제 초두 1점(높이 10.3, 손잡이 길이 11.1)
- 재 질 : 금·청동·은제
- 조성연대 : 삼국시대

○ 출 토 지 : 梁山 北亭里 古墳群 金鳥塚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있음)

양산의 금조총 출토 일괄유물은 경주에서 벗어난 양산 지역에서 신라의 발전된 고분 문화가 전파되고 이곳에 이러한 최상급의 금속공예품이 제작된 것을 보여주는 신라문화의 전파와 계보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제작 시기는 경주에서 발견된 귀걸이와 금제 팔찌 등과의 양식적 비교를 통해 삼국시대 6세기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발견된 태환이식 귀걸이 가운데 누금세공으로 아로새겨진 귀갑문 귀걸이는 경주 보문동 부부총 귀걸이와 함께 신라 귀걸이 가운데 최고로 정교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금제 태환이식 한쌍 만으로도 국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함께 발견된 금제 조족(鳥足) 역시 비록 소품에 불과하지만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공예품이라는 점에서 이 고분의 가치와 의미를 잘 드러내 준다. 이 밖에도 거치형(鋸齒形)으로 외형을 장식한 금제 팔찌, 은제 투조 과대도 경주 외의 지역에서 발견된 예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삼족 없이 새의 누가 장식된 독특한 기형의 청동 초두(鑣斗)도 삼국시대 초두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된다. 이 밖에도 금조총에서는 신라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닌 금동관, 금제 영락, 곡옥이나 각종의 토기들도 발견되었으나 이들은 상태가 완벽하지 못하고 일부 떨어져 나온 유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정에서는 앞서의 6건을 중심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지정 가치 있음)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축조된 금조총은 묘제는 경주의 천마총, 금관총, 황남대총처럼 積石木槨墳이 아니라 가야식 橫口式石室墳인데 비해 내부의 부장유물은 경주의 대형고분 출토품과 같은 양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피장자는 신라 중앙정부와 관련된 인물이거나 친족으로 추정되고 있다. 때문에 유물들은 5~6세기 가야 고분미술품의 특성 및 경주지역 고분미술품과의 관련성을 알려주고 있어 고고학적 의의가 크다.

지정 신청된 금조총 출토 일괄유물들은 장신구와 생활기로서 출토지 및 출토 상태가 명확하여 가야 고분공예품을 연구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이다.

먼저 고고학적 관점에서 보면 수목형 입식과 녹각으로 구성된 금동관은 양산 부부총 출토 금동관과 거의 같은 형태일 뿐 아니라 신라 出字形(또는 山字) 금관 형식을 따르고 있어 신라관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쌍의 금제태환이식은 태환식 고리에 중간식, 수하식으로 구성되고, 표면에는 누금세공기법으로 귀갑문을 장식한 점은 경주식 귀걸이의 전성기 양식을 갖추고 있다. 금제목걸이나

팔찌 1쌍, 銀製鍔帶도 경주의 대형고분 출토품과 같은 계보 및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고고학적 가치가 크다. 특히 금제조족은 작지만 새 다리의 자연스러운 완만한 곡선이나 몸체를 지탱해주는 균형감은 예술성을 돋보이게 한다. 구조나 제작수법이 뛰어난 청동제초두 역시 유례가 없는 형태여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금속공예사적으로는 삼국시대 신라와 가야 고분공예품의 조형 및 양식적 차이와 相關性을 연구하는데 중요 자료라는 점과 切金, 彫金, 鑄造, 鏤金細工 등 고분금속공예 제작기법이 망라되어 있어 기술사적 의의도 크다.

따라서 양산 금조총 출토 일괄유물은 소형고분에서 출토되었지만 유물의 가치는 고고학적, 금속공예사적으로는 의의가 크므로 보물로 지정하는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양산 금조총 출토의 일괄 유물은 출토유구와 출토상태를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고고자료 일뿐만 아니라 유물의 역사학적 가치도 뛰어나다고 판단된다. 그 가운데서도 자갈시상 위에서 출토된 금동관, 금제 공구체 경식(?), 은제 대금구, 금제누금태환이식 1쌍, 금제 팔찌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매우 우수한 고고학적 자료로 판단된다.

금동관은 전체적인 상태가 불량하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대륜과 입식편에서 시문기법과 입식과 대륜의 결합방법(시문면의 상태, 못수)에서는 경주의 금령총과 큰 틀에서는 같지만, 무늬의 구성, 곧 2줄의 원점열무늬를 대륜가장 자리에 2줄 베풀고 그 사이에 거치문을 넣는 기법은 고식을 따르고 있는 점에서 금동관 변화에서 주목해도 될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요를 단 금제 공구체 경식(보고자는 이불 장식물)은 경주, 창녕 계성, 양산에서 출토되는 중요자료로서 출토위치에 따라서 때로는 관이나 모자의 수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경식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자료인데 양산 금조총 자료는 현재 용도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지만 중앙과 동일한 형식이 지방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피장자의 허리 아래부분에서 발견된 누금기법을 베푼 금제태환이식은 비슷한 예가 경주 보문동 부부총 출토품과 리움(호암)미술관 소장품에서 볼 수 있다. 전자는 국보 90호로, 후자는 보물 557호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 금조총 시상 위에서 출토된 금제태환이식은 태환은 물론이고 유환에까지 누금세공이 행해져 신라 태환이식 가운데서 앞의 지정문화재들에 필적할 만한 자료이다.

누금세공 기법에서 보면, 금조총은 금립을 누금한 육각형의 폭이 넓은 금판을 다시 금판에 부착한다고 하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희귀 가치는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기법이 어디에서 수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보인 경주 보문동 부부총 출토품과의 커다란 차이점이다.

다음으로 금제조족은 아직 유례를 볼 수 없는 초출자료이지만 용기의 다리에 붙여졌다면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릇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금제 팔찌는 신라의 6세기형 팔찌의 전형을 보여주며 감옥을 하는 특징을 갖춘 정교하게 만들어진 優品이다. 은제과대는 보존 상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판과 수하식이 삼엽문을 기본으로 하지만 중앙인 경주와 비교하면 과판과 수하식의 상하단에 투조무늬를 한단 더 넣는 점에서 과판의 문양 표현법이 매우 정교하고 뛰어나며, 다른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청동제 초두는 뚜껍의 정상부에 四葉文座를 두고 그 복판에 새 모양을 입체적으로 주출해낸 형상은 유례가 드문 자료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양산 금조총 출토의 일괄유물은 낙동강의 지류인 양산천 충적지를 감시할 수 있는 북정리에 입지하는 소형(전체적으로 무덤 크기를 비교한다면) 횡구식석실에서 출토되기는 하였어도 출토상태를 알 수 있다는 고고학적 자료로서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그 유물의 구성과 개개 유물들의 제작상의 뛰어난 것과 희귀한 가치는 삼국시대 양산지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금조총의 가치는 거기에서 출토된 화려한 장신구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신구를 착용하게 된 배경과 사람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조총은 보고자와 필자의 편년에 의하면 5세기 말 경의 유적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로 보아 그 내용이 모두 신라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으나 5세기 말에 양산지역은 신라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유물의 내용이 금동관과 금제팔찌, 금제 영락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三國史記』 「車騎」나 「器用」조를 참고하면 진골도 금은이나 도금된 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라 진골 출신 이상의 인물이 양산지역의 지배자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재 지정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증명하는 유물을 일괄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발굴되어 모든 유물이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양산부부총 출토 유물의 반환에도 학술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뛰어난 공예품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반영하고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을 추정할 수 있는 고고학적 유물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금조총 출토유물은 모두 일괄유물로 지정하여(동아대학교 박물관, 1991, 『양산금조총·부부총』 도면6. 금동관, 도면7. 금제태환이식, 도면8. 금제태환이식 및 금제팔찌, 도면9. 금제조족, 도면10,11. 은제과대, 도면12. 곡옥, 유리구슬 및 금제영락, 도면13. 청동초두, 도면14. 은제칼집 장식구 및 철기류, 도면15. 생토총 출토 장경호, 도면16. 상석총 출토

장경호, 도면 17. 생토층 출토 고배, 도면 18. 상석층 출토 고배, 도면 19. 상석층 출토 고배, 도면 20. 상석층 출토 고배) 국가문화재 지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문화재 보호와 불법해외반출문화재 반환에도 대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조사내용

1) 출토 경위 및 현상 특징

양산 북정리(北亭里)에는 산등성이를 따라가면서 조영되어 있는 큰 고분군이 있다. 일제시기에 발굴 조사되어 많은 유물이 출토된 양산 부부총(夫婦塚)이 바로 이곳에 위치한다. 이곳에서 조금 낮은 곳에 위치한 돌방무덤이 금조총(金鳥塚)으로서 1990년에 발굴 조사되었다. 무덤 안에서는 금으로 만든 새의 발[鳥足]과 금동관, 은제 허리띠 등과 함께 굵은고리 귀걸이가 2쌍이 출토되었다. 두쌍의 금제 귀걸이는 시상(屍床)의 하부에서 천마총 귀걸이와 비슷한 것이 1쌍, 시상 위에서 경주 보문리 부부총(夫婦塚) 부인의 귀걸이처럼 중심 고리에 금알개를 붙여 장식한 것이 1쌍 출토되었다. 이번에 지정 신청된 출토 유물은 모두 6건으로서 그 현상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금제태환이식(金製太環耳飾, 1雙) 상석 위 출토)

상석(床石)위에서 출토된 금제태환이식(金製太環耳飾) 1쌍은 과판들 아래쪽의 상면 중앙쯤에서 가지런히 출토되어 과대(鈔帶) 장식이나 혹은 피장자의 오른손에 쥐어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主環-遊環2개-連結金具-中間飾-垂下飾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길이는 9.4cm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5~6 세기대 신라 귀걸이 중 가장 길다. 직경 3.1cm의 태환의 중심 고리에는 작은 귀갑문(龜甲文)을 빼곡히 장식하였는데, 정 중앙에 조금 큰 금 알갱이 한 개를 붙이고 그 주위를 돌아가며 원형과 다시 육각의 귀갑문을 금알갱이로 누금세공(누금세공)하였다. 중심 고리 중앙에 연결된 유환에도 타원형의 금 알갱이를 둘러 연결시켰다. 아래에 연결된 셋장식은 노서리 215번지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각목된 새김눈이 장식된 작은 고리를 연결시켜 만들었으며 외연을 금알갱이로 화려하게 장식한 하트형의

작은 고리를 위 아래로 연결시켜 드림장식으로 만들었다. 맨 아래에 연결된 드림은 펜촉 모양으로서 내부에는 중앙 종선을 중심으로 사선형의 금알갱이와 붙이고 외연을 따라가며 금알갱이로 정교하게 장식한 신라 귀걸이의 명품이다.

나. 금제태환이식(金製太環耳飾, 1雙)

상석(床石)아래에서 출토된 또 하나나의 금제의 태환이식(太環耳飾) 1쌍으로서 전체 길이는 앞의 것보다 조금 짧은 7.2cm 이다. 역시 主環-遊環2개-連結金具-中間飾-垂下飾으로 이루어졌는데, 안이 비어있는 태환의 지름은 3.0cm이다. 두 점 가운데 한점은 약간 찌그러진 상태이다. 주환과 그 중앙에 연결된 유환에는 아무런 장식이 배풀어져 있지 않아 단순한 느낌을 준다. 그 아래 걸린 중간식은 작은 고리를 연결시켜 상하에 구형(球形)과 반구형(半球形)을 이루도록 구성하였으며 위쪽에 9개, 하단에 9개의 심엽형 드림 장식을 달았다. 이 심엽형 장식 외연에만 금알갱이를 붙여 장식하였다. 제일 아래쪽에 달린 드림 장식은 앞의 태환이식의 펜촉형과 달리 옆으로 약간 퍼진 심엽형으로서 중앙의 종선 두줄과 외연부에 금알갱이를 이용하여 장식하였다. 단순하지만 전형적인 신라 태환식 귀걸이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서 외형적으로만 황오리 52호분(보물 455호)에서 출토된 귀걸와 아래쪽 수하식이 펜촉형인 것 만 제외하고 매우 흡사하여 주목된다.

다. 금제조족(金製鳥足, 1雙)

이 고분이 금조총(금조총)이라 불리우게 된 가장 결정적 자료가 금제로 된 새발가락 형태의 장식품이다. 이 금족(鳥足) 1쌍은 피장자의 머리 부분 오른쪽에 놓였던 장경호 내부와 그 바깥 상면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순금을 이용해 上상부에는 평편하게 원판형을 만들고 이 내부에 어느 곳에 부착시키기 위한 소공을 3곳에 뚫었다. 이 아래로 연결된 다리는 중간이 안쪽으로 휘어지게 꺾은 후 하부는 바깥으로 뽀족하게 뻗어있는 4개의 가지를 발톱 형상으로 만들었다. 전체 길이는 2.8cm이고 발가락 길이는 0.6cm에 불과한 작은 크기이지만 지금까지 다른 어느 고분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는 장식품으로서 못으로 연결한 구성으로 보아 금제 등의 귀한 재료로 쓰인 몸체에 부착되었던 다리의 일부로 추정되지만 3개나 4개가 아닌 2개뿐이어서 앞으로 그 용도에 대해서는 좀더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의 귀갑문 누금 태환이식과 같은 당시의 최상의 금속공예품이 함께 동반된 고분이라는 점에서 이 금제조족 역시 상징성과 의미 등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삼국시대 공예품의 귀중한 예이다.

라. 금제팔찌(金製釧, 1쌍)

이 한 쌍의 금제팔찌 1쌍은 피장자의 왼쪽 손목 위치에서 함께 출토된 것으로서 내부를 비게 하여 금판을 둥글게 말아 직경 7.6cm의 팔찌로 제작하였다. 특히

팔찌는 몸체는 크게 두단으로 나누어져 내부 쪽 단은 납작하게 갈은 대신 외부는 톱니 모양의 거치형(鋸齒形) 돌기로 장식하였다. 팔찌의 두점 다 한쪽 면에 금테를 구부려 접합한 흔적이 남아 있어 당시의 제작 공정을 짐작할 수 있다. 팔찌의 외연에 둘러진 돌기 장식의 정상부를 안으로 약간 오목하게 처리한 점이 주목되며 백제 무녕왕릉에서 보이는 거치형 금제팔찌와의 연관성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좀 다른 미감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예로는 천마총(天馬塚) 출토품과 경주 황오리(皇吾里) 것이 남아있으며 은제 팔찌도 꽤 여러 점이 확인되어 신라 6세기에 유행된 팔찌 형식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 금조총 금제 팔찌는 제작 기술이 우수한 편에 속한다.

마. 은제허리띠(銀製鈔帶, 1식 31매)

이 은제 허리띠는 피장자가 몸에 두른 상태로 출토된 것으로서 직경 4.5cm, 폭 3.5cm의 교구(鉸具) 1매, 직경 2.9cm의 과판(鈔板)과 수식(垂飾) 30매, 길이 11.2cm의 긴 장방형의 대단금구(帶端金具) 1매의 총 31매로 구성되었다. 아래에 연결되는 요패(腰佩)는 출토되지 않았다. 모두 은제로 만들어져 앞쪽의 교구는 반원형에 버클 형태로서 중앙에 T자형의 鉸針이 붙어있다. 방형으로 이루어진 과판에는 인동 당초문을 투조로 시문하였고 아래에 연결된 심엽형 고리에도 화려한 당초문 형태를 투조하였다. 전체적으로 모두 동일한 형태와 문양 구성을 지녔으며 섬세하고 화려한 투조 기법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일부의 과판은 상부면에 또는 심엽형 고리에 약간의 파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긴 장방형의 대단금구는 허리띠에 붙는 6각형의 가죽 고정부와 그 아래 긴 矩形의 수하부를 별도로 만들어 경첩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연결한 것이다. 가죽 고정부에는 아래쪽 중앙에 하나 위쪽 외연에 5개의 못으로 고정시키도록 만들었다. 은제는 산화에 의해 검은 색조를 띠고 있으며 현재 이들 은제의 과대 금구는 대부분 검게 산화된 상태이고 방형 과판도 일부가 부식에 의해 변색되었지만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마. 청동제 초두(靑銅製鏃斗, 1점)

이 한 점의 초두(鏃斗)는 피장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서 토기 등의 각종 유물과 함께 출토된 것이다. 청동 초두의 외형은 뚜껑이 덮인 납작한 원합의 몸체 위로 한 마리의 새를 장식한 뉴를 붙였으며 뚜껑 한쪽에 돌출된 고리의 구멍을 뚫어 몸체에 길게 뻗은 방형의 손잡이와 연결되도록 만든 것이다. 손잡이는 뒤로 가면서 약간 넓어지며 구 상부 끝단에 소공이 뚫려있어 별도의 나무 손잡이를 끼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몸체에는 외곽을 돌아가며 세줄의 용기선으로 시문하였고 위에 덮인 뚜껑에도 그 외곽에 두·세줄의 용기선과 중앙에 솟아있는 새 장식 뉴를 중심으로 화형의 돌기문과 사방으로 십자형의 용기선을 연결한 매우 특징

적인 모습이다.

손잡이와 뚜껑이 연결된 손잡이 부분은 여단을 수 있도록 철심을 끼워놓았지만 현재는 이 부분이 부식된 상태이다. 그 못을 회전축으로 하여 개폐가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

이처럼 뚜껑의 꼭지로 새 장식이 부착된 것은 서봉총 출토의 세발솥에서도 볼 수 있어 경주 왕릉급 무덤의 기술이 전파된 점을 시사한다. 이 초두는 가장 기본적인 세발이 달려있지 않으며 물을 따르는 주구(注口)가 없이 납작한 모습인 점에 마치 뚜껑이 없는 다리미(熨斗)와 유사하지만 내부에 남겨진 유기물질의 흔적을 통해서 다리미(熨斗)보다는 음식을 끓일 때 사용하는 초두(鑊斗)로 판단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유물은 그 형태의 단정함과 뚜껑에 보이는 새 장식 등에서 초두로서는 매우 희소한 형태를 지닌 삼국시대 초두의 귀중한 예이다. 전체 높이는 10.3cm이며 몸체는 손잡이의 길이는 11.1cm이다

□

○ 현 상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金鳥塚 출토 일괄 유물은 삼국시대 5~6세기 가야 고분미술품의 특성 및 경주지역 고분미술품과의 관련성을 알려주고 있어 고고학적 의의가 크다. 금조총은 경남 양산시 북정리 千聖山 702번지에 위치하며, 사적 제93호(1963년 1월21일)인 북정리 고분군 부부총의 서남쪽으로 20m 떨어져 있는 소형 무덤이다.²⁾ 택지조성사업이 예정된 北亭里와 新基里일대에 삼국시대 고분이 많아서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1990년 4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발굴하여 금조총을 비롯한 50여 기의 고분을 확인하고, 인접한 부부총을 재조사한 결과, 이 두 고분은 平面長方形으로 앞면이 트인 橫口式石室墳이었음을 알게 되었다.³⁾

금조총과 부부총에서 출토한 금동관, 금제팔찌, 금제경식을 비롯한 출토유물은 금관총, 천마총, 황남대총 등 경주지방의 대형 積石木槨墳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매우 유사하여, 묘장은 가야적이지만 출토유물은 경주풍이다. 때문에 피장자는 신라 중앙정부와 관련된 인물이거나 친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금조총은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금조총에서는 팔찌, 귀걸이, 목걸이, 과대 같은 장신구류, 철제가위, 철제장도, 鐵鋌 등 철물류와 高杯, 長頸壺 등 토기류도 많이 공반출토되었으나, 武器나 鎧子 등 馬具가 출토되지 않아 피장자는 여성일 것이다.⁵⁾

2) 산 위쪽에 있는 대형분인 夫婦塚은 일본인에 의해 1920년에 조사되어 1927년에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3) 沈奉根, 『梁山金鳥塚·夫婦塚』,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p.23 및 p.154.

4) 부부총은 追加葬으로 남편이 5세기 중반 이후에 먼저 사망하여 무덤을 축조하고, 5세기 후반에 부인이 사망하여 합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정 신청된 유물들은 금동관을 비롯한 고분금속공예품 8점으로 금동관, 금제 태환이식 2쌍, 금제경식, 금제팔찌 1쌍, 은제과대, 금제조족 1쌍, 청동초두인데 기능별로 분류하면 장신구 6점, 생활기 2점이다.

○ 내용 및 특징

1) 金銅冠

피장자의 머리에 씌워진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부식이 심하고 박락된 부분이 많아 형태만 알 수 있는 상태이다.(도1, 삽도1-1) 復原한 높이는 33.5cm, 대륜폭은 4.5cm, 입식 폭 3.3cm, 녹각 폭 2.9cm이다.⁶⁾ 얇은 동판을 절단하여 臺輪과 3개의 수목형 입식과 2개의 鹿角을 리베팅하여 성형한 것으로 신라 出字形(또는 山字) 금관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양산 부부총 출토 금동관과 거의 같다. 수목형 입식과 녹각의 끝에는 보주가 장식되었으며, 대륜은 釘으로 찍어 상하 2줄의 윤곽선을 두르고 그 안에는 삼각형에 가까운 파상문을 시문했다.

금동관 전체에는 步搖(영락)를 달았는데, 대륜의 步搖座는 3줄로 뒷면에서 공구로 압출(press)시켜 앞면은 볼록한 半球形으로 만들고 도금한 후 2개의 작은 구멍을 내어 여기에 끈사로 보요를 달았다.(도2)

2) 金製太環耳飾 2쌍

① 금제태환이식

床石 아래 土層에서 출토한 이 귀걸이는 2개의 반구형(단면:◎)을 붙여서 만든 素文太環式 고리와 細環인 중간식, 垂下式으로 연결된 형태로 길이는 7.2cm이다. 수하식에는 심엽형 보요가 달려있고, 끝에는 鏤金으로 장식된 심엽형이 달린 모양인데, 천마총 출토 금제이식이나 부부총 출토 主人의 금제이식이 이와 같은 모양이다.(도3, 삽도1-2)

② 금제귀갑문태환이식

床石 위의 은제과대 아래에서 출토된 이 귀걸이는 태환식인 주환과 세환인 중간식, 수하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길이는 9.4cm이다. 주환은 측면 직경 3.1cm, 앞면 폭 1.3cm, 중간식은 앞면 직경 3.1cm, 단면 직경 0.4cm 크기이다.

태환의 표면에는 누금세공기법으로 龜甲文을 장식해서 6세기 작인 경주 보문동 부부총 출토 귀걸이(국보 90호)나 리움소장 금제귀걸이(보물 557호)와 같은 모양이다.(도4, 삽도1-3)

그러나 기법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금조총 귀걸이는 다른 두 귀걸이와 달리 누금세공기법이 어설피게 시문되었다. 즉 확대해보면 태환의 심한 곡면에 같은 크기의 金粒을 가지런히 놓은 후, 고르게 붙이지 못하고, 얇은 육각형 금판 위에

5) 앞 책, p.62.

6) 앞 책, p.37.

金粒을 붙였으나 불이 강하여 입자가 녹아 찌그러진 모양이다. 육각문과 원형문의 배치도 연속무늬로 일률적으로 배치되지 않았으며, 고르지 않은 금알갱이 시문은 수하식의 심엽형 보요나 草實形(長心葉形) 끝장식에서도 드러난다.(도5)

이런 현상이 기술적으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미흡한 결과인지는 논란이 있겠으나, 조사자의 견해로는 공반한 다른 금속공예품을 볼 때 장인이 누금세공기법을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金製頸飾

금제경식은 원래 床石에 散在되었던 총 52개의 영락과 유리, 곡옥을 엮은 것이다.(도6) 영락의 직경은 0.9cm이며, 사방에 심엽형 보요를 달았는데, 이것이 하나의 Unit이다. 이 영락은 금판을 반구형으로 만들어 2개를 제물땀했으므로 內空이라 외부 충격에 잘 찌그러지고,(도7) 중앙에는 점합선이 드러나 있다.(도8)

이러한 목걸이로는 5세기 작인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제경식이나 6세기 전반에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주 路西洞 金製頸飾(보물 제456호, 1967.06.21 지정)을 들 수 있다. 노서동 목걸이는 44개의 영락과 비취곡옥 1개를 연결하여 현재 30.3cm 크기의 둥근 모양이지만 원래 U자형으로 출토된 점을 보면 양 끝에 가죽줄을 연결하여 사용한 것으로 묘주가 귀족여성임을 말해주고 있다.

금조총의 영락들은 황남대총 북분 목걸이나 노서동 목걸이 형태를 모본삼아 현재의 목걸이 모양으로 엮은 것이다.

4) 金製 팔찌

금제팔찌는 床面 위 피장자의 왼쪽 손목 위치에서 1쌍이 가지런히 출토된 것이다.(도9) 전체 직경 7.6cm, 두께(輪線) 0.5cm 크기이며, 여성의 손이 들어 갈 수 있게 비교적 작은 편이다. 표면에는 半球形 돌기가 고르게 타출되어 팔찌의 측면은 마치 鋸齒文이 둘러진 느낌이다.(도10) 양산 부부총에서도 이와 똑같은 부인의 팔찌가 1쌍 출토되었고, 천마총에서는 묘주의 두 팔에 1쌍씩 모두 2쌍인 4개가 출토되었으므로 5~6세기 팔찌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하겠다.

5) 銀製 鈔帶

전체적으로 검게 변하고 녹이 쓴 은제과대는 床石 위 피장자의 腹部에서 엉켜진 채 출토되어서 피장자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도11, 삽도1-4) 鈔具 1개, 鈔板과 垂飾 30매, 帶先金具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구의 직경은 4.5cm, 폭 3.5cm이며, 方形鈔板의 직경은 6.9cm, 폭 2.9cm, 수식의 직경은 3.5cm, 폭 3.9cm, 端具의 길이는 11.2cm, 폭 2.7cm이다.⁷⁾ 이 은제과대의 透彫된 草葉文은 義城 塔里古墳 출토 은제과대보다 진전된 것으로, 양산 부부총 출토 2개의 부부

7) 앞 책, p.41.

용 은제과대의 문양보다도 세부 곡선이 훨씬 정교한 편이다. 또한 심엽형 수식의 표면은 단면이 살짝 좌우로 斜面져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도12, 13)

6) 金製鳥足

피장자의 머리 부분에 부장된 長頸壺 안과 바깥쪽의 床面에서 1개씩 출토되었으며, 몸체는 없어지고 전체 길이 2.8cm, 발가락 길이 0.6cm의 작은 다리만 남은 것이다. 비록 작지만 금으로 만든 자연스러운 곡선을 보이는 이 새 다리로 인해 고분의 명칭이 금조충으로 정해진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도14)

금막대를 단조하여 한쪽 끝은 몸체와 접합되는 원형부분, 중간은 다리 골격, 다른 끝은 4갈래의 발가락인 3단 구성을 보이고 있다. 원형부분은 3개씩의 작은 못으로 몸체에 리베팅 했겠는데, 다리를 금으로 만든 점, 발가락 폭이 몸체를 지탱할 만큼 안정적이었다면 몸체는 작은 크기의 금배 또는 칠배로 추정된다.(도 15) 하지만 금잔은 수습되지 않았고, 칠도 내구성이 강하므로 몸체의 재료가 무엇인지는 향후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

7) 靑銅鏃斗

피장자의 우측 肩部에서 출토된 청동초두는 흠처럼 罍모양에 뚜껑이 경첩으로 연결되고 긴 손잡이가 달린 모양이어서 일견 罍斗로 보인다.(도16, 삽도 1-5)

총높이는 10.3cm이며 罍의 높이는 5cm, 직경은 11.8cm, 柄部 길이 11.1cm 크기이다. 柄部에는 회양목을 다듬어 끼웠으나 현재는 피손되어 일부만 남아있다.

뚜껑의 꼭지는 중국 漢代에 성행했던 감꼭지모양(柿蒂文)인데, 4개의 화판 중심선을 끝을 길게 늘이고 돌출시켜 매우 세련된 느낌을 준다. 이렇듯 합 뚜껑에 감꼭지모양 鈕座가 있는 예는 천마총 출토 금동합을 들 수 있고, 감꼭지 뉴좌에 새가 서있는 예는 삼국시대 식리총 출토 청동합이나 皇菩里 출토 청동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제작기법은 손잡이가 달린 몸체와 뚜껑을 각각 따로 鑄造한 것인데, 손잡이의 내부는 목제자루를 끼울 수 있게 단면을 [回] 모양으로 비게 하려면 따로 core를 넣어야 하고, 뚜껑에도 새가 장식된 점은 주조기술이 뛰어났음을 전해준다.

이런 형태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는 唯一한 형태여서 기능문제가 대두된다. 원래 초두는 注口와 三足を 갖춘 형태인데, 이 유물은 완의 바닥이 平底로 구연부 아래에는 3개의 돌출된 태조선이 있으며, 뚜껑의 꼭지는 새가 장식되었다. 또한 罍斗도 北燕 馮素弗墓 출토품이나 백제 무령왕릉 출토품, 일본 新澤126號墳 출토품처럼 기형이 납작하고 전이 달린 모양이 5~6세기에 동북아에서 공통적인 기형이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완 내부에 유기물질이 있어 초두로 인정했다고 한다.⁸⁾

8) 앞 책, p.45.

이상 간략히 보았듯이 금조총에서는 환두대도나 마구가 출토되지 않았고, 장신구류와 생활기 위주인 점을 볼 때 묘주가 여성이었으며, 유물의 형태나 양식은 양산 부부총 유물과 거의 같다.

○ 문헌자료

김재원·윤무병, 『義城塔里古墳』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3), 을유문화사, 1962.

沈奉根, 『梁山金鳥塚·夫婦塚』,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天馬, 다시 날다』, 국립경주박물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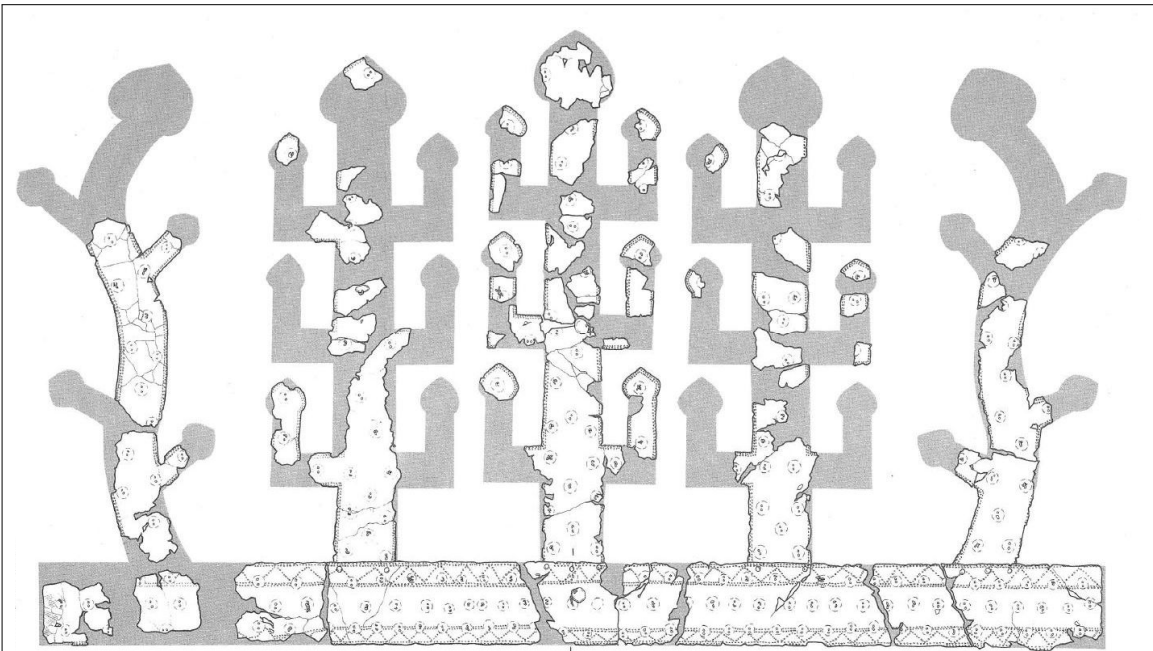
朴普鉉, 「樹枝形立華飾冠 型式分類 追補」, 『大丘史學』 32-1, 1987, pp.1-23.

이한상, 「허리띠 분배에 반영된 고대 동북아시아의 교류양상」, 『동북아역사논총』 33(2011.9), pp.349-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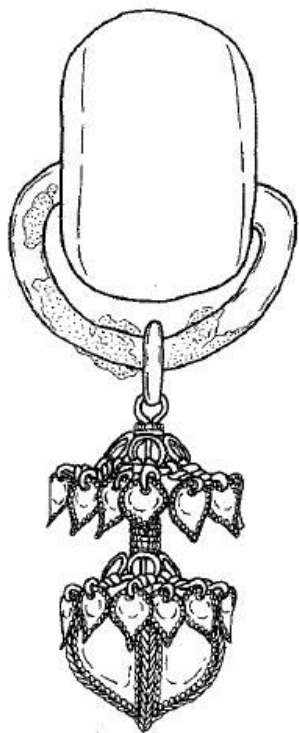
吳小平, 「六朝青銅器的考古學研究」, 『考古學報』 2009-2, pp.185-216.

咸舜燮, 「新羅 樹枝形帶冠의 展開過程 研究」慶北大學校文學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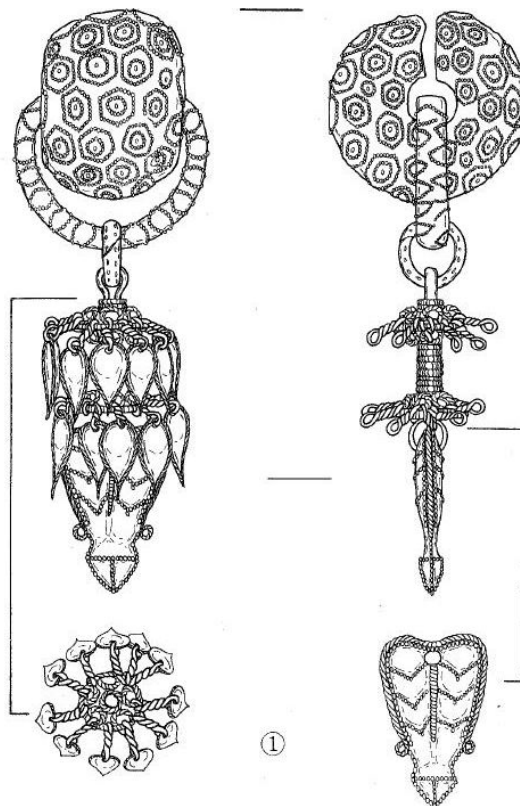
[삽도1]. 출토 유물의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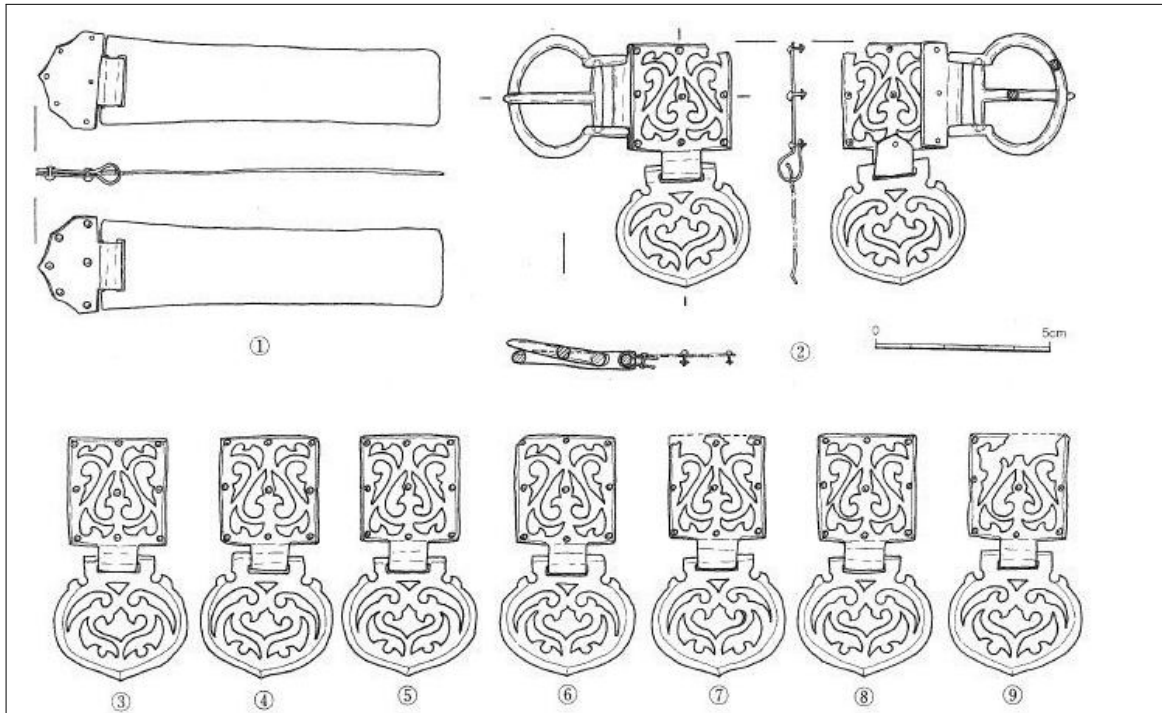
1. 금조총 출토 금동관 실측도(『梁山金鳥塚·夫婦塚』(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p.35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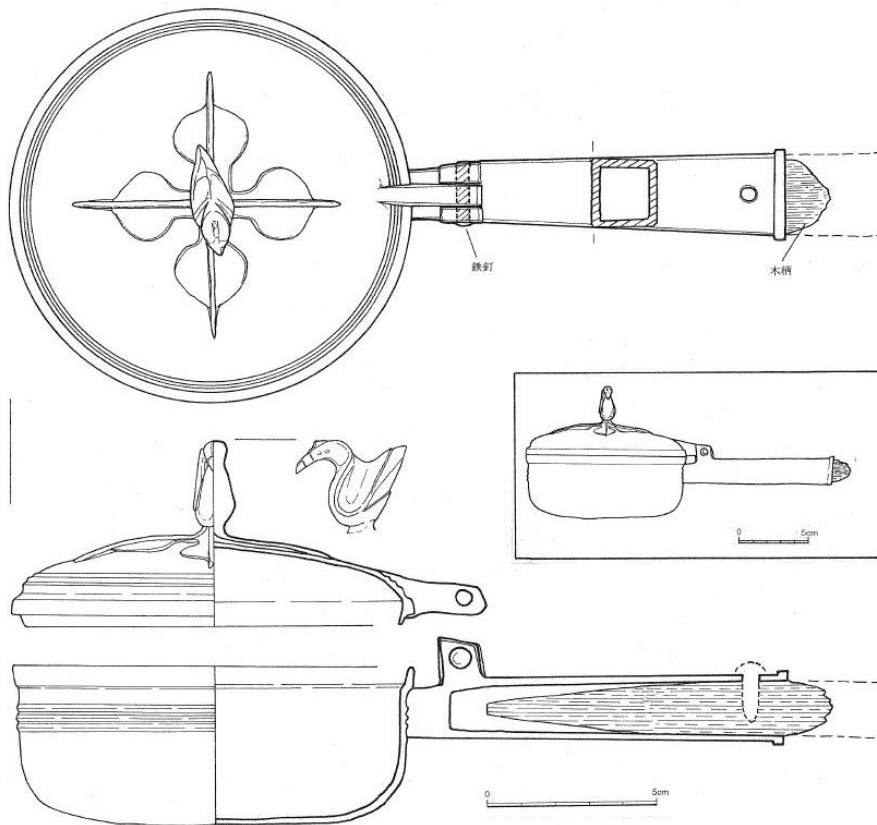
2. 금제태환이식 실측도
(앞 책, p.39)



3. 금제귀갑문태환이식 실측도(앞 책, p.38)



4 .은제과대 실측 일부(앞 책, p.43))



5. 청동초두 실측도 (앞 책, p.43))

[도판]



도1. 금조총 출토 금동관, 가야 5~6세기, 동아대박물관



도2. 금동관의 부분(半球形 步搖座)



도3. 금제태환이식, 床石 아래에서 출토, 길이 7.2cm

도4. 금제귀갑문태환이식, 床石 위에서 출토, 길이 9.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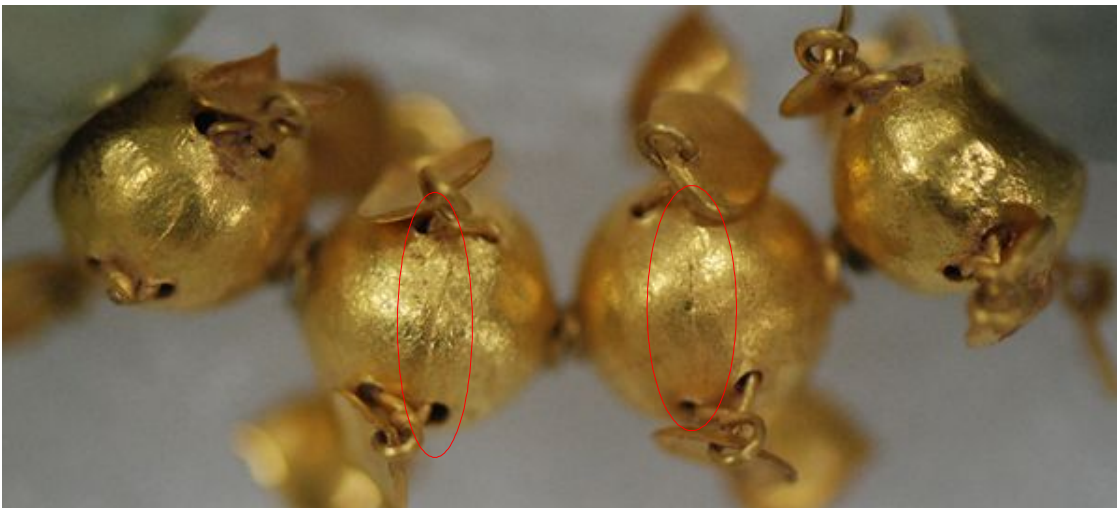
도5. 금제귀갑문태환이식의 부분(판재+누금세공기법)



도6. 금제 경식(床石에 散在된 것을 위
음, 총 52개, 영락직경 0.9cm)



도7. 영락 부분(內空이라 찌그러짐)



도8. 영락 제작기법(반구형 접합선)



도9. 금제팔찌 1쌍, 피장자의 왼쪽 손목 위치 출토, 직경 7.6cm



도10. 금제팔찌의 정면 문양



도11. 銀製鍔帶, 床石 위에서 출토, 피장자 착용. 과판 직경 6.9cm



도12. 心葉形 垂飾의 앞면(透彫草葉文),
단면: 좌우 斜面



도13. 심엽형 수식의 뒷면



도14. 金製鳥足, 길이 2.8cm



도15. 鳥足の 발바닥, 리베팅 구멍



도16. 청동초두(?), 피장자 우측 견부에서 출토, 회양목 木柄 끼움, 총고 10.3cm,
盥高 5cm, 직경 11.8cm, 柄部길이 11.1cm

□

○ 현 상

금회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된 일괄유물 8건 83점에 대하여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현상을 적어 둔다.

가. 금동관(金銅冠, 1점, 자갈 尸床 위)

석실의 남동쪽 단벽 아래 자갈 시상 위에서 눕혀져서 출토되었는데, 보고자는 땅자의 머리에 씌웠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출토당시는 매우 부식이 심하였으나 부존처리를 거치고 복원해 본 결과, 대륜에 수지형 입식 3개와 녹각형 입식 2개를 대가리가 둥근 못으로 결합하였는데, 대륜의 복판에 결합되어 있는 수지형 입식은 좌우 수지형 입식이나 녹각형 입식보다 약간 크다. 그리고 결합 못도 복판 수자형입식과 녹각형입식은 3개의 못을 사용하였으나 좌우 수지형 입식을 결합하는 데에는 2개의 못을 사용하였다. 왼쪽의 녹각형 입식은 결합상태를 알 수 없다. 대륜과 입식에는 원형의 영락을 달기 위하여 세줄의 용기문을 타출하여 보조좌를 만들고 중앙에 작은 구멍을 2개씩 뚫었다. 또한 입식의 가장자리에는 2줄의 원점문이 타출되었고, 대륜에는 상하 가장자리에 두줄의 원점문을 두 줄로 새긴 후 그 사이에 1줄의 원점으로 구성된 거치문을 시문하였다. 입식과 대륜에 베풀어진 시문의 방향은 모두 관의 내면에서 타출하여 무늬가 도드라지게 하였다. 이렇게 원점문을 베풀고 시문방향도 동일하게 결합한 것은 경주 금령총금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나. 금제태환이식(金製太環耳飾, 1雙, 상석 위 출토)

자갈로 된 尸床 위에서 출토된 金製太環耳飾 1쌍은 은제과관들 아래쪽의 상면 중앙쯤에서 은제 띠끝금구와 나란히 출토되어 서봉총의 투조태환이식 부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 준다. 구조는 主環-遊環2개-連結金具-中間飾-垂下飾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길이는 9.4cm로서 긴 편이다.

지름 3.1cm인 주환은 龜甲文-원형 그리고 복판에 약간 큰 금립 한 개를 둔 도안인데 모두 鑲金기법으로 무늬를 베풀었다. 이들은 주환에 직접 누금된 것이 아니라 귀갑문의 형태로 오려진 별도의 금판에 시문되고 이 금판이 주환에 접합되어 있다. 이러한 기법은 현재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예이다. 이 기법은 제1유환에도 적용되었는데, 귀갑문에 가까운 형태로 금판을 가늘게 오려서 연접해 붙이고 그 위에 금 알갱이를 붙였다..

中間飾은 눈금을 새긴 금사를 고리처럼 연접시켜 구체와 반구체의 형태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心葉形 璽珞이 각각 11개씩 상하 2단으로 매달려 있는데 가장지라는 각목대로 장식하였다. 수하식은 펜촉 모양이며 가운데와 가장자리에는 각목대를 붙이고, 나머지는 누금기법으로 장식하였다.유환과 중간식 그리고 수학

식을 연결하는 연결금구는 금판으로 만들었다.

다. 금제태환이식(金製太環耳飾, 1雙, 시상 아래 출토)

尸床아래에서 출토되었으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는 金製太環耳飾 1쌍으로 전체 길이는 7.2cm이다. 구조는 主環-遊環2개-連結金具-中間飾-垂下飾으로 이루어졌다. 지름 3.0cm로 가운데가 빈 主環과 細環으로 된 제1유환은 모두 무늬가 없는 素文이다. 중간식은 작은 고리를 연결시켜 상하에 球形과 半球形을 만들었으며, 각각에는 9개씩의 작은 심엽형 영락을 매달았다. 영락의 가장자리에는 刻目帶를 을 돌렸으며, 垂下飾은 심엽형이며, 중앙선과 주연에는 새김눈 장식을 장식하고 안쪽에는 누금세공으로 장식하였다. 유환과 중간식 그리고 수하식을 연결하는 연결금구는 금판이다.

라. 금제조족(金製鳥足, 1雙)

金製鳥足 1쌍은 피장자의 머리 부분 오른쪽에 놓였던 장경호 내부와 그 바깥 상면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된 것이다. 순금을 두드려 학의 다리처럼 중간이 굴곡지게 제작하였다. 발가락은 4개로 끝이 뾰족하게 벌어졌으며, 몸통과 연결하는 곳은 납작하게 펴서 판상으로 하였는데, 여기에 삼각형으로 못 구멍을 배치하였다. 나무제품에 연결한 것인지 금속제에 연결하였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전체 높이는 2.8cm이며, 발가락 길이는 0.6cm로 매우 소형이지만, 어디에 붙여서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용기의 다리는 아닐까 한다,

마. 금제팔찌(金製釧, 1쌍)

금제팔찌 1쌍은 피장자의 왼쪽 손목 위치에서 함께 출토되었다. 금사를 두드려 말아 지름 0.5cm 크기의 단면이 방형인 테를 만들고, 그 바깥에 원형 돌기를 타출하여 제작하고 돌기의 복판에는 오목하게 남아 있어서 마치 嵌玉하였던 듯한 형태로 되어 있다. 지름7.6cm. 이와 같은 단면 형태나 돌기의 형상은 재질은 서로 다르지만 천마총, 서봉총, 창녕 계성A-1호묘 2관, 창녕계성Ⅱ-1호묘 등에서 출토 예가 있다.

바. 은제허리띠(銀製鈔帶, 1식 31매)

銀製鈔帶1式(31매)은 교구가 피장자의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띠끝금구는 과관의 아래쪽에 놓여 있었는데 양산부부총과 부장양상이 같다. 어쨌든 30매의 과관은 대부분 상면 위에서 출토되었으며, 몇 점은 제자리를 벗어나 있었다. 銀製이며 구성은 鉸具 1개, 鈔板과 垂飾 각 30매, 帶端金具 1개로 되었으며 腰佩는 출토되지 않았다. 鉸具는 앞쪽이 圓形에 가깝게 구부러져 있으며, 상하연이 대칭이다. 基部는 2단으로서 T자형의 鉸針과 첫 번째 과관을 감아 연결하게 된 축으

로 되어 있다. 方形鍔板에는 삼엽문이 맞새김되어 있고 그 아래의 凸狀 고리에 연결된 心葉形 垂飾에도 화려한 초엽문이 투조되었다. 과판과 수식에 시문된 투조 문양은 경주비방에서 보는 투조문보다 상하단에 각각 1단씩의 투조문이 더 뚫려 있는 점에서 양산 금조충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대단금구는 허리띠의 가죽 고정부와 긴 矩形의 수하부를 따로 만들어서 연결하였다. 가죽 고정부는 평면형이 5개의 돌기가 있는 7면체로서 상하로 겹친 사이에 가죽 등을 끼우고 이를 여섯 개의 못으로 고정하였다. 현재 이들 과대금구는 대부분 검게 녹슬었고 12매는 방형과판이 1매는 수하부가 부분적으로 산화되었거나 결실되었다. 교구는 직경 4.5cm, 폭 3.5cm이며, 과판은 너비 2.9cm이고, 端具은 길이 11.2cm 너비 2.7cm이다.

사. 청동제 초두(靑銅製鏃斗, 1점)

동제의 주조품으로 전체 높이는 10.3cm이며, 盞部의 口徑과 柄部의 길이는 각각 11.8cm, 11.1cm이다. 이 초두는 三足이나 注口가 없어 罽斗와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으나, 뚜껑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에 남겨진 유기물질의 흔적을 통해서 罽斗보다는 鏃斗로 판단한 보고자의 주장에 따라서 설명하기로 한다.

靑銅製鏃斗 1점은 피장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서 토기 등 각종 유물들과 함께 출토되었다. 그릇꼴은 청동제 유개완에 長柄이 달린 형태이다. 盞形의 胴體는 거의 직립하여 구경과 저경이 비슷할 정도인데, 구연부는 바깥으로 단을 지어 뚜껑 받이 턱을 만들었으며, 동부 외측에는 三條의 돌대가 있다..

柄은 동체와 거의 수평으로 부착하였다. 속이 빈 단면 방형의 長柄에는 보다 긴 회양목속인 木柄을 끼우고 이를 자루 끝의 윗방향에서 못을 박아 고정하여 사용하였으나, 나무는 자루에 끼워졌던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부식되어 버렸다. 뚜껑은 한쪽에 突出部를 내고 이것을 동부 근처의 병 상방에 주출된 두개의 장방형 돌기 사이에 끼웠으며, 이 주출부에 횡으로 뚫린 구멍에 끼워진 철제의 못에 의해서 서로 결합됨과 동시에 그 못을 회전축으로 하여 개폐가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 뚜껑은 구연부 가까이에 三條의 돌선이 돌려졌으며, 정상부에는 四葉文座를 두고 그 복판에 입체적인 새(鳥)모양의 뚜껑꼭지가 부착되었다. 뚜껑의 꼭지로서 새장식이 부착된 것은 서봉총 출토의 세발술과 유사하다.

아. 금제영락(金製瓔珞1건 52점 金製 瓔珞附空球體?)

할석과 자갈시상에서 골고루 출토되었는데 주로 대금구에서 남동단벽 사이에서 출토되었는데, 망자를 덮었던 이불에 달았던 장식물(衾飾)로 보고하였는데, 황남대총북분에서는 금제 빈구슬 47여개로 만든 경식이 있으며, 창녕 계성A지구 1호1관에서는 20개의 공구체로 이루어진 垂飾(일부는 頸飾)으로 복원되어 용도에 이견이 있다. 어찌되었든 금조충에서 출토된 52개의 금제 공구체(빈 구슬)는 이

름그대로 영락이 아니라 영락이 달린 공구체로 이름 붙여야 할 것이며 용도가 확정되면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해야 한다. 공구체는 금판을 이용하여 가운데가 빈 반구형 2매를 붙여서 복판에 연결금구를 관통시킨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하 끝에는 짧게 돌출한 구연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상하 반구형의 가장자리에는 보요를 매달기 위한 구멍이 대칭으로 4곳에 뚫려 있고 4개의 보요는 공구체 안쪽에서 금실 하나로 매달았다. 보요의 가장자리에는 장식을 하지 않았다.

○ 내용 및 특징

금조충은 발굴당시에 바다에 깔려 있었던 할석과 자갈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지만 2차례의 추가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확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허리 아래쪽으로 자갈 시상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 제거되었다고 하면 할석 위에 놓여 있는 대단금구와 루금이식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횡구식 석실묘인 금조충에서는 1차로 소문태환이식을 중심으로 하는 단계와 2차로 금동관, 루금태환이식, 은제대금구, 공구체 경식(?), 팔찌, 청동초두를 세트로 하는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지만 할석시상 아래에서 출토된 소문태환이식이 어떤 과정에서 매납되었는지 알 수 없고, 연결금구가 모두 금판으로 만들어진 점에서 보면 시간차가 매우 큰 매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대체로 신라의 도읍인 경주의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되는 자료와 양식상 커다란 차이는 없다. 곧 출자형과 녹각형 입식을 갖춘 금동관, 삼엽문을 중심으로 한 허리띠 장식물, 청동제의 초두, 공구체로 만든 경식(수하식?), 금제 팔찌, 누금기법이 가해진 귀걸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금동관의 경우 대륜에 베풀어진 무늬는 경주지방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기법이며, 과판에 새겨진 무늬들도 경주지방보다는 양산지방에 한정되는 무늬로 판단된다. 앞으로 경주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유적이 발굴될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양산고유의 문물이 경주 문물과 혼합되어 있는 양상으로 판단되며 삼국시대 양산의 지역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좋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문헌자료

東亞大學校博物館,1991.12.,『梁山 夫婦塚·金鳥塚』

○ 기타

소장경위:도시계획에 포함된 양산 북정리고분군과 양산 신기리고분군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1990년 4월 13일부터 1990년 9월20일까지 발굴 조사된 금조충은 양산북정리고분군에 속해 있으며, 낙동강의 지류인 양산천의 동쪽에 위치하여 있다. 양산 금조충(북정리21호분)에서 출토된 일괄유물 가운데 금공품을 중심으로 한 8건 83점은 양산 夫婦塚으로부터 서남쪽으로 20m쯤 떨어져 구릉 사면에 위치

하는 소형(길이280cm,너비100cm, 깊이120cm)로 장축은 북서-남동을 향하는 황구식 석실묘에서 출토된 일괄 유물 중의 일부이다. 시상은 생토층면과 할석을 2-3겹 깐 부분, 자갈돌을 깐 부분으로 나누어지지만 할석과 자갈을 깐 부분에서 정확한 선-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생토면에 1차장을 한 후에, 다시 한 번의 추가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무덤에서는 이번에 지정 신청된 유물 외에도 가위로 추정되는 철기를 비롯하여 철정 2점, 작은 도자 3점, 은제 칼집장식구3점, 토기류가 함께 출토되었다.

□

○ 조사내용

양산 금조총에서는 금동관 1점, 금제태환이식 2쌍, 금제팔찌 1점, 금제조족 1쌍, 은제과대 1세트, 곡옥 2점과 유리구슬 1점, 금제영락 52점, 청동초두 1점, 철기(철정 2, 가위? 1, 장식구 1), 토기 19점 등이 출토되었다.

금조총의 유물은 출토상황으로 보아 2차에 걸쳐 유물은 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1차시기에는 태환이식 1점과 유개고배 3점, 고배 1점, 대부장경호 2점이 부장되었고 금조총이란 이름이 유래된 금제조족은 귀갑문 태환이식, 금동관, 은제과대, 금제팔찌, 금제영락, 곡옥과 유리구슬 등과 유개고배 3점, 고배 1점, 장경호 2점과 함께 2차시기에 부장되었다.

금조총에서 출토된 순금제조족은 길이 2.8cm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유일한 것으로 「금조총」이라는 이름도 이 유물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제조족은 새의 다리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상단은 납작한 판상을 이루게 한 다음 3개의 못구멍을 내었다. 이것은 새의 몸통에 부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부식되어 발굴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마도 철기나 목제로 제작된 것으로 그 모습은 초두의 꼭지에 부조된 새의 형태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제영락은 그 형태가 공중구형으로 상하로 관통시킨 구멍이 뚫리고 사방에 십엽형의 소형 요보를 매달았다. 상면 곳곳에서 출토된 것으로 금사도 함께 수습되었고 이것은 영락을 금사를 이용하여 특정한 기물에 부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시신을 덮은 이불의 전면에 부착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삼국지』 「한전」에 「구슬을 채보로 삼았으며 옷에 꿰어 장식하였다」라고 한 기록에 따라 옷에 부착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며 우리 민족의 구슬에 대한 특별한 관념이 널리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그리고 금동관은 그 상태가 좋지 않으나 발굴조사 당시 세심한 수습과 동아대학교 박물관의 일괄된 관리로 어느 정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대륜부에 수지형과 녹각형으로 도안화한 입식을 수직으로 세워 조립한 것이다. 얇은

금동관으로 대륜부와 입식부 수식부를 따로 만들어 조립한 것이다.

금제태환이식은 두쌍이 출토되었다. 한쌍은 상석 위의 은제요대 아래에서 출토되고 한쌍은 두터운 상석을 제거한 생토층면에서 출토되었다. 상석 위에서 출토된 한쌍의 주환은 가운데가 비어 있는 통형을 구부린 형태로 양단이 맞붙는 곳에 틈이 있고 표면에는 귀갑문을 정교하게 누금장식하였다. 생토층면에서 출토된 한쌍도 태환이식으로 주환이 중공통형의 소문이다. 중간식도 소문이고 수하식은 소환으로 중간식과 연결된다.

금제팔찌는 피장자의 오른쪽 손목 위치에 가지런하게 1쌍이 출토되었다. 순금으로 단조한 원형으로 원형 돌기상의 타출문을 새긴 뒤 이를 둥글게 구부려서 양단을 연결시킨 것이다. 팔찌의 전체 직경 7.6cm이다. 부부총에서 부인용으로 출토된 금제 및 은제팔찌는 각각 직경 7.1cm, 7.7cm이다.

은제과대는 피장자의 복부에 해당하는 석실 중간의 상면에서 영킨채 출토된 것으로 교구, 과관, 수식, 대선금구로 구성되어 있다. 교구와 대선금구를 제외한 과관은 30매이며 부부총 주인용 36매나 부인용 33매보다는 소형이다.

곡옥은 피장자의 허리부분에서 과관과 함께 1점, 그리고 금동관 쪽에서 1점이 출토되고 유리구슬은 금동관의 좌측에서 출토되었다. 곡옥은 단면이 원형인 것과 타원형인 것이 있고 모두 머리 부분의 폭이 넓어 보인다. 유리구슬은 초록색과 파랑색을 띠는 것을 절반 상하로 접착시킨 것으로 모두 노란색의 반점이 남아 있다.

청동초두는 피장자의 어깨부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청동제 유개완에 긴 손잡이가 부착된 형태이다. 손잡이 끝에는 나무자루를 끼웠으나 부식되었다. 얇은 동판으로 제작된 완형 동체는 직립하고 구연부는 안으로 단을 이루어 턱을 만들었다. 자루는 따로 만들어 동체 구연부와 거의 수평하게 부착시켰고 단면 방형으로 상면에는 못구멍을 하나 내었다. 자루에는 요자상의 돌기를 세우고 종으로 구멍을 뚫어 개신부와 연결시켜 경첩처럼 기능하게 하였다.

이상은 금조총에서 출토된 주요유물에 대한 고고학적 설명이지만 이것으로 유물들에 대한 고고학적 의의가 모두 소명된 것은 아니다. 금조총의 유물은 금동관이나 팔찌, 귀걸이, 과대, 영락, 과대, 초두 등 그 제작기법이 뛰어나 공예사적인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의 가치는 공예사적인 관점에서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화려한 금관이나 장신구, 또는 도자기나 금불상만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기와나 식문화의 전통을 말해주는 숟가락이 훨씬 더 문화사적인 가치가 높은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금조총에서 출토된 유물의 가치는 단순히 공예사적인 점에서 접근하여 금제조족, 금동관, 금제팔찌, 은제과대, 금제영락, 청동초두(초두의 손잡이 나무는 회양목으로 동정되었음) 등 만을 보물로 지정하는 것은 고고학적인 가

치를 전혀 도외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인식에 문제가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금조충에서 출토된 유물의 고고학적 가치는 먼저 그것이 2시기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생토층에서 출토된 소문태환이식과 이와 함께 출토된 토기가 있고 다음으로 그동관을 쓴 피장자의 부장품으로 볼 수 있는 은제과대와 금제영락, 금제조족, 귀갑문태환이식과 토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분명하게 시기차가 나는 것이므로 고분의 편년과 토기편년의 고고학적 근거자료가 된다.

그리고 피장자의 성별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금조충의 피장자는 금제팔찌의 직경이나 초두 등으로 보아 여성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발굴조사된 수만기의 삼국시대고분 가운데 피장자의 성별이 구분되는 것은 손으로 꼽을 지경인데 게다가 앞선 시기에 소문의 태환이식과 토기는 금조충의 피장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당시의 장법 연구와 사상적 배경의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가 된다.

금조충과 인접하여 부부총이 위치하는데 이들은 모두 사적 93호로 지정된 북정리고분군에 포함된다. 부부총은 대형분으로 능선 정상에 있고 금조충은 소형분으로서 부부총 남사면에 근접해 있다. 부부총은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되었으며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출토유물은 주인용으로 금동관, 조익형관식과 관모, 백화수피제관모, 세환식 이식, 경식옥, 은지환, 은제과대, 은제요패, 금동식리, 환두대도, 의복 잔, 금동요보, 금동제 식리 등이 출토되었고, 부인용으로는 백화수피제관모, 태환이식, 금제영락, 금제팔찌, 은제팔찌, 마노 및 유리제팔찌, 부인용 목걸이, 유리제 목걸이, 은제과대, 은제요패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금동제안구, 철제등자, 금동제운주, 철제재갈, 금동제행엽, 청동제마탁, 철축, 철정, 삼루환병두식, 소도자, 철부 및 토기뚜껑, 장경호, 기대, 유대완, 고배 등은 부부의 머리쪽에 부장칸을 따로 마련하여 부장하였다. 또한 부부총에서는 순장의 결과로 보이는 인골 3구가 출토되기도 하였는데 을의 유해 부근에서 대부완토기와 철제 깃대꽃이가 발견되었다.

이 부부총에서도 남녀 주인공이 귀걸이를 하고 있었으나 남자는 세환이식, 여자는 태환이식을 하여 그 화려함은 여자가 남자를 압도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경주 황남대총에서는 북분에서 부인대명 금제 허리띠와 함께 금관이 발견되었고 남분에서는 금동관이 출토되었다. 결국 여자가 금관을 착용하였고 남자는 금동관을 착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금령총은 15세를 전후한 아이의 무덤인데도 화려한 금관과 매우 많은 금제 장식품이 출토되기도 하여 금관은 혈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설이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금조충의 가치는 거기에서 출토된 화려한 장신구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신구를 착용하게 된 배경과 사람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조충은 보고자와 필자의 편년에 의하면 5세기 말 경의 유적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로 보아 그 내용이 모두 신라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으나 5세기 말에 양산지역은 신라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유물의 내용이 금동관과 금제팔찌, 금제 영락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三國史記』 「車騎」나 「器用」조를 참고하면 진골도 금은이나 도금된 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라 진골 출신 이상의 인물이 양산지역의 지배자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재 지정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증명하는 유물을 일괄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발굴되어 모든 유물이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양산부부총 출토 유물의 반환에도 학술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뛰어난 공예품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반영하고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을 추정할 수 있는 고고학적 유물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금조총 출토유물은 모두 일괄 유물로 지정하여(동아대학교 박물관, 1991, 『양산금조총·부부총』 도면6. 금동관, 도면7. 금제태환이식, 도면8. 금제태환이식 및 금제팔찌, 도면9. 금제조족, 도면10,11. 은제과대, 도면12. 곡옥, 유리구슬 및 금제영락, 도면13. 청동초두, 도면14. 은제칼집 장식구 및 철기류, 도면15. 생토층 출토 장경호, 도면16. 상석층 출토 장경호, 도면 17. 생토층 출토 고배, 도면 18. 상석층 출토 고배, 도면 19. 상석층 출토 고배, 도면 20. 상석층 출토 고배) 국가문화재 지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문화재 보호와 불법해외반출문화재 반환에도 대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부산 복천동 출토 금동관 (釜山 福泉洞 出土 金銅冠)

가. 심의사항

‘부산 복천동 출토 금동관’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2.9)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위원회 2016년 제4차 회의(8.11)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8.30~'16.9.28)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부산 복천동 출토 금동관(釜山 福泉洞 出土 金銅冠)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 수 량 : 1건1점
- 규 격 : 대륜 직경 18.7cm(뒤에 7.1cm 벌어진), 둘레 50cm
정면 입식 23.5cm, 좌우 입식 21.2cm
- 재 질 : 금동
- 조성연대 : 삼국시대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1980년 초반 발견된 부산 동래 복천동 고분군은 발굴 결과 야트막한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가면서 대형 무덤이 줄지어 자리잡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상에는 봉분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들이 들어차 있었고, 누구 하나 이곳에 삼국시대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고분군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⁹⁾

북천동 유적은 당시 이 지역의 수장급들의 묘역으로서 무덤이 축조된 중심 연대는 대략 4~5세기경으로 추정한다. 이들 수장급의 무덤으로는 일직선상 [日子形]의 부곽을 갖춘 대형의 목곽묘(木槨墓)가 주류를 이룬다. 그 가운데 10·11호분이 가장 대표적으로서 내부에서는 사람을 순장한 흔적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금동관과 환두대도(環頭大刀)를 비롯하여 갑옷, 무기 등 수 백 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주인공이 안치되었을 목관 받침으로 덩이쇠 [鐵錠] 수 십 점이 가지런히 깔려 있었다. 『삼국지』 「위지동이전」 변한조에 화폐 대신 철을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덩이쇠가 다른 철제 용품을 만드는 재료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화폐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 그들의 경제적 부의 축적뿐 아니라 정치적 권력집중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¹⁰⁾

금동관은 바로 주곽으로 보이는 11호묘에서 큰칼, 갑옷 등과 함께 나왔는데, 금동관은 한쪽 모서리에서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다. 21.9cm 정도의 그리 대형은 아니지만 아기자기한 문양이 잘 배풀어진 수작으로서 파도모양 무늬[波狀紋]와 연속 점무늬[點列紋]가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새겨진 관테의 중앙과 좌우에 나뭇가지를 도안화한 세움 장식이 못 2개로 고정되어 있다. 세움 장식에는 3단에 걸쳐 나뭇가지모양 결가지가 있는데 끝이 아래로 쳐져 있다. 줄기의 맨 꼭대기에는 보주형(寶珠形) 장식이 있고 그 속에는 인동무늬[忍冬紋]를 도안화한 세잎무늬[三葉紋]가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세잎 무늬는 함께 출토된 큰칼의 고리 장식에도 표현된 것으로, 고구려 금공품에서 크게 유행하는 문양이어서 이 시기 양국 금공품의 관계를 알려준다. 발견 당시부터 일부의 가지가 부러져 손상된 부분이 많아 이 부분에 보수가 이루어졌다. 색감도 신라 금관에 비해 전체적으로 검은 색조의 녹이 보이는 등 보존 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발굴 조사자는 이 무덤의 주인공을 가야의 왕이거나 그에 준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경주와 다른 형식의 금동관을 가지고 있고, 환두대도와 갑옷을 여러 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발굴자의 견해대로 이 무덤의 주인공이 가야 왕이라면 당시 부산은 가야 땅이 된다는 점에서 황남대총 등 큰 무덤이 만들어지던 시기의 신라가 이미 낙동강 이동 지역 전역과 경북 내륙 지역, 동해안 일대까지 영역을 크게 확장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경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부산이 여전히 가야의 영역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일본 연구자들에 의한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의 주된 주장이 경주만 신라이고 그 외곽의 양산과 부산, 창녕, 대구와 경산, 심지어는 울산까지도 가야의 영역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경주에 한정되어

9) 문헌에 소략하게 전해지는 낙동강 하구 동쪽에 《三國史記》에 전하는 居柒山國 또는 《三國志》 魏書 東夷傳 瀆盧國의 실체가 이곳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神祕의 古代王國 : 伽倻 特別展』, 국립중앙박물관, 1991, pp. 35-36.

10) 이영훈·신광섭, 『고분미술 II 신라·가야』, 솔출판사, 2004. pp. 231-232

있던 신라가 어떻게 가야를 정복하고, 이어서 백제와 고구려까지 통합했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금관의 사용한 피장자의 국적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어쨌거나 복천동 고분군은 부산의 대표적인 고대 유적의 하나이며 당시 유력 지배층이 남김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에서는 소략하게 다루어져 실체를 알기 어려웠던 고대 가야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환기시킨 유적으로서 갑옷과 덩이쇠를 비롯한 수많은 철기 유물과 함께 발견된 금동관은 삼국시대 금동관 연구에 주목되는 유물인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가야의 小國이 있었던 부산 동래지역에 위치한 사적 제273호 복천동 고분군 중 5세기 중엽에 축조된 10, 11호분은 副槨(토광)을 갖춘 수혈식 석실묘로서 부장된 鐵鎧群 屍床을 비롯한 철물들과 금동관, 환두대도, 철갑, 馬面冑, 토기류를 보면 이 지역의 수장급 묘장으로 고고학적 의의가 크다.

주실인 11호분의 피장자 우측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5~6세기 신라의 출자형 금관과는 달리 대륜에 나뭇가지 모양의 수목형 입식이 연결된 古拙한 관이다. 특히 출자형 금관의 초기단계로 인정되고 있는 경주 교동 출토 금관과 가장 유사하지만 입식이 모아져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점, 입식 끝이 하향하고 있는 점, 영락이 없는 대륜에 파상문이 시문된 점, 革帶를 조여 관을 쓰는 장치가 있는 점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5~6세기 신라관의 계보 및 가야의 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고고학적 가치가 크다. 제작기법은 판재를 잘라 정으로 단순한 문양을 시문하고, 영락을 단 매우 단순한 수법이지만, 삼국시대 古墳 금속공예 기법을 잘 대변해 주고 있어 공예사적 가치도 있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 보존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지정 가치 있음)

부산 동래복천동10·11호분의 주석곽(1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현재 신라권역에서 출토된 관(帶冠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으나 설명의 편의상 冠으로 부름) 가운데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꼴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3단으로 옆가지를 낸 입식은 경주의 출자형 입식처럼 좌우대칭으로 가지를 내었으나 일반적인 신라관과는 달리 옆가지의 끝을 뾰족하게 처리하였으며, 그 끝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대륜에 영락을 달지 않게 고안되어 있는 점, 대륜의 양 끝 윗부분을 일정하게 ㄱ꼴로 잘라내고 구멍을 한 개씩 뚫고 가죽을 댄 점, 입식의 가장자리에 무늬를 새기지 않은 점, 입식에는 영락을 달기 위한 원형의 용기부를 만들지 않고 영락만을 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세 개의 입식을 재단하는 방법도 중앙입식은 둥글게 오렸으나 좌우입식은 직선적으로 오렸다. 영락을 매다는 방법에서도 중앙입식에는 영락 현수공을 가로로 2공1조를 배치하듯 하였지만, 좌우입식에는 2공1조의 현수공을 수직으로 배치하였다.

북천동1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망자가 쓴 채로 출토된 것은 아니지만 대륜과 입식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징에서 경주를 중심으로 한 新羅冠 이른바 출자형입식을 가진 수지형입화식관에서 나타나는 속성과는 매우 달라서 고대 동래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금동관이 신라의 중심인 경주에서 발견된 예가 없어서 제작지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경주적이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이 관의 계보를 어디에서 구해야 할지는 알 수 없다. 가장 무난하게 지역성으로 판단해 두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지역성이라는 단어로 금동관의 성격을 치환하여도 부산지역에 이러한 예가 없어서 삼국시대 부산의 지역적 금동관이라는 인식으로 가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어쨌든 1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지금까지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비슷한 시기의 자료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금동관으로, 형식으로만 유추한다면 출자형입식을 가진 관이 발생하기 직전단계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주 교동출토 금관과 더불어 신라관의 계보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고고학자료로 평가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도 무난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조사내용

북천동 고분 출토 금동관은 북천동 고분군의 주곽인 11호묘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금동관, 큰칼, 갑옷 등이 함께 나왔다. 이 금동관은 무덤의 주인공이 머리에 쓴 채 묻힌 것이 아니라, 무덤 한쪽 편에 가지런히 세워진 채 매납되었다. 관테에는 물결 무늬[波狀紋]와 연속의 점무늬[點列紋]가 가장자리를 따라가며 시문하였고 그 위쪽에 3개의 세움 장식을 덧댄 다음 2개의 못을 박아 고정하였다. 세움 장식은 가운데에 줄기가 있고 좌우에 각각 3개씩의 곁가지를 나 있는데, 끝이 아래로 쳐져 있다. 줄기의 맨 꼭대기에는 보주형(寶珠形) 장식이 있고 그 속에는 인동무늬[忍冬紋]를 도안화한 세잎무늬[三葉紋]가 표현되어 있다. 이 세잎 무늬는

함께 출토된 큰칼의 고리장식에도 표현된 것으로, 고구려 금공품에서 크게 유행하는 문양과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어 이 시기 양국 금공품의 교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신라 금관에 비해 단순하면서도 고식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세움 장식에는 많은 영락이 달려 있지만 발견 당시부터 일부 손상되거나 부러진 부분이 많아 여러 곳에 보수하였다.

그동안 신라 지역에서 알려진 금동관이 약 30여 점 정도 있지만 이와 동일한 도안을 지닌 관은 발견된 예가 없다. 그렇지만 황남대총(皇南大塚) 남분이나 경주 교동(校洞)에서 출토된 고식의 관은 복천동 금동관과 디자인이나 제작 기법에서 유사성이 보여준다. 따라서 본 금동관은 부산에서 제작한 것이라기보다는 신라의 중앙에서 제작하여 하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것은 함께 출토된 환두대도를 비롯한 경주 양식 토기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복천동 고분의 주인공 역시 가야 왕이라기보다는 신라의 지방에 거주하면서 상당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지방 세력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굴자의 견해처럼 복천동 고분군은 부산의 대표적인 가야 유적의 하나로서 그 주인공이 묻혔던 11호분에서 출토된 이 금동관은 신라 지역에서 벗어난 부산에서 상당한 세력을 지닌 가야의 집단이 존재했다는 점을 증명해 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비록 신라 금관에 비해 곡옥도 생략되고 외형도 단순한 모습이지만 고식의 입식 모습과 외형과 독특한 도안을 지니고 있는 삼국시대 고대 금관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이런 점에서 금동관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현 상

부산 대포산 중앙으로부터 서남쪽으로 낮은 구릉 위에 위치한 福泉洞 古墳群(동래구 복천동 50번지 일원; 사적 제273호, 1981.06.09 지정)은 3~7세기에 조성된 대표적인 가야 지배층의 무덤군(총 113기)으로 그 중심년대는 부장된 토기나 무구류 등을 볼 때 4~5세기이다.

이 고분군은 부산시가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계획을 세우자, 지역의 고고학적 중요성이 대두되어 1969년 9월부터 1994년까지 동아대, 부산대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이 총 6차례 발굴하였다. 출토된 유물들은 가야의 묘제와 갑옷류, 마구류, 토기, 철물의 유통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馬面冑가 출토되어 任那日本府說을 종식시킨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분군이다.

그 중 복천동 11호분은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1980년 10월23일~1981년 2월15일까지 발굴 조사한 무덤으로 주실은 石室墳, 10호분인 부실은 토광이며 가야지역에서 황혈식 석실분이 유행하기 전의 토광묘와 후대의 수혈식 석실분이 유행하기 전의 과도기 전 묘로서 규모로 보아 지배층의 묘이다. 고분의 축성년대는

440년~460년 경으로 비정되어 있다.¹¹⁾ 주실은 서남쪽, 70cm 떨어진 부곽은 동북쪽에 위치하였으며, 11호분은 길이 7m 90cm, 폭 4m 89cm이며, 길이 240cm 폭 140cm의 대형 개석을 3개씩 덮은 수혈식 석실이다.

11호분의 출토품은 屍床인 鐵鋌群 위에 피장자의 우측 木槨線을 따라 금동관, 환두대도 3점(三葉環頭大刀, 三累環頭大刀, 素環頭大刀)과 鐵劍片, 鐵銚, 鐵斧, 좌측에는 철검 1점, 5개의 鐵鏃群, 鐵製胡籙金具, 鐵鎌, 鐵銚 등이 발견되었고, 갑주류인 鐵製挂甲과 鐵製頸甲, 鐵製脛甲, 鐵製胄도 공반하였다. 즉 금동관은 피장자의 머리 부분이 아니라 환두대도 3점과 함께 피장자의 우측에서 발견되었던 것이다.¹²⁾ 출토 시 금동관은 3개의 입식이 벌어진 상태로 밑에 종류를 알 수 없는 타래모양의 식물로 만든 받침 위에 있었는데, 이 식물타래는 內冠은 아니며, 금동관도 실제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외에도 金製細環耳飾과 高杯 15점이 출토되었다.¹³⁾ 부곽인 10호분에서는 鐵製甲胄가 출토되었는데, 短甲으로 ‘縱長板圓頭釘結合鐵製短甲’이며, 鐵製胄와 공반하였고, 鐵製馬面胄는 국내 최초로 출토된 것이다.¹⁴⁾ 이런 유물들은 10,11호분이 금동관과 靑銅七頭鈴이 출토된 22호분과 함께 부산지역의 가야문화를 규명해 주는 중요자료로 의의가 크다. 墓主 또한 가야의 한 小國의 首長급으로 보는데, 『三國志』, 『魏書』 30, 〈東夷傳〉, 弁辰 條에 瀆盧國이라는 명칭과 함께 “倭와 접경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독로가 “東萊”의 似音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⁵⁾ 또한 『三國史記』, 『地理志』에 居漆山國이 東萊라 기록되어 있으므로 거칠산국으로 보기도 한다.¹⁶⁾

○ 내용 및 특징

복천동 11호분 출토 금동관은 전형적인 신라금관의 출자형 입식과 다른 나뭇가지형 입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출토 시 立飾이 완전히 벌어진 상태였다.[삽도1] 관의 구조는 대륜에 3개의 立式이 각각 2개씩의 못으로 리베팅(○ ○ 식)되어 끝은 가운데로 모아진 삼각형 모양이다.(도1) 대륜은 뒤쪽이 7.1cm 벌어진 상태로

11) 보고서에는 묘제를 ‘副槨有豎穴式石室墓’로 분류하였다. 『부산 동래 복천동 고분군(Ⅰ)(제5집)-본문(1983.08)』, p.21.

12) 釜山大學校博物館, 『선사와 고대의 문화』(개교50주년 기념도록), 1996. 12, pp.53-54의 도판.

13) 『부산 동래 복천동 고분군(Ⅰ)(제5집)-본문(1983.08)』, p.27.

14) 앞 책, pp.60-71.

15) 『三國志』,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 有已柢國, 不斯國, 弁辰彌離彌凍國, 弁辰接涂國, 耆國, 難彌離彌凍國, 弁辰古資彌凍國, 弁辰古淳是國, 冉奚國, 弁辰半路國, 樂奴國, 軍彌國(弁軍彌國), 弁辰彌烏邪馬國, 如湛國, 弁辰甘路國, 戶路國, 州鮮國(馬延國), 弁辰狗邪國, 弁辰走漕馬國, 弁辰安邪國(馬延國), 弁辰瀆盧國, 斯盧國, 優由國. 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灶皆在戶西. 其瀆盧國與倭接界. 十二國亦有王, 其人形皆大. 衣服潔清, 長發. 作廣幅細布. 法俗特嚴峻.”

16) 『三國史記』 34卷, 『地理志』 1, 〈東萊郡〉조, “本居柒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직경 18.7cm, 둘레 50cm, 높이 2.9cm 크기이다. 입식은 Y자 3개가 연결된 나뭇가지 모양인데, 정면의 입식은 높이 23.5cm, 밑변 1.9cm로 상단에 寶珠가 있고, 좌우 입식들은 높이 21.2cm, 밑변 2cm으로 상단의 보주는 투조하여 안에 三葉形 장식으로 처리하였다.(도2)17) 입식의 형태는 공반출토한 脛甲의 문양과 유사한 편이어서 당시에 도안의 상징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삽도] 입식 끝은 출자형 금관처럼 直立形이 아니고 꺾어져 내린 모양이다. 대륜을 제외한 3개의 입식 표면에는 신라금관의 영락과 같은 작은 영락이 끈사에 의해 달려 있다.

전체적으로 이 금동관은 외형상 경주지역의 출자형 신라금관과 다른 부산 동래 지역의 고유한 형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륜에 영락이 달린 3개의 樹木形 입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경주 교동 출토 금관과 가장 유사하다.(도3) 다만 교동출토 금관은 대륜에도 영락이 있는 점, 수목형 입식이 出字 모양으로 발전되기 전 형태(↑꼴)인데 비해 복천동 11호분 금관은 대륜에 영락이 없고 입식의 끝 처리가 다른 점(↘꼴)이 차이가 있다. 대륜의 상하에 2줄의 윤곽선을 두르고 그 안에 과상문을 조금하고 뾰족정으로 찍은 수법은 고령 지산동 출토 금동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도4)

제작수법은 얇은 판재를 오려서 대륜과 입식을 마련한 뒤 대륜에 입식을 2개의 못(圓頭釘)으로 리베팅하고, 표면에는 끈사로 영락을 장식했다. 대륜의 양 끝은 [┌ ┐]식으로 잘라내고 구멍을 뚫어 革帶를 고정시켰으므로 관을 머리에 쓴 후 대륜 양끝의 핵대로 조이는 장치로 추정되고 있다. 도금은 수은아말감도금법을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작년대는 금동관, 환두대도, 耳飾, 철물 외에 토기류를 기준해 보면, 11호분에서 高杯18점, 把手附臺附盤, 赤褐色軟質小形平底甕, 圓低短頸壺, 龜形土偶附圓筒形器臺가 공반하였고, 10호분 출토 토기류도 고배, 원저단경호, 고배형기대 등 105점이 출토되어 5세기 중엽 경이 맞을 것 같다.

○ 문헌자료

釜山大學校博物館, 『東萊福泉洞古墳群 I 圖面·圖版』, 1983

釜山大學校博物館, 『東萊福泉洞古墳群 I 本文』, 1983

釜山大學校博物館, 『선사와 고대의 문화』 (개교50주년 기념도록), 1996. 12, pp.53-54.

金昌鎬, 「東萊 福泉洞11號墳 출토의 脛甲에 대하여」, 『嶺南考古學』 18(1996.06), pp.75-86

朴普鉉, 「樹枝形立華飾冠 型式分類 追補」, 『大丘史學』 32-1, 1987, pp.1-23.

咸舜燮, 「新羅 樹枝形帶冠의 展開過程 研究」慶北大學校文學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2012

17) 부산 동래 복천동 고분군(Ⅰ)(제5집)-본문(1983.08), pp.125-126.



○ 조사내용

금회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된 일괄유물 1건 1점에 대하여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현상을 적어 둔다.

가. 금동관(金銅冠1점)

장축이 북동-남서를 향하는 석곽의 남동장벽에 붙어서 정면은 피장자의 머리방향과 마찬가지로 남서를 향하도록 하여 똑바로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금동관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입식의 끝은 모두 중앙으로 모여지도록 복원되었다.

대륜에 3단의 옆가지를 낸 수지형 입식 3개를 결합하였는데, 대륜가 결합할 때에는 2개의 대가리가 둥근 못을 이용하여 대륜과 입식을 결합시킨 꼴로, 대륜의 복판에 결합되어 있는 수지형입식은 좌우 수지형 입식보다 약간 크다. 또한 입식의 끝은 모두 보주형이지만 좌우 입식끝에는 삼엽문을 투조하였으나, 중앙입식의 끝에는 투조를 하지 않았다.

너비2.9cm, 길이50.0cm의 대륜에는 영락을 달기 위한 구멍이 없으나, 좌우 입식에는 영락을 달기 위하여 줄기 복판에 세로로 2개씩 한 조를 이루도록 배치하였고, 옆가지에는 가지의 방향과 평행하도록 복판에 배치하였다. 가운데에 있는 입식에는 이것과는 다르게 가장자리쪽으로 영락을 달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가운데는 수평으로 2개씩 한조를 이루도록 구멍을 뚫고, 옆가지에는 가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평행하게 2개씩 한조를 이루도록 뚫었다. 그러나 신라금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영락을 달기 위한 용기부를 타출하지는 않았다. 대체로 경주 교동출토로 전하는 금관에 보이는 기법이기는 하지만 대륜에 영락이 없는 점, 중앙입식에 달린 영락의 위치 등에서 경주의 초기금관과는 기법이 다르다. 또한 대륜의 끝을 결합하는 방법도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경주에서 출토된 금동관이나 금관의 입식끝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복천동11호분출토 금동관의 입식은 아래로 꺾인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금공품에 보이는 중앙와 지방의 차이로 판단되어서 주목된다.

○ 문헌자료

釜山大學校博物館,1983.2,『東萊福泉洞古墳群 I 圖面·圖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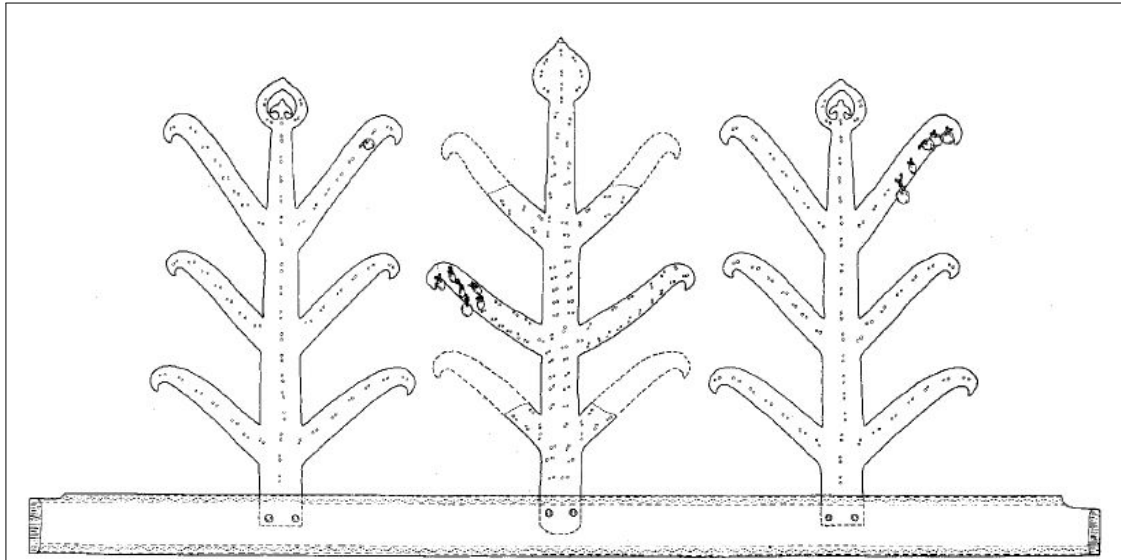
釜山大學校博物館,1983.8,『東萊福泉洞古墳群 I 本文』

咸舜燮,2012.06,「新羅 樹枝形帶冠의 展開過程 研究」慶北大學校文學碩士學位論文,慶北大學校 大學院

○ 기 타

소장경위:금동관이 발견된 지역은 현지주민들이 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구릉 지대를 삭평하여 택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이 곳이 중요한 고분유적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던 부산시 문화재관계자들에 의하여 공사전에 발굴조사를 계획한 바, 시굴조사에서 대규모 집단고분군의 존재를 확인하고, 고분이 밀집된 것으로 확인된 구릉정상부에 대한 정식발굴조사를 1980년 10월3일부터 1981년 2월15일까지 실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주·부곽으로 이루어진 10·11호분의 주곽인 11호분에서 발견되어 국가귀속된 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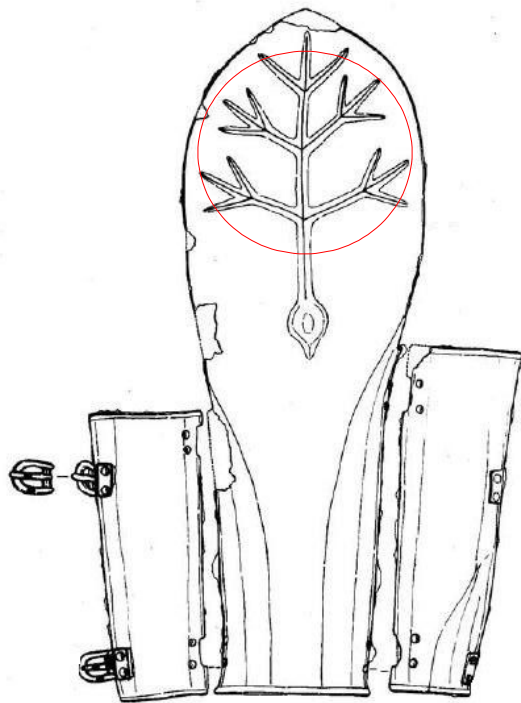
삽도1. 복천동 11호분 출토 금동관 삽도 및 출토상황



금동관(부산대학교박물관, 『東萊福泉洞古墳群 I 圖面·圖版』, p.95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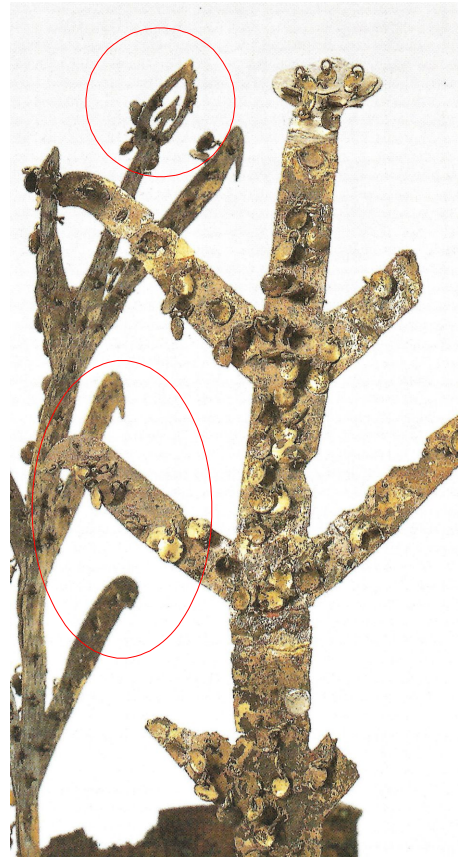
금동관의 출토상황



복천동 11호분 출토 胫甲



도1. 복천동 11호분 금동관, 가야 5세기 중엽



도2. 금동관의 입식 모양(보주형, ∨형 끝처리)



도3. 경주 교동 출토 금관, 신라 5세기 중엽, 국립경주박물관



도4. 복천동 11호분 출토 금동관(上)과 고령 지산동 고분 출토 금동관(下) 臺輪 비교

6. 정조 어찰첩 (正祖 御札牒)

가. 심의사항

‘정조 어찰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조 어찰첩’에 대한 지정신청(‘14.9.1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1.27)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위원회 2016년 제4차 회의(8.11)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8.30~’16.9.28)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정조 어찰첩(正祖 御札牒)
- 소유자(관리자) : 케이옥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72길 23 (주) 케이옥션
- 수 량 : 6첩 300통
- 규격(cm) : 帖裝 47.5 × 35.5
- 재 질 : 종이
- 형 식 : 서첩
- 조성연대 : 1796.8.20.~1800.6.15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정조어찰첩>은 국왕과 대신 간에 비공식적으로 정치와 신사문제를 논한 비밀 문건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심환지에게 종종 어찰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1첩에 수록된 정사년(1797) 7월 7일의 편지에 “이 편지를 보고 나면 즉시 찢어버리든지 세초(洗草)하든지 하라. 늘 한 가지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은 집안에서라도 혹시 조심하지 않을까 해서이다. 경이 각별히

치밀하게 한다면 이런 염려가 어디서 나오겠는가? 듣자하니 경의 아들이 자못 비범하여 제 형보다 낫다고 하는데, 늘상 경을 위해 다행이라 여긴다. 이러한 서찰은 경이 스스로 세초하는가, 아니면 경의 아들을 시켜 세초하는가? 처리하는 방법을 듣고 싶으니, 나중의 편지에 반드시 한 번 알려 주어 이 의심을 풀어 주기 바란다[此紙覽卽扯去或洗去, 而每每一念常在於雖於家間, 恐或不愼, 卿若一分緻密, 則此念何從而出耶. 聞卿胤子人頗非常, 又勝於乃兄云, 每爲卿喜幸. 此等書札, 卿自洗去耶. 抑使卿子洗之耶. 願聞區處之方, 後便必一示之, 以破此疑也.]”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정조어찰첩>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한편으로 기적적인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환지가 어명을 거스르면서까지 이를 남긴 이유는 일종의 정치적 보험을 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은 비록 이와 같다 하더라도 <정조어찰첩>은 현존하는 것 중에서 정조 어찰 수량이 가장 많고, 수신자의 정치적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자별로 잘 정리된 좋은 예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사료적 가치이다. 이는 한 시기의 정치현실이 담겨져 있고, 정조의 치세에서 세도정치의 시대로 이행하는 19세기 정치사를 해명하는 데에 긴요한 사료이며, 군주제시대의 현실정치를 인식하는 이론적인 과제에도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같은 공식적인 사료나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어서 더욱 가치가 있다. 둘째, 문화적 가치이다. 정조는 비록 전문서예가는 아니었지만 그의 친필을 볼 수 있다는 것과 내용적인 의미까지 고려하면 더욱 중요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서지학적 가치이다. 다양한 지질(紙質)과 어찰의 서의(書儀) 및 정조 서풍(書風)에 대한 연구는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정조어찰첩>은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정 가치 있음)

정조어찰첩은 수신인 심환지에게 정치 사안을 논의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 속에 사료적 가치의 잠재는 물론 정조 만년의 인간적인 면모와 심리가 잘 녹아 있다.

즉 당시의 국정운영의 방식이나 정조의 밝혀지지 않은 인간상 그리고 당시 정세의 미묘한 가닥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어찰의 숫자로 보나 글씨의 예술성으로 보나 정조어찰의 백미가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국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기준에 부합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정 가치 있음)

“정조 어찰첩”은 정조가 1796 - 1800년 사이에 좌의정 등 고위직을 역임한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로 300통에 달하는 다양한 내용의 어찰이 6첩으로 장첩되어 있다. 이 어찰의 내용은 대부분 정사(政事)와 관련된 것들이어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사료이다. 어찰에 사용된 종이 또한 도침이 잘 된 고급 간지(簡紙)·태지(苔紙), 심지어 저급의 용지로 취급되는 피지(皮紙)까지 일부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인 서간문의 격식과는 매우 다른 서간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선시대 서간문의 형식을 연구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어찰의 전체 내용이 자세히 구명되면 정조의 통치술이나 학문 세계 등에 대한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조 어찰첩”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는 유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정조어찰첩>은 케이옥션의 2013년 3월 경매(2013.3.27.)에 출품되었던 유물로서 케이옥션이 낙찰을 받아 소장하고 있다. 장첩(粧帖)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래 모습이 아니고 근래에 장황한 것이며 표제(標題)도 없지만, 정조의 편지를 모은 간찰첩이기 때문에 <정조어찰첩>이라는 명칭이 타당할 것이다.

2009년 2월 최초로 공개된 <정조어찰첩>은 조선왕조 제22대 왕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가 심환지(沈煥之, 1730-1802)에게 1796.8.20.~1800.6.15일까지 보낸 어찰 300통과 피봉(皮封)을 6권으로 장첩한 것이다. 피봉에는 직접적으로 수신자인 심환지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를 의미하는 용어들을 사용하였다. 당시 우의정을 지내고 있던 심환지에게 보낸 ‘단규개탁(端揆開坵)’, 삼청동에 살고 있던 심환지를 의미하는 ‘삼청심판서사서(三清沈判書謝書, 삼청동 심판서가 보낸 답장)’가 쓰여 있어 정조가 심환지에게 전하는 어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청동(淸洞)’·‘삼청동(三清洞)’·‘삼청동문(三清洞門)’ 등이 어찰의 피봉에 쓰였고, 우의정에 오른 뒤에는 주로 ‘청합(淸閣)’이라 표기하여 심환지에게 전해졌다. 일부 편지에는 ‘보안(報安)’·‘운한(雲翰)’·‘만천명월주인옹

(萬川明月主人翁)' 등의 봉함인이 찍혀 있어 정조의 편지임을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의 피봉에는 조(朝)·오후(午後)·석(夕)·야(夜)·식후(食後) 등의 시간이 기록된 부전지(附箋紙)가 있어 수신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정조어찰첩>의 수신자는 정조와 정치적 입장이 상반되는 노론 벽파의 선봉이었던 심환지이다. 그는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언관직을 두루 거쳐 영의정에 오른 벽파의 영수로 1771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삼사의 직책을 전부 거쳤다. 준엄하고 격렬한 언론을 펴서 몇 차례의 유배를 당한 뒤에 1793년 복귀하여 이조참판에 올랐다. 이후 홍문관과 예문관의 양관제학·이조판서·병조판서 등을 거쳐 1795년 우의정·좌의정을 지냈고, 1800년에는 영의정에 올랐다. 심환지는 정조 사후 어린 임금을 보좌하여 정무를 맡아보던 임시 벼슬인 원상(院相)이 되어 정권을 장악하고, 신유사옥을 일으켜 남인계 문인들의 징벌에도 앞장선 인물로 정조를 독살했다는 설도 있을 만큼 정조와 정적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정조어찰첩>의 발굴로 인해 정조가 심환지를 위시한 벽파에 대해 적대적인 것만은 아니었고, 벽파의 주축인물과도 여러 정치 사안을 논의하였으며, 정조 재위 말년에는 정국 운영에 있어 정조와 심환지의 공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정조어찰첩>은 낱장으로 전해오던 것을 첩으로 만든 것이나 장첩(粧帖)의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편의상 6첩으로 나누어 만들었고, 순서는 편지를 쓴 시대 순이며, 어찰은 피봉과 함께 전해져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는 조선왕조 제22대 왕으로 이름은 산(禔)이고 자는 형운(亨運)이며 호는 홍재(弘齋)·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이다. 조부는 제21대 왕 영조이고, 부친은 영조의 둘째 아들 장헌세자이다. 외조부는 당시 최고 문벌 가문을 형성했던 풍양홍씨 홍봉한(洪鳳漢, 1713-1778)이고, 모친은 혜경궁 홍씨(1735-1815)이다. 장헌세자와 혜경궁 홍씨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고, 청원부원군 김시묵(金時默, 1722-1772)의 딸 효의왕후(孝懿王后, 1753-1821)를 비로 맞이하였다. 1759년 세손에 책봉되고, 1762년 장헌세자가 사망한 후 1764년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 1719-1728)의 후사로 동궁이 되었다. 1776년 영조 승하로 즉위하였고, 1800년(재위 24년) 영충현에서 승하하였다. 묘호는 정종(正宗)이었다가 1899년 정조로 개호되었다.

정조는 조선왕조 임금 가운데 가장 많은 서예작품을 남길 정도로 서예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정조는 서예가 기교와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학문과 인품을 읽을 수 있는 매개체이고 세도(世道)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서예를 ‘심화(心畵)’라 불렀고, 기교와 미적인 글씨보다는 돈후하고 원융한 글씨를 추구하였다. 정조의 서예는 해서·행초서·전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해서는 재위 초기에 왕희지의 진체(晉體)를 구사하였으니, <사도장헌세자영우원비(思悼莊獻世子永祐園碑)>(1777)·<검암기적비(黔巖紀蹟碑)>(1781) 등은 왕희지의 소해서 <황정경(黃庭經)>·<악의론(樂毅論)>을 본받았다. 그러나 1780년대 중반 이후 정조는 조선 중기에 크게 유행하였던 한호(韓濩, 1543-1605)의 글씨로 자신의 서풍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자형·필획·서풍은 한호의 <해서천자문>과 상당히 유사하였으니, <무안왕묘비(武安王廟碑)>(1785)·<정성왕후홍릉표(貞聖王后弘陵表)>(1785)·<진종대왕영릉비(眞宗大王永陵碑)>(1785)·<대로사비(大老祀碑)>(1787)·<지알명릉급역배소령원유감(祇謁明陵及歷拜昭寧園有感)>(1787)·<진안대군묘비(鎭安大君墓碑)>(1789) 등이 그러하다. 이들 글씨는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에 큰 차이가 없고, 점과 필획의 기필과 수필은 ‘한체(韓體)’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체’에 기반을 둔 정조의 서풍은 재위 후반까지 이어져 <안변설봉산석왕사비(安邊雪峰山釋王寺碑)>(1790)·<인평대군치제문비(麟坪大君致祭文碑)>(1792)·<독서당구기비(讀書堂舊基碑)>(1797)·<치마대구기비(馳馬臺舊基碑)>(1797)·<정조어필(正祖御筆)>(1799년 경) 등의 작품에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정조어필>은 자신의 독서활동에 관해 쓴 것으로 해서작품의 보기 드문 목적인 동시에 재위 후반기 해서 서풍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필봉의 날카로움을 잘 나타내면서 필획은 힘차고 경쾌하며, 각 글자들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사불란한 군대 사열을 연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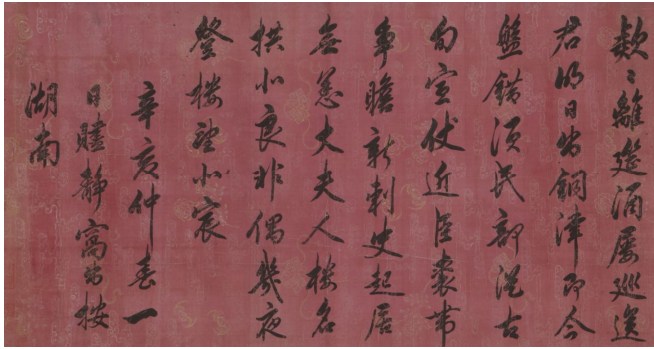
행서의 초기 서풍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종대왕어필간첩(正宗大王御筆簡帖)>(1772)이 있는데, 필획은 가늘고 뾰뾰하며 경직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필치는 1777년 이후의 작품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는 해사와 마찬가지로 왕희지체를 본받았으니,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정조어필>(1770)의 말미에 “자못 의식적으로 <난정서>를 생각하였다[頗有意思蘭亭].”라는 구절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필획을 부드럽게 연결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아직 왕희지체에 능숙하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1780년대 중반 무렵부터 미불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면모를 나타내었으니, 김재찬(金載瓚)에게 써 준 <성도백전석구점(成都伯餞席口占)>(1785)이 대표적인 예이다. 필획의 연결은 자연스럽게 운필의 속도는 빠르며, 굵기의 변화가 심하면서 빠침을 강조하였다. 1790년대는 조맹부의 서체를 일컫는 촉체(蜀體)의 영향을 받아 다시 자신의 서풍을 변모시켰다. 18세기 이후 많이 쓰지 않던 촉체의 구사는 정조가 보수적 서풍으

로 회귀하였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축체로 유명한 안평대군 이용(李瑬, 1418-1453)의 글씨를 본받았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칠언율시(七言律詩)>(1791)·<제번암시문고(題樊巖詩文稿)>(1791)·<정혜공연시연시(靖惠公延諡宴詩)>(1792) 등의 글씨는 안평대군의 작품과 직접 비교될 수 있다. 한 글자 안에서 가로획이 가지런하게 평행을 이룬 것과 필획을 연결하여 쓸 때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겹쳐 쓴 것 등은 서로 닮았다. 다만 정조는 일부 필획을 가운데로 모은 상태에서 세로획을 직선이거나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종세(縱勢)를 강조함으로써 안평대군과 다른 개성적인 서풍을 이루었을 뿐이다. 1790년대 중반은 정조의 이러한 개성적인 서풍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 시기이다. 예를 들면, <제선정퇴계간첩후(題先正退溪簡帖後)>(1794)·<제이언적서후(題李彦迪書後)>(1794)·<정조어필(正祖御筆)>(1795, 동아대박물관)·<정조시고(正祖詩稿)>(1796) 등이 이 시기에 제작된 작품들이다. 이 시기 행서의 가장 큰 특징은 운필의 속도를 느리게 하여 흘림의 정도를 약화함으로써 해서의 필치에 가까워졌고, 일사불란한 필획의 배열은 더 이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종세도 이전보다 덜 느껴진다는 점이다. 이는 정조 특유의 개성적인 필치라 하겠다. 이러한 개성적인 필치가 극명하게 나타난 작품으로 <제문상정사(題汶上精舍)>(1798)·<증철옹부백부임지행(贈鐵翁府伯赴任之行)>(1799)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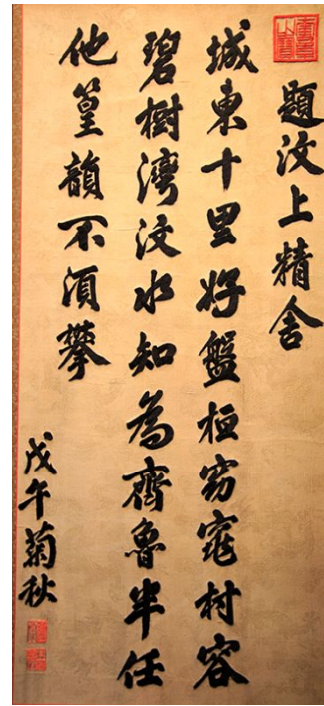
초서는 1790년 이후 간찰문에 주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채제공에게 써 준 두 점의 간찰과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정조 편지첩>이 있다. 이들 초서는 작품마다 조금씩 다른 서풍을 보일 뿐 특정 서풍과 밀접한 관련성을 찾기 힘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조의 초서는 조선시대 수없이 제작된 초서 간찰의 전통과 그의 행서와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다.

전서의 대표작은 <사도장헌세자영우원비(思悼莊獻世子永祐園碑)>(1777)·<진종대왕영릉비(眞宗大王永陵碑)>(1785)·<대로사비(大老祀碑)>(1787) 등의 전액들이다. 이는 당나라 이양빙의 <삼분기(三墳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조의 전서는 1790년대 이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의 전액(篆額)은 해서로 대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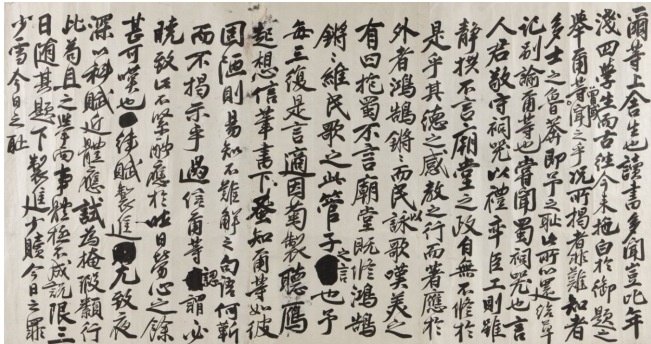
정조의 재위 초기 해서와 행서는 당시 유행서풍을 따랐다. 왕희지체와 미불서풍의 수용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17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풍은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즉 해서는 한호의 서풍, 행서는 축체를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재위 후반기에 이르러 이들 서풍을 바탕으로 삼아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서풍을 창출하였다. 이는 자신이 추구한 서예관에 합당한 글씨를 스스로 제시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정조어필, <칠언율시(七言律詩)>
(보물 제1632-1) 1791, 진주박물관



정조어필, <제문상정사
(題汶上精舍)>
(보물 제1632-2)
1798, 국립중앙박물관



정조어필, <시국제입장제생(示菊製入場諸生)> (보물 제1632-3), 1798,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조어찰첩>은 정조가 심환지(沈煥之, 1730-1802)에게 1796.8.20.~1800.6.15일까지 보낸 사신(私信)이면서 밀서(密書)이다. 4년여에 걸쳐 정조가 오직 심환지 한 사람에게 발송한 편지는 300통이다. 이는 정조의 어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일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의 군주 중에서도 이러한 유례는 없었다. 이는 또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같은 공식적인 사료 및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정조어찰첩>은 당시 정치사를 연구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조가 국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면모와 서예 등을 연구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자료이다. <정조어찰첩>은 낱장으로 전해오던 것을 첩으로 만든 것이나 장첩(粧帖)의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편의상 6첩으로 나누어 만들었고, 순서는 편지를 쓴 시대순이며, 각 첩별로 수록된 수량과 일자는 다음과 같다.

이를 보면,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에서 간행한 영인본과 케이옥션의 첩

<정조어찰첩>의 수량과 일자

구분	수량	일자	비고
1첩	48건	1796.8.20~1797.7.8	케이옥션은 50건으로 파악 2건은 일자가 없음
2첩	52건	1797.7.9~1798.3.27	2건은 일자가 없음
3첩	50건	1798.4.5~1798.10.9	
4첩	54건	1798.10.11~1799.4.21	케이옥션은 53건으로 파악 2건은 일자가 없음
5첩	49건	1799.5.2~1799.12.27	케이옥션은 50건으로 파악
6첩	44건	1800.1.30~1800.6.15	케이옥션은 45건으로 파악 5건은 일자가 없음
합계	297건	1796.8.20~1800.6.15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에서 간행한 영인본의 수량은 케이옥션에서 파악한 건수(300)와는 차이가 있고, 11건은 일자가 없음

을 비교하면 각각 297건, 300건으로 3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케이옥션에서 보면, 1첩에 날짜 미상의 편지와 정사년(1797) 7월 1일 저녁에 받은 편지가 각각 1건씩 2건이 추가되었고, 4첩에 기미년(1799) 4월 10일에 받은 편지 1통이 없다고 하였으며, 5첩에 기미년(1799) 4월 10일에 받은 편지와 6첩에 날짜 미상의 편지가 각각 1건씩 2건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4건이 추가되었고, 1건이 없기 때문에 300건이라 한 것이다.

<정조어찰첩>은 정조가 1796년 8월부터 붕어하기 직전인 1800년 6월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심환지에게 편지를 발송하여 정치를 한 것으로 느끼게는 몇 달에 한 번, 빠르게는 하루에 4번이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기간에 수신자인 심환지는 노론 벽파의 중추적인 존재이면서도 국왕의 신임을 얻어 중앙정계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하며 정국 운영에 깊숙하게 간여하였다. 300통의 <정조어찰첩>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대략 분류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조어찰첩>의 내용 분류

내용	수량	비고
인사문제	54건	중앙과 지방의 인사문제를 치밀하게 시행함
중앙정계와 산림의 여론과 동향의 탐색	31건	현안이 된 상소나 인사문제를 둘러싼 여론을 탐색하고 정국 동향에 대한 정보 수입
민감한 정치 현안의 처리와 자문	67건	현안이 된 정치문제와 향후 과급이 큰 현안을 막후에서 조정
상소·차자·장계의	41건	국가의 공식문서에 관해 심환지에게 구체적

처리와 지시		인 방향을 제시하거나 상의하여 처리
부정부패의 척결과 정조의 관심사	19건	개인 비리의 척결과 정국 운영에서의 정조의 관심사
정조와 심환지의 인간적 관계	31건	부인의 건강과 자식 문제 관심
심환지의 출처(出處) 문제	18건	대부분 상의하여 결정
정조의 건강상태	10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심환지에게 알림
조정인사들의 인물평	15건	업무능력과 상소의 내용을 근거로 인물을 평함
정조의 성품과 개성	11건	쉽게 흥분하고 화를 잘 내는 정조의 성품

<정조어찰첩>은 사료적이나 문화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 이는 한 시기의 정치현실이 담겨져 있고, 정조의 치세에서 세도정치의 시대로 이행하는 19세기 정치사를 해명하는 데에 긴요한 사료이며, 군주제시대의 현실정치를 인식하는 이론적인 과제에도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정조는 비록 전문서예가는 아니었지만 그의 친필을 볼 수 있다는 것과 내용적인 의미까지 고려하면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또한 <정조어찰첩>은 일반 서간의 관행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고, 서지 사항에서도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첫째, 발신자인 정조가 보낸 편지에는 발신 일자가 없으나 수신자인 심환지는 수신한 일자와 시간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어찰은 대부분 피봉과 함께 장첩되어 있는데, 각 피봉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수신 일자와 시간을 기록한 부전지(附箋紙)가 첨부되어 있다. 이는 후세에 남길 목적으로 일부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어찰을 보낸 장소와 수신자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발신자와 수신자가 정조와 심환지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어찰에 사용한 지질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는 촉급한 정치적 사안이나 시간을 다투는 현안의 경우에는 지질이나 격식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넷째, 서체는 매우 다양하여 정조 특유의 개성과 수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어찰을 보낸 시기는 실제로 정조의 개성적 색채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독자적인 서풍을 창출한 시기이기도 하다. 즉 종세가 분명하고, 비록 행초서를 서사하였더라도 해서의 바탕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필획은 일사불란한 배열보다는 변화의 자태를 많이 나타내었다. 또한 4년 동안의 글씨를 보면, 전체적으로 점차 진일보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비밀 유지를 위해 피봉처에 글씨를 적거나 봉합인을 찍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봉합한 곳에 ‘근봉(謹封)’이라 쓰거나 ‘함(緘)’·‘근봉(謹封)’·‘보안(報安)’·‘운한(雲翰)’·‘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 등의 봉합인

을 찍기도 하였다.

여섯째, 상황에 맞는 실용적인 문체를 구사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두식의 표현은 물론이고, 한글 어휘를 섞어 쓰거나 속어·속담을 구사하거나 심지어 비속한 표현까지 활용하여 자신의 솔직한 정감과 의도를 전달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 문헌자료

- 이민식, 「정조의 서예관과 書體反正」, 『正祖時代의 名筆』, 신구문화사 2002.
- 이성훈, 「正祖의 書藝觀과 書體」,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正祖御札帖』 上下,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 임형택·진재교, 「『正祖御札帖』-편지로 읽는 ‘정조실록’」, 『正祖御札帖』 下 467-489쪽,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 『한국역대서화가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 광노봉, 『서체』, 다운샘 2015.

□

○ 조사내용

정조어찰첩은 모두 6권으로 장첩 되어있다. 정조임금이 1796~ 1980년에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 297통과 곁봉투가 보낸 날자 순서대로 꾸며져 있다.

서첩 상에서 수신자에게 쓴 몇 가지의 호칭 또 봉인인 그리고 수신자가 기록해 둔 수신 날자의 부전지등이 날날의 실체를 대변하고 또한 파악할 수 있는 인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한 일이다.

보존 상태는 거의 완벽하다.

내용은 수신인 심환지에게 정치 사안을 논의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 속에 사료적 가치의 잠재는 물론 정조 만년의 인간적인 면모와 심리가 잘 녹아 있다.

즉 당시의 국정운영의 방식이나 정조의 밝혀지지 않은 인간상 그리고 당시 정세의 미묘한 가닥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어찰의 숫자로 보나 글씨의 예술성으로 보나 정조어찰의 백미가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국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기준에 부합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현 상

300통의 어찰이 6개의 서첩에 매우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음.

○ 내용 및 특징

정조가 1796 - 1800년 사이에 좌의정 등 고위직을 역임한 심환지에게 보낸 300통의 어찰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며, 국내에 전하는 정조 어찰첩 가운데 가장 수량이 많고 수신자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다.

○ 기 타

2013년 3월 케이 옥션에 출품 의뢰된 유물을 낙찰 받아 보관해 온 것임.

7.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가. 심의사항

‘조선경국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조선경국전’에 대한 지정신청(‘14.5.1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1.19)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위원회 2016년 제4차 회의(8.11)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8.30~‘16.9.28)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 소유자(관리자) : 공유(수원화성박물관)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 수 량 : 1卷1冊
- 규격(cm) : 세로 27.1(20.0) × 가로 17.7(10.2)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板本)
- 형 식 : 선장[線裝(五針眼訂, 改裝)]
- 조성연대 : 1457년(世祖 3)以前 推定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정도전의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비록 개인의 私撰이기는 하지만, 그가 조선건국의 중심에 있었고, 실제적으로 조선건국의 이념을 창안한 실질적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그의 이 저작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책이 토대가 되어 이후 《경제육전(經濟六典)》, 《육전등록(六典謄

錄》 등 법전의 편찬단계를 거쳐서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에 모체가 되었다는 점과, 조선전기의 간본으로는 이 책이 유일한 책이라는 점에서 도서출판과 법전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朝鮮經國典』은 麗末鮮初의 文臣이며 學者인 三峯 鄭道傳(1342~1398)이 조선 건국 초기에 國家經營을 위한 기본적인 統治典範을 마련하기 위하여 『周禮』의 <六典>體制를 바탕으로 朝鮮의 실정에 적합하게 편찬한 法典書이다.

調査本 『朝鮮經國典』은 朝鮮의 國家經營의 典範인 『經國大典』의 母體가 되었다는 점, 現傳本이 없는 唯一本이라는 점 등을 비롯하여 政治史와 制度史 및 書誌學 등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調査本 『朝鮮經國典』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되며, 아울러 博物館展示用을 위한 代替本의 製作이 요구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이며 학자인 삼봉 정도전(三峯 鄭道傳, 1342~1398)이 조선건국 초기에 국가 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통치전범(統治典範)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례(周禮)』의 ‘육전체제(六典體制)’를 바탕으로 조선의 실정에 적합하게 편찬한 법전서로서 성종대에 간행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모체가 되었다.

조사본 『조선경국전』은 전문(箋文), 교(敎), 정총(鄭摠)의 서문(序文) 및 본문을 포함한 1책(79장)으로서 유일본이다. 조선시대의 정치제도사 및 사회사 그리고 조선초기의 인쇄술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 서지기술

朝鮮經國典/鄭道傳 撰. -- 木版本.--

1권 1책(全80장중 79장 存) : 四柱單邊. 半郭 20.0 X 10.2Cm, 有界,10行16字, 注雙行,上下 黑口,上下下向黑魚尾; 27.1x 17.7cm. 楮紙. 線裝.

관심제 : 國典

內容 : 箋文(3장, 1장결락). - 敎告文(2장). - 朝鮮經國典(73장).

狀態 : 표지는 최근에 개장한 것이다. 卷頭와 卷末의 일부에 마멸된 곳이 있다.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조선경국전은 정도전(1342-1398)이 조선 건국 초기인 1394년에 국가 경영을 위한 통치전범(統治典範)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의 건국이념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전반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서적이다. 체제는 《주례(周禮)》의 육전(六典) 체제를 바탕으로 조선의 사정에 맞게 조정하였다.

구성은 서론부에서는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仁)으로써 왕위를 지켜나갈 것, 국호를 조선(朝鮮)으로 정한 것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계승이라는 명분을 천명하고, 왕위의 계승은 장자(長子)나 현자(賢者)로 할 것, 교서(敎書)는 문신의 힘을 빌려 높은 수준으로 제술(製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본론은 치전(治典 : 吏典), 예전(禮典), 정전(政典 : 兵典),부전(賦典 : 戶典),헌전(憲典 : 刑典),사전(事典 : 工典) 등 6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전은 총서(總序)에 이어 주요 소관업무를 항목을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의 대강은 물론 세목(稅目)에 이르기 까지 가장 공통점이 많은 서적은 元의 《경제대전(經世大典)》(元文類권41-42)라는 의견이 있다. 다만 본서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책의 근간은 이후 《경제육전(經濟六典)》, 《육전등록(六典謄錄)》 등의 편찬단계를 거쳐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에 모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문헌자료

* 조선경국전을 지어 올리는 전 갑술 [撰進朝鮮經國典箋 甲戌(1394)]

분의좌명개국공신 보국승록대부(奮義佐明開國功臣輔國崇祿大夫) 판삼사사동판도평의사사사 겸판상서사사 수문전태학사 지경연예문춘추관사 판의홍삼군부사 세자이사 봉화백(判三司事同判都評議使司事兼判尙瑞司事修文殿太學士知經筵藝文

春秋館事判義興三軍府事世子貳師奉化伯) 신 정도전은 말씀드립니다.

삼가 도승지 신, 상경(尙敬)이 신을 위해서 구계(具啓)한 것을 받았사온데, 그는 신에게 《조선경국전》을 지어 올리라는 것이어서, 교서를 받들고 지어 올리는 것이옵니다. 이에 부명(符命)을 잡고 도참(圖讖)을 받아 비로소 홍휴(鴻休 개국)의 운수를 열었으니, 강기(綱紀)를 세우고 베풀어서 자손에 대한 계책을 해야 하므로, 주(周) 육관(六官)의 이름을 모방하여 조선 일대의 법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생각하옵건대 주상전하께서는, 하늘의 덕을 체받으시어 왕위를 인(仁)으로써 얻으셨습니다.

국호(國號)를 정하여 민심(民心)을 안정시키고, 세자[儲副]를 세워 나라의 근본을 견고히 하셨습니다. 세계(世系)로써 쌓이고 쌓인 경사(慶事)를 나타내셨고, 교서(敎書)로써 관대한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다스리는 방법은 상신(相臣)에게 책임 지우시고, 세금[貞賦]은 실지로 공용(公用)에 쓰여졌습니다. 예(禮)와 악(樂)을 제정하시어 귀신과 사람을 화하게 하셨으며, 무사(武事)를 강론하고 병기를 수선하여 나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형벌로써 간사한 이를 꾸짖고 난폭한 짓을 막으며, 공(工)으로써는 한도와 분량을 알맞게 하셨으니, 이에서 창업(創業)하여 자손에게 이어 줌이 어려움을 보여, 충분한 준비로써 수성(守成 창업의 뒤를 이어받아 지킴)함을 오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서책[汗簡]에 실어 명산(名山)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신이 용졸한 자질로서 외람되게 전하의 지우(知遇)를 얻어, 저작(著作)의 자그마한 재주를 가지고 생성(生成)의 지극하신 은혜에 보답하려 합니다마는 그 성덕(盛德)과 풍공(豐功)은 진실로 다 기술하기 어려워서 대강(大綱)·소기(小紀)만을 모두 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조선경국전》을 삼가 써서 전(箋)과 함께 올리오니, 바라옵건대 성자(聖慈)께옵서는 한가한 시간이 있으시면 관람해 주옵소서. 비록 성상의 밝은[緝熙] 학문에는 도움이 못되더라도 시정(施政)에 있어서는 조금은 취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신은 지극히 격절하고 송구한 마음을 이길 수 없어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김도련역1977)

撰進朝鮮經國典箋 甲戌

奮義佐命開國功臣，輔國崇祿大夫，判三司事，同判都評議使司事兼判尙瑞司事，修文殿大學士，知經筵藝文春秋館事，判義興三軍府事，世子貳師。奉化伯臣鄭道傳。臣言。伏承都承旨臣尙敬爲臣具啓。令臣投進所撰朝鮮經國典奉敎投進者。秉籙膺圖。肇啓鴻休之運。立經陳紀。以詒燕翼之謀。倣成周六官之名。建朝鮮一代之典。恭惟主上殿下體天之德。保位以仁。定國號以繫民心。立儲副以隆邦本。世系著積累之慶。敎書頒寬大之恩。謂治道責成於相臣。而貞賦實歸於公用。制禮作樂。以和神人。講武修兵。以正邦國。刑則詰姦而禁暴。工則謹度而課程。可見創業垂統之艱難。俾爲持盈守成之悠久。宜載汗簡。以藏名山。臣以庸疏。獲叨遭遇。庶將著作

之末技。仰答生成之至恩。盛德豐功。固難備述。大綱小紀。悉皆鋪張。謹繕寫朝鮮經國典。隨箋以獻。伏望聖慈幸當燕閒。時賜觀覽。雖未助於緝熙之學。少有取於施設之宜。臣無任激切屏營之至。頓首頓首謹言。

○ 기 타

서적상으로부터 2012년에 구입하였다 함.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朝鮮經國典」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朝鮮經國典 / 鄭道傳(1342~1398, 麗末鮮初) 撰. -- 木板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世祖 3(1457) 以前 推定].

1卷1冊(全80張中79張殘存) : 四周單邊, 半郭 20.0×10.2cm, 有界, 10行16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27.1×17.7cm. 楮紙. 線裝(改裝).

缺落: 全80張 中 箋文 1張 缺落

表 題: [不明]

板心題: 國典

內 容: -箋文(3張, 1張缺落). -敎告文(2張). - 鄭摠序文(2張). - 朝鮮經國典(73張); 倒合 80張 中 79張 殘存(箋文 1張 缺落)

刊 記: 없음. 그러나 「朝鮮王朝實錄」의 기록, 「朝鮮經國典」序文의 기록, 「三峯先生集」의 간행기록, 「三峯先生佛氏雜辨」의 간행 등과 관련하여 볼 때, 世祖 3(1457) 以前에 간행된 것으로 推定된다.

狀 態: 卷頭와 卷末의 數張과 版心에 마멸이 있고 表紙는 改裝되어 있다. 최근 에 本文 全體를 裱接하고 表紙는 改裝하여 전반적인 保存狀態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차후 지류문화재보존수리 전문가나 裱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所 藏: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의 수원화성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傳來歷: 2012년 수원화성박물관이 구입한 문화재로 현재 수원화성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음.

規 格: 원래 규격은 세로 23.9(20.0) × 가로 16.4(10.2) cm이었으나 배접된 후에는 세로 27.1(20.0) × 가로 17.7(10.2)cm로 규격이 확대되었음.

□ 現狀 :

조사본 「朝鮮經國典」은 수원화성박물관이 2012년에 구입한 문화재로, 현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의 수원화성박물관에 守藏되어 유지·관리되고 있

다.

조사본 「朝鮮經國典」에는 卷頭와 卷末의 數張과 版心에 마멸이 있고 表紙는 改裝되어 있다. 최근에 本文 全體를 裱接하고 表紙는 改裝하여 전반적인 保存狀態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차후 지류문화재보존수리 전문가나 裱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朝鮮經國典」은 麗末鮮初의 文臣이며 學者인 三峯 鄭道傳(1342~1398)이 조선 건국 초기에 國家經營을 위한 기본적인 統治典範을 마련하기 위하여 「周禮」의 <六典>體制를 바탕으로 朝鮮의 실정에 적합하게 편찬한 法典書이다.

「朝鮮經國典」의 序論部에는 天地와 自然의 이치에 따라 ‘仁’으로 王位를 守護할 것, 箕子朝鮮을 繼承하여 國號를 ‘朝鮮’으로 할 것, 王位の 繼承은 長子나 賢子로 할 것, 敎書는 文臣의 힘을 빌어서 높은 수준으로 製述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朝鮮經國典」의 本論部에는 治典(吏典), 禮典, 政典(兵典), 賦典(戶典), 憲典(刑典), 事典(工典) 등 六典으로 編成되어 있으며, 각각의 典들은 總序에 이어 주요 所管業務를 目으로 나누어 敍述하였다.

「朝鮮經國典」의 統治規範은 「周禮」의 六典體制를 典範으로 하여, 「周禮」에서는 宰相·科擧·兵農一致制度 등의 이상을 借入하고 漢朝와 唐朝의 制度에서 中央集權 및 富國強兵과 관련된 府兵·郡縣·賦稅·胥吏選拔制度 등의 장점을 흡수하고 절충하여 이를 朝鮮의 實情에 맞도록 새로운 「朝鮮經國典」으로 編纂한 것이다.

「朝鮮經國典」은 三峯 鄭道傳의 個人著述이나 朝鮮王朝의 建國理念과 發展方向을 설정한 法典으로, 이후에 「經濟六典」과 「六典謄錄」 등의 편찬을 거쳐 成宗朝에 「經國大典」을 완성하는 母體가 되었다.

「朝鮮經國典」의 내용은 鄭道傳의 文集인 「三峯先生集」(1465)과 「三峯集」(1791)에도 수록되어 있으나, 調査本 「朝鮮經國典」은 독립적으로 編纂·刊行된 것으로 현재 국내에 알려져 있지 않은 唯一本이며 學術的·文化財的 가치가 매우 높은 貴重本이다.

調査本 「朝鮮經國典」은 朝鮮의 國家經營의 典範인 「經國大典」의 母體가 되었다는 점, 現傳本이 없는 唯一本이라는 점 등을 비롯하여 政治史와 制度史 및 書誌學 등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調査本 「朝鮮經國典」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 京畿道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등의 指定·認定 資料報告書

(송일기·서정문·이완우의 조사보고서). 水原, 京畿道 文化財委員會, 2013. 12. 23.

- 水原華城博物館 編 『三峯 鄭道傳과 「朝鮮經國典」』
(2014년 수원화성박물관 학술대회논문집). 水原, 水原華城博物館, 2014.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문화재검색(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c=NS_04_03_01)

□

○ 현 상

書誌事項

朝鮮經國典 / 鄭道傳(1342~1398, 麗末鮮初) 撰.

-- 木板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457년(世祖3) 以前 推定]

1卷1冊(全80張中79張殘存) : 四周單邊, 半郭20.2×14.3(cm), 有界, 10行16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27.1×17.7(cm). 楮紙. 線裝(改裝).

缺落: 全80張 中 箋文 1張 缺落

表 題: [不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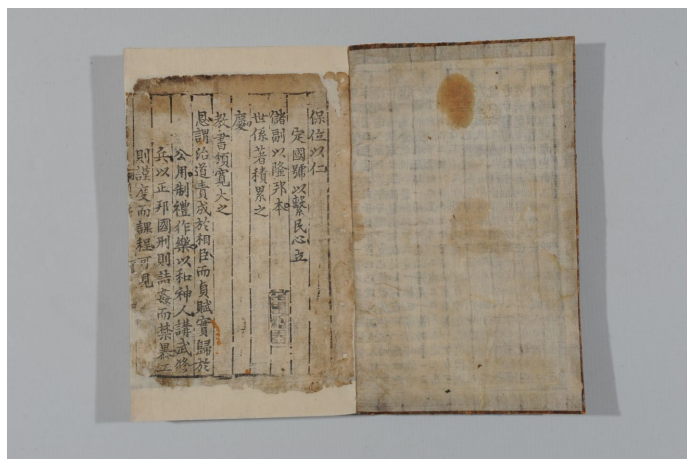
板心題: 國典

卷首題: 朝鮮經國典

卷末題: 朝鮮經國典

조사본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수원화성박물관이 2012년에 구입한 문화재이다. 권두(卷頭)와 권말(卷末)의 여러장에 손상된 부분이 확인된다. 원래 규격은 23.7×16.4(cm)이었으나 배접된 후에는 27.1×17.7(cm)로 변형되었다. 표지는 개장되어 있다.

조사본은 인쇄면 후면에 많은 낙서가 되어 있는 상태이나,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이며 학자인 삼봉 정도전(三峯 鄭道傳, 1342~1398)이 조선건국 초기에 국가 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통치전범(統治典範)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례(周禮)」의 ‘육전체제(六典體制)’를 바탕으로 조선의 실정에 적합하게 편찬한 법전서이다. 중국 한조(漢朝)와 당조(唐朝)의 제도에서 중앙집권 및 부국강병과 관련된 부병(府兵)·군현(郡縣)·부세(賦稅) 등의 장점을 참고하여 편찬한 이 책은 이후에 『경제육전(經濟六典)』과 『육전등록(六典謄錄)』 등의 편찬을 거쳐 성종조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완성하는 모체가 되었다.

『조선경국전』의 서론부에는 천지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仁)’으로 왕위를 수호할 것, 기자조선(箕子朝鮮)을 계승하여 국호를 ‘조선(朝鮮)’으로 할 것, 王位의 계승은 장자나 현자(賢子)로 할 것, 교서(敎書)는 문신의 힘을 빌어서 높은 수준으로 제술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경국전』의 본론부에는 치전(治典, 吏典), 예전(禮典), 정전(政典, 兵典), 부전(賦典, 戶典), 헌전(憲典, 刑典), 사전(事典, 工典) 등 6전(六典)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는 총서(總序)에 이어 주요 소관 업무를 목(目)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조사본 『조선경국전』은 전문(箋文) 3장(1장 결락), 교서(敎書) 2장, 정총(鄭摠, 1358~1397)의 서문(序文) 2장, 본문 73장 등 모두 79장이 잔존(전문 1장 결락)하고 있다. 현재 「撰進朝鮮經國典箋(찬진조선경국전전)」의 내용 가운데 앞부분이 결락되었던 것은 분명하나 목차(目次)가 있었던 지는 상세하지 않다.

撰進朝鮮經國典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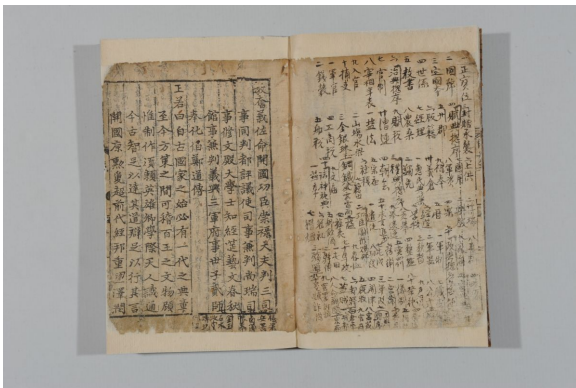
奮義佐命開國功臣, 輔國崇祿大夫, 判三司事, 同判都評議使司事兼判尙瑞司事, 修文殿大學士, 知經筵藝文春秋館事, 判義興三軍府事, 世子貳師. 奉化伯臣鄭道傳. 臣言. 伏承都承旨臣尙敬爲臣具啓. 令臣投進所撰朝鮮經國典奉敎投進者. 秉籙膺圖. 肇啓鴻休之運. 立經陳紀. 以詒燕翼之謀. 倣成周六官之名. 建朝鮮一代之典. 恭惟主上殿下體天之德. 保位以仁. 定國號以繫民心. 立儲副以隆邦本. 世系著積累之慶. 敎書頒寬大之恩. 謂治道責成於相臣. 而貞賦實歸於公用. 制禮作樂. 以和神人. 講武修兵. 以正邦國. 刑則詰姦而禁暴. 工則謹度而課程. 可見創業垂統之艱難. 俾爲持盈守成之悠久. 宜載汗簡. 以藏名山. 臣以庸疏. 獲叨遭遇. 庶將著作之末技. 仰答生成之至恩. 盛德豐功. 固難備述. 大綱小紀. 悉皆鋪張. 謹繕寫朝鮮經國典. 隨箋以獻. 伏望聖慈幸當燕閒. 時賜觀覽. 雖未助於緝熙之學. 少有取於施設之宜. 臣無任激切屏營之至. 頓首頓首謹言.

조선경국전을 지어 올리는 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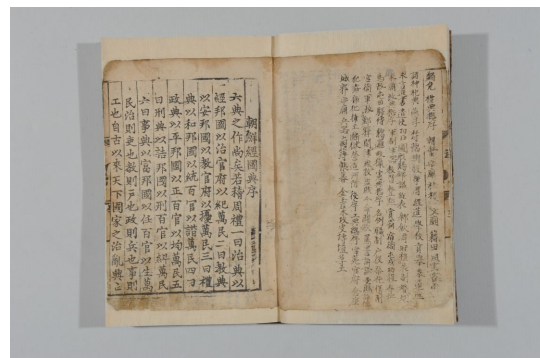
분의좌명 개국공신 보국승록대부 판삼사사 동판도평의사사사 검판상서사사 수문전태학사 지경

연예문춘추관사 판의흥삼군부사 세자이사 봉화백 신 정도전 말씀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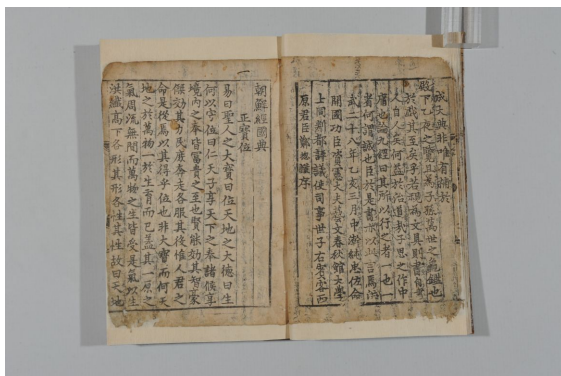
삼가 도승지 신 상경(尙敬)이 신을 위하여 구계(具啓)한 것을 받았사온데, 그것은 신에게 「조선경국전」을 지어 올리라는 것이어서, 교서를 받들고 지어 올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에 부명(符命)을 잡고 도참(圖讖)을 받아 비로소 홍휴(鴻休 개국)의 운수를 열었으니, 강기(綱紀)를 세우고 베풀어서 자손에 대한 계책을 해야 하므로, 주(周) 육관(六官)의 이름을 모방하여 조선일대의 법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생각하옵건데 주상전하께서는, 하늘의 덕을 체 받으시어 왕위를 인(仁)으로써 얻으셨습니다. 국호(國號)를 정하여 민심(民心)을 안정시키고, 세자[儲副]를 세워 나라의 근본을 견고히 하셨습니다. 세계(世系)로 쌓이고 쌓인 경사를 나타내셨고, 교서로 관대한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다스리는 방법은 상신(上臣)에게 책임지우시고, 세금[眞賦]은 실지로 공용에 쓰여 졌습니다. 예(禮)와 악(樂)을 제정하시어 귀신과 사람을 화하게 하셨으며, 무사(武事)를 강론하고 병기를 수선하여 나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형벌로 간사한 이를 꾸짖고 난폭한 것을 막으며, 공(工)으로 한도와 분량을 알맞게 하셨으니, 이에 창업(創業)하여 자손에게 이어 줌이 어려움을 보여, 충분한 준비로 수성(守成 창업을 이어 받아 안정됨)함을 오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서책[汗簡]에 실어 명산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신이 용졸한 자질로 외람되게 전하의 지우(知遇)를 얻어, 저작(著作)의 자그만 재주를 가지고 생성(生成)의 지극한 은혜에 보답하려합니다만 그 성덕(聖德)과 풍공(豐功)은 진실로 다 기술하기 어려워 대강(大綱)·소기(小紀)만을 모두 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조선경국전」을 삼가 써서 전(箋)과 함께 올리오니, 바라옵건데 성자(聖慈)께옵서는 한가한 시간이 있으시면 관람하십시오. 비록 성상의 밝은[緝熙] 학문에는 도움이 못 되더라도 시정(市政)에 있어서 조금은 취할 바 있을 것입니다. 신은 지극히 격절하고 송구한 마음을 이길 수 없어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朝鮮經國典 敎書



朝鮮經國典 鄭摠序



○ 지정사례

지정된 사례는 없다.

○ 문헌자료

京畿道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등의 指定·認定 資料報告書 (송일기·서정문·이완우의 조사보고서). 水原, 京畿道 文化財委員會, 2013. 12. 23.

水原華城博物館 編, 『三峯 鄭道傳과 「朝鮮經國典」』 (2014년 수원화성박물관 학술대회논문집). 水原, 水原華城博物館, 2014.

8. 묘법연화경 권5~7(妙法蓮華經 卷五~七)

가. 심의사항

‘묘법연화경 권5~7’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묘법연화경 권5~7’에 대한 보물 지정신청(‘14.9.1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1.2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위원회 2016년 제4차 회의(8.11)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8.30~’16.9.28)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묘법연화경 권5~7(妙法蓮華經 卷五~七)
- 소유자(관리자) : 본각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중앙로 나길 20-22(목동 202-9)
- 수 량 : 3권 1책
- 규격(cm) : 28.8×21.6
- 재 질 : 종이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線裝(五針眼訂)]
- 조성연대 : 1470년(성종 1)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본각사 소장본 묘법연화경은 성종 원년(1470)에 정희 태왕대비의 발원으로 관각한 왕실판본이다. 판각의 솜씨와 인출의 상태가 당대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전기 왕실판본의 사례로서 간행시기와 동기가 분명하며,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고, 전래되는 같은 초인본이 극히 희소하다. 당시의 불교사

연구와 출판인쇄사, 특히 왕실판본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신청대상 『묘법연화경』 권5~7의 1책은 완질본이 아니고 표지가 최근 개장되었으며 1장(권6의 제3장)의 결락이 있으나, 인출상태가 양호하고 인출목서가 없는 사실 등에서 1470년 경 인출된 초기인본으로 진단.

1470년 왕실주도로 조성된 원판의 복원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 기록유산이며, 당대 왕실의 불교신앙형태, 불교경판의 조성방식·체계, 닥종이의 생산방식 및 종류 등과 같은 다양한 역사·문화적 실체를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 활용.

특히 해당 전문 각수들은 조선사회의 출판인쇄술과 문화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조선전기 조성 목판본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지표로도 활용.

이러한 다양한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도는 신청대상 인출본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기준과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묘법연화경』 권5~7’은 권7의 끝에 있는 성화 6년(1470)에 김수온이 쓴 발문을 통하여 세조비(世祖妃)인 정희왕후(貞熹王后) 윤(尹)씨가 둘째아들 예종(睿宗)이 돌아가자 이미 고인이 된 세조(世祖)와 의경왕(懿敬王;德宗) 그리고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1470년에 판각된 이후 1474년(성종 5), 1482년(성종 13), 1488년(성종 19)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후인(後印)되었으나, 조사본 ‘『묘법연화경』 권5~7’은 후인 기록이 없어 초인본(初印本)으로 판단된다. 초인본은 전해지는 책이 드물어 불교사 및 서지학 그리고 조선 초기의 목판인쇄술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권4의 1-4장의 하단의 일부가 훼손

○ 내용 및 특징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법화경》(法華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천태종과 법상종의 소의경전으로 7권 28품으로 구성되어있다. 대표적인 대승경전의 하나로서 석가의 40년에 걸친 說法을 집약한 경전이다. 이 경은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406년에 한역한 경전이 주로 유통되었고, 주해로는 宋의 계환(戒環)이 주해한 《묘법연화경해》(妙法蓮華經解) 20권본이 가장 널리 간행, 유통되었다.

조사 대상본인 본각사 소장본은 전7권 중 3권(권5~7) 1책의 영본이다. 이 책의 권7의 말미에는 김수온(金守溫 : 1410~481)의 발문이 수록되어있다. 이 발문을 통해서 이 책이 세조의 왕비인 정희태왕대비의 주선으로 세조(世祖)와 예종(睿宗) 및 의경왕(懿敬王)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70년(성종 1)에 목판으로 개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각 장의 난외(欄外) 우측 하단에 판각을 담당한 각수명이 새겨져 있다. 각수의 이름은 대체로 판심의 하단에 새기는 점에 비추어 이채롭다. 장막동(張莫同), 최금동(崔今同), 고말동(高末終), 이영산(李永山), 우인수(禹仁守), 최득산(崔得山) 등의 이름이 보인다. 태왕대비의 발원으로 국왕을 위한 불사인 점에서 당대 최고의 각수들이 동원된 관계로 글씨와 판각이 힘있고 정교하다.

본각사 소장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과 동일한 판본으로 후기에 강희맹의 발을 달아 간행한 성종 13년(1483) 인출본이 보물 제936호(삼성미술관), 성종19년(1488) 인출본이 제950호(국립중앙박물관)로 지정된바 있다. 그러나 이 본각사 본에는 김수온의 발문만 있고, 판면과 글자의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점에서 성종1년(1470)에 판각한 책판에서 빠른 시기에 인출한 초인본으로 사료된다.

○ 문헌자료

* 묘법연화경 김수온 발

成化六年(1470,成宗1)夏四月有日 我太王大妃殿下傳旨于臣 若曰 經所以載法 經之行 卽法輪之行而續佛慧命於無窮也 惟法華一經 我佛極唱 大乘法文 無尙於此 今爲世祖大王 睿宗大王 懿敬王 超生極樂 證大涅槃之願 楷寫是經 鋟梓已訖 爾其跋之 臣竊觀四分律 有自作之功 有他作之利 盖自作一分 推之於人 可以爲他作之十分 他作十分 反之於己 可以爲自作之一分 若夫平等性中 自他雙忘 眞如界內 生佛一空 則又初無人已之分 彼此之別矣 我世祖大王 聖德至道 卓冠百王 至於應神妙蹟 默契幽玄 則盖與諸佛 同一體性 我睿宗大王 重光繼述之美 又可以垂範萬世 而我太王大妃殿下 哀誠惻怛之意 發願廣大之心 無所不至者 至於如此 況法華正經之刊 世所希有 而大字善本 尤便於誦習 將使若見若聞 遞相隨喜 法界有情 同霑利樂 同入於無

量義處 則是我太王大妃殿下 自作之功既至 而他作之利 又無所不被 功德圓成 世祖大王 睿宗大王 懿敬王 所以登安養而證佛果 又豈有自他物我之可以擬議於其間哉 輔國崇祿大夫行中樞府知事 臣金守溫奉教謹誌

○ 기 타

현주지 (임용춘)가 은사인 황용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라 함.

□

○ 현 상

『법화경(法華經)』이라고도 하는 『묘법연화경』은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 불교경전.

신청대상 『묘법연화경』의 인출원판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의 한역본으로, 1470년(성종 1)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가 남편 세조와 아들 예종·의경왕(懿敬王 : 덕종)의 극락왕생 등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한 왕실주도의 불교경판.

전체 7권 가운데 권5~7의 1책이 선장본으로 현존하며, 권6 제3장의 결락 부분을 제외하고 온전한 상태.

표지의 전체는 최근 개장되어 복장 유물로 짐작.

그러면서 본문의 인출상태와 다통이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특히 광곽·계선·글자·구두점·판심·각수 등의 인출상태가 뚜렷하며, 후인목서가 없는 사실에서 초기인본으로 짐작.

○ 내용 및 특징

권수제·권미제는 묘법연화경권제오(妙法蓮華經卷第五) 및 묘법연화경권제칠(妙法蓮華經卷第七)과 같이 경전이름+권제(卷第·卷第)+권차의 형태, 한역 정보는 요진삼장법사구마라집봉 조역(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처럼 한역자의 활동국명+출신성분+법명+역할의 형식, 그리고 판심제는 ‘법화경권육 일(法華經卷六七 一)과 같이 줄인 경전이름+권+권차+장차의 형식으로 각각 표기.

개별 경판의 본문에는 구두점(句讀點)이 표기되어 있으며, 오른쪽 변란 밖에는 최금동(崔今同)·장막동(張莫同)·이영산(李永山)·최득산(崔得山) 등의 전문 각수들도 양각.

권7의 권미제 다음 장부터는 1470년(성종 1 : 成化六年) 4월 중추부지사 김수온(金守溫)이 지은 지문(誌文)이 양각.

신청대상 인출본의 원판은 김수온의 지문에서 1470년 경 왕실의 주도로 조성된 왕실 판본으로 확인되며, 해당 인출본도 양호한 인출상태 등에서 초기인출로 짐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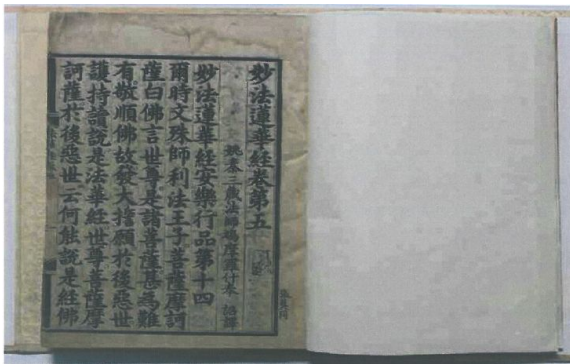
신청대상의 『묘법연화경』의 인출본은 동일 종류의 판본으로 인출하여 국가지

정문화재로 지정된 보물 제1240호와 같은 초기인본이며, 강희맹 등의 후인기록이
 묵서된 보물 제936호 및 제950호 등보다 앞선 시기에 인출된 기록유산으로 진단.

○ 기 타

해당 「유물취득경위서」에 따르면, 신청대상의 『묘법연화경』 인출본은 문화재
 지정 신청자 범우 스님이 은사 황용 스님으로부터 이어받아 보관하다가 국가지
 정문화재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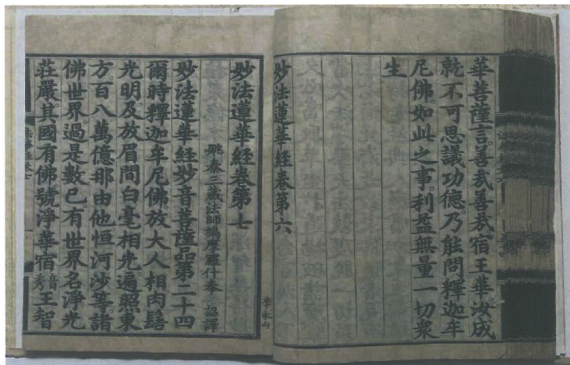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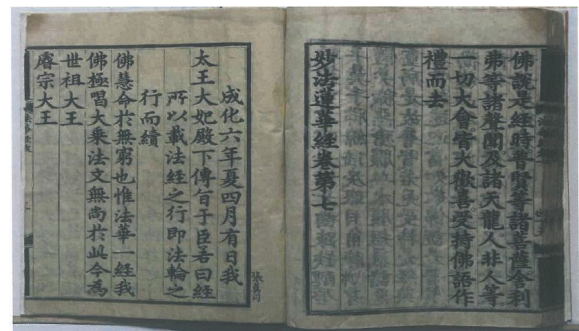
권5의 제1장



권6의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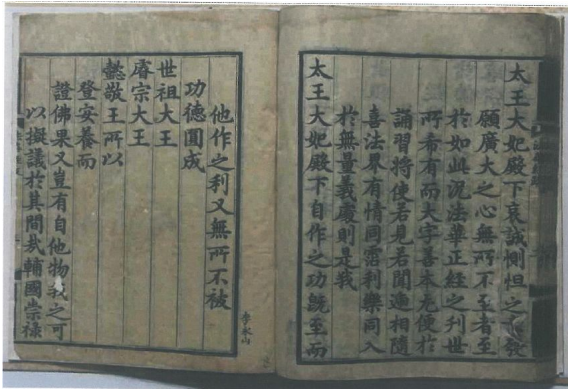
권7의 제1장(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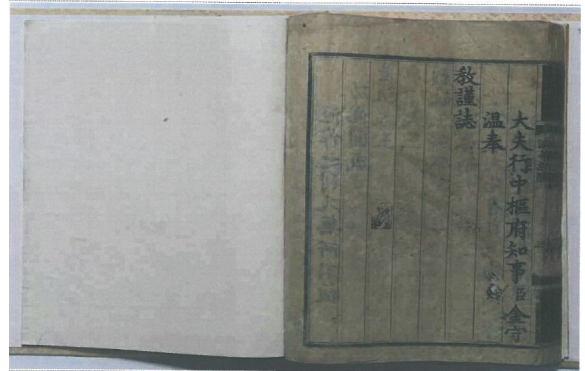
김수은 지문1(좌)

권7의 마지막 장(우)

권6의 마지막장(우)



김수온의 지문3(좌) 김수온의 지문2(우)



김수온의 지문4(우)



각수의 사례

□

○ 현 상

書誌事項

妙法蓮華經 卷五~七/戒環(宋)解, -- 木板本.

3卷 1冊; 四周雙邊, 半郭23.1×15.8(cm), 有界, 半葉 8행13자,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線裝本(五針眼訂)

卷首題: 妙法蓮華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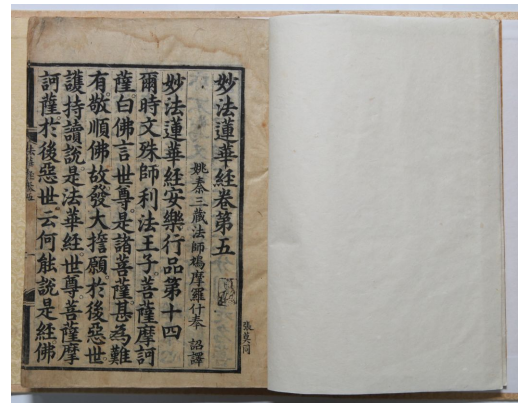
版心題: 法華經

跋 文: 成化六年(1470) 夏四月有日我/太王大妃殿下傳旨于臣若曰經/所以載法經之行即法輪之/行而續/佛慧命於無窮也惟法華一經我/佛極唱大乘法文無尙於此今爲/世祖大王/睿宗大王/懿敬王超生極樂證大涅槃之願 /楷寫是經鉞梓已訖爾.....輔國崇祿大夫行中樞府知事臣金守溫 奉教謹誌

본각사의 현 주지 범우의 은사인 황용스님이 보관하였던 유물로 전승되었다. 표지는 근래에 개장되었으며,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妙法蓮華經 卷五~七 表紙



妙法蓮華經 卷五 卷首

○ 내용 및 특징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다. 일반적으로 『화엄경』·『금강경』과 더불어 불교의 대표적 대승경전으로 널리 알려진 『묘법연화경』은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이를 흔히 ‘법화경(法華經)’으로 약칭하여 불리고 있다. 이 경전의 원서명은 “saddharma-pundarika-sutra”로서 그 의미는 ‘백련꽃과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경전’으로 풀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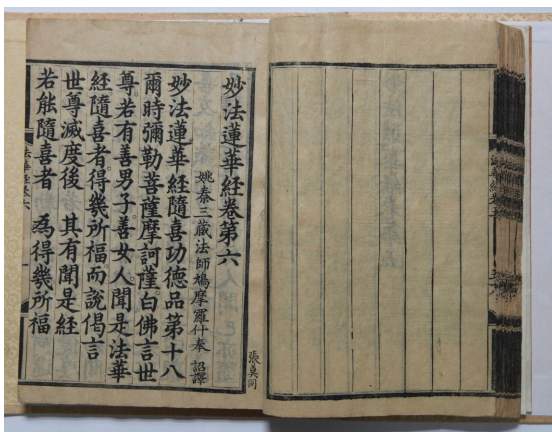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묘법연화경』의 대부분은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한 역본에 송(宋)의 계환(戒環, ?~?)이 1126년(고려 인종4, 靖康1)년에 주해(註解)한 7권본이다. 계환의 주해본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통된 것은 문장이 간결하여 비교적 이해하기 쉬웠던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

재 우리나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가장 오래된 『묘법연화경』은 전남 영광(靈光)의 불갑사(佛岬寺) 명부전(冥府殿)의 시왕상(十王像)에서 발견된 권3의 일부이다. 현재까지 대략 150여종의 판본(版本)이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판본의 계통은 참여 주체나 간행 수단에 따라 크게 성달생판본계(成達生版本系)와 갑인자판본계(甲寅字版本系), 을해자판본계(乙亥字版本系), 정희왕후판본계(貞熹王后版本系), 간경도감판본계(刊經都監版本系) 등으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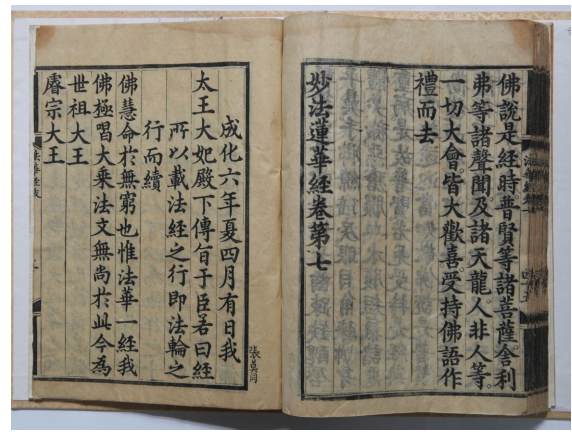
조사본 ‘『묘법연화경』 권5~7’은 구마라집(鳩摩羅什) 한역본으로 전 7권 가운데 권5~7의 1책이다. 내용은 제14품 「안락행품(安樂行品)」부터 제28품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까지 모두 15품이 수록되어 있다. 권5는 전체 58장(완), 권6은 전체 54장 가운데 53장(제3장 결락), 권7은 전체 45장(완) 그리고 끝부분에 김수온(金守溫, 1409~1482)의 발문 3장이 있다.

권수제는 제1행에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라 하였고, 다음 행에 ‘요진삼장법사구마라집봉 조역(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이라 하여 구마라집의 한역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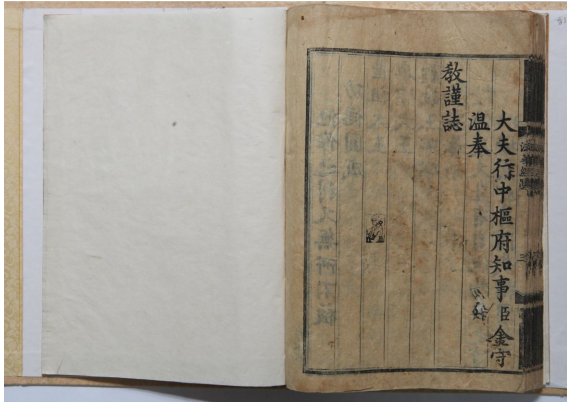
권7의 끝에는 성화 6년(1470)에 김수온이 쓴 발문이 수록되었다. 이를 통하여 세조비(世祖妃)인 정희왕후(貞熹王后) 윤(尹)씨가 둘째아들 예종(睿宗)이 돌아가자 이미 고인이 된 세조(世祖)와 의경왕(懿敬王; 德宗) 그리고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妙法蓮華經 卷六 卷首



妙法蓮華經 卷七 卷末/成化6年 跋文



妙法蓮華經 成化6年 金守溫 跋文

판식의 특징을 보면, 광곽은 사주쌍변으로 반곽의 크기는 23.1×15.8(cm)이며, 전체 8행으로 되어 있는데, 한 행 13자씩이다. 그리고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로 대흑구(大黑口)가 있으며, 그 사이로 흑어미(黑魚尾)가 보이고 있다. 판심제는 위에 ‘법화경(法華經)’이란 약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로 권수 및 장수 표시가 나타나 있다. 본문에 구두점이 표시되어 있어 독경의 편리를 도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난외에는 장막동(張莫同), 최금동(崔今同), 최득산(崔得山) 홍개말치(洪介末致), 박중연(朴仲連), 이영산(李永山), 박군실(朴君實), 고말경(高末經), 권돈일(權頓一), 우인수(禹仁守) 등의 각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판본은 1470년에 판각된 이후 1474년(성종 5), 1482년(성종 13), 1488년(성종 19)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후인(後印)되었다. 그 가운데 1470년(성종 1)에 찍은 것으로 여겨지는 권 제3~7 잔질(殘帙) 2책이 보물 제1147호(아단문고 소장본), 1474년(성종 5)에 궁중의 상의(尙儀) 조씨(曹氏)가 돌아가신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10부 찍은 것 중 권 제5~7 잔존 1책이 보물 제959호(기림사 소장), 1482년(성종 13) 인수대비(仁粹大妃)가 명숙공주(明淑公主)의 명복을 빌기 위해 14부 찍은 것 중 권 제6~7 잔존 1책이 보물 제 936호(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1488년(성종 19)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貞顯王后)가 순숙공주(順淑公主)의 천도를 위해서 찍은 권 5~7의 잔존 1책 [을해자(乙亥字) 발문] 이 보물 제950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이 있다.

○ 지정사례

- 보물 제936호 묘법연화경 권6~7(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1987.12.26)
- 보물 제950호 묘법연화경 권5~7(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88.06.16)
- 보물 제959-4-9호 묘법연화경 권5~7(기림사 소장, 1988.11.04)
- 보물 제1147-1호 묘법연화경 권3~4, 권5~7(아단문고 소장, 1993.01.15)
- 보물 제1147-2호 묘법연화경 권1~2(수덕사 성보박물관 소장, 2008.03.12)

보물 제1164-1호 묘법연화경 권3~4(구인사 정보박물관 소장, 1993.06.15)
보물 제1164-2호 묘법연화경 권3~4, 권5~7(서울 보문사 소장, 2014.01.20)
보물 제1240호 묘법연화경 권3~4(통도사 정보박물관 소장, 1996.04.04.)
- 표지와 제침이 원장(原裝) 상태로 보존, 포배장

9. 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

가. 심의사항

‘묘법연화경 권4~7’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묘법연화경 권4~7’에 대한 지정신청(‘15.6.1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1.29)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위원회 2016년 제4차 회의(8.11)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8.30~’16.9.28)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
- 소유자(관리자) : 심택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0 나길 5-23
- 수 량 : 4권 1책
- 규격(cm) : 32.9×15.5
- 재 질 : 종이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線裝(五針眼訂)]
- 조성연대 : 1422년경(세종 4)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책은 태종의 넷째아들인 성녕대군(誠寧大君)이 14세에 요절하자 그의 장인으로 인순부윤(仁順府尹)의 직에 있던 성억(成抑)이, 명필인 성달생과 성개 형제가 서사한 법화경을 저본으로 하여 판각한 책판에서 인출한 것이다. 이 책판은 그 후 발문을 새로 붙여 간행(보물1196호)하거나 발문 없이 인출하는 경우가 많

았다.

심택사 소장본은 책의 판면의 상태가 선명하고 다른 발문이 없다는 점에서 1422년 판각 즉시 인출한 책으로 추정된다. 조선초기의 불교사연구와 인쇄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신청대상 『묘법연화경』 권4~7의 1책은 완질본이 아니고 표지가 최근 개장되었으며, 본문 일부가 훼손되어 있으나, 보물 제1196호와 동일한 간행본으로 초기 간본의 원형을 유지하는 기록유산으로 진단.

신청대상본은 인출상태도 뚜렷하여 원판이 조성된 1422년 경에 인경되었을 개연성이 높음.

신청대상본은 당대 명필 성달생-성개 형제의 서체, 불교경판의 간행형태·체계, 불교계의 동향, 한지 생산의 기술적 능력, 음독구결 등과 같은 역사·문화적 실체를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기준과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묘법연화경』 권4~7’은 권7의 끝에 있는 1422년(세종4)에 인순부윤(仁順府尹) 성억(成抑)이 성령대군(誠寧大君)과 원경왕후(元敬王后)를 위하여 간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사본 ‘『묘법연화경』 권4~7’은 기지정된 보물 제1196호 통도사 소장본 『묘법연화경』과 같은 판본에서 찍어낸 것이나, 경태 7년 작성된 학조(學祖)의 발(跋)이 보이지 않고, 永樂 壬寅(1422)에 쓴 변계량(卞季良)의 발문과 발원문 사이에 있는 시주자 명단이 빠져 있고, 壬寅(1422) 春三月에 쓴 함허당(涵虛堂)의 발문과 정암의 발문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여러 차이점을 통하여 1456년(세조 1)에 찍어낸 책과 다른 시기에 인출되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1422년(세종4) 판각 후의 초인본(初印本)으로서 전해지는 책이 드물어 불교사 및 서지학 그리고 조선 초기의 목판인쇄술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서지사항 : 四周單邊, 半郭 21.3 x 13.3 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표지는 개장된 것이다. 권4의 제1~제4장의 좌측 하단의 일부가 손상되어 부분적으로 배접하여 보완한 상태이며, 변상도는 없다. 그러나 책의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법화경》(法華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천태종과 범상종의 소의경전으로 7권 28품으로 구성되어있다. 대표적인 대승경전의 하나로서 석가의 40년에 걸친 說法을 집약한 경전이다. 이 경은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406년에 한역한 경전이 주로 유통되었고, 주해로는 宋의 계환(戒環)이 주해한 《묘법연화경해》(妙法蓮華經解) 20권본이 가장 널리 간행, 유통되었다.

조사 대상본인 심택사 소장본은 전7권 중 4권(권4~7) 1책의 영본이다. 이 책의 권7의 말미에는 변계량(卞季良)이 1422년(세종3) 2월에 쓴 발문과 같은 해 3월에 함허당(涵虛堂) 무준(無準)이 쓴 발문, 그리고 도인 정암(定菴)의 발원문(發願文)이 수록되어 있고, 이어서 이 책의 서사자(書寫者)로 총제(摠制) 성달생(成達生: 1376-1444)과 판사(判事) 성개(成概: ?-1440), 시주자로 경화택주 이씨(慶華宅主 李氏), 낙안군부인 김씨(樂安郡夫人 金氏), 광주군부인 정씨(光州郡夫人 鄭氏) 등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이 책의 간행은 인순부윤(仁順府尹) 성억(成抑: 1386~1448)이 자신의 사위이며 태종의 네째아들인 성녕대군(誠寧大君: 1405~1418)과 대군의 모친인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변계량과 무학대사의 제자인 함허당 득통의 발문을 붙여 간행한 것이다. 성달생은 성삼문의 조부이며 성개와 함께 당대의 명필이다.

보물 1196호(통도사 소장)는 심택사본과 같은 책판에서 인출한 것이다. 다만 1196호는 1456년(세조 1)에 쓴 학조(學祖)의 발을 붙여서 동궁(東宮: 德宗)의 빈(嬪)인 한씨(韓氏: 昭惠王后)가 친정어머니인 홍씨(洪氏: 韓確의 부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출한 것이다. 심택사본은 학조의 발이 없고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에서 1422년에 책판을 판각한 후 이른 시기에 인출한 초인본으로 추정된다.

○ 기 타

현 관리자(김창숙)가 본인의 은사로부터 증여받아 심택사에 기증하였다 함.(취득경위서)

□

○ 현 상

『법화경(法華經)』이라고도 하는 『묘법연화경』은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 불교경전.

신청대상본은 비구 계환(戒環) 주해의 『묘법연화경』을 조선전기 명필가 성달생(成達生)－성개(成概) 형제의 서사로 조성한 판본이며, 경화택주(慶華宅主) 이씨 등의 시주로 태종의 후비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와 왕자 성녕대군(誠寧大君)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성.

전체 7권 가운데 권4~7의 1책이 선장본으로 현존하며 변상도는 없음.

표지의 전체는 최근 개장되었고, 본문 내용 가운데 일부가 결락되어 있으며, 본문의 종이도 일부 손상되어 부분적으로 수리 배접된 상태.

그러면서 본문 내용의 인출상태가 양호하며 인출지 대부분의 보존상태도 인출 당시 원형을 유지. 특히 광곽·글자·판심 등의 인출상태가 뚜렷하여 초기인본으로 짐작.

표지의 개장 등 전체 현상에서 복장 유물로 진단.

○ 내용 및 특징

권수제 및 권미제는 묘법연화경권제사(妙法蓮華經卷第四) 및 묘법연화경권제칠(妙法蓮華經卷第七)과 같이 경전이름+권제(卷第·卷第)+권차의 형태, 주해정보는 온릉개원련사비구계환해(溫陵開元蓮寺比丘戒環解)처럼 지명+사원명+출신성분+법명+역할의 형식, 그리고 판심제는 ‘법칠 오십이(法七 五十二)’와 같이 줄인 경전이름+권차+장차의 형식으로 각각 표기.

권7의 권미제 다음 장(제53장)부터는 1422년(세종 4 : 永樂壬寅) 2월에 지은 변계량(卞季良)의 발문, 같은 해 3월의 함허당(涵虛堂) 수이(守伊) 무준(無準) 발문, 도인 정암(定庵)의 발원문이 각각 양각되어 있으며, 발원문의 다음에는 서사 성달생－성개를 이어 시주 경화택주 이씨 등이 표기.

권4 전체 및 권5 일부의 본문 내용 가운데는 음독구결이 묵서되어 있어 독송 등에 활용된 흔적을 확인.

신청대상 인출본의 원판은 변계량 및 함허당의 발문에서 1422년 경에 조성되었으며, 해당 인출본도 양호한 인출상태 등에서 초기인출로 짐작.

신청대상의 『묘법연화경』 판본은 1456년(세조 2) 조성되어 보물 제1196호로 지정된 동일 종류의 간행 목판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된 원천자료로 진단.

신청대상본과 보물 제1196호는 서체·행자수·판형·판심제, 권수제·권미제 및 주해정보 등에서 동일하면서 발문 및 간행정보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

신청대상본의 권7 권미제 다음에는 변계량 발문－함허당 발문－정암 발원문－간행정보(서사·시주)의 순서로 새겨져 있으나, 보물 제1196호의 경우는 변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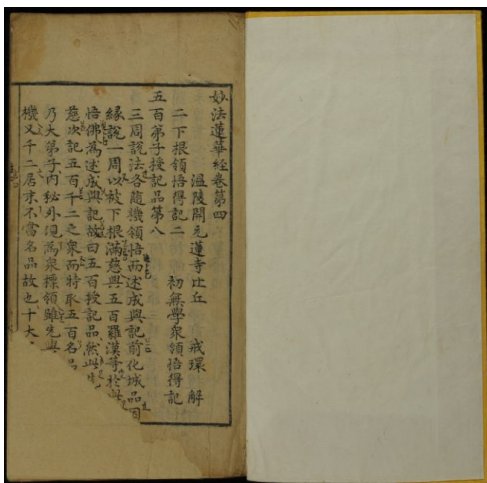
발문-간행정보(발원내용·대공덕주·동원시주·화주)-정암 발원문-함허당 발문-학조(學祖) 발문(1456년 10월)의 순서로 이루어져 두 인출본은 발문·발원문의 순서와 내용 및 간행정보 내용 등에서 차이.

특히 보물 제1196호의 간행정보는 신청대상본의 간행정보를 제외시키고 1456년 경 새롭게 작성하여 추가하였으며, 보물 제1195호에서는 1456년 10월 학조의 발문을 추가한 사실 등에서 신청대상의 『묘법연화경』 판본은 보물 제1196호의 원형을 유지한 초기간행 판본으로 진단.

○ 기 타

해당 「유물취득경위서」에 따르면, 신청대상의 『묘법연화경』 인출본은 수인 스님(도율 스님의 스승)→도율 스님→효탄 스님(도율 스님의 제자)으로 전해오다가 2014년 10월 효탄 스님께서 문화재로 지정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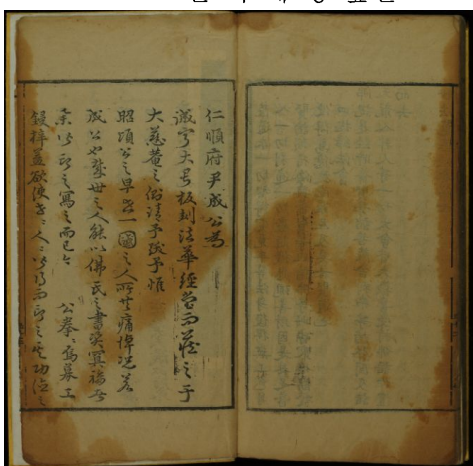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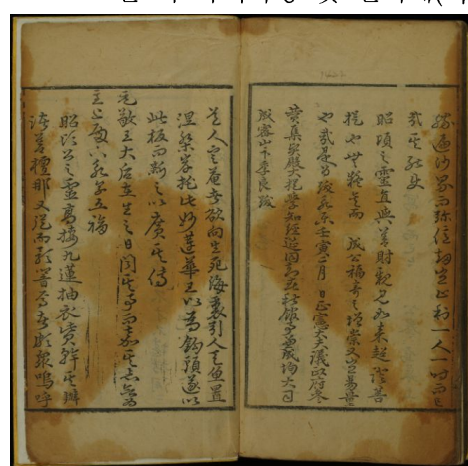
권4의 제1장 앞면



권7의 마지막장 및 권미제(좌)



변계량 발문 앞면



변계량 발문 뒷면(좌) 함허당 발문 앞면(우)



○ 현 상

書誌事項

妙法蓮華經 卷四~七/戒環(宋)解, --木版本

4卷1冊; 四周單邊, 半郭21.3×13.3(cm), 無界, 半葉 10행20자, 楮紙, 線裝本(五針眼訂)

卷首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跋 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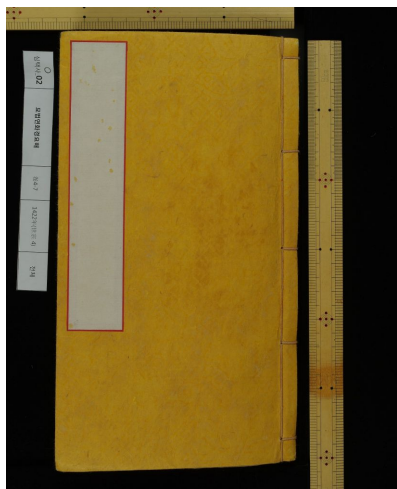
○ 仁順府尹成公爲 誠寧大君板刻法華經堂而藏之于大慈菴 之仰請予跋予惟 昭頃公之早世一國之人所共痛悼况若成 公也哉世之人能以佛氏之書資冥福者 舉皆印之寫之而已今 公拳拳爲募工鉅 梓盖欲使世世人皆得而印之其功德之勝遍 沙界而彌億劫豈止利一人一時而已哉其能使 昭頃之靈直與善財親見如來超證菩提也 哉是爲跋永樂壬寅二月日正憲大夫議政府 參贊集賢殿大提學知經筵同知春秋館事 兼成均大司成 密山卞季良

○ 妙演壬寅春三月 日 涵虛堂守 伊無準 敬跋

○ 書寫 摠制 成達生 判事 成概 施主 慶華宅主 李氏 金虛 樂安郡夫人 金氏 妙華 光州郡夫人 鄭氏 尹氏 同良 智觀 妙祥 賢蟾

전체 7권가운데 권4~7의 결본이다. 현 주지인 효탄스님이 은사인 도율스님과 도율 스님의 은사인 수인스님으로부터 전승받은 유물로서 도율 스님의 동의를 받아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권4의 1장으로부터 4장, 권6의 56장, 권7의 1장으로부터 20장까지 판심부의 하단이 훼손되어 일부 글자가 확인되지 않지만,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妙法蓮華經 卷四~七 表紙



妙法蓮華經 卷四 卷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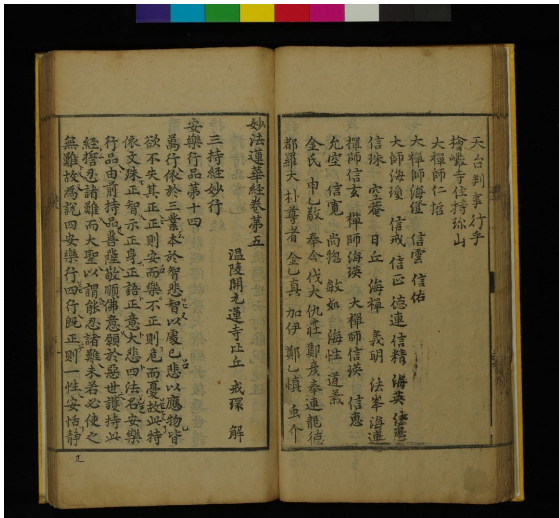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다. 일반적으로 화엄경·금강경과 더불어 불교의 대표적 대승경전으로 널리 알려진 『묘법연화경』은 범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이를 흔히 ‘법화경(法華經)’으로 약칭하여 불리고 있다. 이 경전의 원서명은 “saddharma-pundarika-sutra”로서 그 의미는 ‘백련꽃과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경전’으로 풀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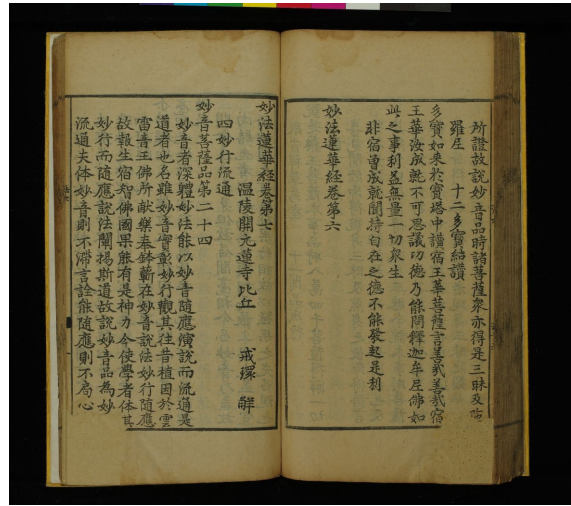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묘법연화경』의 대부분은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한 역본에 송(宋)의 계환(戒環, ?~?)이 1126년(고려 인종4, 靖康1)년에 주해(註解)한 7권본이다. 계환의 주해본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통된 것은 문장이 간결하여 비교적 이해하기 쉬웠던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가장 오래된 『묘법연화경』은 전남 영광(靈光)의 불갑사(佛岬寺) 명부전(冥府殿)의 시왕상(十王像)에서 발견된 권3의 일부이다. 현재까지 대략 150여종의 판본(版本)이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판본의 계통은 참여 주체나 간행 수단에 따라 크게 성달생판본계(成達生版本系)와 갑인자판본계(甲寅字版本系), 을해자판본계(乙亥字版本系), 정희왕후판본계(貞熹王后版本系), 간경도감판본계(刊經都監版本系) 등으로 나누어진다.

조사본 ‘『묘법연화경』 권4~7’은 구마라집(鳩摩羅什) 한역본으로 전 7권 가운데 권4~7의 1책이다. 내용은 제8품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부터 제28품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까지 모두 21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변상도는 없다. 권4는 전체 60장(완, 60b 시주질), 권5는 전체 57장(완), 권6은 전체 56장, 권7은 전체 52장(완) 그리고 7권의 53장a~55장b 부분에는 발문 및 시주질이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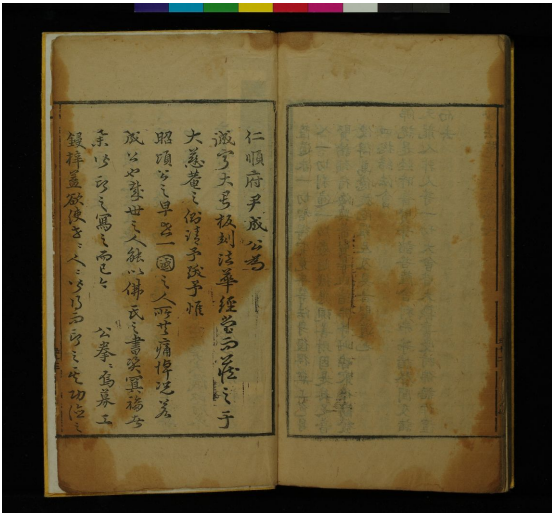
권수제는 제1행에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라 하였고, 다음 행에 ‘요진삼장법사구마라집봉 조역(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이라 하여 구마라집의 한역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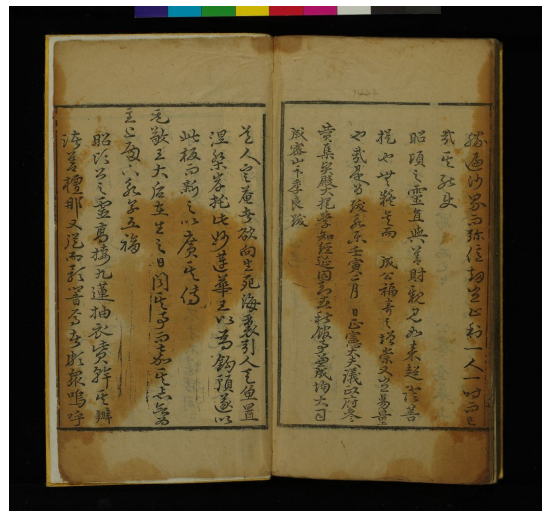
妙法蓮華經 卷四 卷末 施主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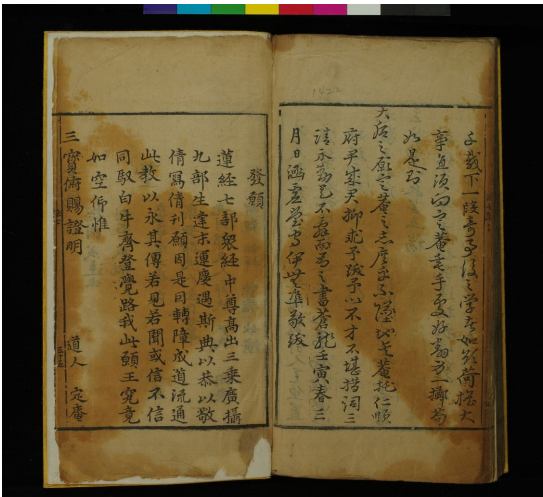
妙法蓮華經 卷六 卷末/卷七 卷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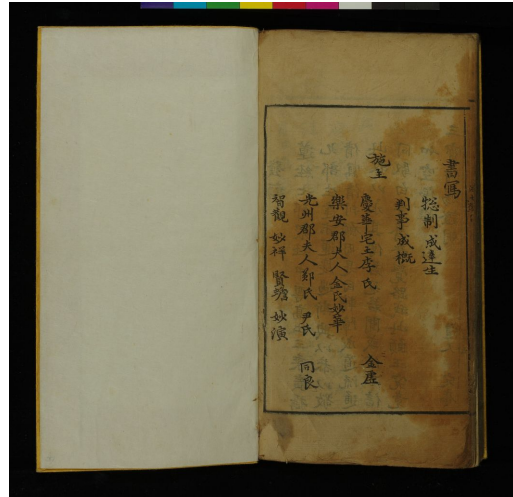
卞季良 跋文



涵虛堂 跋文



涵虛堂 跋文 / 定庵 跋文



書寫 / 施主秩

판식의 특징을 보면, 광곽은 사주단변으로 반곽의 크기는 21.3×13.3(cm)이며, 전체 10행으로 되어 있는데, 한 행 20자씩이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어미(魚尾)를 새기지 않았고, 판심제는 ‘법(法)’이란 약서명과 함께 권차 표시를 하였고, 그 아래로 장차 표시를 하고 있다. 권5의 17장까지 묵서 구결되어 있어 실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사본 『묘법연화경』은 1422년(세종4)에 인순부윤(仁順府尹) 성억(成抑)이 성령대군(誠寧大君)과 원경왕후(元敬王后)를 위하여 새긴 목판에서 찍어낸 책이다. 기지정된 보물 제1196호 통도사 소장본 『묘법연화경』은 1422년에 새긴 목판을 1456년(세조1)에 덕종(德宗)의 빈(嬪)인 한씨(韓氏, 昭惠王后)가 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의 부인(夫人) 홍씨(洪氏)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찍어낸 책이다. 권말에 수록된 학조(學祖)의 발(跋)에 의하면 당시 10부(部)를 찍었다고 하였다. 이 책은 권수(卷首)마다 변상도(變相圖)가 들어있으며, 비록 초간본(初刊本)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판본(板本)의 전체모습을 알 수 있는 완질본(完帙本)이라는 점에서 서지학상(書誌學上)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었다.

조사본 『묘법연화경』은 보물 제1196호 『묘법연화경』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첫째, 경태 7년 작성된 학조(學祖)의 발(跋)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이 인출본이 1456년(세조1)에 찍어낸 책과 다른 시기에 인출되었음을 보여준다. 책의 인쇄 상태로 보아 1422년(세종4) 판각 후의 초인본(初印本)이라 판단된다.

둘째, 영락(永樂) 임인(壬寅, 1422)에 쓴 변계량(卞季良)의 발문과 발원문 사이에 있는 시주자 명단이 빠져 있고, 壬寅(1422) 春三月에 쓴 함허당(涵虛堂)의 발문과 정암의 발문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이같은 특징은 다른 후인본과 비교된다.

○ 지정사례

보물 제1196호 묘법연화경 권1~7(통도사 정보박물관 소장, 1994.01.05)

II.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안건번호 동산 2016-05-010

10. 국보 제283호 ‘통감속편(通鑑續編)’ 보존처리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국보 제283호 ‘통감속편(通鑑續編)’의 표지 박락 및 책지 결손, 지질 산화 등의 손상 부위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국보 제283호 ‘통감속편’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손성훈(한국학중앙연구원)
- 수 량 : 24권 6책
- 규 격 : 가로 18.3cm, 세로 29.2cm
- 재 질 : 종이(紙)
- 제작연대 : 조선시대
- 지정 일 : 1995. 03. 10.
- 문화재내용 : 원(元)편으로 중국 고대 반고씨부터 고신씨까지 그리고 당나라 천복 1년(901)에서 송(宋)나라 상흥 2년(1279)까지의 사적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이 책은 원나라 1361년에 중국에서 발간된 적이 있고, 그후 60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찍어냈다. 이 책의 크기는 가로 18.3cm, 세로 29.2cm이다. 판본은 권말에 있는 변계량의 주자발(鑄字跋)에 의하면, 세종 2년(1420) 11월에 공조참찬 이천에게 명하여 새로운 활자를 만들어서 인쇄한 경자자본으로서 세종 4년(1422)에 간행된 것이며, 서, 목록, 서례는 계미자이다.
이 책은 서지학 및 고인쇄기술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라. 현 상태



사진 1. 통감속편 표지 손상도



사진 2. 통감속편 책지 손상도

마. 현상변경 내용

- 통감속편 전체의 클리닝을 통한 산성도 감소 및 결손보강, 평판, 제책 작업 진행으로 2차 훼손 방지 및 보존처리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보존처리 전 유물의 상태 및 기초조사 실시 (제원조사, 사진촬영, 표면PH, 색도 등)
 - 섬유 C염색을 통한 섬유 분석
- 해체
 - 유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정끈을 분리함
 - 해체된 책지는 각 장에 번호를 부여한 후 보관함
 - 각장의 얼룩 및 충해 등 특이사항에 대하여 세부 사진촬영을 실시함
- 건식클리닝 및 습식클리닝
 - 부드러운 붓과 건식클리닝 스폰지를 이용하여 표면의 먼지 등 오염물을 제거함
 - 인장 등 안료부분에 SPOT TEST를 실시한 후 불안정한 부분에 토끼야고 2%를 도포해 안정화 시킴
 - 유물 및 고착 오염물의 상태에 따른 습식클리닝 실시
- 보강 및 책지 보존처리
 - 유물의 재질, 두께 등을 고려하여 그와 유사한 종이를 선택하여 천연염색 함
 - 고색 처리한 보강지를 책지 뒷부분에 보강하고 약해진 판심부에 꺾임 방지띠를 넣음
 - 접착제로는 삭힌 밀가루 풀을 사용함
- 건조 및 장정
 - 화면 보호를 위해 유물의 앞 뒷면을 물로 가배접하여 건조판에 건조함
 - 건조가 끝난 후 여분의 보강지를 마름질한 후 순서에 맞게 정리하여 재장정함
- 훈증 및 포장
 - 보존처리가 완료된 유물을 훈증 처리하고 중성폴터를 제작하여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함
- 보존처리 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예정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자체 보존처리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전문가 자문 실시

11. 보물 제1672-1호 ‘송준길 행초 동춘당필적 (宋浚吉 行草 同春堂筆跡)’ 보존처리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1672-1호 ‘송준길 행초 동춘당필적(宋浚吉 行草 同春堂筆跡)’의 습기에 의한 오염 및 결손, 배접지 박락 등의 손상 부위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보물 제1672-1호 ‘송준길 행초 동춘당필적’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정춘목(한국학중앙연구원)
- 수 량 : 1첩
- 규 격 : 가로 34.5cm, 세로 54.5cm
- 재 질 : 종이(紙)
- 제작연대 : 조선시대
- 지 정 일 : 2010. 10. 25.
- 문화재내용 : 『송준길 행초 동춘당필적(宋浚吉 行草 同春堂筆跡)』은 송준길(1606~1672)이 남송 주희의 「학고재명」과 장인 우복 정경세의 「우곡잡영 20절」을 필사한 것이다. 앞쪽에 가지런한 행서로 쓴 <학고재명>은 퇴계 이황의 서풍을 수용한 면모를 보여주며, 뒤쪽의 <우곡잡영 20절>은 송준길의 전형적인 행초 서풍을 보여준다.

특히 송준길이 율곡 이이 이래로 김장생·김집 등의 기호학과(畿湖學派)의 학맥을 이으면서도 영남학과 학자였던 장인 정경세를 통해 퇴계 이황의 학문을 수용하고 글씨까지 따랐던 것은 조선시대 유학사에서 특기할 만하다. 바로 이 서첩이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송준길 노년의 서풍을 대표할 만한 필적이다.

라. 현 상태



사진 1. 송준길 행초 동춘당필적 표지 손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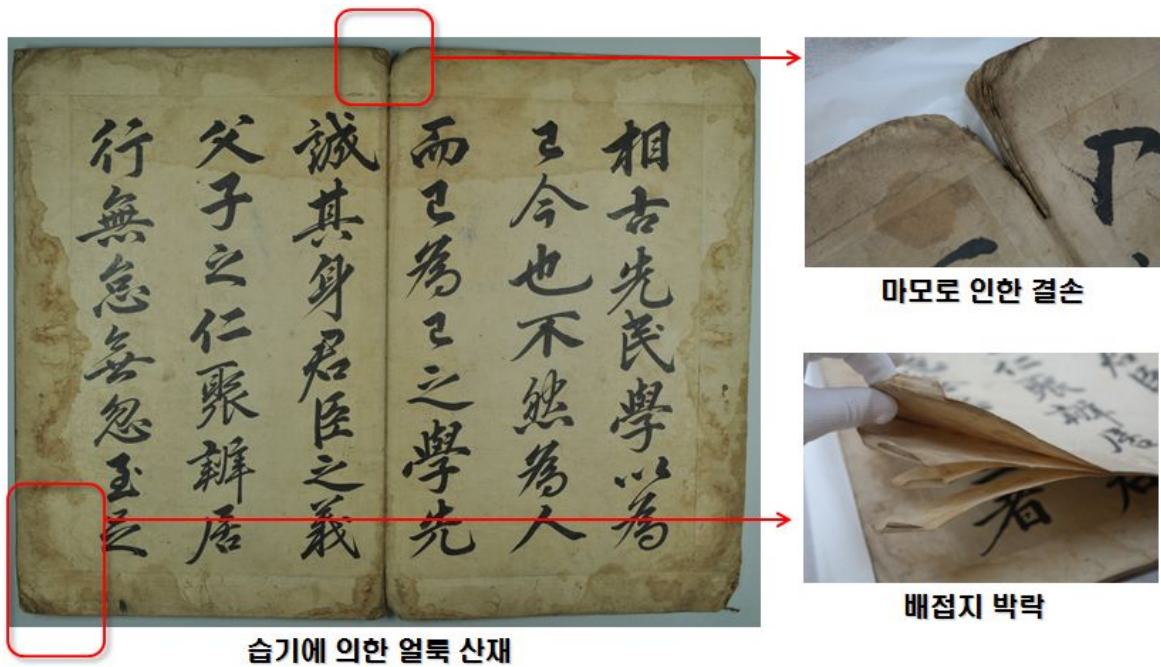


사진 2. 송준길 행초 동춘당필적 엽자 손상도

마. 현상변경 내용

- 문화재 전면 클리닝 및 결손부 보강, 배접지 교체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보존처리 전 유물의 상태 및 기초조사 실시
(제원조사, 사진촬영, 표면PH, 색도 등)
 - 섬유 C염색을 통한 섬유 분석
- 건식클리닝 : 건식세척(부드러운 붓 사용), 스폰지를 이용해 표면의 먼지 제거
- 안료의 접착력 강화 및 습식클리닝 : 각 부분의 안료, 염료의 SPOT TEST를 실시한 후, 불안정한 부분에 토끼야고 2%를 도포해 안정화 함. 이후 증류수를 이용한 습식클리닝 실시
- Facing(가배접) : 배접지 제거 및 결손부분의 보강작업을 위해 앞면에서 보강한 뒤 장황부분과 글씨부분 고정
- 배접지 제거 : 오래된 구배접지를 습기를 사요용하여 제거함
- 결손부분 보강 : 장황부분과 화면부분에 가장 유사한 종이를 제작하여 결손부 보강
- 1-3차 배접 : 구배접지 제거 과정에서 분석된 배접지의 종류에 따라 종이를 준비하고, 소맥전분풀로 배접함
- 마무리 : 각 장을 순서에 맞춰 붙이고, 책등을 짠 후, 앞뒤 표지를 붙여 마무리 함
- 보관상자 제작 : 중성상자 제작 후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함
- 보존처리 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예정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자체 보존처리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전문가 자문 실시

12. 보물 제1888호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 (求禮 泉隱寺 三藏菩薩圖)’ 보존처리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1888호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求禮 泉隱寺 三藏菩薩圖)’의 오염물 제거 및 결손 등의 손상 부위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례군청으로부터 보물 제1888호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천은사(천은사)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세로 224.5cm, 가로 420.0cm, 화면 세로 186.1cm, 가로 394.0cm
- 재 질 : 견본채색
- 제작연대 : 조선시대(1776년)
- 지 정 일 : 2016. 2. 22.
- 문화재내용 : 천은사 극락전 향 우측 벽에 봉안된 삼장보살도는 조선후기 제작된 탕화로 옆으로 긴 그림이며 비단에 채색을 사용하여 그린 작품이다. 한 화면에 좌우로 3등분하여 중앙에 천장보살을 중심으로 그 권속이 모인 천장회상(天藏會上)과 향 우측이 지지보살과 그 권속들을 그린 지지회상(持地會上), 향 좌측이 지장보살과 그 권속이 모인 지장회상(地藏會上)이 나란히 그려져 있다. 하단에는 4개의 화기가 쓰여 있는데 하나는 불화의 조성시기와 시주자 등의 내력을 밝힌 것이고 나머지 셋은 각 회상에 참석한 성중들의 명호가 쓰여 있다.

라. 현 상태

- 삼장보살도는 전통적인 표장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표장 되어 있음
- 천장보살 및 지지보살의 광배부위 녹색안료의 박락이 관찰됨
- 지지보살 화기 부분의 얼룩 및 변색 발생



사진 1. 천은사 삼장보살도(보물 제1888호) 현황





사진 2. 천은사 삼장보살도(보물 제1888호) 세부현황

마. 현상변경 내용

- 삼장보살도의 오염물 제거 및 결손부 보강 등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안료 성분분석, 적외선 촬영 및 현미경 관찰 등의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한다.
- 유물 해체, 세정 및 결손부 보강
 - 보존처리를 위해 유물의 해체를 실시한다. 실시 전 표면강화를 선행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고 내지의 상태가 호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표면 오염물 제거를 위해 건식세척을 실시하고 건식세척으로 제거가 어려운 오염물은 습식세척을 실시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 유물의 결손부는 초배지를 사용하여 결손부에 덧대어 보강한다.
- 배접 및 포장
 - 배접 및 표장에 사용된 재료 및 방법은 자문위원의 의견을 받아 전통방식 및 전통 재료로 사용하여 실시한다.
- 보존처리 기간 : 2016. 11. - 2017. 9.(10개월)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전문가 자문 실시

검 토 사 항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6-05-013

13. 보물 제398호 월인천강지곡 권상(月印千江之曲 卷上)

가. 검토사항

‘보물 제398호 월인천강지곡 권상’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보물 제398호 월인천강지곡 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14.11.12)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2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398호(1963.09.02지정)
- 명 칭 : 월인천강지곡 권상(月印千江之曲 卷上)
- 소유자(관리자) : (주)미래엔(한국학중앙연구원)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운중동,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 량 : 1책(71장)
- 규격(cm) : 半郭 22.0×15.5(30.9×20.5)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갑인자)
- 형 식 : 선장
- 조성연대 : 1447년(세종 29)경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이 아내인 소헌왕후의 공덕을 빌기 위하여 직접 지은 찬불가이다. 훈민정음 창제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짓고 활자로 간행한 점에서 창제후 초기의 국어학 연구와 출판인쇄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비록 3분의 1 정도만 남은 零本이나 이 책이 갖는 국어학적, 내지 출판 인쇄사적 가치는 매우 높다. 문화재의 등급을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 『월인천강지곡』 권상은 한글장체 직후의 한글의 모습을 연구할 수 있는데다 당시 왕실 종교의 수용과 사회문화사적인 연구에도 도움을 주는 소중한 책이다. 특히 『훈민정음』의 창제 이념을 가장 잘 드러낸 국문 전용의 표기법을 실현하였으며, 현대적 한글 전용의 전형을 마련한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어학의 보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불교문화, 서지학, 문자사 등 다방면의 연구에도 도움을 준다.

더욱이 금속활자인 한글 갑인자 인쇄본인데다 보존상태도 거의 완전하다. 이렇게 초기 한글로 인쇄한 대표적인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세종이 우리말로 석가의 공덕을 찬송하여 지은 악장체의 찬불가(讚佛歌)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간행된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서 국어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월인천강지곡』에 보이는 한글 표기는 동시기의 문헌들과 달라 매우 중요하다.

또한 책의 간행에 사용된 활자는 1434년(세종16)에 초주한 갑인소자(甲寅小字)와 1447년(세종29)에 주조한 『월인석보(月印釋譜)』 한글자로서 조선시대의 활자 인쇄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조사본인 『월인천강지곡』 권상(卷上)은 유일본으로서 국어사 연구, 불교사 연구 그리고 서지학 연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전체 3책 중 1책만이 남아 있으나, 한글 창제 당시의 역사상을 보여주는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서지사항

月印千江之曲 / 世宗(朝鮮) 撰. -- 金屬活字本. [1447년(세종29) 추정].

1卷 1冊 : 四周單邊, 半郭22.0cm×15.5(cm), 無界, 半葉 8行15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9×20.5(cm), 楮紙. 線裝(改裝).

卷首題 : 月印千江之曲

版心題 : 月印千江之曲

○ 현 상

표지는 개장한 것이다. 개장된 표지에 제침은 없다. 다만 하단에 본문의 첫 장 앞면에 날인된 것과 같은 ‘默潭三昧’라는 方形朱印이 날인되어 있어서 개장시기가 鞠默潭(1896~1981)이 소장하던 시기에 개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의 첫 장 앞면에 陽刻된 ‘陳家永藏’이라는 방형주인이 있고, 표지뒤에 첨부된 餘紙에는 ‘陳氏子子孫孫永寶’라는 여덟 글자의 양각한 방형주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전 소장자인 진기홍의 장서인이다. 1996년에 국담스님이 진기홍씨에게 넘긴 이후에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卷上으로 첫장에서 71장까지 완전하며 앞면과 뒷면이 모두 전혀 훼손이나 마멸된 흔적이 엮는 점에서 佛腹에 전해져오던 책으로 인정된다.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세종이 석가의 공덕을 찬송하여 지은 것이다.

자신의 왕후인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沈氏:1395-1446)가 서거하자 극락왕생을 빌기 위하여 아들인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석가의 일대기인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편찬하게 하고, 완성하여 바치자 『석보상절』의 순서에 따라 즉시 직접 지은 악장체의 찬불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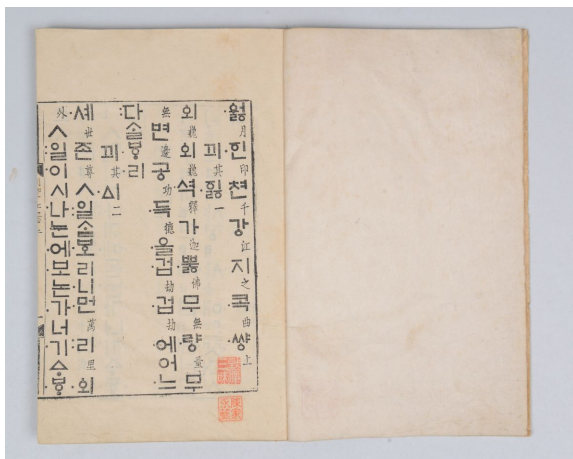
왕후가 서거한 것이 세종 28년(1446) 3월 24일의 일이고, 수양대군이 석보상절의 서문을 쓴 것이 이듬해인 세종 29년(1447) 7월 25일인 것을 보면 1년 4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583곡을 상·중·하 3권으로 나누어 엮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상권의 194곡과 『월인석보(月印釋譜)』에 수록된 것을 포함하여 498곡 뿐 이고 나머지 80여 곡은 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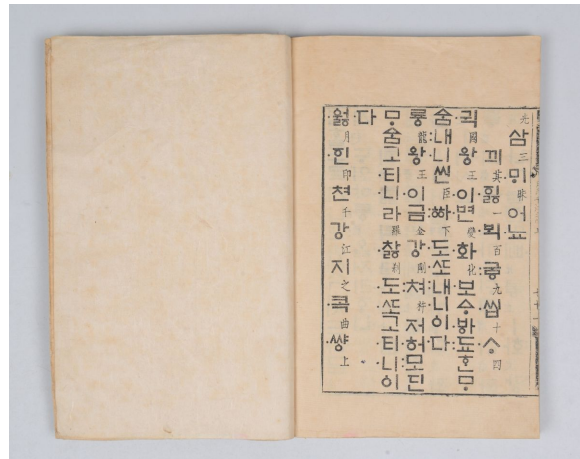
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석보상절(釋譜詳節)』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간행된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서 한글 창제 초기의 국어학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월인천강지곡』은 한글을 큰 글씨로 쓰고 한자는 작은 글자로 注記하여 한글 우위의 표기를 한 점에서 동시대의 다른 어문관계 서적과 크게 구별된다. 아울러 이 책에는 다른 어문관계서와 달리 夾註가 전혀 없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월인천강지곡 권상 권수>



<월인천강지곡 권상 권말>

○ 문헌자료

濬源譜略

고영근, 월인천강지곡의 텍스트 분석, 집문당, 2003.

사재동, 월인천강지곡의 몇 가지 문제, 어문연구 11, 어문연구회, 1982.

박병채, 논주 월인천강지곡 상, 정음사, 1974.

안병희, 중세어의 한글자료에 대한 종합적 고찰, 규장각3, 서울대학교도서관, 1979.

사재동, 월인천강지곡의 몇 가지 문제, 어문연구 11, 어문연구회, 1982.

미래엔교과서박물관, 월인천강지곡 해제와 가치, 2014.

□

○ 현 상

앞뒤 표지는 근자에 개장되었으나 나머지는 매우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月印千江之曲. 卷上 / 世宗 撰

金屬活字本(甲寅字)

[世宗 29~30年(1447~8)]

1冊(71張) : 四周單邊 半郭 22.0×15.5cm, 無界, 8行 15字, 上下黑口, 內向黑魚尾 ; 30.9×20.5cm.

版心題: 月印千江之曲

○ 개략

『월인천강지곡』은 『용비어천가』와 같이 서명이면서 노래 이름이며, 『용비어천가』와 함께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사이다. 국어사 자료의 측면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언해본,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동국정운』 등과 함께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 초기에 간행된 대표적인 작품이다.

상중하 3권중에서 현재 지정대상본인 상권 1책의 194곡만 온전히 전한다. 중권의 낙장 일부가 『석보상절』에 끼여 전하며, 나머지도 『월인석보』에 전하는 것으로 보아 3권에 580여곡의 노래가 나뉘어 실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경(底經)은 『불설미증유인연경(佛說未曾有因緣經)』 등이며, 이것을 “상절(詳節)”하여 정음으로 번역한 것이 『석보상절』(권6)의 일부로 들어가고, 이를 기반으로 운문화(韻文化)한 것이 『월인천강지곡』 중의 “기138~146”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제작과 의도

세종 28년(1446) 3월에 소헌왕후(1395~1446) 심씨가 승하하자 세종은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인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석가의 전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것이 『석보상절』이다. 이듬해인 세종 29년(1447)에 세종은 『석보상절』을 읽고 각각 2구절에 따라 찬가를 지었는데 이것이 『월인천강지곡』이다. 그래서 이 두 책 간에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후 이 두 책은 세조 5년(1459) 7월에 『월인석보』라는 서명으로 간행되었다. 그런데 『월인석보』의 “어제월인석보서(御製月印釋譜序)”에는 “수양대군이 『석보상절』을 지어 올리니 세종이 이를 보시고 기리는 노래를 지으시어 월인천강(月印千江)이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월인천강지곡』은 『석보상절』의 내용에 맞추어 부처의 공덕을 칭송하여 읊은 것으로 석가의 일대기를

노래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월인천강지곡』의 제작 의도는 석가의 덕을 널리 알려 모든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도록 위하여 제작된 불교서사시인 것이다. 그런데 그 대상은 모든 백성이었으므로 한자를 뒤로하고 한글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편성하였을 것이다.

서명중의 “월인천강”이란 월(月,달)은 부처의 본체, 천강(千江)은 만강(萬江)과 마찬가지로 백억 세계, 강에 비친 달그림자(印)는 부처의 화신을 비유한 것이다. 곧 부처의 본체는 하나이지만 백억세계에 화신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것이 마치 달은 하나이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수많은 강에 비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 『훈민정음』 활용과 국어학적 원리

『훈민정음』의 창제와 활용 과정에서 세종은 총체적 책임자, 수양대군은 총괄적 주관자, 신미(信眉) 등은 전문적 실무자로 기여하였다. 그렇다면 『월인천강지곡』은 문자와 문장의 측면에서 가장 정확하게 『훈민정음』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월인천강지곡』에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음운 법칙, 음절 구성, 낱말 조성 등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훈민정음 창제의 이념과 원리를 극명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사실은 철저하고 완벽한 국문 전용이라는 점이다. 곧 『용비어천가』와는 달리 『훈민정음』의 창제 이념을 가장 잘 드러낸 국문 전용의 표기법을 실현하였으며, 현대적 한글 전용의 전형을 마련한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 『월인천강지곡』에는 국어학의 대상이 되는 많은 용례들의 전형이 다음과 같이 완비되어 있다. 첫째, 음성학으로서의 사성(四聲)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다. 둘째, 음운론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셋째, 어휘 · 형태론의 전거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넷째, 통사론과 문법론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월인천강지곡』에는 국어학적 원리와 실재가 전체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월인천강지곡』만으로도 최초의 국어학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학의 보고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 체재와 표기법

『월인천강지곡』 권상의 체재와 표기법을 통해 그 특색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은 큰 활자를 쓰고 이에 해당되는 한자는 작은 활자를 썼다. 둘째, 한글의 자체는 『용비어천가』와 같으나 원점을 쓰지 않았다. 셋째, 받침 없는 한자 음에 “ㅇ”의 종성을 붙이지 않았다. 이렇게 맞춤법은 모두 표음의 원칙, 즉 소리나는 대로 적는 원칙에 따랐고, 한글을 앞세우고 그 밑에 한자를 둠으로써 한글을 사용하려는 주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 간행의 의의와 가치

『월인천강지곡』은 『석보상절』을 기반으로 하여 세종이 『훈민정음』으로 이룩한 운문 불경집, 곧 중송집(重頌集)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헌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것이다. 이 분야의 초기 연구자인 사재동은 “불타의 생애를 읊은 장편서사시로서 대궁중 서사시라 불릴 수도 있으며, 국문학 및 불교문학사상 종전의 작품들을 덮고 넘어선 순문학적인 걸작이라고 찬양할 만한 것이다. 그러기에 불타의 인격과 언행 및 장엄한 사상과 철학을 국문학의 독창적인 수법으로 수려하고도 생기 있게 표현한 거작”이라고 하였다.

『월인천강지곡』에 대한 가치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된다. 문학작품이라는 관점에서는 “문학사적인 관점에서 장편연장체(長篇聯章體)의 일대 서사시로서 『용비어천가』와 쌍벽을 이루는 장편 국문시가” 또는 “석가 행적을 칭송한 대서사시, 악장(樂章)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된 석가의 영웅서사시로 손색이 없는 작품” 등으로 요약된다. 또한 불교문학사적인 관점에서는 “인도 마명(馬鳴)의 불소행찬(佛所行讚; 부처님의 생애 및 활동을 찬양하는 전기 5권 28품. 운문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불전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에 비견되는 장편시가”로 평가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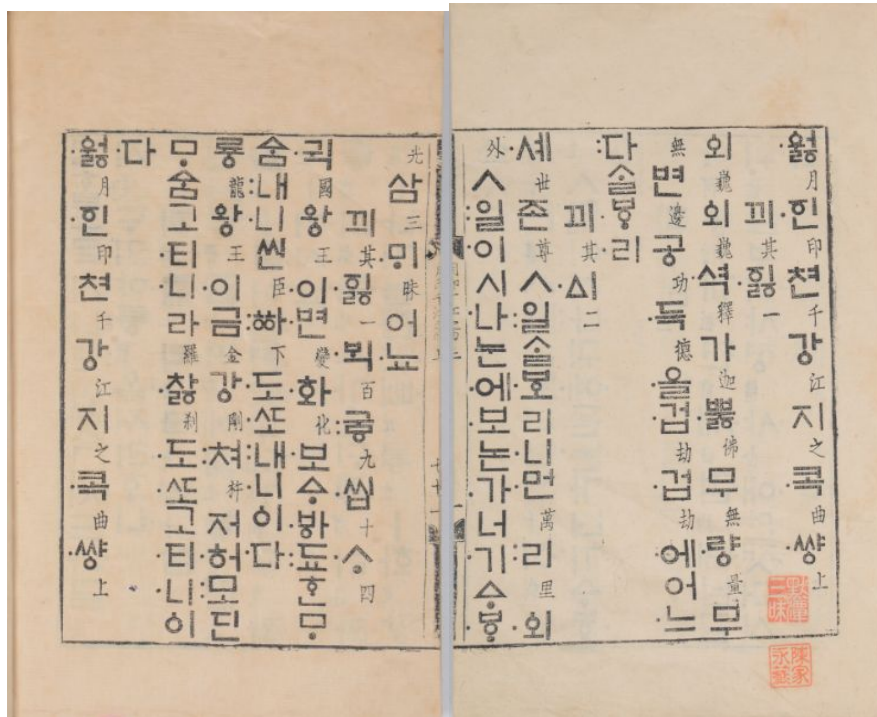
이와 같이 『월인천강지곡』은 최초의 국문불경으로 정음(正音) 문화는 물론 불교문화와 국문문학을 포함한 한국문화 전반에서 뛰어난 가치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월인천강지곡』은 우리나라의 문자사, 문장사, 문예사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월인천강지곡』은 “15세기 중엽의 국어 연구 및 한자음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귀중한 문헌”이라는 국어학계의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15세기 문헌 표기법의 통념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전복시킨 어학적 가치를 지닌 문헌”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렇게 『월인천강지곡』은 평범한 것 같지만 비범함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 지정대상본의 전래과정

『월인천강지곡』은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된 금속 활자본이다. 현재 지정대상본인 상권만 전한다. 기존의 조사에 따르면, 이 책은 15세기 중엽에 세조의 원당인 부안 실상사(實相寺)에 효령대군에 의해 불복장(佛腹藏)되었는데, 1914년에 백학명(白鶴鳴, 1867~1929) 스님이 실상사 불복장에서 수습하였다고 한다. 1918년에는 국묵담(鞠默潭, 1896~1981)스님이 당시 실상사 주지인 김성련(金性連)스님에게서 이 책을 인수한 뒤 국묵담 스님의 주석하던 곳을 따라 백양사 청류암, 담양 용화사에서 보관되었다고 한다. 1961년에 국묵담스님은 당시 광주체신청장인 진기홍(陳鎭洪)씨에게 넘겨주었고, 1963년 9월 2일에는 보물 제398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진기홍씨는 1972년에 대한교과서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미래엔) 김광수 사장에게 양도하였고, 2013년에는 미래엔(주)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월인천강지곡 권상』의 첫 장(오른쪽)과 마지막 장(왼쪽)

○ 간행시기와 판본의 특징

간행 시기는 『석보상절』이 완성된 세종 29년(1447)에서 그 다음해인 1448년 사이에 완성하여 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중하 3권을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간행하였다. 지정대상본이 1권 1책인 점으로 보아 3권3책으로 장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상의 본문은 “其一”부터 “其一百九十四”까지 수록되어 있다. 판심제는 『월인천강지곡』, 그 아래에는 권과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지질은 가로로 발문양이 있는 얇은 닥종이이다. 자체는 한글은 정방형의 고딕체, 한자는 해정한 해서체이다. 인쇄 및 보존상태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장에서 수습할 때부터 앞뒤표지가 없었던 닳인지 누런색표지로 개장해 놓았다. 홍사(紅絲)의 5침 선장본이다. 표지에는 서명이나 제첩은 없고, 앞표지 우측 윗부분에는 「佛紀二九 年 月 日 默潭少林法賢」의 푸른 색 스탬프가 찍혀있고, 그 안에 “壹五四」月印千江曲」單”등이 묵서된 사각형의 장서표가 붙어 있다. 그리고 앞표지에는 「默潭三昧」, 본문이 시작되기 전 여백지의 우측 아래에는 「陳氏子子孫孫永寶」, 권수제면 우측 하단에는 「默潭三昧」와 「陳家永藏」 등 2과의 장서인이 각각 찍혀 있다.

○ 영인 발행

진기홍 씨가 이 책을 입수한 해에 통문관과 협의하여 실물 크기대로 영인 발행되었고, 이듬해인 1962년에는 『국어학』 1호 등에 영인본이 수록되었다. 1985년에는 대제각에서 간행한 『국어국문학총람: 11』에 『월인석보』와 함께 영인 발행되었고, 1992년에는 문화재관리국에서 해제 1책(안병희 해제)과 함께 영인 발행되기도 하였다.

○ 문헌자료

정우영, “『월인천강지곡』의 국어사적 가치와 문헌적 성격에 대한 재조명”, 『장서각』 32, 2014

안승준, 유학영, “『월인천강지곡』의 부안 실상사 소장 경위와 그 전래 과정”, 『장서각』 32, 2014

조홍욱, “『월인천강지곡』의 내용 특징 연구”, (『어문학논총』 23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4

사재동, 사진실, “월인천강지곡의 훈민정음 활용과 연행적(演行的) 유통 양상”, 『어문연구』 74, 2012

천명희, “새로 발견된 광흥사 『월인석보』 권21의 서지와 특성”, 『국학연구』 24, 2014

사재동, 『한국문학연구입문』, 서울, 지식산업사, 1982

안병희, 『월인천강지곡해제』,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92

□

書誌事項

月印千江之曲 / 世宗(朝鮮) 撰. -- 金屬活字本. [1447년(세종29) 推定].

1卷1冊 : 四周單邊, 半郭22.0cm×15.5(cm), 無界, 半葉 8行15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9×20.5(cm), 楮紙. 線裝(改裝).

表 題: [不明]

卷首題: 月印千江之曲

版心題: 月印千江之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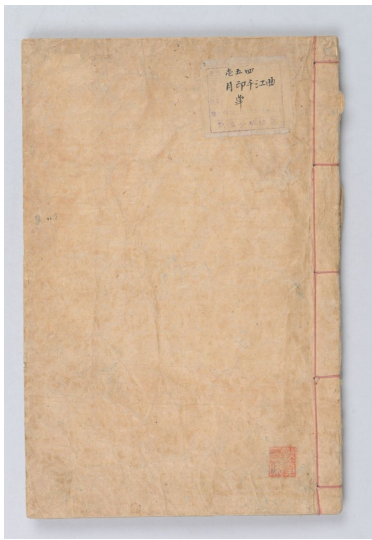
○ 현 상

2013년 (주)미래엔교과서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하였다. 표지는 개장한 상태이다. 우측 상단부에 원래의 소장처를 밝혀주는 장서인이 찍혀져있는데 ‘默潭少林法寶’라 인쇄된 표에 ‘壹五四/月印千江曲/單’라는 묵서가 쓰여 있고, 우측 하

단부에는 ‘默潭三昧’라 음각된 방형주인(方形朱印)이 찍혀져 있다.

표지의 내지에는 ‘陳氏子孫孫永寶’라 양각된 방형주인이 찍혀져 있고, 권수에는 변란(邊欄)의 밖에는 ‘陳家永藏’이라 양각된 방형주인, 변란의 안쪽 권수제의 바로 밑에는 ‘默潭三昧’라 음각된 방형주인의 소장인이 찍혀져 있어 그 유통의 내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月印千江之曲 表紙 / 內紙

○ 내용 및 특징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세종이 죽은 소헌왕후(昭憲王后)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하여 수양대군(首陽大君)으로 하여금 석가(釋迦)의 일대기인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편찬하게 하고, 이 책이 완성된 이후 세종이 각 항목을 따라서 우리말로 석가의 공덕을 찬송하여 지은 악장체의 찬불가(讚佛歌)이다.

‘월인천강(月印千江)’이라는 책의 제목은 부처의 공덕을 칭송한 것으로서, 『월인석보』 권1의 첫머리에 나오는 “부테 百億世界에 化身하야 教化하샤미 드리 즘은 ㄱ르매 비취요미 곁하니라.(부처가 백억세계에 화신하여 교화하심이 달이 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으니라)”에 연유한다.

『월인천강지곡』은 모두 583장의 노래가 수록된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조사본인 『월인천강지곡』 권상(卷上)에 모두 194장이 수록되어 있으며,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편하여 만든 『월인석보(月印釋譜)』 권25의 끝부분에 ‘月印千江之曲 其五百八十三’이 들어 있어 총

583장의 방대한 양으로 이루어진 노래였던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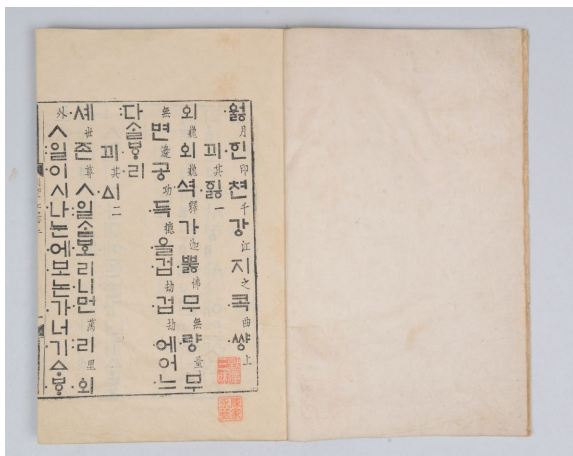
현재 전하는 『월인천강지곡』은 조사본인 『월인천강지곡』 권상(卷上)이 유일본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석보상절』에 ‘月印千江之曲上’ 그리고 ‘月印千江之曲中’의 낙장(落張)이 전할 뿐이다.

『월인천강지곡』은 『석보상절』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간행된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서 국어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월인천강지곡』에 보이는 한글 표기는 동시기의 문헌들과 달라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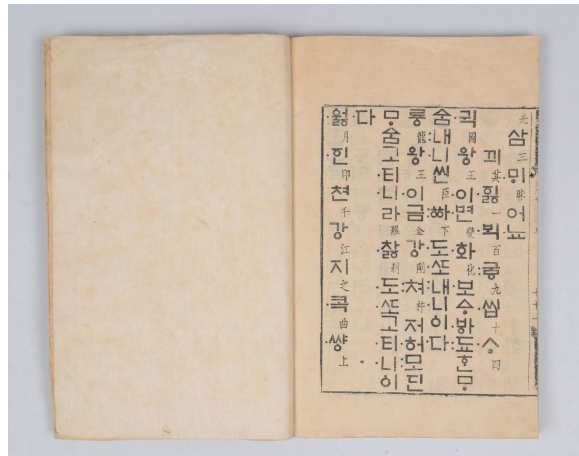
첫째, 본문 표기에 있어서 한글음 앞세움 표기를 하였다. 보통 당시의 문헌들은 한자를 큰 글자로 먼저 쓰고 한글음을 그 다음에 작게 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월인천강지곡은 이와 달리 다음 제 1장처럼 한글음을 먼저 큰 글자로 표기하고 다음에 그 한자를 작게 표기하고 있다.

둘째, 받침이 없는 한자음의 표기에 ‘ㅇ’을 붙이지 않았다. 보통 당시의 문헌들은 한자음 표기에 있어서 받침이 없는 한자음에도 반드시 받침으로 ‘ㅇ’을 붙이는 표기 방식, 다시 말해서 한자음 표기에는 반드시 초성·중성·종성을 갖추어 표기하는 동국정운(東國正韻)식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월인천강지곡은 받침이 없는 한자음 표기에 ‘ㅇ’을 붙이지 않았다.

셋째, 받침 표기에 있어서는 8종성(終聲) 이외의 받침이 나타나는 ‘중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중세국어의 문헌자료들은 대부분 음소적 표기를 따르고 있는 반면에, 『용비어천가』와 함께 『월인천강지곡』은 ‘낱’, ‘얹’, ‘낫’ 등과 같이 형태음소적 표기를 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月印千江之曲 卷上 卷首 / 所藏印



月印千江之曲 卷上 卷末

조사본 『월인천강지곡』은 상,중,하 3책 가운데 권상 1책(69장)이다. 내용은 ‘其一’부터 ‘其一百九十四’까지 모두 194곡이 수록되어 있다. 권수제 및 판심제는 ‘월

인천강지곡'이다.

○ 지정사례

지정 사례는 없다

○ 문헌자료

- 『월인천강지곡의 텍스트 분석』 (고영근, 집문당, 2003)
- 『논주 월인천강지곡』 상(박병채, 정음사, 1974)
- 『주해 월인천강지곡』 상(허웅·이강노, 신구문화사, 1962)
- 「월인천강지곡의 몇 가지 문제」 (사재동, 『어문연구』 11, 어문연구회, 1982)
- 「중세어의 한글자료에 대한 종합적 고찰」 (안병희, 『규장각』 3, 서울대학교도서관, 1979)
- 「월인천강지곡」 (이동림, 『한국의 사상 대전집』 7 세종, 동화출판공사, 1972)
- 「월인천강지곡 해제」 (허웅, 『한국의 명저』, 현암사, 1969)
- 「월인천강지곡 해제」 (남광우, 『국어학』 1, 국어학회, 1962)
- 「월인천강지곡고」 (김사엽, 『이조시대의 가요연구』, 대양출판사, 1956)

14. 보물 제139호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가. 검토사항

‘보물 제139호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원도지사로부터 ‘보물 제139호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에 대한 지정신청(‘14.04.2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14)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139호(1963.01.21. 지정)
- 명 칭 :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 소유자(관리자) : 월정사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 수 량 : 1구
- 규격(cm) : 像高 180.0, 寶冠高 32.0, 眼高 32.0, 肩幅 72.0, 膝幅 80.0, 臺座高 70.0
- 재 질 : 석조
- 조성연대 : 고려 전기
- 제작자 :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월정사 석조보살상은 석탑을 향해 공양을 드리는 자세를 갖춘 점에서 탑과 공양상은 원래부터 한 세트인 것으로 이해된다. 탑과 함께 제작된 공양자세의 석조보살좌상은 이전에는 없는 고려전기적 특징인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도상과 구성으로 알려진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또한 강원도 지역에 집중된 점에서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지역성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국보 4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석조보살좌상은 보물 139호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국보로 지정된 월정사 9층석탑과 함께 묶어 문화재 승격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보물 제139호로 지정되어 있는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상 높이 180cm, 전체높이 250cm로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고려시대 석조 공양보살좌상으로 탑 앞에 놓이는 공양보살좌상의 형식이 고려시대의 불교미술사적인 측면은 물론 불교 교의적인 면에서도 매우 귀중한 형식으로 평가되므로 국보로 승격하여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제 48호)과 함께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지정 가치 있음)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상의 높이만 180cm, 대좌를 포함한 전체높이가 250cm에 달하는 환조의 석상으로, 보존상태로 양호하고 조형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이다. 보살상은 양식적으로 보아 고려시대 초기에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강원도 강릉지역의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국보 제124호)과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보물 제139호)과 함께 높은 보관과 터질듯한 상호, 우아한 신체 등 조형적으로 고려시대 초기 지역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보살상이다.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에 보이는 이러한 지역성은 동시에 요나라 보살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고려와 요와의 문화교류를 입증해주는 국제성을 갖춘 보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갖추어야 할 희소성, 예술성, 역사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작품임에는 분명하나 강원도 지역의 다른 유례와 같이 탑 공양과 관련된 보살상이라는 점에서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일괄로 국보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팔각구층석탑과 일괄로 국보로 승격)

이 보살상은 터질 듯한 양감이 강조된 길쭉한 얼굴, 두툼한 아래턱, 높은 원통형의 보관, 왼쪽 가슴에 매듭을 지은 천의 등 요대 보살상과의 친연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으로, 고려와遼와의 영향관계를 알 수 있는 작품으로 주목된다. 이와 같이 무릎을 꿇어 공양을 올리는 跏趺의 공양보살상은 극히 한정된 시기에, 한정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지역적 유포와 신앙적 특징을 함께 보여준

다. 특히, 이 공양보살상은 「월정사사적기」에 따라 『묘법연화경』 ‘약왕보살 본사품’에 근거한 약왕보살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시 이 일원에서 유행했던 신앙적 경향을 이해할 수 있어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월정사 공양보살좌상은 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향을 공양하는 보살상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웅장하며 숭고한 조형성을 가지고 있어 조각사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탑을 향해 공양을 올리는 보기도문 도상이라는 점, 공양자로서의 환희심 가득 찬 상호를 뛰어난 조형감각으로 훌륭하게 담아내었다는 점, 유례가 드문 궤좌를 취하고 있다는 점, 고려 초 유행한 장엄을 덧댄 원통형의 고관과 통일신라시대의 대좌와 달리 중대석의 비중이 줄어 든 팔각연화좌라는 점 등에서 시대적·지역적 아이콘을 모두 담아 낸 이 시기의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이 고려시대 팔각을 기본으로 구성된 독특한 이형석탑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이미 국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공양보살좌상과 팔각구층석탑은 비록 별개로 조성되었다고는 하지만, 같은 공간에 하나의 세트 개념으로 조성되어 신앙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팔각구층석탑과 함께 국보 제48호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명칭은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및 공양보살좌상”으로 제안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함.

- 국보 제48호 “평창 월정사 구층석탑”의 부번으로 지정.

조사보고서

□

○ 조사내용

오대산 월정사의 탑 앞에 있는 공양 자세를 한 석조보살좌상으로 처음부터 석탑과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이 석조보살좌상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자세에 두 손을 모아 공양을 드리는 모습과 부드럽고 통통한 얼굴이 인상적이다. 보관은 높은 편이며 앞면과 측면에 구멍이 있어 원래는 별도의 금동관을 만들어 표면 위에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고관을 쓰고 통통한 모습을 한 자연스러운 보살상들이 강릉 한송사지 보살좌상을 비롯하여 강원도 지역에 남아 있으며 도상적 특징에 대해서는 <法華經>에 의거한 약왕보살상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형식의 석조보살상은 충청남도 논산 개태사지에 남아 있는 석탑과 석조보살좌상을 시작으로 강원도 지역의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강릉 신복사지 석조공양보살상 등이 석탑과 함께 만들어진 사례들이며 모두 고려시대로 편년되는 점이 주목된다. 즉 고려시대 전기에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월정사 공양보살상은 개태사나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에 비해 크기가 큰 편이며 현재의 상태도 좋은 편이다. 또한 1929년의 유리건판 사진이 남아 있어 원래의 모습의 확인이 가능한데 현재 보살좌상은 보존수리를 거쳐 박물관 내부로 옮겨진 상태이다.

□

○ 현 상

월정사의 팔각구층석탑 앞에 놓여있던 석조보살좌상으로 현재는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석조보살좌상은 상 높이가 180센티미터, 대좌 포함하면 250cm로 강원도 지역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환조(丸彫) 보살상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머리에는 높은 원통형 보관을 쓰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데, 보관 상부의 오른쪽이 깨어져 지금은 보수된 상태이다. 원통형 보관의 표면에는 금속제 장식물을 꽃았던 구멍들이 좌우에 대칭적으로 뚫려 있고, 어깨까지 닿는 긴 귀의 중앙에도 금속제 귀걸이를 달았던 듯한 구멍이 뚫려있다. 보관 아래에는 앞머리가 둥글둥글하게 양각되었고 넓지 않은 이마의 중앙에는 커다란 백호공이 뚫려있다.

이처럼 원통형 보관을 쓴 보살상은 강원도 강릉의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을 비롯해서 고려초기 보살상들에서 보이고 있어서 당시에 이 일대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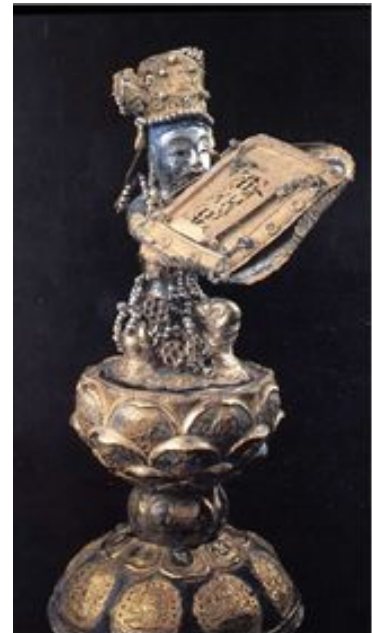
전체적인 비례 면에서 볼 때, 보살상의 머리는 몸에 비해 큰 편으로 얼굴은 긴 타원형이다. 뺨과 턱에 살이 많은데, 눈은 가늘게 반개(半開)하였고 눈 주위가 부은 듯하며 코는 얼굴 전체길이에 비해 짧은 편으로 콧등이 편평하고 인중부분이 앞으로 돌출하였다. 입가에 미소를 띤 큰 입술은 도톰하며 앞으로 돌출하여 실제의 인간모습과 같은 분위기를 보여준다. 어깨 위에는 보발(寶髮)이 흘러내리고 삼도가 새겨져 있다. 왼편 가슴에는 대각선 모양으로 걸친 얇은 조백(條帛)을 묶은 띠매듭이 보인다. 허리에 리본처럼 매듭이 매어져 있는 치마의 주름은 유난히 세밀하게 조각되었는데, 주름들이 모이는 중앙에는 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특히 모아 권 두 손에는 지물의 손잡이를 꽃았던 크고 깊은 구멍이 뚫려 있고, 손 밑의 가슴에도 4.5센티미터 깊이의 구멍이 뚫려 있다.

팔각연화대좌의 상대석은 단판복엽의 양련좌이고 중대석은 팔각으로 모서리에 우주(隅柱)가 양각되었으며 하대석은 복판복엽의 복련좌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떨어져 버렸지만 돌아가면서 귀꽃이 봉긋 올라와 있는 아름다운 대좌형태를 보여준다. 하대 복련좌를 받치고 있는 팔각반침석의 각 면에는 안상(眼象)이 음각되어 있고 그 중앙에 동그란 꽃머리 장식이 새겨져 있는데, 이와 같은 조각적 요소는 고려초 11세기에 들어서 유행했던 모티프라고 생각되고 있어 보살상의 편년에 참고가 된다.

○ 내용 및 특징

월정사 석조보살상과 같이 머리에 원통형 고관을 쓴 고려초기 보살상으로는 강릉 한송사지(寒松寺址) 석조보살좌상, 강릉 신복사지 삼층석탑 앞에 놓인 석조보살좌상 외에도 충주박물관의 성불사 석조보살좌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월정사와 신복사지 보살상은 탑 앞에 놓인 공양보살상으로, 이처럼 머리에 원통형 고관을 쓰고 무릎을 꿇고 앉은 공양보살상의 형식은 고려시대에 처음 나타나는 도상이다. 이와 유사한 도상은 중국에서 만당기 조각에서 처음 보이는데, 섬서성 부풍(扶風) 법문사(法門寺) 탑의 지궁(地宮)에서 출토한 은제도금보살좌상(871년, 도 1)이 전하고 있다. 법문사 은제도금보살좌상은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모셔 들고 있는 상인데 비해 월정사의 보살좌상은 유사한 형식이지만 면서도 탑 앞에 놓여 있는 공양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1. 法門寺 은제도금보살좌상, 唐 871년, 陝西省 扶風

탑 앞에 놓인 보살상은 개태사(開泰寺)에도 전해오고(도 2), 강릉 신복사지에서 전해오며 원주 법천사지(法泉寺址)에서도 출토되었다(도 3). 이 외에도 법천사지 탑·비전(塔碑殿)의 석축에서 석등의 화사석 편으로 생각되는 파편이 발견되었는데, 이 파편에는 높은 원통형 보관을 쓰고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향로를 받쳐 든 모습의 공양보살상(도 6)이 부조되어 있다.

월정사 보살상에 대한 기록으로는 먼저 월정사사적에 실려있는 고려후기의 문인이었던 민지(閔漬, 1248~1326)가 쓴 『오대산사적(五臺山事蹟)』의 『신효거사 친견오류성중사적(信孝居士親見五類聖衆事蹟)』(1307년)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는

“탑 앞에 약왕보살(藥王菩薩)의 석상이 손에 향로를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전해오기를 이 석상은 절 남쪽의 금강연(金剛淵)에서 솟아나왔다”



도 2. 개태사 석조공양보살좌상, 고려
940년경, 충남 연산



도 3. 법천사지출토 석조공양보살좌상,
고려시대, 강원도 원주

라고 실려 있다. 탑에 공양하는 약왕보살의 이야기는 원래 『법화경』 권 6의 「약왕보살본사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를 바탕으로 탑 앞에서 공양을 올리는 월정사 보살상이나 신복사지 보살상이 약왕보살이라고 전해 내려온 것으로 생각된다. 민지의 글에 보이는 월정사 보살상의 명칭은 『법화경』 「약왕보살본사품」에 나오는 약왕보살이다. 약왕보살은 전생에 일월정명덕불의 세계에서 수행하던 ‘일체중생회견보살’이었는데, 여래와 『법화경』에 공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태워 1만 2,000년 동안 공양하였으며, 다시

일월정명덕불의 세계에 태어나 열반에 든 여래의 사리를 거두어 8만 4천개의 탑을 세우고 그 사리에 공양하기 위해 8만 4천개의 탑 앞에서 팔을 태워 7만 2,000년 동안 공양하였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이와 같은 『법화경』의 내용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탑 앞에 공양을 올리는 보살상을 약왕보살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이와 같은 약왕보살의 소신공양에 대한 이해는 고려후기 변상도에서도 찾아진다. 고려후기에 그려진 『법화경』 권 6의 변상도에는 탑 앞에서 약왕보살의 소신(燒身) 공양의 장면(도 4)이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손을 태우는 약왕보살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보다 더 이른 현존 예로는 남송대의 묘법연화경관화(1159년 이전, 도 5)을 꼽을 수 있겠는데, 팔각오층탑 앞에서 서서 손을 태우는 약왕보살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민지는 『신효거사친견오류성중사적』에서 월정사 “약왕보살”이 “향로”를 들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이는 민지가 향로를 든 보살상을 직접 보고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손을 태우지 않고 향로를 들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이 공양보살상이 약왕보살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비록 법화경의 내용을 그대로 형상화한 변상도에서의 모습처럼 손을 태우지 않았다고 해도 고려시대의 불교도

들은 탑 앞에서 향로를 들고 공양을 올리는 보살상을 약왕보살로 이해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예로서 고려전기에 세워진 「부석사원융국사비」(1053년)에는 원융국사와 승려들이 손에 향로(鵲尾爐)를 들고 마치 약왕보살이 소신연비(燒身



도4. 법화경 권 6 변상도, 고려시대 1340년, 일본 鍋島報效會 소장



도5. 법화경 변상도, 남송 1159년 이전, 일본 伝香寺 목조지장보살입상 납입품



도6. 법천사지 석등 화사석편, 고려시대, 법천사지출토, 강원도 원주

煙臂)를 하여 마정수기(摩頂受記)를 받은 것처럼 미륵불의 용화회상(龍華會上)에서 함께 만나 그와 같이 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부석사의 승려들은 약왕보살처럼 실제로 연비나 소지를 한 것이 아니라 손에 향로를 들고 약왕보살의 소신공양을 생각하며 그와 같이 되기를 염원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아마도 고려전기 불교계에서는 약왕보살의 소신공양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것처럼 고려 승려들도 미륵불로부터 마정수기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원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즉, 약왕보살이라는 존상의 명칭이 민지에 의해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사찰에서 전승되어온 보살상의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로서 앞에서 소개한 범천사지에서 새로 발견된 화사석편을 꼽을 수 있다. 이 파편에는 높은 원통형 보관을 쓰고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향로를 받쳐 들고 공양을 올리는 듯한 모습의 보살상(도 6)이 조각되어 있다. 향로를 들고 있는 범천사지출토 석등 화사석의 공양보살상은 원통형 보관 보살상이 향로를 들고 있는 도상이 고려초기에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일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최성은, 「고려초기의 명주지방 석조보살상에 대한 연구」, 『佛敎美術』 5, 1980,
최성은, 「당말오대와 요대의 원통형 보관 보살상에 대한 일고찰 - 고려초기 보관형 보살상과 관련하여 -」, 『講座美術史』 9, 1997
『原州 法泉寺址 2차 發掘調査』,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김도윤, 「오대산 월정사 공양보살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2013, 일조각.
정성권, 「고려시대 탑전 석조공양보살상의 등장과 전개」, 『불교미술사학』 21, 2016

□

○ 현 상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석조보살좌상은 원래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八角九層石塔) 앞에서 탑을 향하여 앉아 있던 존상이다(도 1). 팔각구층석탑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보살좌상은 2000년 8월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박물관 내로 옮겨온 것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탑 앞에 노출된 상태로 있었지만, 원통형 보관의 윗부분과 새로 조성된 오른팔 등 몇 곳을 제외하곤 별다른 손상이 없이 원형 보존이 잘된 편이다. 원통형 보관의 표면에는 금속 장식이나 보관 등 무엇인가를 부착하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중앙의 상중부(上中部)에는 구멍이 없으며 하부에만 1개 있고, 중앙 양 옆으로는 위로부터 2-1-1의 구멍이 있고, 양 끝에는 위로부터 1-2-2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의 수는 상, 중, 하부에 각각 6개씩 모두 18개이다. 보살상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는 어떤 물건을 끼울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깊이 약 10cm, 폭 약 1.5cm의 구멍이 나 있다.

한편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진행된 석조보살좌상 주변의 발굴 결과, 보살상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좌 일부가 발견되었다. 발견된 중대석과 하대석은 재질과 크기 등으로 미루어보아 석조보살좌상의 것이 분명하며, 추정되는 형식은 팔각연

화대좌이다.

○ 내용 및 특징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에 관한 문헌 기록이나 명문이 남아 있지 않아 조성 배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현재 보살상은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나 최근까지도 팔각구층석탑 앞에 놓여 있었다.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에 실려 있는 『월정사사적(月精寺事蹟)』과 『신효거사친견류오성사적(信孝居士親見類五聖事蹟)』에는 “탑 앞에 약왕보살석상(藥王菩薩石像)이 있는데, 손에 향로를 들고 탑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석상은 절의 남쪽 금강연(金剛淵)에서 나왔다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만 이 기록이 석조보살좌상의 조성 당시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고려시대 정추(鄭樞:1333-1382)의 시에는 석조보살좌상을 문수보살로 기록하고 있다.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높은 원통형의 보관(寶冠:보배로운 모자)을 쓰고, 왼쪽 무릎을 세운 상태로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이다(도2, 3, 4). 이러한 자세는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호궤(胡跪: 호는 중앙아시아를, 궤는 꿇어앉은 자세를 말함)라고 한다. 석조보살좌상은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우고 무엇인가를 바치고 있는 모습이다. 손을 중앙에 모우기 위하여 오른쪽 팔꿈치는 동자석(童子石:아이 모습이 새겨진 돌)으로 보이는 별도의 돌 위에 올려 두었고, 왼쪽 팔꿈치는 왼쪽 무릎 위에 두었다. 오른팔을 받치고 있는 동자석은 양식적으로 보아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원래부터 보살상과 함께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다.

석조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살찐 모습이며, 특히 얼굴은 몸에 비해 큰 것은 물론, 부풀어 올라 양 볼이 터질 것만 같다. 원통형 보관과 얼굴 사이에는 머리카락이 표현되어 있으며, 측면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양쪽 귀 앞 중간 부분에서 귀를 덮고 가로질러 귀 뒤에서 흘러내리던 머리카락과 함께 양쪽 어깨 위로 펼쳐지고 있다. 석조보살좌상의 컷불에는 화려한 꽃문양의 귀걸이가 표현되어 있다. 비록 살이 찌서 양 볼과 턱이 지나치게 부풀어 있으나, 눈썹과 눈, 코, 인중, 입 등은 원만한 모습을 하고 있다. 목에는 삼도(三道:세 개의 선) 같은 표현이 보인다. 한편, 석조보살좌상은 근육질이 아닌 적당하게 살 찐 모습으로서, 피부의 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보살상은 균형 잡힌 안정된 자세와 적절한 비례를 갖추고 있으며, 보관과 귀걸이, 팔찌, 화려한 가슴 영락(瓔珞) 장식을 하고 있다.

석조보살좌상은 상체에 법의(法衣:보살상의 옷)를 걸치지 않았으며, 왼쪽 어깨에서부터 내려와 오른쪽 허리를 감는 천의(天衣)의 띠가 표현되었는데, 그것이 보살상의 뒷면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군의(裙衣:

치마)는 뒷부분의 가지런한 모습과는 달리, 다리를 넓게 벌리고 있는 앞부분에서는 신체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대좌는 팔각연화대좌(八角蓮華臺座)로서 별조의 상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반부는 팔각형 받침-복련장식 하대-팔각형 중대로 이루어 졌으며, 양련장식 상대가 또 하나의 돌로 구성되었다. 상대 중앙에는 얇은 단을 둥글게 파내어 보살상 밑면의 돌출부가 끼워져 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천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살상을 빗물과 결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하대, 중대, 상대를 관통하는 배수용 구멍이 설치되어 있다. 상대는 양련(仰蓮:연꽃이 활짝 핀 모습) 형식이며, 중대는 매우 짧고, 하대는 복련(覆蓮:연꽃이 엮어져 있는 모습) 형식의 연화와 그 아래에 안상(眼象)이 새겨진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좌는 연꽃 잎사귀가 넓고, 활짝 펼쳐진 모습 외에 상대의 폭에 비해 하대가 훨씬 넓은 모습으로 보아 석조보살좌상과 함께 고려시대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왼쪽 무릎을 세운 다음, 꿇어앉은 자세를 하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 쥐고서 무엇인가를 공양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석조보살좌상은 공양 보살이라는 성격을 정면과 측면, 뒷면에서도 충분히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석조보살좌상은 강원도 강릉에서 발견된 국보 제124호 한송사(寒松寺) 석조보살좌상과 보물 제84호 신복사지(神福寺址) 석조보살좌상과 형식과 양식적인 면에서 유사하여 고려시대 초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상대의 중앙에 홈을 파 보살좌상 하부의 둥근 받침과 맞물리게 한 대좌 형식과 조형적인 특징은 신복사지, 한송사지 보살좌상에서도 볼 수 있다.

석조보살좌상은 고려시대 전기에 강원도 지방에서 유행하던 원통형의 높은 보관과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얼굴, 호쾌 자세를 한 보살상의 한 예이다. 석조보살좌상은 명주(明州: 강원도 강릉) 지방을 중심으로 조성되던 보살상의 형식이 강원도 영서(嶺西) 지방에서도 유행하였다는 것을 알려 주는 중요한 예이다. 한편, 고려시대 전기에 양식적으로 영향 관계 속에 있던 요(遼)나라 보살상의 모습도 간취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탑을 향해 앉아 있는 공양보살상이라는 점, 둘째는 유례가 드문 궤좌의 보살상이라는 점, 셋째는 보살의 머리 위에 높은 원통형 보관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원통형 보관은 중국 당(唐)나라 중·만당기 보살상의 특징이며, 이러한 보관은 요대의 원통형 고관(高冠)과도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고려초기 명주지방의 석조보살상에 대한 연구」(최성은, 『불교미술』5, 1980)
『한국의 사찰문화재-강원도』(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2)

『석불-돌에 새긴 정토의 꿈』(최성은, 한길아트, 2003)

Buddhist Sculpture of Korea(Kim Lena, Hollym International Corp., 2007)

『고려 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북방적 요소』(정은우, 『미술사학연구』265, 2010)



도1.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공양보살좌상



도2. 공양보살좌상



도3. 공양보살좌상 부분



도4. 공양보살좌상 부분

□

○ 조사내용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팔각구층석탑 남쪽 전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공양을 올리는 자세로 조성되었다. 대좌를 포함한 전체 높이가 250c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를 보인다. 이와 유사한 탑전 공양상은 연기조사께서 어머니께 차를 공양한다는 설화가 담겨 있는 구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에서 그 조형을 찾을 수 있으며, 한동안 이러한 사례는 보이지 않다가 고려 초 월정사를 비롯한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한다. 현재 이 보살상은 오랜 세월 야외 노출로 인한 마멸이 심각하여 보존관리상의 문제로 월정사 정보박물관 전시실 내로 이전하여 전시 보관하고 있다.



그림 1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석조보살좌상(복제품) 전경

이 보살상의 존명에 대해서는 자장율사가 친견하기를 기원한 문수보살이라고 전하기도 하고 약왕보살이라고 전하기도 한다. 『조선불교통사』 「월정사사적」에 실려 있는 고려 후기 문인 閔漬(1248-1326)가 쓴 「五臺山史蹟」의 「信孝居士親見五類聖衆史蹟」(1307)에는 “탑 앞에 藥王菩薩 석상이 손에 향로를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전해오기를 이 석상은 절 남쪽의 금강연에서 솟아나왔다”라고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보살상의 존명은 약왕보살이며, 손에는 향로를 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530년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慈藏의 옛 절에 문수보살이 있어 탑 위에 천년 동안 새가 날지 못 한다”는 내용의 고려 말의 무신 鄭樞(?-1328)의 시가 실려 있는데, 자장이 창건한 문수도량의 은유적 표현으로 생각되며, 이 석조보살상을 바로 지칭한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민지가 찬한 구체적인 기록은 원래부터 약왕보살로 조성하여 신앙해 온 것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탑 앞에서 향 공양을 올리는 문수보살은 경전에서 그 典據를 찾기 어렵고, 약왕보살은 이와 부합하는 장면을 경전에

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약왕보살은 『妙法蓮華經』 권6 ‘藥王菩薩本事品’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탑 앞에서 공양을 올리는 월정사 보살상이나 신복사지 보살상이 약왕보살이라고 전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약왕보살은 전생에 日月淨明德佛의 세계에서 수행하던 一切衆生喜見菩薩이었는데, 여래와 『법화경』에 공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태워 1만 2천 년 동안 공양하였으며, 다시 日月淨明德佛의 세계에서 태어나 여래의 사리를 거두어 8만 4천개의 탑을 세우고 그 사리에 공양하기 위해 8만 4천 개의 탑 앞에서 팔을 태워 7만 2천 년 동안 공양하였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이와 같은 『법화경』의 내용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탑 앞에 공양을 올리는 보살상을 약왕보살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⁸⁾

이 보살상은 원통형의 높은 보관을 쓰고 무릎은 꿇고 탑을 향해 공양을 올리는 모습이다. 원통형의 높은 관에는 규칙적인 구멍이 뚫려 있어 별도의 관장식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통통한 얼굴에는 환희심이 가득한 양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있으며, 한쪽 무릎은 세우고 한쪽 무릎은 꿇고 두 손은 공손이 위아래로 모아 쥐고 공양을 올리는 모습인데, 지물은 결실되었는데, 손잡이가 있는 柄香爐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공양보살상은 월정사 외에 강릉 신복사지 탑전 공양보살상, 원주 법천사지 탑전 공양보살상, 논산 개태사지 탑전 보살상 등 강원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 등 지극히 한정된 지역에서 발견된다. 이 중 그 원래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것은 월정사 보살상과 신복사지 보살상 정도이다. 월정사 보살상은 이러한 형식을 취한 보살상 중에서 탑과 함께 가장 크고 웅장한 구도와 뛰어난 조형감각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보살의 몸은 흉식, 비천, 완천 귀걸이 영락 등으로 장식하였다. 가슴에는 화려한 수식이 달려있는 목걸이를 부착하였고 이를 등 뒤에서 끈으로 묶었다. 천의는 별도로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옆구리에 걸치는 絡腋를 입고 있다.

한편 2001~2003년에 걸친 발굴과정에서 보살상의 중대와 하대가 발견되어 지금과 같이 온전한 대좌모양을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상대의 중앙에 홈을 파 보살좌상의 하부의 둥근 받침에 맞물리게 한 점은 신복사지와 한송사지 보살좌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된 방식이다. 특히 낮은 형태의 삼단 구도라든가, 하대하석에 새겨진 여의두 모양의 심을 가진 안상은 11세기 불상과 석탑 등의 기단에 많이 조식되던 안상문양으로 이 보살상의 편년을 정하는데 유익하다.

이 보살상은 제작시기를 정확히 알려주는 자료는 없지만, 보살상의 양식상 팔각구층석탑과 함께 고려 초 11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던 중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진행된 탑과 보살상 주변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탑의 구지표면 보다 더 아래층에서 12세기 전반에 중국에서 유통된 聖宋圓寶와 崇寧重

18) 최성은, 「지방 호족의 불교조각 - 강릉·오대산 지역의 석조보살상」,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연구』 (일조각, 2013), pp.165-167

寶가 발견되고 화재를 당한 흔적 등이 드러나면서 보살상의 제작시기가 12세기 중엽 이후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탑과 보살상이 초창 이후 여러 차례 중수 과정을 거쳤고, 석탑 내에서 발견된 유물이 모두 11세기 초로 추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007년에 간행된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이 조탑경으로 납입된 점으로 볼 때 탑의 조성시기도 이 경전이 간행되고 유행되던 11세기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석조보살좌상(이운 전)



그림 3. 석조보살좌상(이운 후)

○ 참고문헌

崔聖銀, 「溟洲地方의 高麗時代 石造菩薩像에 대한 研究」, 『佛敎美術』 5, 東國大學校博物館, 1980

「五臺山 月精寺 석조보살좌상 주변지역 문화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월정사·재)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4

「五臺山 月精寺 석조보살좌상 주변지역 발굴조사보고서II」, 월정사·재)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5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6-05-015

15.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金剛山 出土 李成桂 發願 舍利莊嚴具 一括)

가. 검토사항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3.16)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6년 제3차 회의(6.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는 있으나 “명문해석, 출토용어, 이성계 명칭 사용여부에 대한 고증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추가 조사를 실시('16.9.5)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金剛山 出土 李成桂 發願 舍利莊嚴具 一括)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10점
- 규 격: 유리제사리병 9.0cm
은제도금 라마탑형사리기 높이 15.0cm

은제도금 팔각당형사리기 높이 19.8cm
청동 발 높이 11.9cm, 입지름 16.5cm
백자 발 (유명 ㉔) 17.5cm, 19.5cm,
백자 발 (무명 ㉔) 13.6cm, 9.8cm
백자향로 12.3cm
은제이소 길이 15.5cm

- 재 질: 금동, 은제, 청동제, 백자
- 제작연대: 1390년, 1391년
- 출 토 지: 강원도 금강산 월출봉

라. 추가조사('16.9.5) 결과

○

지정 대상 유물인 ‘금강산 출토 이성계발원사리장엄구 일괄(金剛山 出土 李成桂 發願舍利莊嚴具 一括)’은 각각의 유물에 기록된 명문을 통해 조성시기와 발원자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명문에 대한 보완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보완조사를 진행하며 명문 판독한 결과 다음의 몇 글자가 다시 확인되었다.(확인한 글자는 폰트를 크게 하여 구분하고자 함)

1. 銀製鍍金八角圓堂形舍利龕(내부 은제팔각통형 표면에 從書)

造成舍利
塔奉持
納子月菴
施主
加伊氏
安月
同知密直
黃希釋
朴氏福壽
樂浪郡夫人
妙禪
康澤
江陽郡夫人

李氏妙情
勝田寶德
樂安郡夫人
金氏
孝人希寬
□志信南
造羅得富
李氏□竜
朴子青
庚午三月日
(*위 명문 윗 쪽에 □緣을 따라 橫書)
領三司事洪永通貞順宅主黃氏興海郡
夫人裴氏釋碑

2. 銀製喇嘛塔形舍利器(내부의 은제원통형 표면에 從書)

奮忠定難
匡復**變**理
佐命功臣
壁上三韓
三重大匡
守門下侍中
李成桂
三韓國大
夫人康氏
勿其氏

3. 鍮器碗(口緣을 따라 點刻 橫書)

洪**武(피휘)**二十四年辛未二月日造
成舍利盒施主信堅妙明朴竜

4. 白磁鉢(외면에 橫書)

大明洪武(피휘)

二十四年辛未

四月日立願

同願砂合(?)

造此谷(?)

自釋迦如來

入滅徑二千余

年大明洪武(피휘)

隱月菴与

松軒侍中

□余万人

同發誓願

謹藏金剛山

直待彌勒世

不遠三會時

重開瞻佛

此願堅固

佛祖證明

5. 白磁鉢(내면)

金剛山毘盧峯舍利安遊記
自釋尊入滅徑二千四百
余年大明洪武二十四辛未
五月日月菴与今侍中
李成桂万人同發誓願
供藏金剛山待
彌勒出世奉以示人
助揚眞化同成
佛道此願堅固
佛祖訂明
辛未五月日誌
同發願野納月菴
同願施主門下侍中李成桂
同願三韓國大夫人康氏
同願樂浪郡夫人金氏妙善
同願江陽郡夫人李氏妙情
同願樂安郡夫人金氏
同願興海郡夫人裴氏
同發願余數多人
不緣待彌勒三會重□
瞻礼同成正覺

〈굽 주위 명문〉

辛未四月日方山砂器匠沈竜同發願比
丘信寬」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사리장엄구는 李成桂가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인 많은 신하들과 함께 발원

한 舍利具로서 1932년 金剛山 月出峰 石函 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石函 안에서 舍利外器인 白磁大鉢 4개와 銀製鍍金 喇嘛塔形舍利器, 이 사리기를 안치한 銀製 八角堂形舍利器, 그리고 靑銅鉢 등이 발견되었다.

이성계 발원 사리기는 기록된 명문을 통해 조성시기와 발원자를 알 수 있는 고려 말 사리기의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至大三年銘 喇嘛塔形 舍利器와 그 형태나 구성이 매우 흡사하여 더욱 주목된다.

이와 같은 명문의 가치 외에도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는 출토 장소가 분명하고 1390년~1391년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명문을 지닌 고려 사리기의 가장 중요한 예이다. 기록된 내용은 고려말 기울어가는 사회적 배경과 당시 불교적 교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금석문 자료인 동시에 고려말 라마탑형 사리기와 같은 원나라 불교미술의 신앙식을 계승한 고려 사리기 연구와 연대가 확실한 고려 백자 연구의 가장 확실한 편년 자료로 평가된다. 이런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점에서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은 국가지정문화재로 하루빨리 지정 보호되어야 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둘째 부인 강씨 등 시주자와 제작한 사기장인, 그리고 장소 및 1391년(‘大明洪武二十四辛未’)라는 제작시기가 명기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다. 더욱이 출토지도 확실하며, 백자와 금속기로 구성된 일괄품으로서 재질과 수량 및 명문 등에서 다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희귀한 예이다. 조선 건국과 관련된 한국 역사의 단면과 지배계층의 종교관을 살필 수 있고, 고려 말-조선 초의 도자 및 금속 공예사의 발달과정에서도 중심 고리가 되는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연구 대상이다. 이런 점에서 이성계발원사리기 일괄품은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근거기준

지금까지 국가 지정된 사리기는 대부분 통일신라에 치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성계발원사리기는 고려 말에 제작된 도자기와 금속기가 조합을 이룬 사리기 일괄품이라는 점에서 사리기의 구성과 제작시기의 측면에서 매우 희귀한 예이다. 또한 사리기의 명문은 조선 건국 직전의 역사와 종교관의 연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그 유례가 없는 내용이다.

더욱이 조선 건국자인 태조 이성계와 직결되었으므로 어떤 유물과 비교하기 어려운 독보적인 유물이다.

○ (지정 가치 있음)

1932년에 금강산 월출봉의 석함 안에서 발견된 이성계 발원 사리구는 총 10점으로 4점의 금속공예와 1점의 유리사리병, 5점의 백자로 구성된 일괄유물로서 출토지, 제작년대와 발원자가 분명하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좋은 편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건국 1년 전 시중일 때인 1390년과 1391년에 보호승 월암, 부인 강씨를 비롯한 귀족층, 만인과 함께 미륵사상에 의해 조성한 역사적인 유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고 있다.

공예사적으로 볼 때 고려 말의 기년명 금속공예, 백자를 대표할 뿐 아니라 석함→자기→동→은제도금→유리병 순으로 안으로 갈수록 고급재료를 쓰는 사리봉 안의례를 보여주고 있는 점, 모두 5점의 사리기에 조성배경을 알려주는 명문이 있다는 점은 이 사리봉안불사에 특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

4점의 금속제 사리기의 형태는 전통 형식에 티벳밀교인 라마양식을 반영, 공예의 對元 대외교섭의 기준이 되는 자료라는 점, 제작기법은 고려 14세기의 타출기법 및 특수도구의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점 등에서 의의가 크다.

5점의 백자는 良質은 아니나 경질백자로서 조선백자로의 이행과정을 보여주고 사리기로 쓰인 최초의 기년명 백자라는 점, 제작 장인명이 있고, 貢納磁器를 생산했던 방산요의 開窯 배경이나 생산품의 실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불교사적으로는 고려 말에 성행했던 『미륵하생경』 신앙에 따라 發誓願한 유물로서 14세기의 불교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 표면적으로는 미래불(제8불)이 하생, 龍華三會를 열어 설법하시기를 염원하지만 내용은 미래불은 곧 본인이고 용화삼회는 건국임을 암시하므로 불교적 帝王觀이 반영된 중요 자료이다.

이렇듯 이성계발원 사리구는 1390년, 1391년이라는 기년작으로 출토지와 발원자, 제작자가 분명하고 고려 14세기의 공예사적, 대외교섭사적, 불교사상사 및 의례적, 정치적 의의 등이 함축된 기념비적 유물이어서 국가 지정 유물로서의 가치가 크다. 같은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수종사부도 발견 사리장엄구(보물 제259, 1963.01.21)나 선암사 동삼층석탑 발견 사리장엄구(보물 제955호, 1988.06.16)가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때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마땅하며 문화재 명칭은 ‘이성계 발원 사리구’ 또는 ‘이성계 발원 사리구 일괄’로 하는 것이 좋겠다.

○ (지정 가치 있음)

이성계발원 사리기 1건 10점은 일부 유물의 명문에 의해 1390-1년을 전후한 제작 연대와 이성계를 비롯한 시주자와 제작 주체 및 장인들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명문에 등장하는 미륵하생신앙의 신앙배경과 금강산 월출봉의 출토지,

석함 출토라는 현황이 분명하고, 라마 양식의 사리함과 사리기, 양구 방산과 사기장 심룡 등의 명문이 있는 고려백자 등이 하나를 이루어 고려말 조선 초기 사리기 매납 등의 불교미술과 도자 제작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사리장엄구는 월암스님이 모연을 주도하고, 이성계와 그의 두 번째 부인 강씨와 많은 실권자들이 참여하여 제작, 조성하였음을 사리장엄구에 쓰여진 명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발원내용은 이 사리구를 금강산에 안치하며 미륵하생을 기원하고 있으며, 미륵하생시 모두가 삼회의 설법에 참여하여 성불도를 이루고자 기원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륵신앙은 전륜성왕과 떼어 수 없는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미륵은 정법, 상법, 말법 시대를 지나 전륜성왕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용화수 아래에서 성도하여 석가여래가 제도하지 못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부처님이다. 미륵불이 하생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전륜성왕의 치세인데, 당시 고려 말은 정치·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하여 말세로 여겨졌던 시기였다. 이 사리장엄구를 조성 발원한 세력들은 미륵신앙을 매개로 하여 이성계를 말세를 구원할 미륵불 내지 전륜성왕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의미 담아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금강산에 매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리장엄구는 새로운 왕조를 건설한 이성계의 건국의지와 그를 지지한 인물들과의 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며, 신왕조의 조형 양식을 예고하는 공예품으로서의 의의가 크다.

또한 이 사리장엄구는 정확한 제작연대와 제작자, 발원자와 발원목적이 밝혀진 사리장엄구로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에 만들어진 중요한 기준작으로서, 조형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특히 청동완과 라마탑형 사리기를 통해 이 시기 성행한 ‘방자유기 기법’과 ‘부분 도금기법’, 그리고 ‘타출기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유물은 백자와 금속기로 구성된 1건 10점의 일괄품으로 구성과 수량에서 주목된다. 특히, 금속재료를 다룬 기술과 장식, 명문을 비롯하여 제작시기와 제작연유를 알 수 있는 고려말기의 백자로서도 현재까지 유일한 작품이다. 유물의 형태와 장식이 뛰어나며 1391년을 전후한 시기의 제작수준과 경향을 알 수 있고, 당시 불교미술품은 물론 고려백자가 조선백자로 변화,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로서도 중요하다. 나아가 조선의 태조인 이성계를 비롯한 시주자와 제작자, 장인들이 유물과 관련되어 있어서 지배층의 종교관은 물론 원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어 다방면으로 가치가 높은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유물처럼 금강산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고려 말기의 유물들과 그 연원 및 특징을 비교하며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일괄유물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며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출토 경위 및 현상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인 1390년과 1391년에 발원하여 봉안한 사리기이다. 이 사리기는 일제시대인 1932년 금강산 방화선 공사 도중에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서 발견 위치는 금강산 월출봉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발굴보고서가 남아있지 않아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사리기 명문에 보이는 ‘金剛山 毘盧峰 舍利 安遊記’의 내용에 의해 원래는 비로봉에 봉안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32년 12월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옮겨졌다가 1933년 본관품에 등록되어 지금 중앙박물관에 소장하게 된 것이다.

사리기는 석함에 안치되었다고 전하나 현재는 백자외합, 백자발, 청동발, 은제 도금사리외용기, 은제도금사리내용기, 유리제사리기로 중첩되었던 사리기 세트와 백자향로 1점이 남아 있다. 뚜껑을 갖춘 백자사리외합에 나머지 모든 사리기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외합 내면과 백자발 외면, 청동발 외면의 구연부, 팔각당형 사리기 내부에 있던 은제팔각통, 라마탑형 사리기 내부에 마련된 은제 원통형 좌대에 각각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이 사리기의 제작에 이성계를 비롯한 당시 주요 인사들이 얼마나 정성을 쏟아 사리봉안에 참여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고려말 조선 초기에 봉안된 사리기 중에는 이러한 육각당 또는 팔각당이나 라마탑 모양을 사리기에 이용한 것이 자주 발견된다. 고려 후기 원대에 이르러 정치·문화적으로 중국 원과 고려의 관계가 긴밀해 지면서 원에서 유행된 라마불

교(喇嘛佛教)가 불상과 사리기 등 고려 불교예술품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라마탑 형태의 사리기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는 출토 장소가 분명하고 1390년~1391년에 제작된 확실한 명문을 지닌 고려 사리기의 가장 중요한 예이다. 기록된 내용을 통해 당시 고려말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배경과 불교적 교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금석문 자료인 동시에 라마탑형 사리기와 같은 원나라 불교미술의 신앙식을 계승한 고려 사리기 연구와 연대가 확실한 고려 백자의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이런 가치로 인해 이 사리장엄구 일괄은 하루빨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되어야 한다.

○ 조사내용

이 사리장엄구는 李成桂가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인 많은 신하들과 함께 발원한 舍利具로서 1932년 金剛山 月出峰 石函 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石函 안에서 舍利外器인 白磁大鉢 4개와 銀製鍍金 喇嘛塔形舍利器, 이 사리기를 안치한 銀製 八角堂形舍利器, 그리고 靑銅鉢 등이 발견되었다. 금속제 사리기와 백자 발의 안쪽에 다양한 내용의 銘文이 남아있어 제작시기와 李成桂 發願으로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⁹⁾ 이 중에서 白磁大鉢 2개와 銀製八角堂形舍利器, 靑銅鉢에는 각각 1390년, 1391년의 年記가 있어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인 2년에 걸쳐 이 사리기를 제작하였음을 밝혀주고 있다.²⁰⁾ 사리기 명문에 보이는 ‘金剛山 毘盧峰 舍利安遊記’의 내용에 의해 원래는 비로봉에 봉안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리기 각각에 새겨진 명문들에는 당시 문하시중이었던 이성계의 주변 인물들이

- 19) (1) 銀製鍍金八角圓堂形舍利器 銘文(黃壽永, 『금석유문』 黃壽永全集 4, 혜안, 1999, pp. 231~232, No.123).
 (表面에 從書) “造成舍利塔奉持納子月菴 施主 加伊氏 安月 同知密直 黃希采又朴氏 福壽 樂浪郡夫人 妙禪 康渾 江陽郡夫人 李氏 妙情 勝田寶德 樂安郡夫人 金氏孝人希賓 相志信南 一造 羅得富 □氏双□ 朴子青 庚午三月日.”
 (表面에 橫書) “采又 碑 領三司事洪永通 貞順宅主黃氏 興海郡夫人 裴氏.”
 (2) 銀製鍍金喇嘛塔形舍利器 銘文(黃壽永, 『금석유문』 黃壽永全集 4, 혜안, 1999, pp. 230~231, No.122).
 “奮忠定難 匡復變理 佐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守門下侍中李成桂三韓國夫人康氏勿其氏.”
 (3) 洪武24年銘白磁鉢(1) 銘文(『佛舍利莊嚴』, 國立中央博物館, 1991, p.253).
 (器面內則) “金剛山毘盧峯舍利安遊記 自釋尊入滅經二千四百余年大明洪武二十四辛未五月日月菴與今 侍中李成桂万人同發誓願言藏金剛山侍彌勒出世奉以示人助場眞化同成佛道此願堅固佛祖訂明辛未五月日誌 同發願野納月菴 同願施主門下侍中李成桂 同願三韓國夫人康氏 同願樂浪郡夫人金氏妙禪 同願江陽郡夫人李氏妙清 同願 樂安郡夫人金氏 同願興海郡夫人裴氏 同發願余數多人 不緣待彌勒三會重口 膽札同成正覺.”
 (器面高臺 周圍) “辛未四月日防山砂器匠沈□同發願比丘信寬.”
 (4) 洪武24尊銘白磁鉢(2) 銘文(『佛舍利莊嚴』, 國立中央博物館, 1991, p.253).
 “自釋適如來入滅徑二千余年大明洪武隱月菴與松軒侍中余万人同發願言共 藏金剛山侍彌勒世不遠三會時重開瞻禮佛此願堅固大明洪武二十四年辛未四月日立願 同願 砂合 造幽谷.”
 (5) 靑銅鉢 口緣部 銘文.
 “洪武二十四年辛未二月日造舍利臺施主 信堅妙 明林□.”
 20) (1) 銀製鍍金八角堂形舍利器 銘文 “...庚午三月日.”
 (2) 洪武24年銘白磁鉢(1) 銘文 “金剛山毘盧峯舍利安遊記 自釋尊入滅經二千四百余年大明洪武二十四辛未五月日...”
 (3) 洪武24年銘白磁鉢(2) 銘文 “...大明洪武二十四年辛未...”
 (4) 靑銅鉢 口緣部 銘文 “...洪武二十四年辛未二月日...”

함께 발원자로서 기입되어 있어 조선 건국 직전에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왕조건립 기원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八角堂形舍利器 안에 있던 銀製鍍金 喇嘛塔形舍利器는 몸체의 사방에 八角堂形舍利器와 같이 합장한 모습의 如來立像을 사면에 새겼고 그 사이에는 영락 장식을 첨가하였다. 身部 위에는 覆蓮이 陽刻되어 있으며 그 위로 4단의 원형 상륜이 있다. 8개의 雲足形으로 이루어진 기단의 하대 위로 2단의 覆蓮과 中臺 위로 銀板으로 만든 단판의 연화가 3중으로 붙어 중앙에 유리제 사리용기를 안치하도록 되어 있다. 가늘고 긴 원통형의 유리제 사리용기는 현재 약간 파손된 상태이며 상부에 은제도금 된 윗 원통형 마개를 뚜껑으로 덮었다. 이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의 판에는 李成桂와 婦人 康氏만이 陰刻된 施主 發願文이 있다.

李成桂 發願 銀製鍍金 八角堂形舍利器는 앞에서 설명한 喇嘛塔形 舍利器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仰蓮을 돌린 받침 위에 따로 제작된 8각으로 이루어진 외형을 지녔고 그 위로 팔각 지붕을 덮은 구조이다. 身部의 하단에는 唐草文을 둘러 장식하였으며 팔각의 모서리마다 기둥 모양을 새겼다. 각 면에는 합장한 如來立像을 두었으며 이 여래 입상 위로 새겨진 영락 장식은 앞서의 喇嘛塔形 舍利器의 영락장식과 거의 동일하다. 위에 덮힌 팔각의 뚜껑에는 隅棟과 기왓골이 2단으로 모각되어 있어 고려시대에 보이는 당형 사리의 특징을 잘 계승하고 있다. 이처럼 고려시대 당형 사리의 屋蓋가 대부분 2단 혹은 3단으로 되어 있고 기왓골이나 隅棟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비해 통일신라시대 후기부터 등장하는 八角圓堂形의 승탑에서는 보이지 않는 점이 흥미롭다.²¹⁾ 身部가 놓이는 받침에는 원통형의 銘文板이 붙어 있는데, 조성시기와 시주자 등이 陰刻되어 있으며,²²⁾ 옥개 상부에는 蓮花가 낮게 새겨져 있다. 이 사리는 전체가 다 은제로 만들어졌는데, 안쪽에 끼워지는 사리 받침부는 은제 그대로 이지만 외면의 몸체 여래입상과 이나 영락 장식과 같은 문양부, 그리고 지붕에만 부분적으로 도금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 도금은 내 사리와 사리병 부분에도 적용되어 라마탑형 사리의 외면 상륜과 여래입상, 연판형 받침부와 운족형 하대에만 도금되었다. 은제로 전체를 만든 뒤 중요한 부분에만 도금으로 더욱 강조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성계 발원 사리는 기록된 명부를 통해 조성시기와 발원자를 알 수 있는 고려 말 사리의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至大三年銘 喇嘛塔形 舍利器와 그 형태나 구성이 매우 흡사하여 더욱 주목된다. 이러한 喇嘛塔形 舍利器는 고려 후기 원나라를 통해 들어온 라마교와 함께 라마불교 미술 양식이 우리나라에 유입되

21) 그것은 통일신라부터 고려까지 계승을 이룬 당형 사리가 당시에 유행한 석조 八角圓堂形 僧塔을 본 딴 것이라기 보다 그 원형인 목조건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22) 銀製鍍金八角圓堂形舍利器 銘文(黃壽永, 『금석유문』 黃壽永全集 4, 혜안, 1999, pp.231~232, No.123).

(表面 從書) “造成舍利塔奉持納子月菴 施主 加伊氏 安月 同知密直 黃希采又 朴氏 福壽 樂浪郡夫人 妙禪 康渾 江陽郡夫人 李氏 妙情 勝田寶德 樂安郡夫人 金氏 孝人 希實 梟志信南 一造 羅得富 □氏双□ 朴子青 庚午 三月旦.”

(表面에 橫書) “采又 碑 領三司事洪永通 貞順宅主黃氏 興海郡夫人 裴氏.”

어 제작된 것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당시 원나라를 통해 들어온 원나라 불교 미술의 흔적은 개성 敬天寺十層石塔(1316)이나 演福寺 범종(1346)을 비롯하여 金剛山 출토의 일련의 금동보살좌상, 麻谷寺塔의 상륜부 등에 남아있으며 이처럼 14세기 중엽 이후 사리기와 같은 공예품에도 채용되어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성계 발원 사리기는 고려 말까지 이와같은 라마불교 양식이 꾸준히 계승된 사실을 밝혀준다.

마지막으로 명문 중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納子月菴와 領三司事 洪永通, 同知密直 黃希采, 제작자로 보이는 朴子靑 등이 주목된다.²³⁾ 月菴의 자세한 행적은 밝혀진 바 없지만 『世宗實錄』에 태조가 잠저 때에 보호하던 승려로 태조의 어진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²⁴⁾ 다른 백자의 명문에도 이 승려의 이름이 보이는 점에서 사리기 발원에 큰 역할을 담당할 인물로 짐작된다. 領三司事 洪永通은 고려 말 권문세가의 한사람으로서 우왕의 친인척이지만 조선 초까지도 개국공신에 임명되어 권세를 누렸지만 1395년 이성계가 즉위한 이후 말에서 떨어져 죽게 됨으로써 왕이 매우 안타깝게 여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실한 불교신자여서 조선 개국 전부터 이성계와 함께 많은 불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²⁵⁾ 그리고 同知密直 黃希采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때 함께 했던 무장으로서 회군공신에 봉해졌다고 한다. 『太宗實錄』의 기록에는 환속한 승려라는 내용도 확인되어 즉위 전부터 이성계와 함께 불사에 참여했던 고려 귀족의 한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²⁶⁾ 마지막으로 朴子靑은 조선초기에 건축 감독관으로 그 이름이 알려진 인물로서 『朝鮮王朝實錄』에 행적이 보이는데, 내시 출신이며 太宗年間에 공조판서를 지내면서 건원릉, 현릉 등의 토목공사를 감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특히 백자에 기록된 ‘辛未四月日防山砂器匠沈□’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여 고려시대 도자기의 제작자를 砂器匠으로 불렀으며 沈□라는 제작자. 그리고 防山이라는 제작지가 기록된 유일한 자료이며 근래 강원도 양구의 가마터가 바로 이 백자를 구운 방산 요지로 밝혀져 고려 백자 연구에 귀중한 편년 자료가 되고 있다. 백자 발 내에서 은제로 만든 귀 이개(耳搔) 형태의 손가락 한점이 함께 발견되었다. 은판을 두드려 얇고 길며 앞 부분을 살짝 구부려 작은 匙面을 만들었는데, 사리를 옮길 때 썼던 수저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명문의 가치 외에도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는 출토 장소가 분명하고 1390년~1391년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명문을 지닌 고려 사리기의 가장 중요한 예이다. 기록된 내용은 고려말 기울어가는 사회적 배경과 당시 불교적 교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금석문 자료인 동시에 고려말 라마

23) 주경미, 李成桂發願 佛舍利莊嚴具의 研究, 『미술사학연구』 257 (한국미술사학회, 2008.3)

24) 주경미, 앞 논문 참조

25) 주경미, 앞 논문 참조

26) 주경미, 앞 논문 참조

27) 주경미, 앞 논문 참조

탑형 사리기와 같은 원나라 불교미술의 신앙식을 계승한 고려 사리기 연구와 연대가 확실한 고려 백자 연구의 가장 확실한 편년 자료로 평가된다. 이런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점에서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은 국가지정문화재로 하루빨리 지정 보호되어야 한다.

□

○ 현 상

금강산 월출봉에서 1932년 공사 도중 우연히 발견된 석함 속에 안치되었던 이성계발원사리기는 금속제품과 백자로 구성된 일괄품으로서 금속제품은 은제도금사리탑, 은제도금사리감, 은제귀이개, 청동완 등 4점이며, 백자는 백자발 4점과 백자향로 1점 등 5점, 유리제사리병 1점, 총 10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은제 사리탑과 사리감, 청동완, 백자발 2점 등 5점에 명문이 있어 여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명문은 내외면 또는 구연부에 記銘되었으며 연대와 인명이 명시되었으므로 제작시기와 시주자 및 제작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은제도금사리탑은 라마탑형으로서 연화형 대좌 위에 원통형 은판, 라마탑형 뚜껑이 얹히는 형식인데, 대좌 위의 은판 안에 긴 원통형 용기를 봉안하고 라마탑형 뚜껑을 덮도록 되어 있다. 이 사리탑 안에 봉안되는 원통형 용기는 유리와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은제사리감은 은제도금사리탑을 봉안하기 위한 사리기로서 동체와 뚜껑 및 받침이 팔각형이다. 은제귀이개는 일반적인 귀이개 형태이지만 길이가 15.5cm로 매우 길다. 청동완은 흔히 볼 수 있는 내면이 깊은鉢 형태이다.

동반 출토한 백자발은 2점은 모두 내저면이 깊고 구부가 동체의 최대직경보다 약간 좁아진 형태이며, 백자대접 2점은 백자발에 비해 내저면이 깊지 않고 구부가 동체보다 넓은 형태이다. 백자향로는 구부가 거의 직각으로 꺾여 外反된 넓은 전 형식이다. 백자 5점의 경우 태도와 유약이 거칠고 시유상태도 양호하지 않으며, 결손 및 파손되거나 변색된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양식은 고려의 세련된 도자 양식과 달리 매우 조약하다. 아마도 고려 말, 조선 건국의 정치적 염원을 담은 이성계과 시주자들의 상황으로 미루어 열악한 요업 환경에서 은밀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내용 및 특징

라마탑이나 8각당 형태는 고려 후기에 원과 정치, 사회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인해 원에서 유행한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마 불교 형식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까지의 불교 미술품에서 발견되는데, 이성계발원 금속제사리기도 그 영향이 반영된 한 예이다. 이성계사리기에서 특이한 점은, 라마탑형 사

리기가 팔각탑형 사리기 안에 봉안된 것이다. 이는 당시의 봉안 방식인 팔각탑형 사리기가 라마탑형 사리기 안에 봉안되는 관행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은제도금사리탑의 명문은 연화형 대좌 위의 은판 표면에 새겨졌다. 명문은 ‘奮忠定難匡復變理佐命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守門下侍中李成桂 三韓國大夫人康氏 勿其氏’라고 적혀 있는데, 이성계와 둘째 부인 강씨가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여기서 1389년 공양왕 즉위 후 받은 門下侍中이라는 이성계의 직위가 명기된 점으로 보아 이 사리탑의 제작시기 역시 1389년 이후임을 알 수 있다.

은제사리감의 원당 8면에는 각 면에 불입상이 8구 장식되었다. 특히 은제사리감 뚜껑의 기와는 2단으로 되어 있어 고려시대 사리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청동완의 구연부 외면에는 명문이 있는데 ‘洪武二十四年辛未二月日’이라는 사리함의 조성일자로 추정되는 홍무24년(1391)과 시주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백자발 2점에서는 명문을 통해 사상적 배경, 시주와 발원자, 날짜, 봉안 지명, 제작과 관련된 지명과 사기장 등 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백자발 1점의 명문을 보면, 풍만한 발의 동체 외면에는 위에서 아래로 음각명문이 종서(縱書)되었다. 그 명문에는 ‘大明洪武二十四辛未四月日’, ‘松軒侍中’, ‘月菴’ 등이 명시되어 홍무 24년 신미 4월(1391. 4)에 송현시중 이성계와 월암이 발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彌勒’, ‘三會’ 등은 彌勒下生 신앙과 관련된 불교적 사상도 여실히 표출되어 있다.

다른 백자발 1점에는 내외면에 모두 음각 명문이 있다. 먼저 내면의 명문은 내측면 위에서 아래로 명문이 종서되어 앞에 소개한 백자발과 같은 형식이다. 명문 내용 중에 핵심은 ‘大明洪武二十四辛未五月日’, ‘李成桂’, ‘康氏’ 등인데, 발원자인 이성계와 부인 신덕왕후(神德王后, ? ~1396) 강씨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또 홍무24년 신미5월 즉, 1391년 5월이라는 날짜이다. 이는 외면 굽 주위의 명문인 ‘辛未四月日’에서의 4월보다 한 달 늦은 5월로 적시되었다. 그리고 굽 주위의 ‘辛未四月日 方(防?)山 砂器匠 沈龍’이라는 명문은 학계의 논점이 되고 있다. 여기서 ‘방산’이라는 지역과 사기장인으로서 ‘심룡’이라는 이름을 적시했는데, 논점은 지역에 대한 것이다. 즉 양구 방산(方山)이라는 주장과 양구 방산이 아닌 다른 지역인 방산(防山)이라는 또 다른 견해가 있다.

○ 문헌자료

『高麗史節要』 권 34 공양왕.

정양모, 「冠岳山 高麗窯址」, 『韓國의 陶磁器』(문예출판사, 1991).

주경미, 「李成桂 發願 佛舍利莊嚴具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257(한국미술사학회, 2008), pp. 31-65.

진홍섭, 『한국금속공예』 (일지사, 1980).

최응천·김연수, 『한국미의 재발견』 8(솔, 2004).

□

○ 현 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성계발원사리기는 조선 태조가 왕이 되기 1년 전인 侍中이었을 때, 守護僧이었던 月菴과 부인 강씨, 萬人이 함께 미륵이 하생하기를 염원하며 불사리를 봉안, 금강산 비래봉에 講藏한 것이다.^(도1)

1932년에 방화선 공사 중 금강산 월출봉의 한 석함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당시 중앙일보에 “金剛山月出峯에서 五百年前納骨器發見(佛舍利等稀貴한 考古品發見 충독부박물관서 연구중)”이라는 題下에 소개되었고,²⁸⁾ 1933년7월에 본관품으로 등록되었다.²⁹⁾ 사리구는 총 10점으로 유물번호는 <본관 13072~13080> 이다. 백자외합 안에 유기합, 은제도금팔각사리감, 은제도금팔각당형사리감, 은제도금사리탑, 유리사리병이 순서대로 內藏되었던 사리구세트와 백자발, 백자와와 은제귀이개 모양 손가락이다. 이 유물들 중 백자외합 내면과 백자발 외면, 유기완 구연부, 은제도금팔각사리감 내 은제팔각통형, 은제도금라마탑형사리기 내 은제원통형에 발원자와 誓願內容, 제작장인 등 조성경위를 알려주는 <金剛山毘盧峯舍利安遊記>를 비롯한 명문이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발원자는 이성계와 월암, 강씨 등으로 조선왕조 개국을 앞둔 1390년과 1391년에 이성계가 건국의 염원을 담아 금강산 월출봉에 묻은 것이다.³⁰⁾ 14세기의 금강산은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 및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 (보물 1887호)나 원 황실이 주도했던 長安寺佛事 (1346) 사례에서 보았듯이 고려나 원에서 靈山으로 여겨졌던 곳이었다.

이성계 발원 사리구 중 금속사리기는 指空大師 사리기로 추정되는 은제도금탑형사리구와 함께 티베트 라마불교 양식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 배경은 원 황실에서 신봉되었던 티베트 라마불교(藏傳密敎)가 고려에 유입되어 13세기~14세기 불교미술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高麗史』 제72권~33권에는 충렬왕~충선왕대인 1271년~131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蕃僧이 직접 오거나 轉藏經, 번승으로부터 왕과 왕비가 受戒를 받은 기록이 실려 있는데, 실제로는 기록보다 더 많이 왔으리라 생각된다.³¹⁾ 백자사리기는 紀年銘 고려백자라는 점과 조선백자

28) 『중앙일보』 1932년 12월13일자 2면.

29) 주경미, 「李成桂 發願 佛舍利莊嚴具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257, 2008.3, p.33의 주4 재 인용.

30) 월출봉은 내금강 비로봉 구역의 봉우리 중 하나이다.

31) 안귀숙, 「高麗時代 金屬工藝의 對中 交涉」, 『高麗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4, p.161의 주17 재인용.

로의 이행과정을 보여주는 “方山 砂器匠 沈龍”이 만들었다는 명문이 있는 백자발은 강원도 양구 방산요의 운영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내용 및 특징

1) 은제도금팔각당형사리감(본관 13073)

높이 19.8cm 크기의 이 사리감은 1390년 3월에 제작된 것이다. 형태는 二段 지방아래 팔각 몸체, 연화형 대좌의 3부분으로 구성된 殿閣形으로 내부는 받침 위에 은제팔각통형을 세워 그 안에 은제도금사리탑을 봉안한 것이다.(도2) 이런 구조는 고려 14세기에 유행했던 형식인데, 수종사 부도 발견 은제도금육각사리감이나 영전사지 보제존자부도 발견 은제도금육각사리감, 선암사 동삼층석탑 발견 은제도금육각사리탑과 같은 것이다. [참고자료1] 육각, 팔각 같은 多角 殿閣形 사리기는 도리사 세존사리탑 금동사리기(국보 208호)처럼 9세기~고려시대에 유행한 형식이다. 보제존자 사리감이나 선암사 사리감의 窓戶文은 송-고려에서 유행한 문양이지만, 4개의 유물에 공통된 밑집 양련과 복련으로 구성된 대좌형식은 라마불교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전통형식에 라마양식이 첨가된 셈이다.

전체적으로 부분도금을 입힌 이 사리감은 직사각형 은판을 접어 팔각을 만들고 한 면의 중앙을 뺀 것이다. 표면에는 기둥과 밑면에 이중윤곽선을 두르고 그 안에 두 발을 外八字로 각각 연화송이 위에 서서 정면관의 합장한 8구의 佛立像을 모셨는데, 한 구는 접합면에 모셔져 불신에 접합선이 드러난다. 尊像의 動勢나 흘날리듯 벌어진 대의의 의습선을 마치 그리듯이 釘으로 쳐내려가 유려한 선으로 표현했다. 불상의 나발은 방울정을 써서 어자문으로 처리했으며, 二重 頭光 線은 중앙에서 4개의 원을 만들고 좌우로 벌어져 꽃모양 瑞雲을 연출했다.

참고자료 1. 殿閣形 舍利龕 구조 비교



①



②



③



④

- ①이성계발원 銀製鍍金八角堂形舍利龕, 고려 1390년, 국립중앙박물관
- ②수종사 부도 발견 銀製鍍金六角舍利龕, 고려 14세기, 보물 제259호, 높이 17.3cm, 불교중앙박물관
- ③영전사지 普濟尊者浮屠 발견 銀製鍍金六角舍利龕, 고려 1388년, 높이 4.5cm, 국립춘천박물관
- ④선암사 동삼층석탑 발견 銀製鍍金六角舍利龕, 고려 14세기, 보물 제955호, 높이 6.2cm, 선암사 성보박물관

이렇듯 四方佛이 아닌 여러 구의 합장불입상을 모신 예는 遼 興宗이 조성한 내몽고 경주백탑(1049) 출토 목조법사리탑에서도 볼 수 있는데³²⁾ 탑신에 모두 7구의 합장한 過去七佛이 둘러서 있는 모습이다.(도3) 이성계 발원 사리감에 조각

32) 中國歷史博物館·內蒙古自治州文化廳, 『契丹王朝』, 中國藏學出版社, 2002, p.327의 도판 및 정은우, 「高麗後期 喇嘛塔型 舍利具 研究」, 『東岳美術史學』, pp.303~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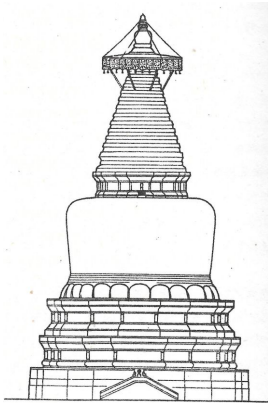
된 이 8구의 부처는 과거칠불과 미래불인 미륵불을 포함한 것으로 미륵하생신앙에 따라 조성했음을 표현한 것이지만 기실 그 미륵불은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하는 이성계 자신을 암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형대좌는 양련·복련의 이중연화문이 타출기법으로 장식되었으며 현재 표면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나 있다.(도4) 대좌의 안쪽 면을 보면 ‘양련과 복련이 2개씩 세트로 조각’된 모양인데, 이는 제작 시 壓出用 특수한 釘 또는 도구를 만들어서 찍어가며 연결한 흔적이어서 금속공예기법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도7) 내부 장치인 은제도금팔각통형은 직사각형 은판을 팔각으로 접어 접합면의 상하에 작은 [ㄱ]모양으로 이음새를 땀해서 일자형보다 견고하게 제작했다.(도5) 표면에는 月菴과 시주자들이 경오년 3월일에 사리탑을 조성하여 봉안한다는 발원문이 從書와 橫書로 음각되었는데, 월암은 이성계의 잠저 때 보호승으로 태조의 御眞을 받아 쌍봉사에 간수했었던 인물이다.³³⁾ 명문 중 “造羅得富 李氏奴龍 朴子靑”이라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리감은 나득부, 이노룡, 박자청이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명문목록 참조] 지붕은 타출기법으로 이중옥개석을 표현했는데, 불룩한 기와줄 표면에 3번씩 홈을 주어 마디를 표현, 사실성을 더하였고, 頂上에는 연판 끝이 살짝 제껴진 모양의 입체적인 연화송이를 조금했다.(도6) 끝이 제껴진 사실적인 연판은 대좌에서도 잘 드러나며, 상술했듯이 특수한 도구로 찍고, 다시 平釘으로 다듬었을 것이다.(도7)

②은제도금라마탑형사리기(본관 13072)

높이 15.5cm크기의 이 사리기는 전형적인 라마탑 모양의 사리기로 은제도금팔각당형사리감 안에 봉안된 것이다. 형태는 복발형 사리탑신과 상·중·하대를 갖춘 연화대좌, 내부에 사리병 보호막으로 쓰인 원통형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안에 긴 원통형 사리병이 봉안되었다.(도8) 이 라마탑형 사리기는 옛 경기도 장단의 華藏寺 指空大師浮屠塔(1370년경)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스턴뮤지엄 소장 은제도금라마탑형사리기와 함께 고려 14세기의 대표적인 타출공예품이자 대외교섭사적 의의가 있는 유물임은 周知의 사실이다.(도9) 그런데 라마식 복발탑형이라고 하지만 다소 다른 점이 있다. 즉 크게 보아 2가지 유형으로 하나는 廣肩形 탑신에 13天을 표현한 상륜부 위에 華蓋가 있는 것과 다른 하나는 球形 탑신 견부에 복련이 있으며 상륜부에 화개가 없는 것이다. 리움소장 금동탑형사리구나 보스턴뮤지엄 소장 은제도금탑형사리구는 전자에 속하고, 이성계 발원 사리구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수정보탑형사리구 등은 후자에 속한다.[참고자료2]

33) 『世宗實錄』 18권, 세종 4년 10월 25일 己酉, “上聞僧月菴曾受太祖眞, 藏於黃海道 江陰縣 雙鳳寺, 遣宦官趙珠奉來, 藏諸尙衣院. 月菴乃太祖潛邸時所護僧也.”.

참고자료 2. 喇嘛式 伏鉢塔과 사리구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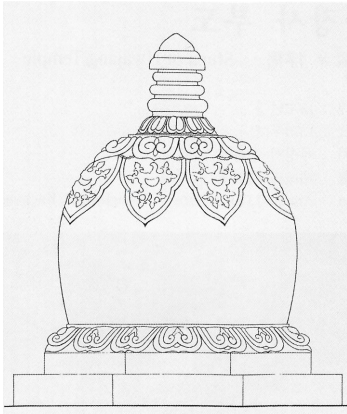
③



④

[廣肩形 탑신, 華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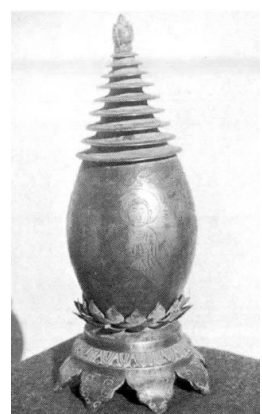
- ① 북경 妙應寺 白塔, 元 1279년, 네팔 장인 阿尼哥 作
- ② 청동탑(風磨銅), 공주 麻谷寺 오층석탑 상륜부, 고려 13~14세기
- ③ 금동탑형사리구, 고려 14세기, 높이 9.3cm, 저경 5.0cm, 강원도 금강산 출토, 리움미술관
- ④ 은제도금탑형사리구, 花藏寺 指空대사 부도 출토 추정, 고려 14세기, 높이 22.2cm, 저경 12.1cm, 보스톤미술관



⑤



⑥



⑧

[球形 탑신, 華蓋 없음]

- ⑤ 華藏寺 指空定慧靈照 부도, 1370년 경, 높이 194cm, 개성직할시 용흥동
- ⑥ 수정보탑형사리구, 14세기, 높이 4.5cm, 영남대
- ⑦ 수정보탑형사리구, 14세기, 높이 5.8cm, 국립중앙박물관
- ⑨ 은제보탑형사리구, 1310년, 높이 24.5cm, 造人 李寄, 舊 朴鍾和(소재불명)

부분도금한 사리구의 표면에는 4구의 정면관을 한 합장보살상이 연화송이 위에 외팔자 모양으로 서있는 모습을 굽은 선으로 조각하였고, 건부에는 입체적인 복련대가 둘러져 있으며, 상륜부는 4개의 납작한 원반형으로 구성되었다.(도10)

내부장치인 은제원통형 역시 관재를 맡아 일자형 접합선 상하에 작은 [그]모양

의 이음새를 두어 제작하였으나 현재 벌어진 상태이다. 표면에는 從書로 “奮忠定難 匡復變理 佐命功臣 壁上三韓 三重大匡 守門下侍中 李成桂 三韓國大 夫人康氏 勿其氏”라 명문이 음각되어있어 이성계와 부인 강씨, 물기씨가 발원자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제작년대는 없지만 아마도 1390년에 사리감을 조성할 때 같이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도11) [표1. 명문]

대좌는 상대를 은판을 올려 만든 3장의 16葉 연화문판을 겹쳐서 양련을 만들고 하대에 연결한 것으로 중앙에는 리베팅으로 고정시키고(현재 구멍만 남음) 주변은 3개의 가는 은판선을 끼우고 접어서 고정시켰다. 대좌 하부는 좁은 중대를 두고 하대는 타출기법으로 만든 2단 양련문과 여의두형 다리로 표현했다.(도12, 13)

유리사리병은 가늘고 긴 원통형으로 이중복련문 받침과 연잎모양 뚜껑으로 구성되었으며, 타출기법으로 제작한 후 도금한 것이다.(도14, 15, 16)

③은제이소(본관 13074)

길이 15.5cm 크기의 은제이소는 銀塊를 젓가락처럼 단조해서 끝을 움푹한 작은 半球로 만든 귀개모양 손가락으로 사리를 奉安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도17) 이렇듯 사리장엄구에 작은 손가락이 공반출토된 예는 감은사지 서삼층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들 수 있겠다.³⁴⁾

④유기완(본관 13075)

높이 11.9cm, 구경 16.5cm 크기의 이 완은 구연부가 안쪽으로 약간 오므라든 盂食器 형태로 유리사리병→은제도금라마탑형사리기→은제도금팔각당형사리감→순으로 감싼 사리구를 봉안해서 백자사리합 안에 넣었던 외함의 하나이다.

유기 本色이 뚜렷한 이 완은 통칭해서 청동완이라 불려왔지만 동78%에 주석 22%를 합금한 방짜유기이다.³⁵⁾ (도18) 표면과 바닥에 메질흔적과 가질한 흔적이 남아있다. 口緣을 따라 橫書로 “洪武二十四年 辛未二月日造 次舍利盒 施主信堅妙明朴龍”이라 點刻되어 있어 은제도금사리구들을 만든 이듬해인 1391년에 백자사리구를 만들면서 次舍利盒으로 제작한 기년명 방자유기이다.(도19)

34) 『불사리장엄』, 국립중앙박물관, 1991, p.23 도판 .

35) 동과 주석의 합금비율이 1%라도 가감이 되면 메질할 때 깨지므로 방짜로 제작하기 힘들다. 주경미, 앞 논문 p.48에서도 방자유기로 보고 있다.

⑤백자발-1(본관 13076)

높이 19.5cm 크기의 이 백자발은 구연부가 안으로 오므라든 사리외함으로 태토에 철분이 많은 듯 반점이 있고, 기저부는 露胎상태이며 내부는 無施釉 상태이다. 유색은 윗부분이 影靑磁처럼 맑은 하늘색이 감돌지만 기복부 하단에는 황색 빛을 띄고 있어 유색이 고르지 않은 편이다.(도20) 표면에는 횡서로 “大明洪武二十四年辛未 四月日立願 同願砂合 造此答 自釋迦如來 入滅徑二千餘 年大明洪武 隱月菴 松軒侍中 余萬人 同發誓願 謀藏金剛山 直待彌勒世 不遠三會時 重開瞻佛 此願堅固 佛祖證明”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즉 1391년 4월에 원을 세워 석가여래 입멸 후 2000여년이 지나 월암과 송헌시중이 萬人과 함께 멀지않은 때에 미륵이 하생하여 龍華三會를 열기를 기대하며 사리를 금강산에 謀藏하니 이 건고한 서원은 佛祖께서 증명하시리라라는 내용이다. 월암과 함께 서원한 松軒侍中은 『태조실록』을 보면 태조의 잠저 때 호이다.³⁶⁾

⑥백자발-2(본관 13078)

높이 17.5cm 크기의 이 백자발은 유기완과 은제사리구가 내장되었던 것이다. 구연부는 일부 파손된 상태이며, 태토에 철분이나 잡물로인해 검은 반점이 많고 유약이 묻쳐서 하늘빛 발색을 보이는 부분도 있고, 기저부는 거의 露胎 상태여서 황색빛이 난다.(도21) 표면에는 물레질 한 흔적이 두들두들하게 남아 있어 초벌 후 표면을 깨끗이 깎지 않은 것 같다. 내면에는 縱書로 <金剛山毘盧峯舍利安遊記> 라는 조성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석존 입멸 후 이천사백 여년이 지난 1391년 5월에 月菴과 지금의 侍中 이성계와 만인이 함께 發誓願하여 금강산에 묻고, 미륵삼회 때 이를 보여주고 진실한 법회를 여는 것을 도우셔서 불도를 이루기를 기원하니 이 원의 건고함은 불조께서 증명하시리라”는 내용이다. 동참한 시주자는 이성계의 부인 삼한국대부인 강씨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郡婦人, 수많은 사람들이다. 특히 이 백자발의 굽 주위에 “辛未四月日方山砂器匠沈龍同發願比丘信寬”이라 음각되어 있어 1391년 4월에 신관비구가 발원하여 方山 사기장 심룡이 제작하였음을 전해준다.(도22)[표1. 명문] 방산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에 있었던 방산요로 『세종실록』, 「지리지」에 강원도 양구현 방산에 磁器所가 있고 중품이라 기록되어 있을 뿐 실체를 알 수 없었으나 근래에 발굴, 고려말~조선백자와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다.³⁷⁾ 이 백자발-2는 제작년대와 제작장인이 알려진 경질백자 중 가장 이른 예일 뿐 아니라 사리장엄구로 쓰인 백자로도 가장 이른 기년명

36) 『太祖實錄』 13권, 태조7년 2월4일 條, “上號松軒居士. 上謂左承旨李文和曰, 予聞前朝忠肅王稱居士, 致書體川君 權漢功. 予亦欲於奉化伯, 稱居士致書, 何以爲號. 文和對曰, 上之潛龍時軒號何如 上曰可. 遂以松軒爲號.”

37) 『世宗實錄』 153권, 「地理志」, <江原道 春川都護府>, 楊口縣 조 “磁器所二, 一在縣北乾川, 一在方山東長平. 【皆中品】 陶器所一, 在縣北貯乙里 【品下】”.

백자로 인정되고 있다. 방산요는 14세기에 왜구의 빈번한 침입으로 전라도 해안가가 피해를 입어 도자장인들이 내륙으로 이동, 정착해서 생산한 것으로 보며, 14~15세기 가마인 송현리 5호 요지에서 “恭安府”명 백자접시편과 “禮賓寺”명 백자접시편이 출토되어 공납자기를 생산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³⁸⁾

⑦백자발-3(본관 13077)

높이 13.6cm 크기의 백자발로 앞의 2점처럼 태토에 철분과 잡물이 많아 표면에 검은 반점들이 보인다. 유색은 영청자 빛이 도는 맑은 백색으로 기저부는 로태 상태이며, 이런 施釉法은 중국 도자의 특징이다.(도23)

⑧백자완(본관 13079)

높이 9.8cm 크기의 백자완은 군데군데 유약이 뭉쳐 흘러내린 하늘색 淚痕이 보이고 기벽일부에 로태 부분이 있다. 내면은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구연 아래에 1줄의 음각선이 있다.(도24)

⑨백자향로(본관 13080)

높이 12.3cm의 작은 향로로 爐身은 고려시대 향완 모양이며 좁은 전과 좁고 다소 높은 굽이 달려있다. 표면에는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었으나 내면 기벽에 공기가 남아 여러 개의 부풀은 부분이 있다.(도25)

이상의 백자 5점은 방산요에서 제작한 것으로 전라도의 청자 장인들이 내지로 이동하면서 백자태토가 많은 강원도 양구현에 정착, 생산해 낸 백자로 태토에 철분과 잡물이 많아 표면에 반점들이 보여 양질은 아니다. 유색을 보면 전형적인 고려 백자색과 다르고 원대 樞府白磁의 영향을 받은 백자계열도 아니나, 고려백자에서 조선백자로 이어지는 과도적인 경질백자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佛舍利莊嚴』, 국립중앙박물관, 1991
宿 白, 『藏傳佛教寺院考古』, 文物出版社, 1996, p.322
안귀숙, 「高麗時代 金屬工藝의 對中 交涉」, 『고려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4, pp.153~192
張馭寰, 『中國塔』, 山西人民出版社, 2000, pp.109~113
정두섭, 「여말선초 양구지역 백자요지 성립에 관한 연구」, 『강원사학』 제24·25 합집, pp.155~185- pp.160~163
정은우, 「高麗後期 喇嘛塔型 舍利具 研究」, 『東岳美術史學』, pp.303~323
조선총독부, 『朝鮮古蹟圖譜』 6권, pp.781~783

38) 정두섭, 「여말선초 양구지역 백자요지 성립에 관한 연구」, 『강원사학』 제24·25 합집, pp.155~174.

주경미, 「李成桂 發願 佛舍利莊嚴具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257, 2008.3, pp.31~65
中國歷史博物館· 內蒙古自治州文化廳, 『契丹王朝』, 中國藏學出版社, 2002, pp.326~329

『중앙일보』 1932년 12월13일자

秦弘燮, 「高麗時代의 舍利莊嚴具」 『考古美術』 180, 1988,

진홍섭, 「高麗後期 金銅佛像에 나타나는 라마佛像樣式」, 『美術史學研究』, 1985.9, pp.1~25

蔡雄錫, 「여말선초 향촌사회의 변화와 埋香활동」, 『歷史學報』 173, 2002.3, pp.95~125, p.110

『황금의 美』, 호암미술관, 2001, pp.44~45

황수영, 「高麗 在銘 舍利塔」, 『考古美術』 통권 19·20, 1962, 2, 3, pp.218~219

[도판]



도1. 이성계발원 사리장엄구, 고려 1390~1391년, 국립중앙박물관



도2. 銀製鍍金八角堂形舍利龕,
고려1390년
(표면: 합掌한 佛立像 8軀)



도3. 貼金木造七佛法舍利塔, 遼 1049년,
내몽고경주백탑 출토



도4.
銀製鍍金八角堂形舍利龕의
대좌(뒤집어 사용했음)



도5. 銀製鍍金八角堂形舍利龕 안의
은제팔각통형
(명문: 庚午三月日「造成舍利」)



도6. 銀製鍍金八角堂形舍利龕의 頂部 蓮花표현



도7. 대좌 양련 표현, 타출기법



도8. 銀製鍍金喇嘛塔形舍利器 및 원통형사리병



도9. 은제도금라마탑형사리기, 고려 14세기, 보스톤뮤지움



도10. 銀製鍍金喇嘛塔形舍利器의 상륜부



도11. 銀製鍍金八角堂形舍利龕 안의 은제원통형
은제원통형
(명문:李成桂「三韓國大」夫人康氏)



도12. 銀製鍍金喇嘛塔形舍利器의 대좌



도13. 대좌의 안쪽 결구방식



도14. 유리사리병의 대좌



도15. 유리사리병 대좌 뒷면



도16. 유리사리병의 뚜껑



도17. 은제귀이개형 순가락



도18. 鍮器碗



도19. 유기완의 점각명문(二月日造次舍利盒)



도20. 백자발-1, 고려 1391년



도21. 백자발-2, 1391년 4월 제작
(굽에 방산 사기장 심룡)



도22. 백자발-2의 내부에
명문(金剛山毘盧峯舍利安遊記)



도23. 백자발-3



도24. 백자완



도25. 백자향로

□

○ 현 상

1. 은제도금탑형사리기는 전체적으로 표면에 녹이 있다. 대좌와 유리제 원통형 사리용기의 일부분이 파손되고, 연화대 일부가 박락되거나, 원판 상륜부가 휘었다. 여래상이 조각된 탑신 한 면은 심하게 균열이 있다. 특히 대좌 바닥은 구멍이 여러 개 나 있어 부식이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 은제도금팔각당형사리기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몸체 내면의 일부에 녹이 있고 굽 부분 파손이 있다.

3. 은제귀후비개는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하나 약간 휘었고 녹이 있다.

4. 청동완은 몸체가 휘었고 녹이 있으며 구연부의 돌대 부분이 일부 파손되었다. 바닥에는 균열이 있다.

5. 백자 발 4점은 구연부가 결실된 것이 1점, 구연부와 몸체가 크게 결실된 것이 1점 있다. 대체로 태토와 유질이 고르지 못하며 유색이 회백색과 청백색을 띠고 유 표면에 잡물과 철분이 많으며 시유 상태가 불량하다. 소성 상태 또한 불완전하고 굽 바닥에 균열이 있다.

6. 백자향로는 구연부가 파손되었고 소성 불량으로 유색이 고르지 못하다.

○ 내용 및 특징

1. 은제도금탑형사리기는 라마탑 형식으로 연화대좌, 상하 은도금을 한 좌대와 뚜껑을 지닌 유리제 사리용기, 탑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화대좌는 복련, 앙련, 안상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대좌 위 은제 통에 “수문하시중 이성계, 삼한국 대부인 강씨” 등의 명문이 새겨져 있어 당시 이성계와 둘째 부인 강씨가 하사받은 위호를 알 수 있다. 유리제 원통 사리기는 이중 은판 연화좌 위에 원통형 유리기가 안치되어있고 그 위에 뚜껑이 덮혀있다. 탑신은 라마탑 형식으로 4단의 원판 상륜과 보주가 있으며 어깨에 연판을 조각하고 그 아래 사방에 윤곽선을 길게 판 여래상을 조각하였다. 여래상 사이로는 길게 늘어진 영락문이 조각되었다. 도금과 음각, 축조 등의 금속공예 조각 기법 등 당시 공예기술을 가늠할 수 있다.

2. 은제도금팔각당형사리기는 은제도금탑형사리기를 넣을 수 있는 팔각 원당형 사리감으로 팔각보주형 지붕, 여래상을 새긴 팔면 몸체, 복련과 앙련이 조각된 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붕은 정상에 연꽃이 조각되어 있으며 지붕은 정교하게 조각된 기와와 기왓골이 2단으로 구성되었다. 팔각의 은제 통은 당초문과 기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두광을 지닌 합장한 정면관의 여래상이 조각되었다. “경오삼월일조성사리” 등 1390년을 나타내는 명문이 팔각 은제 통에 음각되어있어

제작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3. 은제귀후비개는 납작하고 긴 편으로 끝 부분은 가늘고 뾰족하다. 축조와 어자문기법 등 정교한 금속공예 시문기법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4. 청동완은 사발의 형태로 구연부에 돌대를 돌렸고 구연부 외측면에 “홍무이십사년”의 명문을 쪼아 새겨 넣어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다.

5. 백자 발 4점은 구연부가 직립한 2점(A, B)과 외반한 2점(C, D)로 사리기보다는 다른 백자향로와 함께 향과 관련된 용도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연부가 직립한 두 점의 백자 발에서 명문이 발견되었다. 이 중 상태가 양호한 한 점(A)은 내부에 시유가 되어 있지 않으며 외측면과 굽 부분에 “홍무이십사년” 등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제작연대를 알 수 있다. 구연부와 몸체가 파손된 다른 한 점(B)의 내면에는 “금강산비로봉사리안유기, 홍무 이십사년, 이성계 만인동발서원” 등의 제작 연대와 미륵신앙 관련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또한 발의(B) 굽 부분에는 “신미사월일 방산사기장 심룡 동발원비구 심관”이라고 음각되어 있어 백자의 제작자가 방산 사기장 심룡이고 승려 심관이 발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방산은 백자 원료로 유명한 강원도 양구의 방산을 가리키며 심룡은 1395년 문헌인 <이원길개국원종공신록권>에 “전낭장 심룡”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단순한 장인 이상으로 여겨진다. 4점 모두 문양은 없으며 회백색(A, B)과 연한 청백색(C, D)을 띤 고려백자의 마지막 모습을 잘 보여준다.

6. 백자향로는 구연부가 넓게 외반된 완 형태의 향로로 몸체는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고 있다. 문양이 없으며 고려시대 제작된 향로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 문헌자료

『국립춘천박물관』 2002.

주경미, 「이성계발원 불사리장엄구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57, 2008.

○ 기 타

1932년 강원도 금강산 월출봉에서 출토된 석함에서 발견.



○ 내용 및 특징

조선 왕조 개국 직전 당대의 권력자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僧俗의 발원으로 조성한 사리기이다. 이 사리장엄구는 1932년 6월 방화선 공사 도중에 금강산 월출봉의 석함 안에서 발견되었다. 사리장엄구의 명문 중에는 ‘金鋼山 毘盧峰 舍利

安遊記'라는 내용이 있지만, 발굴 장소는 이와 달리 월출봉인 점은 매납 장소와 상관없이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의 상징성이 강조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발견 당시의 조사보고서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봉안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들은 1932년 12월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신인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졌으며, 1922년 7월 본관품으로 등록되었다. 현재 사리장엄구는 모두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질별로 분류하면 銀器 3점, 銅器 1점, 백자기 5점, 유리제 1점이며, 용도별로 분류하면 백자발과 뚜껑, 백자향합(추정), 백자향로, 청동완, 은제팔각당형 사리기, 은제라마탑형 사리기, 유리제사리병, 은제 귀이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자발에 적어놓은 '金剛山 毘盧峯 舍利 安遊記'에 따르면, 1391년 5월에 月菴과 侍中 이성계, 그리고 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발원하여 來世에 彌勒佛을 만나 佛道를 이루기를 발원하고 있다. 이는 고려 말 유행한 미륵신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사리장엄구 중에 향로와 향합이 포함된 점과 사리장엄구를 사리탑에 봉안하지 않고 땅속에 매납한 점 등을 통해서 볼 때, 이곳에 적용된 사리장엄 의식은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 유행한 미륵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매향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는 4종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깥쪽부터 백자발→청동발→은제도금 팔각당형 사리기→금동 라마탑형 사리기→사리병의 순으로 사리장엄구가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백자발



그림 2 백자발



그림 3 백자발 및 백자향로



그림 4 청동완



그림 5 은제도금팔각당형 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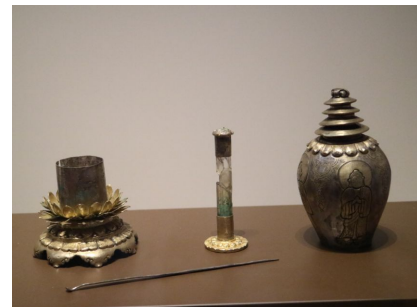


그림 6 은제도금라마탑형사리기 및 사리병, 귀이개

청동완은 백자발 안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굽이 없고 구연부에 한단의 턱을 마련하였으며,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배를 부풀렸다가 바닥면에서 등글린 형태이다. 내면과 외면에는 동심원으로 가질한 흔적이 남아 있어 방자유기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구연부 외면에는 점각으로 信堅, 妙明, 朴龍 등 세 명의 시주자 이름을 새겨 넣었다. 신견과 묘명은 1397년에 건립된 여주 신흥사 「普濟尊者石鐘碑」에 나오는 '上黨郡 李氏 妙明', '上洛郡 金氏 妙明', '香積堂 信堅' 등과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나옹의 문도들로 추정되고 있다.

‘팔각당형 금동사리기’은 지붕과 몸통,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다. 지붕은 기왓골이 세밀하게 표현된 겹처마로, 꼭대기에는 꽃잎을 겹쳐 올린 화형보주를 올려놓았다. 모두 한 장의 은판을 두들겨 만든 것으로 고도로 발달된 타출기법의 수준을 엿볼 수 있다. 팔각 탑신의 각 면에는 둥근 광배 갖추고 합장한 여래입상을 배치하였다. 광배의 윗부분에는 구름모양을 이루며 두 갈래로 흘러가는 瑞氣를 표현하였다. 여래입상은 복발형태의 높은 육계와 점문으로 표현된 나발로 표현되었으며, 이목구비는 부각시키지 않고 선각으로 처리하였다. 두 발은 팔자모양으로 벌려 연화좌를 딛고 섰다. 탑신의 하단에는 당초무늬를 선각으로 돌렸다. 별도로 만든 받침대는 양련의 연화문을 타출기법으로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탑신을 분리하면 연화 받침대 위에 팔각의 명문판을 세우고, 이곳에 세로쓰기로 조성연대와 시·발원자 명단을 적어 놓았으며, 못다 적은 인명은 상단 여백에 가로쓰기로 적어 넣었다.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 중 주목되는 사람은 衲子 月菴, 領三司事 洪永通, 同知密直 黃希釋, 朴子靑 등이다. 월암은 태조가 잠저 때에 보호하던 승려로 태조의 御眞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홍영통은 원래 문음으로 출세한 고려 말의 권문세가 중 한 명이며 우왕의 친인척이었으나 조선 초에도 개국공신으로 임명되어 계속 권세를 유지한 인물이다. 황희석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함께 했던 무인으로 회군공신으로 봉해졌던 인물이다. 박자청은 조선 초기의 유명한 건축 감역관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한편, 사리구는 탑신의 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금을 입혔는데, 이와 같은 도금기법은 역사 상 좀처럼 보기 드문 사례로 이 시기에 새롭게 유행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금동 라마탑형 사리구’는 연화대좌 위에 상륜을 갖춘 타원형의 탑신을 올려놓은 모습인데, 보스톤 미술관 소장 사리기와 長湍郡 화장사의 지공화상사리탑, 마곡사 오층석탑의 라마탑형 상륜부의 형태와 표면 장엄 방식이 유사하다. 사리구의 상륜은 원반모양을 4중으로 중첩하였는데, 현재는 약간 비스듬히 기울어진 상태이다. 상륜의 정상에는 보주를 올려놓았는데, 외피로 ‘+’자 형태로 보주를 감싼 모양이다. 이러한 모습은 신흥사 나옹화상 사리탑의 보주표현과 유사하다. 탑신

은 타원형으로, 어깨부분에는 도톰하게 살이 오른 연화문을 돌렸고, 연화문의 표면에는 가는 선으로 연맥을 새겨 넣었다. 탑신에는 사리외함과 같은 모습의 여래 입상 4구를 선각하였다. 불상과 불상 사이의 공간에는 꽃잎을 새겨 넣었는데, 중간지점에서 고사리모양의 머리를 맞댄 형태이다. 꽃무늬의 안쪽 면을 따라서는 點紋을 새겨 넣었다. 꽃무늬 끝에는 활짝 핀 연꽃과 영락 수식을 달아내어 장엄을 더하였다.



그림 7 마곡사 오층석탑 라마탑형 상륜부



그림 8 신록사 보제존자 사리탑

네 면에 새겨진 여래입상은 둥근 광배를 갖추고, 팔자모양으로 발을 벌려 연꽃 대좌를 밟고 서 있다. 큼직한 육계와 작은 점을 쿡쿡 찍어 나가듯 나발을 표현하였으며, 깃불에는 작고 동그란 구멍을 내었고, 발제선은 아치형으로 처리하였다. 이목구비는 선각으로 처리하였다. 통견의 대의를 착용하였으며, 두 손은 가슴에 모아 합장하였다. 특히 둥글고 큰 나발과 착의형태, 비례, 대의에 새겨 넣은 三寶文과 유사한 점문을 새겨 넣는 표현방식은 익산 심곡사 금동불상, 수종사 금동여래좌상 등 여말선초에 제작된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한다. 대좌는 여의두 모양의 족통과 운각이 새겨진 받침대 위에 연화문을 중첩하여 올린 둥근 연화대좌이며, 타출기법으로 제작하였다. 내부에는 은제 명문판을 둥글게 말아 세우고 그 속에 긴 대롱모양의 사리병을 安立한 것으로 보인다. 사리병은 낮은 연화문 받침대와 몸통, 그리고 연화문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통은 유리제로, 받침과 뚜껑은 은 도금으로 제작하였다. 은제 명문판에는 이 사리장엄구의 매납과 관련된 가장 주체적이고 핵심적인 인물인 李成桂와 그의 두 번째 부인인 康氏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부인인 韓氏의 이름은 이곳을 포함하여 사리장엄구 전체에서 찾아 볼 수 없는데, 아마 이 사리장엄구 제작과 매납 의식을 주도한 세력이 강비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추측케 한다. 또한 이곳에서는 1389년 공양왕의 옹립 이후에 받은 이성계의 직위인 ‘奮忠定難匡復變理佐命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守門下侍中’이 기록되어 있어 이 사리장엄구의 제작시기가 1389년 이후라

는 것도 알려준다.

有無銘의 백자발은 사리장엄구의 바깥 사리용기와 향함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안팎으로 명문을 새겨 넣은 백자발2는 팔각당형사리기의 명문과 백자발1의 명문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인데. 주목되는 것은 명문을 안쪽의 명문이 바깥쪽의 명문보다 1달 늦게 새겨진 것으로, 아마도 그릇을 만들고 유약을 입히기 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새긴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특히 굽 부분의 명문에는 ‘防山砂器匠 沈龍’이라는 도공의 이름이 등장하여 도자사에서 일찍이 주목해 왔으며, 방산은 현재의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금강산은 고려시대의 가장 유명한 불교성지 중 하나였다. 금강산이라는 명칭은 『화엄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는 일만이천의 권속을 거느린 담무갈보살이 이 산에 상주한다는 보살 住處 신앙을 반영한 것이다. 이미 고려 태조가 금강산 배재에서 담무갈보살을 친견하였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1307년에 노영이 그린 그림이 전하고 있다. 노영이 그린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는 금강산이 상징하고 있는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세상의 변혁을 꿈꾸는 정치가에게는 그러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명문

1. 은제도금라마형탑사리기의 명문

奮忠定難

匡復變理

佐命功臣

壁上三韓

三重大匡

守門下侍中

李成桂

三韓國大

夫人康氏

勿其氏

2. 은제도금팔각당형사리기(1390년)

庚午三月日

造成舍利

塔奉持

納子月菴

施主
加伊氏
安月
同知密直
黃希釋
朴氏福壽
樂浪郡夫人
妙禪
康澤
江陽郡夫人
李氏妙情
勝田寶德
樂安郡夫人
金氏

孝人希寬
□志 信南
造羅得富
李氏□龍
朴子青

領三司事 洪永通 貞順宅主 黃氏 興海郡夫人 裴氏釋碑

3. 청동완(1391년)

洪武二十四年辛未四月日造舍利盒施主信堅妙明朴竜

4. 백자발1(1391년)

大明洪武
二十四年辛未
四月日立願
同願砂合(?)
造此谷(?)
自釋迦如來

入滅徑二千余
年大明洪武
隱月菴與
松軒侍中
□余万人
同發誓願
謨藏金剛山
直待彌勒世
不建三會時
重開瞻禮佛
此願堅固
佛祖證明

5. 백자발 2(1391년)

기면 내축
金剛山毘盧峯舍利安遊記」
自釋尊入滅徑二千四百」
余年大明洪武二十四辛未」
五月日 月菴與今侍中」
李成桂万人同發誓願」
謨藏金剛山待」
彌勒出世奉以示人」
助揚眞化同成」
佛道此願堅固」
佛祖訂明」
辛未五月日誌」
同發願野納月菴」
同願施主門下侍中李成桂」
同願三韓國大夫人姜氏」
同願樂浪郡夫人金氏妙禪」
同願江陽郡夫人李氏妙清」
同願樂安郡夫人金氏」
同願興海郡夫人裴氏」
同發與數多□」

不緣待彌勒三會重□」

瞻禮同」

成正覺」

급주위(1391년)

辛未四月日防山砂器匠沈竜同發願比丘 信寬

○ 참고문헌

『佛舍利莊嚴』, 國立中央博物館, 1991

周昞美, 「李成桂 發願 佛舍利莊嚴具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257, 한국미술사학회, 2008

□

○ 현 상

1932년 금강산 월출봉에서 발견된 석함 속에 안치되었던 것으로 전하며 금속유물과 백자가 혼재된 일괄품이다. 유물은 총 10점인데, 금속유물은 은제도금라마탑형사리기, 은제도금팔각당형사리기, 은제귀이개, 청동발 등 4점이며, 백자는 백자발 4점과 백자향로 1점 등 5점, 유리제사리병 1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 유물의 내외면에 명문이 있어 제작시기와 시주자 및 제작자 등을 알 수 있다.

은제도금라마탑형사리기의 외면은 연화모양의 대좌 위에 타원형 몸체를 세우고 라마탑형 뚜껑을 덮은 모습이며, 내면에 원통형 은판을 세운 후 그 중앙에 금속과 유리로 제작된 세장한 용기를 두었다. 표면 곳곳에 부식이 있으며 대좌와 유리용기는 일부 파손되었다. 원판 상륜부가 휘거나 대좌 바닥에 부식된 구멍이 있다.

은제도금팔각당형사리기는 라마탑형사리기를 봉안하는 것으로 몸체와 뚜껑 및 받침 등 전체를 팔각형으로 만들었다. 받침과 몸체는 분리되지만, 몸체와 뚜껑은 일체형으로 제작하였다. 받침은 부식되어 바닥 중앙과 가장자리 곳곳이 탈락되었으며, 몸체와 뚜껑은 내면에 녹이 남아 있으나 상대적으로 상태는 양호하다.

은제귀이개는 가늘고 긴 귀이개 모양으로 길이가 긴 편이며, 끝부분으로 갈수록 더욱 폭이 좁아져 뾰족한 모양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청동발은 안바닥이 깊고 편평한 전형적인 형태의 금속제 발이다. 외면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바닥에는 작은 균열이 있다.

백자발은 모두 4점으로 이중에 2점은 안바닥이 깊고 주둥이의 너비가 몸체의 최대직경보다 약간 좁은 형태로 함께 출토된 청동발과 유사하다. 한 점은 주둥이

일부가 결실되었다. 다른 2점의 백자발은 안바닥이 깊지 않고 주둥이의 너비가 몸체보다 넓은 모양이지만, 각각의 깊이와 너비가 달라 전체의 모양은 차이가 있다.

백자향로는 안바닥이 깊고 몸체의 목이 좁은 원통모양으로 주둥이 가장자리가 직각으로 꺾여 밖으로 벌어진 전형적인 고려의 향로 모양이다. 백자는 태토에 잡물이 많고 거칠며 시유상태도 일부 고르지 못하다. 연회백색과 청백색을 띠며 유약의 시유와 용융상태도 일부 고르지 못하다. 일부 결손 및 파손이 있고 색깔이 고르지 못하며 재료, 제작과정, 형태, 질 등에서 약간 거칠다고 할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은제도금라마탑형사리기는 고려후기에 원나라 불교미술의 영향 속에서 제작된 대표적인 유물의 하나이다. 전체의 형태는 라마탑 형식인데, 연화대좌 위에 은제 원통, 그 속에 상하 가장자리를 금속으로 마무리한 유리제 사리용기, 그리고 외면의 몸체를 타원형의 탑신으로 구성한 독특한 구조이다. 몇 개의 단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연화대좌는 3중의 앙련, 2중의 복련, 부드러운 곡선으로 마감된 안상으로 꼼꼼하게 마감되었으며, 대좌의 위판과 아래 판은 세 곳에 핀으로 고정하였다. 대좌 위 은제원통 외면에 ‘奮忠定難匡復變理佐命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守門下侍中李成桂 三韓國大夫人康氏 勿其氏’라고 음각되어 이성계와 둘째 부인 강씨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탑신은 전형의 라마탑 형식으로 4단의 원판 상륜과 보주가 있고 몸체 외면에는 사방에 여래상을 장식하였다. 금속재료를 다양하게 다듬어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고 세부를 정교하게 장식하게 만드는 기술과 솜씨가 뛰어나며, 형태와 장식에서 당시의 전형적인 특징이 잘 드러난다. 또한 라마탑형사리기가 팔각당형사리기 안에 봉안되는 구조로 기존에 알려져 있는 다른 유물과는 차이가 있다.

은제도금팔각당형사리기는 라마탑형사리기를 넣는 사리감으로 앙련과 복련을 외면에 장식한 받침을 바닥에 두고 그 위에 팔각기둥모양으로 다듬어진 몸체, 몸체의 각 면을 따라 만들어진 팔각의 지붕을 쌓아올린 형태이다. 지붕의 중앙에 연꽃장식을 두었고 2단으로 구성된 지붕은 기와꼴을 정교하게 장식하여 사실적인 표현을 하였다. 몸체의 각 면에는 정면을 바라보며 합장한 채 서 있는 여래상이 음각되어 있으며 주변에 영락이 장식되어 있다.

청동발은 특별한 장식이 없지만 주둥이 가장자리 외면에는 가로로 길게 ‘洪武二十四年辛未二月日’이라는 명문이 점각되어 있어 제작시기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백자발의 용도는 정확하지 않으며, 2점에는 명문이 있고 다른 2점은 특별한 장

식이나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명문이 있는 백자발 중에 안쪽 면에 유약을 씌우지 않은 유물의 경우, 외면에 수직하게 음각한 명문을 두었는데, ‘大明洪武二十四辛未四月日’, ‘月菴’, ‘松軒侍中’ 등이 명시되어 1391년의 제작연대와 월암 및 송현시중 이성계가 발원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백자발에는 발원자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辛未四月日 防山 砂器匠沈龍 同發願比丘信寬’이라는 기록이 적혀 있어 이들 백자가 방산 사기장 심룡에 의하여 제작된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기록의 방산은 백자의 원료인 질 좋은 백토가 산출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현재의 강원도 양구 방산(方山)이라고 주장되기도 하지만, 양구가 아닌 다른 어떤 곳의 방산(防山)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한다. 명문을 통해 제작시기, 시주와 발원자, 지명, 제작과 관련된 사기장 등 유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황을 살펴볼 수 있어 연구자료로서도 중요하다. 명문이 없는 2점의 백자발과 향로는 유물에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지만 형태와 유색, 질 등 세부에서 고려시대 말기 백자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

○ 문헌자료

최응천·김연수, 『한국미의 재발견』 8(술, 2004).

주경미, 「李成桂 發願 佛舍利莊嚴具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257(한국미술사학회, 2008), pp. 31-65.

16.국새 황제지보(國璽 皇帝之寶)

가. 검토사항

‘국새 황제지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환수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
- 이와 관련,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환수문화재 ‘국새 황제지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14.8.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0.12) 후 2016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16.4.14) 검토에서 보류됨에 따라 인문인영, 관련문헌 기록 비교의 보완조사('16.5.9)를 실시하였음
- 이에 보완조사 실시 후 본위원회('16.6.9) 검토사항으로 부의되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조선왕조 어책·어보 및 관련 유물 지정 추진 전문가회의를 개최, 어보·국새 등의 용어를 비롯하여 관련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한 후, 본 위원회에 재검토' 라는 사유로 보류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국새 황제지보(國璽 皇帝之寶)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고궁박물관)
-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 수 량: 1과(顆)
- 규격(mm): 상세실측치 참고
- 누 양 식: 용(龍)
- 보 문: 황제지보(皇帝之寶)

- 재 질: 옥(玉)
- 제작연대: 1897년(광무 1)

라. 어보·국새 등의 용어를 비롯한 관련사항 검토 결과

‘황제지보(皇帝之寶)’, ‘유서지보(諭書之寶)’, ‘준명지보(濬明之寶)’ 지정 검토에서 제기된 어보·국새 등의 용어를 비롯한 관련 사항에 대한 조선왕조 어책·어보 및 관련 유물 지정 추진 전문가회의의 의견이 있었다. 어보의 지정범위와 시기를 조선왕조 종묘에 봉안된 1910년까지의 금보, 옥보 등 의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황제지보, 유서지보, 준명지보는 이들 어보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보완조사 종합의견(‘16.5.9)】

지정 대상 유물인 ‘황제지보(皇帝之寶)’에 대한 2차 조사는 보문인영 비교 및 실측치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황제지보(皇帝之寶)’의 보문 인영은 환수된 이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작하였고, 이 인영은 전시를 통하여도 공개된 바 있다.



자료 사진은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수록된 인영을 중심으로 ‘환수 이후 새로 찍은 인영’ 그리고 환수된 ‘황제지보’를 비교한 것이다.

3점 모두 필획이 고르고 균등하며, 기필·수필은 모두 원필로 처리하여 부드러운 특징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글자마다 대칭을 이루고,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는 전절 부분은 모두 안은 약간 모나면서도 밖은 둥글게 처리하여 부드러우면서 굳센 느낌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특히 ‘帝’자에서 2개의 곡선 세로획, ‘皇·之’자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차 조

금씩 안쪽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맛을 나타내고 있는 왼쪽 세로획, ‘寶’자에서 안에 있는 ‘王·缶’와 ‘貝’자를 피양(避讓)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는 조금 가늘고 아래는 굵게 처리한 2개의 긴 세로획 등은 인영과 환수 ‘황제지보’에서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황제지보’의 실측치는 『대례의궤』에서 밝힌 ‘예기척(禮器尺)’의 환산치와 비교하여 약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황제지보’의 제작에 사용된 척도는 ‘예기척(禮器尺)’으로 이 ‘예기척’의 사용은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기록을 통하여 확인된다.

예조(禮曹)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幣帛)의 제도를 상정하였다. 상언은 이러하였다. "「증자문(曾子問)」에 고하는 데에 생폐(牲幣)를 쓰는 것에 대한 주(註)에 이르기를, ‘폐백이 길이가 1장(丈) 8척(尺)이라.’ 하였고, 『두씨통전(杜氏通典)』에 또한 말하기를, ‘폐백은 증(繒)인데 1장 8척이라.’ 하였고, 『문헌통고(文獻通考)』 주문공(朱文公) 석전의(釋奠儀) 당(唐)·송(宋)의 제도에 모두 1장 8척을 썼고, 홍무 예제(洪武禮制)의 주현 사직의(州縣社稷儀)와 전조(前朝)의 상정례(詳定禮)에도 또한 예전 제도를 승습하여 무릇 신명에게 예(禮)하는 폐백은 모두 1장 8척을 썼고, 상제(上帝)에게 제사하는 데는 폐백을 창색(蒼色)으로 하고, 오제(五帝)에게는 각각 그 방위의 빛을 따르고, 선농(先農)에게는 청색(靑色)으로 하고, 선잠(先蠶)에게는 흑색(黑色)으로 하고, 그 나머지 신명에게 제사하는 폐백은 모두 백색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에서 쓰는 폐백이 예전 제도에 어긋나니, 그 빛과 길이를 한결같이 예전 제도에 의하고, 모두 주문공(朱文公)의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쓰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5일 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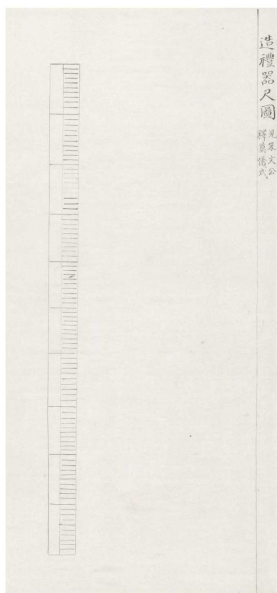
예조에서 아뢰기를,

"명부(命婦)의 인신(印信) 체제가 등급이 없으므로, 이제 주·부·군·현의 인신에 의하여 상정(詳定)하옵습니다. 1, 2품의 아내는 1등, 3품에서 6품까지의 아내는 2등, 6품 이하의 아내는 3등으로 하여, 1등의 인신은 방(方) 1촌 7푼, 2등의 인신은 방 1촌 4푼, 3등의 인신은 방 1촌으로 하였으며, 모두 조례 기척(造禮器尺)을 썼습니다. 위에서 아래로는 통용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위로는 참람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대소 관원의 안장[鞍子]이 차등이 없어서 저마다 사치를 숭상하여 물가가 오르면, 금후로는 안장을 신하는 대랑피(大狼皮)와 백어피(白魚皮) 안을 쓰지 못하게 하고, 집현전 부제학 이하는 구비아(龜飛兒)·청사피 수아(靑斜皮穗兒)·삼록칠침(三綠漆簪)·삼등자(鈹鎧子)·황동사건(黃銅事件)·삼사건(鈹事件)·수우 각변(水牛角邊)·청록 각야사(靑鹿角牙絲) 등을 쓰지 못하게 하여 높고 낮은 신분을 분별하고, 그 전에 만든 것은 유사로 하여금 기한을 정하고 표를 붙이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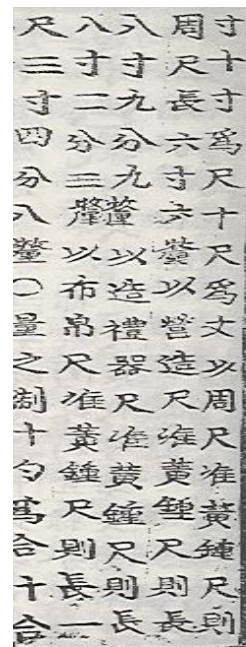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22일 갑술)

『태종실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예기척’은 주문공(朱文公) 석전의(釋奠儀)에 전통을 둔 것으로 조선 초기부터 사용되었다. 『세종실록』의 「오례(五禮)」/ 「길례(吉禮)」 서례(序例)에는 ‘조례기척도(造禮器尺)’가 남아 있는데, 이곳에 나온 ‘조례기척(造禮器尺)’은 『경국대전』 권6 공전(工典) 도량형(度量衡) 조의 기사를 참고하면 당시 사용되었던 ‘황종척(黃鐘尺)’에 비교하여 8寸 2分 3釐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환산하면 1尺=28.63cm가 된다.



『세종실록』 권128, 오례/ 길례 서례
조례기척도



『경국대전』 권6 공전 도량형

그런데 ‘황제지보’의 크기는 실제로 『경국대전』에서 밝힌 1尺=28.63cm를 적용하지 않았다. 곧 ‘황제지보’의 각부에서 가장 정확한 실측치를 보이는 보신(寶身)의 방(方)과 광(郭廣)의 길이를 참고할 때 ‘황제지보’는 1分=2.75(±0.01~0.1)mm, 1寸=27.5(±0.01~0.1)mm, 1尺=275(±0.01~0.1)mm 곧 27.50cm임이 확인된다.

조선 전기 표준척(尺)의 길이

척의 종류	경국대전	길이(cm)
황종척	1.000	약34.48cm
주척	0.606	약20.62cm
영조척	0.899	약30.80cm
예기척	0.823	약28.63cm
포백척	0.348	약46.66c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표준척」 <표1.조선전기 표준척의 길이> 재전재.

이를 참고하여 ‘황제지보’의 상세한 실측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황제지보 각부	예기척 (禮器尺)	환산치
		실측치
방(方)	3寸 4分	93.50mm
		95.20mm(+15.35)
		94.00mm(+0.50)
후(厚)	1寸 3分	35.75mm
		34.30mm(-1.45)
보뉴대(寶鈕臺) 방(方)	2寸	55.00mm
		71.82mm(+16.82)
		76.41mm(+21.41)
보뉴대(寶鈕臺) 후(厚)	3分	8.25mm
		6.36mm(-1.89)
보뉴(寶鈕) 장(長)	3寸 2分	88.00mm
		86.40mm(-1.60)
보뉴(寶鈕) 광(廣)	2寸 9分	79.75mm
		62.20mm(-17.55)
보뉴(寶鈕) 고(高)	2寸 1分	57.75mm
		42.42mm(-15.35)
각심(刻深)		
곽광(郭廣)	4分	11.40mm
		11.00mm(-0.40)
자경(字徑)/필 획굵기		46.19mm/4.80mm
총고(總高)		103.30mm
중량(重量)		1292.5g
* ‘황제지보’의 각부에서 가장 정확한 실측치를 보이는 곳은 보신(寶身)의 방(方)과 곽광(郭廣)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1分=2.75(±0.01~0.1)mm임이 확인된다.		

지정 대상 유물인 ‘황제지보(皇帝之寶)’의 실측치는 『대례의궤』의 ‘조례기척’과 비교할 때 적계는 약 0.40mm(郭廣), 뿔계는 21.41mm(寶鈕臺方)까지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는 금속처럼 모형을 만들어 주조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 옥을 깎아 들어가면서 형체를 조각해내는 옥 가공기술로 인하여 실제 실측치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곧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실측했는 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조사 개별의견(15.10.12)】

○ (지정 가치 있음)

<황제지보>는 교명(敎命)·교서(敎書)·교지(敎旨)에 사용한 국새이다. 황제국임을 천명한 대한제국 선포 이후부터 국새로 사용된 <황제지보>는 황제가 직접 관리를 임명할 때 내려주는 친임관칙지(親任官勅旨)에 국한하였다. 지정 대상 유물인 <황제지보>는 기존의 것들이 이미 유실된 상태에서 유일한 유물이고, 제작 연대와 유전 경로가 분명하며, 공예사적으로도 뛰어나면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龍鈕形 玉寶인 <황제지보>는 대한제국 선포 때 제작한 고종황제의 국새 9顆 중 1과로 황제가 직접 관료를 임명할 때 내려주는 임명장과 훈장서훈 사유를 적은 勳記에 찍는 인장이다. 『大禮儀軌』와 『寶印符信總數』에는 이 옥보의 크기와 인문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황제지보>는 조선이 자주국가인 대한제국이며, 고종은 황제임을 선포하고 이후의 모든 국가 행정문서와 궁중의례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어보 중의 하나이자 국새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점, 왕실 공예품으로서의 공예사적 가치가 있는 점, 국외 반출되었다가 60년 만에 환수된 의미 있는 유물로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는 점 등에서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

근대기에 덕수궁에 있던 조선왕실 어보 중 한국전쟁 때 미군에 의해 불법 반출된 9점을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2014. 04.25~26)시 갖고 와 60년 만에 환수되었다. 그중 지정 조사대상 유물인 3점의 국새는 고종이 1897년에 조선이 자주국임을 선포하며 제작한 <황제지보>와 1876년에 제작하여 관리 임명에 사용했던 <유서지보>, 1889년에 제작한 왕세자 교육담당 관청인 춘방의 <준명지보>이다. 유물들의 보존상태는 비록 제작시의 미세한 결락과 세월의 傷痕이 다소 보이나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이러한 황제지보, 유서지보, 준명지보는 제작시기 및 배경, 크기, 재료 등이 의궤와 문헌에 실려 있는 3점의 국새로서 역사성이 있으며, 왕실공예품으로서의 공예사적 의미와 조형성이 있고, 환수문화재라는 상징성까지 있다.

이 3점의 국새는 2009년 9월 2일에 보물 제1618호로 지정된 1903년 작 大韓帝國 高宗 「皇帝御璽」보다 제작시기도 앞서고 조형성도 뛰어날 뿐 아니라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이어서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 현재 어보는 300여점 이상 알려져 있으므로 문화재 지정번호와 명칭 문제가 대두된다. 이미 낱개로 지정된 보물 제1618호가 있지만, 전체 어보를 「어보」, 「국새」 같은 분류별 상위 명칭 하에 ‘고종 「황제지보」’ 등 각각의 인문 고유명칭과 번호가 바람직하다. 또는 숙종 때 일시에 많은 어보를 1897년 대한제국 황제 대례 때 제작한 국새를 일괄로 묶어 ‘광무원년 어보’로 하고 1점씩 가지번호로 하든가 향후의 지정까지 예측,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 대상 유물인 ‘황제지보(皇帝之寶)’는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 만들어진 10과의 국새 가운데 하나로 2014년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반환된 국새(國璽)와 어보(御寶) 9종 가운데 1점이다.

조선시대의 국새로 지정된 것은 현재 없으나, 지난 2009년 대한제국기의 「황제어새(皇帝御璽)」가 보물 제1618호로 지정되어 관련 유물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조선시대 왕명 문서에 찍었던 국새는 상당수 유실되었으나 이번에 환수된 황제지보(皇帝之寶)를 통하여 문헌에 기록된 ‘새보(璽寶)’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황제지보’는 다른 유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성(唯一性) 또한 제작 당시의 역사상을 살필 수 있고, 공예사적으로도 제작 연대가 뚜렷하여 다른 자료들과 상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유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보물 제1618호 부번으로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조선왕조(1392-1897)와 대한제국(1897-1910) 시기 국가에서 제작한 공인(公印)은 각종 국가의례에서 사용한 어보(御寶), 실제 어명을 내리는 데 사용한 인장인 국새(國璽), 각종 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용 인장인 관인(官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의례용 어보는 왕비·왕세자·왕세자빈 등을 해당 지위에 임명하고, 왕의 공덕을 찬양하거나 그 통치를 종합·재평가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책봉호(冊封號)·시호(諡號)·존호(尊號)·묘호(廟號)와 같은 존귀한 이름을 새겼는데, 이러한 어보는 사후 종묘 신실(神室)에 신위(神位)와 함께 모셨다.

이 중에서 국가의례에 사용했던 어보와 왕실과 국가의 업무에 사용했던 국새가 가장 대표적인 인장이다. 이들 인장은 왕권과 국가적 존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제작에서 관리까지 엄격한 법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한일 강제병합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문화재가 국외로 불법 반출되는 와중에 이들 인장의 일부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으로 반출한 인장에 대해 2013년 10월 21일 문화재청이 외교부·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수사 요청을 하였고, 2013년 11월 18일 HSI는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을 압수하였다. 2014년 3월 한미 문화재청과 양국 국회의원 및 국내외 민간단체 등이 조기 반환 여론을 조성하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추어 2014년 4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계되었다.

당시 인계한 인장은 모두 9점으로 국새 3점(<皇帝之寶>·<諭書之寶>·<濬明之寶>), 어보 1점(<壽康太王帝寶>), 보소당(寶蘇堂)의 인장 5점(<友天下士>·<雙螭>·<春華>·<硯香>·<香泉審定書畫之記>) 등이 있는데, <황제지보>는 국새 3점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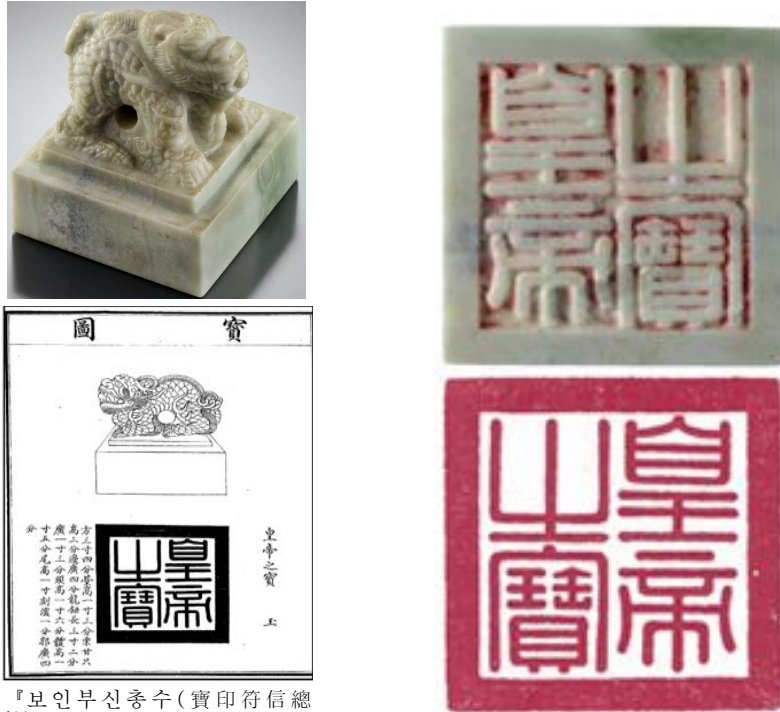
현재 보수(寶綬)는 없어졌고, ‘帝’와 ‘寶’ 중간 하단부에 옥결이 있어 자연미가 풍부하며, 보존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국새는 국왕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에 사용했던 인장을 말한다. 왕위의 선양이나 외교 실무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문서에 날인하였던 것으로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하였다. 조선왕조 시대에는 국왕이 중국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을 때 임명장인 고명(誥命)과 함께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수여받아 이를 중국과의 외교문서에 사용하였고, 즉위식에서 후계왕에게 승계하였다. 또한 책봉 등의 업무를 위한 <국왕행보(國王行寶)>, 왕의 명령서인 유서(諭書)에 날인하기 위한 <유서지보(諭書之寶)> 등의 국새를 제작하여 사용하였

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는 자주국으로서 <황제지보(皇帝之寶)> 등 국새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국새는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보뉴(寶鈕)를 용뉴(龍鈕)로 제작하였다.

황제지보(皇帝之寶)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국새는 국가최고통치자의 인장인 동시에 국가의 상징이다. 국새라는 용어는 삼국시대부터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인다. 한반도에서 국새를 사용한 기록은 고구려로부터 보이고, 삼국시대에는 국새를 대보(大寶)·국새(國璽) 등으로 불렀으며, 고려시대에는 국새(國璽)·국인(國印)·어보(御寶)·새보(璽寶) 등 다양한 용례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새(璽)와 보(寶)를 왕실 인장의 대명사로 사용하였으나 국새(國璽)와 대보(大寶)만은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의 의미로 한정하였다. 조선시대의 국새는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며, 주로 외교문서에 사용하였다. 또한 왕위 계승 시에는 전국(傳國)의 징표로 전수하였으며, 국왕의 각종 행차 시에는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행렬의 앞에서 봉송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명·청나라로부터 각각 3차례 국새를 받았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사여한 국새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숙종 때 명나라에서 사여한 옛 국새의 자취를 찾아 별도로 모조하여 비장해 두고 왕위 계승 때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명·청나라로부터 받은 외교용 국새 이외에 국왕이 발행하는 각종 문서에 사용할 국새를 국내에서 자체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세종 때 중원의 제도를 모방하여 국새로 대체한 <국왕행보(國王行寶)>·<국왕신보(國王信寶)> 등을 제작하여 국왕 문서에 사용하였다. 이후 교명·교서·교

지를 비롯하여 과거(科擧) 관계의 문서, 유서(諭書), 서적의 반사 등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국새를 달리하였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국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를 10점 제작하였다. 왕실인사의 호칭이 변경됨에 따라 태후·황후·황태자·황태자비의 어보도 함께 제작하였다. 당시 제작된 국새는 1점을 제외한 모든 국새의 보鈕(寶鈕)가 귀鈕(龜鈕)에서 용鈕(龍鈕)로 바뀌었고, 보문(寶文)은 인(印)에서 새(璽)·보(寶)로 대체하였다. 서체도 기존의 복잡한 구첩전(九疊篆)에서 대부분 간명한 소전(小篆)으로 바뀌었다.

<황제지보>는 교명(敎命)·교서(敎書)·교지(敎旨)에 사용한 국새이다. 황제국임을 천명한 대한제국 선포 이후부터 국새로 사용된 <황제지보>는 훈기(勳記)와 친임관칙지(親任官勅旨)용으로 제작하였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국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였는데, 즉 <대한국새(大韓國璽)>·<황제지새(皇帝之璽)>·<황제지보(皇帝之寶)>(3점)·<제고지보(制誥之寶)>·<칙명지보(勅命之寶)>(2점)·<흠문지새(欽文之璽)>·<대원수보(大元帥寶)>

대한제국 국새

	寶名	寶鈕	제질	크기 (cm)	서체	제작시기	사용처	유실 및 소장기관
1	大韓國璽	龍鈕	天銀鍍金	10	九疊篆	1897. 9. 19	國書	유실
2	皇帝之璽	龍鈕	天銀鍍金	10	九疊篆	1897. 9. 19	勳記	유실
3	皇帝之寶	龍鈕	天銀鍍金	12	小篆	1897. 9. 17	親任官勅旨	유실
4	皇帝之寶	龍鈕	玉	9.7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국립고궁박물관
5	皇帝之寶	龜鈕	玉	12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유실
6	制誥之寶	龍鈕	純金鍍金	11.7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국립전주박물관
7	勅命之寶	龍鈕	純金鍍金	11.7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유실
8	勅命之寶	龍鈕	天銀鍍金	9.7	小篆	1897. 9. 20	加資陞六勅旨 詔勅	국립중앙박물관
9	欽文之璽	龍鈕	天銀鍍金	10	小篆	미상	御製鈐識 頒賜書籍	유실
10	大元帥寶	龍鈕	天銀鍍金	8.6	小篆	1899. 6. 22	軍令	국립진주박물관

등 모두 10점이다.

지정 대상 유물인 <황제지보>는 표 ‘대한제국 국새’에서 4번에 해당한다. 대한제국의 의식절차와 각종 의물(儀物)이 상세한 『대례의궤(大禮儀軌)』(전통예술원 음악사료강독회 역, 2013 『국역 대례의궤』 민속원)에 의하면, 재질은 남양옥(南陽玉)을 사용했고, 보면(寶面)은 3촌 4푼(실측, 95.02×93.17mm)이라 하였으며, 서체는 소전(小篆)이라 하였다.

남양은 본래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남양면(南陽面) 지역에 있던 부(府) 이름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옥을 남양옥(南陽玉)이라 불렀다. 남양옥은 국새와 어보는 물론 옥책(玉冊)·편경(編磬)·규(圭)·옥대(玉帶) 등 왕실에서 제작한 각종 의물과 장신구에까지 널리 사용하였다.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식의 서하와 학생 이호에게 관직을 제수하도록 명하였으니, 남양의 경석을 얻어 상을 준 것이었

다[命授前食醫徐賀, 學生李皓職, 賞其得南陽磬石也.]”(『세종실록』 37권 9년 7월 27일 계축)라고 하였다. 또한 『승정원일기』에서도 “영조가 이르시길 ‘옥의 품제로 말하면 남양이 뛰어난가?’라고 묻자 상한이 ‘세종조로부터 남양에서 생산된 옥이 제일입니다.’라고 답하였다[上曰, 以玉品言之, 南陽勝乎. 象漢曰, 自世宗朝, 南陽生玉而爲第一矣.]”(『승정원일기』 영조 35년 4월 14일 갑자)라고 하였다. 이후 대한제국에서도 남양옥은 왕실의 의물에 널리 사용하였다.

<황제지보>에 사용한 서체는 소전(小篆)이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중앙 집권제를 실행하면서 문자와 도량형을 통일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사는 승상으로 있으면서 서동문(書同文) 정책을 실행했는데, 즉 육국문자를 버리고 서주시기 주문(籀文)인 대전을 덜고 더하여 소전을 만들었다. 이를 또한 진전(秦篆)이라고도 일컫는다. 진시황 28년(기원전 219)에 태산·낭야·역산을 순시하고, 39년(기원전 210)에 회계를 순시할 때 소전으로 진시황의 송덕을 기리는 각석을 세웠다. 현존하는 <태산각석>·<낭야대각석>의 원탁 잔본을 보면, 이사가 썼다는 소전은 자형의 구조가 통일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서풍이 매우 규정적이고 단정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 표현인 필획은 일률적으로 둥글고 고르며, 결체는 대칭·균등을 다하였으며, 장법 또한 정제되어 조금의 느슨함도 없었다. 형체는 장방형을 나타내면서 각 글자마다 2 : 3의 비율에 합하였고, 원전(圓轉)은 마치 강철을 구부린 것 같이 힘이 안으로 응축하였으며, 엄숙하고 장엄한 면모를 나타내었다.

조선시대 국새에 사용한 서체는 대부분 구첩전이었다. 이를 또한 첩전(疊篆) 혹은 상방대전(上方大篆, 一作 尙方大篆)이라고도 한다. 한인(漢印)의 인문(印文)에서 필획이 적은 글자는 구불거리면서 가득 채워 쓰는 법이 있었다. 송나라 이후 관인은 이러한 필법을 점차 많이 운용하여 크게 발전시켰다. 이후 다시 구첩전이란 명칭이 있었는데, 필획은 구불거리면서 선회하며 가면 갈수록 더욱 세밀하였다. 이는 각 글자를 모두 9번 겹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6번·7번·8번에서 때로는 10번 혹은 그 이상 겹치게 하는 것도 있다. ‘구첩전’이란 명칭은 꺾고 겹쳐서 여러 층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취한 것이다.

이를 보면,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이 최초로 전국을 통일하고 황제의 지위에 오른 진시황의 권위와 상징성이 담긴 소전을 구첩전 대신 국새에 사용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또한 중국은 대대로 새보에 사용한 서체가 소전이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용해온 구첩전에서 탈피하여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소전에 담아 국새의 서체에 반영하였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황제지보>는 4글자를 세로로 2글자씩 분포하고, 보곽(寶郭)은 넓게 하여 엄숙하고 장엄함을 나타낸 주문인(朱文印)이다. 각 글자의 자경(字徑) 46.19mm이고, 필획의 굵기 5.47mm로 <유서지보>(2.64mm)·<준명지보>(2.87mm)보다 거의 2배나 굵다. 필획은 고르고 균등하며, 기필·수필은 모두 원필로 처리하여 부드

러우면서도 훈후함을 나타내었다. 글자마다 대칭을 이루고,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는 전절 부분은 모두 안은 약간 모나면서도 밖은 둥글게 처리하여 부드러우면서 굳센 외유내강(外柔內剛)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특히 ‘帝’자에서 2개의 곡선 세로획은 안은 수렴하고 밖은 내치면서 부드러운 가운데 기운을 안으로 품는 내엽법(內攝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皇·之’자에서 왼쪽 세로획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차 조금씩 안쪽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맛을 나타내어 전체 자형을 사다리꼴로 만들어 안정감을 나타내었다. ‘寶’자에서는 2개의 긴 세로획을 안에 있는 ‘王·缶’과 ‘貝’자를 피양(避讓)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는 조금 가늘고 아래는 굵게 처리하면서 절주감을 나타내었다. ‘貝’자의 마지막 두 획도 점으로 처리하여 더욱 부드러움을 나타내었다. 가로획과 세로획의 기필·수필은 모두 원필로 처리하고, 특히 양 가장자리를 조금 강조하여 마치 붓으로 쓴 듯한 소전의 대표적인 원전(圓轉) 필법의 묘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도법은 충도법(衝刀法)을 주로 삼으면서 절도법(切刀法)으로 수식을 가해 둥글고 윤택하며 고른 필획을 나타내었다. 장법은 각 글자를 정방형의 형태로 고르게 포치하여 평정하면서도 안정감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넓은 보곽(寶郭)과 깊게 새긴 고르고 윤택한 필획, 자간과 행간의 균등함, 정제되고 안정된 장법에서 나타나는 근엄함과 부드럽고 인자함은 국새의 전형적인 작품이라 하겠다.

『대례의궤』에 의하면, 대한제국 국새 10점 가운데 <대원수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민병석(閔丙奭, 1858-1940)이 썼다고 하니, <황제지보>를 통해 그의 서예 수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지정사례

보물 제1618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皇帝御璽)>(2009년 9월 2일 지정, 국립고궁박물관 소장)가 있다.

○ 참고문헌

- 成仁根,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09.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의 관인』, 2009. 11.
- 사명해저 광노봉역, 『印學史』, 다운샘 2011. 09.
- 성인근, 「미국에서 환수한 조선왕실 인장문화재의 가치와 과제」, 『文化財』 제47권 제4호, 2014. 12.



○ 내용 및 특징

황제지보는 1897년 대한제국 성립을 계기로 고종황제의 자주독립 의지를 상징하기 위해 새로 제작한 9점의 국새 중 하나로 국가적 존엄과 국민적 자긍심을

상징한다. 즉 대한제국 이전에는 중국 황제로부터 책봉 받을 때 誥命과 〈朝鮮國王之印〉을 받아 외교문서에 사용하였는데, 1897년에 고종이 圜丘壇에서 祭天儀式과 함께 자주국가인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光武 元年으로 삼고, 국새도 새로 제작한 것이다. 황제지보는 황제가 직접 관료를 임명할 때 내려주는 임명장(親任官勅旨)과 훈장서훈 사유를 적은 勳記에 날인했다.

『大禮儀軌』에는 이때에 제작된 어보의 종류와 그 조합품들의 견양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명헌태후,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의 왕실의례용 어보들을 제외한 고종의 행정용 어보만도 9顆가 제작되었으며, 그 중 敎命, 敎書, 敎旨에 사용한 황제지보는 3과였다. 『大禮儀軌』 서두에

「光武元年丁酉九月 日 寶冊造成所護于太僕司」

「大韓國璽一顆天銀鍍金」 「皇帝之璽天銀鍍金」

「皇帝之寶三顆 一顆天銀鍍金 二顆玉」

이라 기록되어 있어 황제지보는 천은에 도금한 것, 옥제 2과(龍鈕, 龜紐)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조사 대상유물은 옥제 2과 중 하나이다.(도1)

전체적으로 연한 녹색빛이 도는 황제지보의 寶鈕는 몸을 구부리고 얼굴을 든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사각형 대좌 위에 두발을 앞으로 모은 용뉴이다. 신체에는 매듭끈을 달기 위한 구멍이 뚫려있다. 인면은 통식의 정사각형 대좌 내에 1.1cm의 보곽을 두르고 자경 4.6cm인 “황제지보”라는 4자가 전각되어 있고 자획의 [凹] 안에 붉은 인주가 남아있다.(도2)

大禮시의 황제지보 견양은 禮器尺을 기준하여 각 부분마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재료는 경기도 南陽産 옥을 썼다. 견양에는 용의 얼굴이 좀 더 섬세하고 신체도 가는 편이나 현존 유물은 둥근 편이다. 이는 금속처럼 모형을 만들어 주조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 옥을 깎아 들어가면서 형체를 조각해내는 옥 가공기술 때문이다. 이후 1900년~1907년에 지은 『寶印符信總數』에는 이 옥보의 크기와 인문까지 기록되어 있어 『대례의궤』에는 생략된 실제 옥보의 인문을 보고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표1 및 도 3~6)

참고로 이때에 같이 조성된 또 하나의 옥제 龜紐 황제지보의 크기는 “用南陽玉方四寸二分厚一寸三分篆刻郭廣四分上有龜鈕高二寸五分廣三寸龜頭長并 四寸二分鈕臺方二寸六分厚三分用禮器尺腹下有橫穴”라 했으므로 구뉴의 길이가 약간 긴 편이다.[참고도판 참조]

인문의 서체는 『大禮儀軌』, 「寶式篆文兩行排字」에 “篆文書寫官弘文館學士臣 閔丙奭”이라 기록되어 있어 조선말의 정치가이자 서예가로 당시 홍문관 학사였던 민병석(1858~1940)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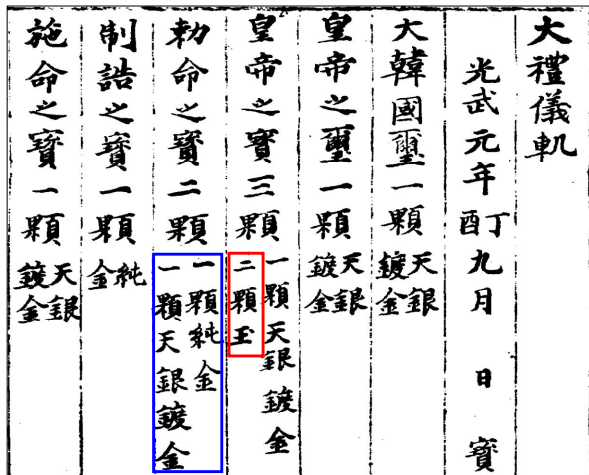
표1. 황제지보 크기에 관한 문헌 비교

분류	『大禮儀軌』 (1897)	『寶印符信總數』 (1900~1907)	환산치cm
크기	皇帝之寶一顆 用南陽玉方三寸四分厚一寸三分 篆刻郭廣四分上有龍鈕高二寸一分廣二寸九分龍頭長并三寸二分鈕臺方二寸厚三分用禮器尺腹下有橫穴	皇帝之寶 玉 方三寸四分臺高一寸三分粟廿只高三分邊廣四分龍鈕長三寸二分廣一寸三分頭高一寸六分體高一寸五分尾高一寸刻深一分郭廣四分	한 변 9.7 臺高 3.7 용뉴: 길이 9.2 頭高 4.6 폭 3.7

서체를 쓴 재료는 『大禮儀軌』, 「造作」 부분에 옥제 3과³⁹⁾의 재료로 〈玉寶三顆每顆草圖書所入〉, “竹淸紙二長 黃筆一柄 眞墨一丁 黃蜜白蠟山猪毛各一錢五分 炭五升”이라 기록되어 있어 각각 죽청지 2장과 황필 1자루, 먹 1개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⁴⁰⁾ 寶匠은 “全興吉, 全壽命, 全億萬, 全一萬 等 三名”이었는데, 수석 장인인 전홍길은 『보인소의궤』 (1876)에도 보장으로 등장하므로 20여년 이상 활동한 장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황제지보는 조선이 자주국가인 대한제국이며, 고종은 황제임을 선포하고 이후의 모든 국가 행정문서와 궁중의례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어보 중의 하나이자 국새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점, 왕실 공예품으로서의 공예사적 가치가 있는 점, 국외 반출되었다가 60년 만에 환수된 의미있는 유물로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는 점 등에서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

[도판]



도1. 『대례의궤』의 고종 인장(황제지보)



도2. 황제지보의 印文, 민병석 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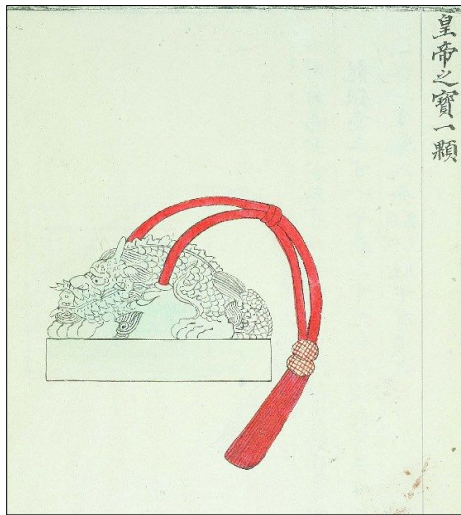
39) 『大禮儀軌』의 보인중 3개의 옥보는 皇帝之寶 2과와 明憲太后之寶 1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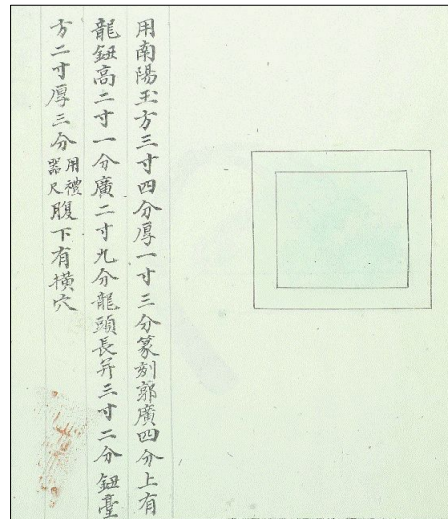
도3. 황제지보, 옥, 1897년



도4. 『寶印符信總數』 중의 황제지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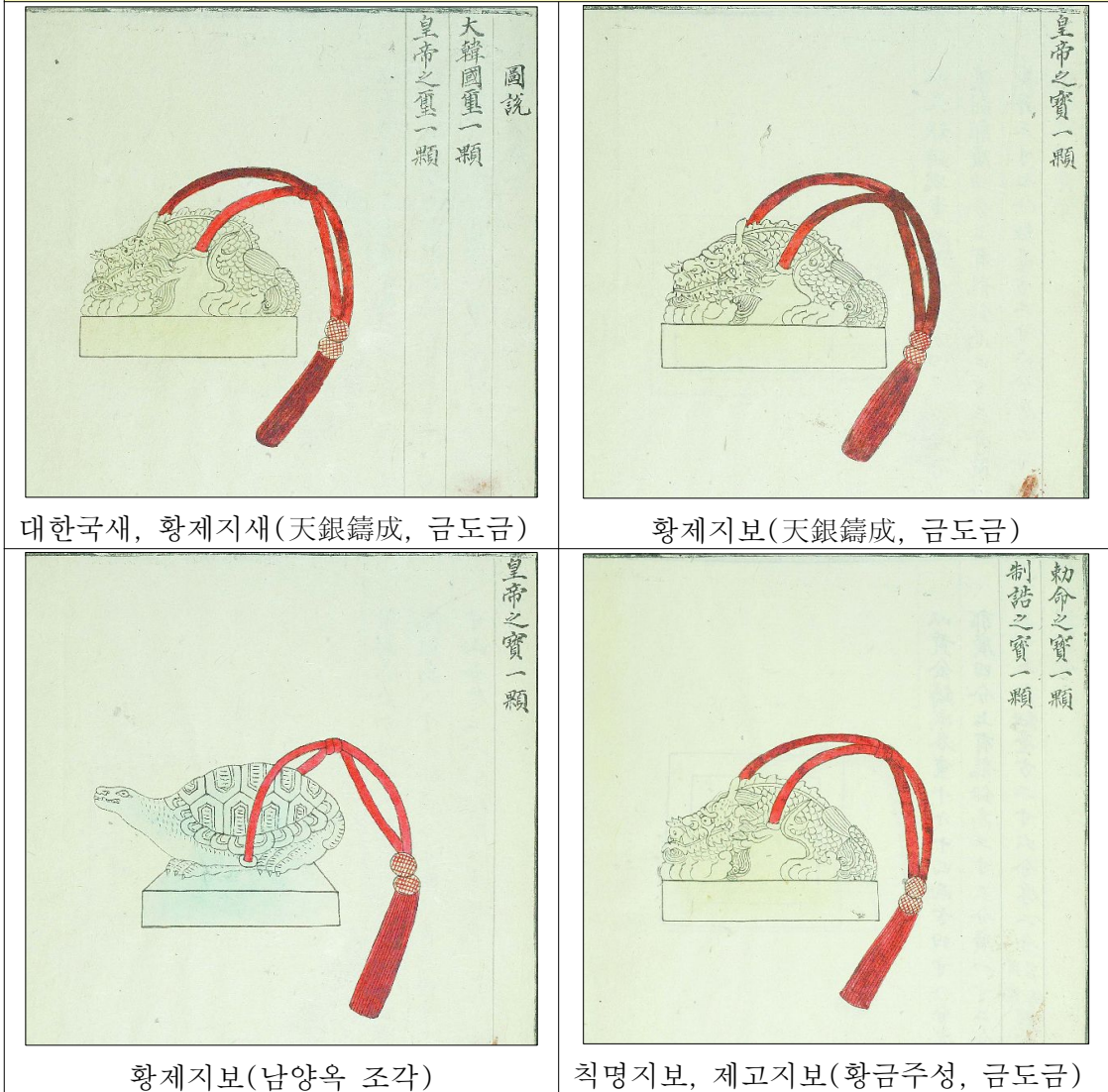


도5. 『大禮儀軌』 (1897) 중의 황제지보



도6. 『大禮儀軌』 중의 황제지보 설명

참고도판 : 『대례의궤』에 기록된 다른 국새(用禮器尺)



○ 참고문헌

- 『大禮儀軌』, 1897
- 『寶印所儀軌』, 1876
- 『寶印符信總數』, 1900~1907
- 『李朝璽寶印押符信制』, 1910~1915

□

○ 현 상

2014년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반환된 국새(國璽)와 어보(御寶) 그리고 조선왕실의 인장 등 9점 [황제지보(皇帝之寶),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 유서지보(諭書之寶), 준명지보(濬明之寶), 향천심정서화지기(香泉審定書畫之記),

우천하사(友天下士), (雙螭), 춘화(春華), 연향(硯香)] 가운데 하나이다.

6·25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으로 반출했다가 문화재청의 수사요청에 따라 대검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서 서로 수사를 도와 압수한 것이다.

현재 인끈 [寶綬] 은 없어졌으나,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국새(國璽)는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던 인장(印章)을 말한다. 조선 시대에는 국인(國印)·새보(璽寶)·어보(御寶)·대보(大寶)라 하여 왕의 인장이 국새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대·교린의 외교 문서 및 왕명으로 행해지는 국내 문서에 사용되었다. 또한 왕위 계승 시에는 전국(傳國)의 징표로 전수되었다. 또, 왕의 각종 행차 시에는 그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행렬의 앞에서 봉송되기도 하였다.

새보(璽寶)의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역대 제왕(帝王)의 옥새와 옥보의 제도[璽寶之制]는 한(漢)나라 때에는 6옥새

[璽], 당(唐)나라 때에는 8옥새, 송(宋)나라 때에는 8옥새를 일에 따라 사용하였사
 온데, 당나라의 신새(神璽)·송나라의 진국신보(鎭國神寶)와 같은 것은 중국을 진
 안(鎭安)하는 중보(重寶)로서 간직하여 두고 쓰지 않았사오나, 그 신새(信璽)와
 신보(信寶)는 사신(事神)·발병(發兵)등의 일에 쓰였고, 행새(行璽)와 행보(行寶)
 는 봉국(封國)·책봉(冊封) 등의 일에 쓰였사오며, 기타 새보의 글[璽寶之文] 내용
 과 용도는 시대에 따라 각각 같지 않았사오나, 우리 나라는 중국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의 글에,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라고 칭하였사오니, 이는 국내의 보
 통 일에 쓰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옛 제도에 따라 국왕의 신보(信
 寶)를 부어 만들어서 사신(事神)·교유(教宥)·공거(貢擧) 등의 일에 쓰게 하옵시고,
 국왕의 행보(行寶)도 만들어 책봉(冊封)·제수(除授) 등의 일에 쓰게 하옵시며, 그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는 사대 문서(事大文書)에만 쓰시고 그 밖에는 쓰지
 마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0월 12일 정유 5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이같이 세종대에는 중국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 외에 국왕의 신보(信寶)는
 사신(事神)·교유(教宥)·공거(貢擧) 등의 일에 쓰고, 국왕의 행보(行寶)는 책봉(冊
 封)·제수(除授) 등의 일에 사용하였는데 이듬해인 세종 15년 3월에 행보(行寶)와
 신보(信寶)를 주조하였다. 기록에는 새보의 재질과 무게 그리고 보문(寶文)이 무
 었던 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행보(行寶)와 신보(信寶)가 이룩되었다. 예전에 전국보(傳國寶)가 있었는데, 그
 보문(寶文)에는 ‘국왕 신보(國王信寶)’라고 새겼다. 임금이 집현전에 명하여 옛 제
 도를 상고하여 이 두 보(寶)를 고쳐 만들게 하였는데, 그 제도는 한결같이 흡사
 대보(欽賜大寶)에 의하여 모두 금을 쓰고, 신보의 무게는 1백 64냥이고, 행보의
 무게는 1백 76냥이었다. 신보의 글은 ‘국왕 신보(國王信寶)’이고, 행보의 글은 ‘국
 왕 행보(國王行寶)’인데, 신보는 사신(事神)·교유(教宥) 등의 일에 쓰고, 행보는 책
 명(冊命)·제수(除授) 등의 일에 쓰며, ‘흡사대보’는 사대 문서(事大文書)에만 썼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2일 을묘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
 년]

그러나 이같은 행보(行寶)와 신보(信寶)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세종 25년에 이르
 러 그 사용처에 맞춘 인(印)을 다시 검토하여 용도에 맞는 국새들이 제작되었다.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황제(皇帝)께서 준 대보(大寶)의 글귀에, ‘조선 국왕(朝鮮國王)’이라 일컬어서 경내(境內)의 범상한 일에 쓰기가 마땅치 않으므로, 국왕 신보(國王信寶)를 만들어서 사신(事神)·사유(赦宥)·공거(貢擧) 등의 일에는 이를 쓰게 하고, 국왕 행보(國王行寶)를 만들어서 책봉(冊封)·제수(除授) 등의 일에도 이를 쓰게 하며, 황제가 준 대보(大寶)는 사대문서(事大文書) 이외에는 간직하여 두고 쓰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참상(慘祥)하건대, 행보(行寶)·신보(信寶)는 경내에서 쓴 것인데도 그 글에 아울러 국왕이라고 일컬었으니, 특히 뜻[意]이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또 예전에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글을 만들었는데, 삼가 경전(經傳)을 상고하면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명고(命誥)를 사방에 베푼다.’ 하였고, 《국어(國語)》에 말하기를, ‘말은 신(信)을 밝히[昭]는 것이라.’ 하였으니, 마땅히 이 뜻을 취하여 행보(行寶)를 시명지보(施命之寶)로 고치고, 신보(信寶)를 소신지보(昭信之寶)로 고치어, 시명지보는 책봉(冊封)·제수(除授), 보통 행하는 교서(敎書) 등의 일에 쓰고, 소신지보는 신명(神明)을 섬기고 군사를 발하고 물건을 주는 등 일에 쓰오면, 거의 명령을 행하고 신(信)을 보이는 뜻에 합할 것입니다. 또 종전에는 행보(行寶)·신보(信寶)를 과거보는 사람의 권자(卷子)에 쓰고 승지(承旨)가 신봉함(臣封緘)이라고 일컬었는데, 이제 친히 압인(押印)하고 제봉(題封)하면서 인문(印文)은 다 고치었으니 공거(貢擧)에 쓰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과거(科擧)의 인(印)을 따로 만들어서 승지(承旨)로 하여금 신봉함(臣封緘)이라 일컫고 상서원(尙瑞院)에 간직하여 두고서 전시(殿試)에만 쓰게 하면 참으로 사의(事宜)에 합할 것입니다.”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0월 2일 계미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곧 예조와 의정부에서 행보(行寶)를 ‘시명지보(施命之寶)’로 고치고, 신보(信寶)를 ‘소신지보(昭信之寶)’로 고치어, ‘시명지보’는 책봉(冊封)·제수(除授), 보통 행하는 교서(敎書) 등의 일에 쓰고, ‘소신지보’는 신명(神明)을 섬기고 군사를 발하고 물건을 주는 등 일에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검토하였다. 또한 과거(科擧)의 인(印)을 따로 만들 것도 제시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이외에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의 어보들이 사용되었다. 서적을 반포, 하사할 때 쓰는 ‘선사지기(宣賜之記)’·‘선황단보(宣貺端輔)’·‘동문지보(同文之寶)’, 왕이 지은 글에 찍는 ‘규장지보(奎章之寶)’, 각신(閣臣)의 교지에 쓰는 ‘준철지보(濬哲之寶)’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쓰는 ‘준명지보(濬明之寶)’가 있으며, 기타로 ‘흠문지보(欽文之寶)’·‘명덕지보(明德之寶)’·‘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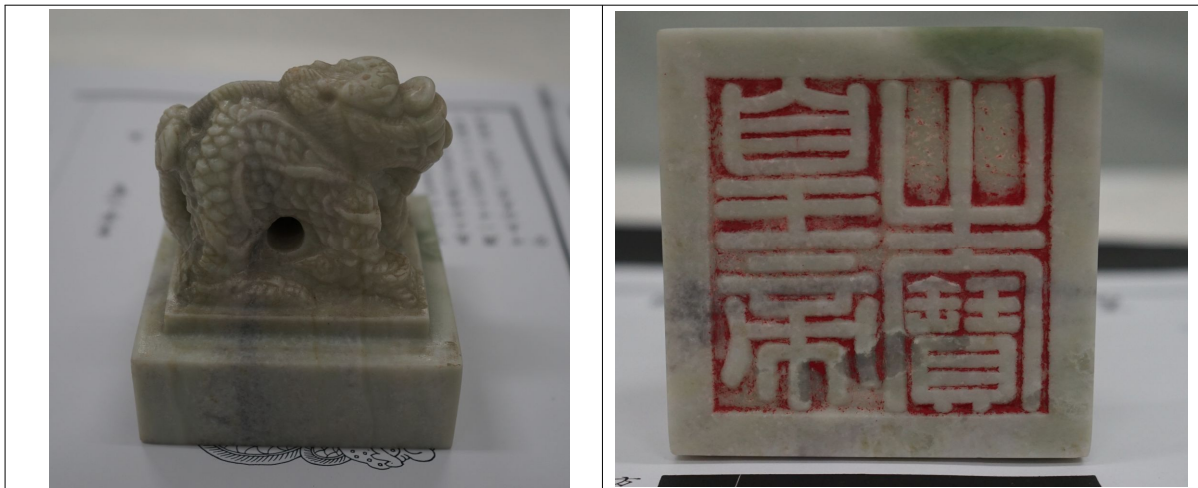
이후 1894년 갑오경장 후에는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종식함으로써 이전의 대보를 폐지하고,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와 ‘대조선대군주지보(大朝鮮大君主之寶)’를 제작해 사용하였고,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대한국새(大韓國璽)’·‘황제지

새’·‘황제지보’·‘칙명지보(勅命之寶)’·‘제고지보(制誥之寶)’·‘시명지보(施命之寶)’·‘대원수보(大元帥寶)’·‘원수지보(元帥之寶)’ 등의 국새를 제작, 사용하였다.

대한제국 국새

	寶名	寶鈕	재질	크기 (cm)	서체	제작시기	사용처	유실 및 소장기관
1	大韓國璽	龍鈕	天銀鍍金	10	九疊篆	1897.9.1 9	國書	유실
2	皇帝之璽	龍鈕	天銀鍍金	10	九疊篆	1897.9.1 9	勳記	유실
3	皇帝之寶	龍鈕	天銀鍍金	12	小篆	1897.9.1 7	親任官勅旨	유실
4	皇帝之寶	龍鈕	玉	9.7	小篆	1897.9.1 9	親任官勅旨	국립고궁박물관
5	皇帝之寶	龜鈕	玉	12	小篆	1897.9.1 9	親任官勅旨	유실
6	制誥之寶	龍鈕	純金鍍金	11.7	小篆	1897.9.1 9	親任官勅旨	국립진주박물관
7	勅命之寶	龍鈕	純金鍍金	11.7	小篆	1897.9.1 9	親任官勅旨	유실
8	勅命之寶	龍鈕	天銀鍍金	9.7	小篆	1897.9.2 0	加資陞六勅旨 詔勅	국립중앙박물관
9	欽文之璽	龍鈕	天銀鍍金	10	小篆	미상	御製鈴識 頒賜書籍	유실
10	大元帥寶	龍鈕	天銀鍍金	8.6	小篆	1899.6.2 2	軍令	국립진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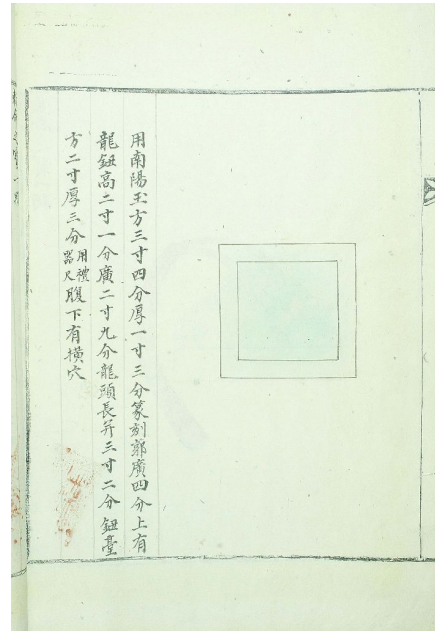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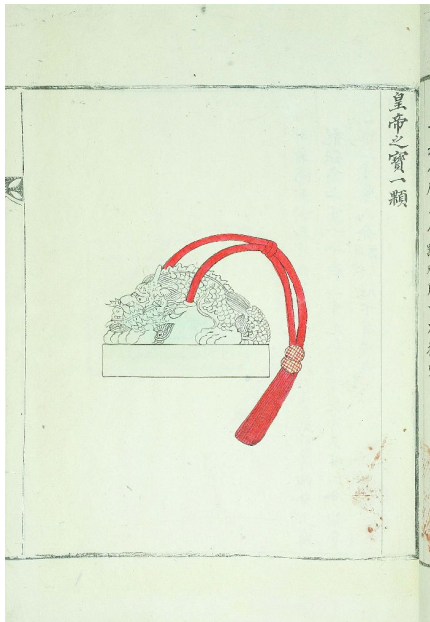
지정 대상 유물인 ‘황제지보(皇帝之寶)’는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 만들어진 3과의 ‘황제지보’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 ‘황제지보’는 손잡이의 형태나 재질, 크기를 각각 달리하여 제작하였는데 모두 황제가 관리를 임명할 때 내리는 친임관칙지(親任官勅旨)에 사용하였다.



3과의 ‘황제지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대례의궤(大禮儀軌)』를 참조할 수 있다. 『대례의궤(大禮儀軌)』는 원구단에서 황제에 즉위한 것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기록한 의궤로 황제즉위를 요청하는 각종 상소를 포함하여 필요한 각종 옥새(玉璽)와 금보(金寶) 및 금책(金冊)의 제작 등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종합하여 완성한 책이다. 이를 통하여 ‘황제지보(皇帝之寶)’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皇帝之寶一顆

用南陽玉 方三寸四分 厚一寸三分 篆刻郭廣四分 上有龍鈕 高二寸一分 廣二寸九分 龍頭長并三寸二分 鈕臺方二寸 厚三分(用禮器尺) 腹下有橫穴



곧, 남양옥으로 만들어진 ‘황제지보’의 사방 너비는 3촌 4푼, 너비는 1촌 3푼이다. 인면의 광은 4푼으로 위에는 용뉴(龍鈕)가 있다. 용뉴의 높이는 2촌 1푼, 너비는 2촌 9푼이며, 용두(龍頭)의 길이는 3촌 2푼이다. 무게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실측 결과 1292.5(g)으로 확인되었다.

뉴(鈕)는 용 모양으로 부리부리한 눈과 큰 코, 갈기 등 사실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황제지보’의 보문(寶文)은 ‘皇帝之寶’로 자체는 ‘소전(小篆)’이며 배자(配字)는 세로로 2자씩 되어 있다. 인면은 외곽에 광곽을 두른 후 글자를 새겼는데 광곽은 넓고 글씨는 방정하다. 각 글자의 자경(字徑) 46.19mm이고, 필획의 굵기 5.47mm로 ‘유서지보’와 ‘준명지보’의 자경에 비교하여 굵은 획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넓은 보곽(寶郭)과 깊게 새긴 고르고 윤택한 필획, 자간과 행간의 균등함, 정제되고 안정된 장법에서 나타나는 근엄함이 강조된 국새이다.

○ 지정사례

보물 제1618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大韓帝國 高宗 「皇帝御璽」)] (2009.09.02. 지정,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이 있다.

○ 참고문헌

- 成仁根,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09.
- 成仁根,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國璽의 변화상」, 『역사와 실학』 제36집, 2008. 09.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의 관인』, 2009. 11.
- 사명해 저 광노봉 역, 『印學史』, 다운샘, 2011. 09.
- 성인근, 「미국에서 환수한 조선왕실 인장문화재의 가치와 과제」, 『文化財』 제47권 제4호, 2014. 12.

17. 국새 유서지보(國璽 諭書之寶)

가. 검토사항

‘국새 유서지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환수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
- 이와 관련,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환수문화재 ‘국새 유서지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14.8.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0.12) 후 2016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16.4.14) 검토에서 보류됨에 따라 인문인영, 관련문헌 기록 비교의 보완조사('16.5.9)를 실시하였음
- 이에 보완조사 실시후 본위원회('16.6.9) 검토사항으로 부의되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조선왕조어보 관련 관계전문가회의를 개최, 어보·국새 등의 용어를 비롯하여 관련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한 후, 본위원회에 재검토' 라는 사유로 보류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국새 유서지보(國璽 諭書之寶)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고궁박물관)
-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 수 량: 1과(顆)
- 규격(mm): 상세실측치 참고
- 중 량: 3411.5g
- 뉴 양 식: 거북(龜)
- 보 문: 유서지보(諭書之寶)

- 재 질: 금동(金銅)
- 제작연대: 1876년(고종13)

라. 어보·국새 등의 용어를 비롯한 관련사항 검토 결과

‘황제지보(皇帝之寶)’, ‘유서지보(諭書之寶)’, ‘준명지보(濬明之寶)’ 지정 검토에서 제기된 어보·국새 등의 용어를 비롯한 관련 사항에 대한 조선왕조 어책·어보 및 관련 유물 지정 추진 전문가회의의 의견이 있었다. 어보의 지정범위와 시기를 조선왕조 종묘에 봉안된 1910년까지의 금보, 옥보 등 의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황제지보, 유서지보, 준명지보는 이들 어보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보완조사 종합의견(‘16.5.9)】

지정 대상 유물인 ‘유서지보(諭書之寶)’에 대한 2차 조사는 보문인영 비교 및 실측치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유서지보’의 보문 인영은 환수된 이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작하였고, 이 인영은 전시를 통하여도 공개된 바 있다.



자료 사진은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수록된 인영을 중심으로 ‘환수 이후 새로 찍은 인영’ 그리고 환수된 ‘유서지보’를 비교한 것이다.

3점 모두 필획이 고르고 균등하며, 기필·수필은 모두 원필로 처리하여 부드러운 특징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글자마다 대칭을 이루고,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는 전절 부분은 모두 안은 약간 모나면서도 밖은 둥글게 처리하여 부드러우면서 굳센 느낌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특히 필획이 적은 ‘之’자에서 구첩전을 운용하여 좌우의 빈 공간을 가득 채워 포만감이 나타나도록 한 점, ‘書’자에서 ‘曰’의 좌우에 두 개의 세로획을 세움과

동시에 ‘寶’자에서 ‘貝’의 마지막 두 개의 필획은 가로획으로 처리하여 안정감이 나타나게 처리한 점 그리고 ‘諭’자에서 ‘言’의 가운데 두 개의 세로획에서 왼쪽 윗부분을 조금 안으로 들여 ‘之’자와 경계를 이루고 구별하도록 한 점 등 전체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유서지보’의 실측치는 『보인부신총수』에서 밝힌 ‘예기척(禮器尺)’의 환산치와 비교하여 약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태종실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예기척’은 주문공(朱文公) 석전의(釋奠儀)에 전통을 둔 것으로 조선 초기부터 사용되었다. 『세종실록』의 「오례(五禮)」 / 「길례(吉禮)」 서례(序例)에는 ‘조례기척도(造禮器尺)’가 남아 있는데, 이곳에 나온 ‘조례기척(造禮器尺)’은 『경국대전』 권6 공전(工典) 도량형(度量衡) 조의 기사를 참고하면 당시 사용되었던 ‘황종척(黃鐘尺)’에 비교하여 8寸 2分 3釐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환산하면 1尺=28.63cm가 된다.

‘유서지보’의 크기는 『경국대전』에서 밝힌 1尺=28.63cm를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곧 ‘유서지보’의 대고(帶高)가 1촌(寸)으로 실측치인 28.30mm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 각부에서 가장 정확한 실측치를 보이는 보신(寶身)의 방(方)과 광(郭廣)의 길이를 참고할 때 ‘유서지보’는 1分=2.83(±0.01~0.1)mm, 1寸=28.3(±0.01~0.1)mm, 1尺=283(±0.01~0.1)mm 곧 28.30(±0.1~1)cm임이 확인된다. 이는 ‘황제지보’에 적용된 1分=2.75(±0.01~0.1)mm와도 서로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를 참고하여 ‘유서지보’의 상세한 실측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유서지보 각부	예기척(禮器尺)	환산치
		실측치
방(方)	3寸 6分	101.88mm
		101.50mm(-0.38)
		100.80mm(-1.08)
대고(臺高)	1寸	28.3mm
		28.30mm(±0)
보뉴(寶鈕) 장(長)	4寸	113.20mm
		109.70mm(-3.50)
보뉴(寶鈕) 광(廣)	2寸	56.6mm
		64.3mm(+7.70)
보뉴(寶鈕) 고(高)	1寸 8分	50.94mm
		49.45mm(-1.49)
각심(刻深)	1分	2.83mm
		2.74mm(-0.09)
광(郭廣)	3分半	9.91mm
		10.00mm(+0.09)
자경(字徑)/필획굵기	52.92mm/2.6mm	
중량(重量)	3411.5g	
* ‘유서지보’의 각부에서 기준이 되는 부분은 대고(帶高) 1촌(寸)=28.30mm이다. 또한 가장 정확한 실측치를 보이는 곳은 보신(寶身)의 방(方)과 광(郭廣)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1分=2.83(±0.01~0.1)mm임이 확인된다.		

지정 대상 유물인 ‘유서지보’의 실측치는 『보인부신총수』의 ‘조례기척’과 비교할 때 적게는 약 0.09mm(郭廣), 많게는 7.70mm(寶鈕廣)까지 차이가 난다. 이같은 미미한 차이는 덩어리 옥을 깎아 들어가면서 형체를 조각하였던 ‘황제지보’와 비교할 때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내는 보뉴의 너비 부분은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실측했는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참고한다면 ‘유서지보’의 예기척 환산치와 실측치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조사 개별의견(‘15.10.12)】

○ (지정 가치 있음)

조선시대 왕명 문서에 찍혔던 수십 점의 국새는 대부분 유실되었고, 국왕의 서적 반사(頒賜)와 관련한 <선사지기(宣賜之記)>만 현존하였다. 이번 <유서지보>의 발견과 환수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조선시대 국새 유물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하겠다.

현재 2009년 대한제국 시기의 <황제어새(皇帝御璽)>가 보물 제1618호로 지정되어 있지만, 조선시대의 국새로 지정된 것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지정 대상 유물인 <유서지보>는 다른 유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성과 제작 연대가 확실하고, 유전 경로가 확실하며, 자료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龜鈕形 金寶인 유서지보는 절도사 등의 임명장에 찍는 국새로서 1876년에 궁중의寶와 印 총 11顆를 개주·개조·수보할 때 제작되었으며 『寶印所儀軌』에 크기, 재료, 형태까지 상세한 견양이 실려 있다. 이 금보와 황제지보의 제작에 참여한 寶匠 중 全興吉은 20년 이상 활동한 으뜸 장인이었다.

<유서지보> 역시 제작연대 및 배경, 크기, 재료 등이 의뢰에 실려 있는 점, 국왕의 인장 중 절도사 등의 임명장에 찍는 행정용 국새로서 역사성이 있는 점, 왕실 금속공예라는 공예사적 의미와 환수문화재라는 상징성까지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하는 것이 옳겠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 대상 유물인 ‘유서지보(諭書之寶)’는 ‘유서(諭書)’에 사용되었던 국새로서 2014년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반환된 국새(國璽)와 어보(御寶) 9종 가운데 1점이다.

조선시대의 국새로 지정된 것은 현재 없으나, 지난 2009년 대한제국기의 「황제어새(皇帝御璽)」가 보물 제1618호로 지정되어 관련 유물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

다.

조선시대 왕명 문서에 찍었던 국새는 상당수 유실되었으나 이번에 환수된 ‘유서지보(諭書之寶)’를 통하여 문헌에 기록된 ‘새보(璽寶)’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유서지보’는 다른 유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성(唯一性) 그리고 제작 당시의 역사상을 살필 수 있고, 공예사적으로도 제작 연대가 뚜렷하여 다른 자료들과 상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유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보물 제1618호 부번으로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조선왕조(1392-1897)와 대한제국(1897-1910) 시기 국가에서 제작한 공인(公印)은 각종 국가의례에서 사용한 어보(御寶), 실제 어명을 내리는 데 사용한 인장인 국새(國璽), 각종 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용 인장인 관인(官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의례용 어보는 왕비·왕세자·왕세자빈 등을 해당 지위에 임명하고, 왕의 공덕을 찬양하거나 그 통치를 종합·재평가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책봉호(冊封號)·시호(諡號)·존호(尊號)·묘호(廟號)와 같은 존귀한 이름을 새겼는데, 이러한 어보는 사후 종묘 신실(神室)에 신위(神位)와 함께 모셨다.

이 중에서 국가의례에 사용했던 어보와 왕실과 국가의 업무에 사용했던 국새가 가장 대표적인 인장이다. 이들 인장은 왕권과 국가적 존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제작에서 관리까지 엄격한 법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한일 강제병합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문화재가 국외로 불법 반출되는 와중에 이들 인장의 일부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으로 반출한 인장에 대해 2013년 10월 21일 문화재청이 외교부·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에 수사 요청을 하였고, 2013년 11월 18일 HSI는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을 압수하였다. 2014년 3월 한미 문화재청과 양국 국회의원 및 국내외 민간단체 등이 조기 반환 여론을 조성하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추어 2014년 4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계되었다.

당시 인계한 인장은 모두 9점으로 국새 3점(<皇帝之寶> · <諭書之寶> · <濬明之寶>), 어보 1점(<壽康太王帝寶>), 보소당(寶蘇堂)의 인장 5점(<友天下士> · <雙螭> · <春華> · <硯香> · <香泉審定書畫之記>) 등이 있는데, <유서지보>는 국새 3점 중의 하나이다.

현재 귀갑 등 일부에서 금도금이 벗겨졌고, 보수(寶綬)는 없어졌으며, ‘寶’자에서 ‘缶’ 부분에 보수의 흔적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유서지보(諭書之寶)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국새는 국왕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에 사용했던 인장을 말한다. 왕위의 선양이나 외교 실무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문서에 날인하였던 것으로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하였다. 조선왕조 시대에는 국왕이 중국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을 때 임명장인 고명(誥命)과 함께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수여받아 이를 중국과의 외교문서에 사용하였고, 즉위식에서 후계왕에게 승계하였다. 또한 책봉 등의 업무를 위한 <국왕행보(國王行寶)>, 왕의 명령서인 유서(諭書)에 날인하기 위한 <유서지보(諭書之寶)> 등의 국새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는 자주국으로서 <황제지보(皇帝之寶)> 등 국새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국새는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보뉴(寶鈕)를 용뉴(龍鈕)로 제작하였다.

국새는 국가최고통치자의 인장인 동시에 국가의 상징이다. 국새라는 용어는 삼국시대부터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인다. 한반도에서 국새를 사용한 기록은 고구려로부터 보이고, 삼국시대에는 국새를 대보(大寶)·국새(國璽) 등으로 불렀으며, 고려시대에는 국새(國璽)·국인(國印)·어보(御寶)·새보(璽寶) 등 다양한 용례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새(璽)와 보(寶)를 왕실 인장의 대명사로 사용하였으나 국새(國璽)와 대보(大寶)만은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의 의미로 한정하였다. 조선시대의 국새는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며, 주로 외교문서에 사용하였다. 또한 왕위 계승 시에는 전국(傳國)의 징표로 전수하였으며, 국왕의 각종 행차 시에는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행렬의 앞에서 봉송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명·청나라로부터 각각 3차례 국새를 받았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사여한 국새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숙종 때 명나라에서 사여한 옛 국새의 자취를 찾아 별도로 모조하여 비장해 두고 왕위 계승 때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명·청나라로부터 받은 외교용 국새 이외에 국왕이 발행하는 각종 문서에 사용할 국새를 국내에서 자체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세종 때 중원의 제도를 모방하여 국새로 대체한 <국왕행보(國王行寶)>·<국왕신보(國王信寶)> 등을 제작하여 국왕 문서에 사용하였다. 이후 교명·교서·교지를 비롯하여 과거(科擧) 관계의 문서, 유서(諭書), 서적의 반사 등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국새를 달리하였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국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를 10점 제작하였다. 왕실인사의 호칭이 변경됨에 따라 태후·황후·황태자·황태자비의 어보도 함께 제작하였다. 당시 제작된 국새는 1점을 제외한 모든 국새의 보뉴(寶鈕)가 귀뉴(龜鈕)에서 용뉴(龍鈕)로 바뀌었고, 보문(寶文)은 인(印)에서 새(璽)·보(寶)로 대체하였다. 서체도 기존의 복잡한 구첩전(九疊篆)에서 대부분 간명한 소전(小篆)으로 바뀌었다.

<유서지보>는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서인 유서(諭書)에 날인하여 사용한 인장으로 세종 대에서부터 고종 대까지 사용되었으며, 대한제국 시대에는 <칙명지보

(勅命之寶)>로 바뀌었다. 유서(諭書)는 조선시대에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렸던 문서로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절도사·방어사·유수 등에게 왕과 해당 관원만 아는 밀부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한 명령서를 말한다. 이외에 국왕이 관찰사 및 어사가 올린 장계 및 계본(啓本) 등을 참고하여 공적이 있는 지방 관원을 포상할 경우에 발급한 포상유서(褒賞諭書), 국왕이 왕족 및 관원과 일반 백성을 훈유(訓諭)하거나 효유(曉諭)할 때 발급한 훈유유서(訓諭諭書)와 국왕이 지방에 있는 관원을 서울로 부르는 경우 등에도 발급하였다. 이러한 모든 유서에는 국새인 <유서지보>를 찍도록 법전에 규정하였다.

<유서지보>를 처음 제작한 시점은 『세종실록』, 「오례(五禮)」의 대가노부(大駕鹵簿)·법가노부(法駕鹵簿)에서 처음 보인다. 즉 국왕의 각종 행차 때 행렬에서 기타 국새들과 함께 봉송한 것이다. 1444년(세종 26)에 정식(鄭軾)에게 내린 유서에 <유서지보>가 찍혀 있어 실존 문서로서의 상한선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유서지보>는 소전(小篆)으로 제작하였고, 이후 1459년에 새로운 <유서지보> 제작 기록은 『연산군일기』에서 “<유서지보>의 크기는 <시명지보>에 의해 새로 제조하되, 은을 바탕으로 삼아 금을 도금하라[諭書之寶大小, 依施命之寶新造, 以銀爲質, 而鍍金].”(연산군 1년 5월 16일 戊戌)라고 한 데에서 보인다. 이는 남겨진 여러 문서를 통해 구첩전(九疊篆)으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지정 대상 유물인 <유서지보>는 1876년(고종 13)에 제작하였음을 왕실인장의 개수(改修) 및 개조(改造)에 대한 구체적 기록인 『보인소의례(寶印所儀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한제국 시기에 제작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유서지보>의 형제(形制)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諭書之寶 銅鍍金

方三寸六分 臺高一寸 龜鈕長四寸 廣二寸 高一寸八分 刻深一分 郭廣三分半 安於諭書奉安大內

즉, <유서지보>는 청동에 금을 도금한 것으로 사방 3촌 6푼(실측 : 寶身 100.94×100.36mm), 받침대의 높이는 1촌, 귀鈕의 길이는 4촌으로 너비는 2촌이고 높이는 1촌 8푼(실측 : 寶鈕의 길이는 110.39mm, 너비는 63.97mm, 높이는 41.31mm), 새김 깊이는 1푼, 보곽의 너비는 3푼 반(실측 : 寶郭 10.33mm)으로 유서에 안보하여 궁전에 안치하였다.

실측한 <유서지보>의 무게는 3411.5g이었고, 보鈕(寶鈕)는 귀鈕(龜鈕)로 임진왜란 이후 만들어진 어보에서 많이 보이는 부리부리한 눈과 코, 송곳니와 갈기가 조각되는 등 용두를 닮은 형상을 하고 있다. 귀두는 목이 길고 하늘 높이 치켜올린 형태를 하고 있다. 귀갑과 귀갑문대는 2조의 음각선으로 장식하였다.

서체는 구첩전(九疊篆)으로 이를 또한 첩전(疊篆) 혹은 상방대전(上方大篆, 一

作 尙方大篆)이라고도 한다. 한인(漢印)의 인문(印文)에서 필획이 적은 글자는 구불거리면서 가득 채워 쓰는 법이 있었다. 송나라 이후 관인은 이러한 필법을 점차 많이 운용하여 크게 발전시켰다. 이후 다시 구첩전이란 명칭이 있었는데, 필획을 구불거리면서 선화하며 가면 갈수록 더욱 세밀하였다. 이는 각 글자를 모두 9번 겹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6번·7번·8번에서 때로는 10번 혹은 그 이상 겹치게 하는 것도 있다. ‘구첩전’이란 명칭은 꺾고 겹쳐서 여러 층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취한 것이다.

보면(寶面)에서 보문(寶文)의 각 글자 자경(字徑)은 52.92mm이고, 필획의 굵기는 26.4mm이며, 주문인(朱文印)이다. 4글자를 세로로 2글자씩 분포하고, 보곽(寶郭)은 넓게 하여 엄숙하고 장엄함을 나타내었다. 필획은 고르고 균등하며, 기필·수필은 모두 원필로 처리하여 부드러우면서도 혼후함을 나타내었다. 글자마다 대칭을 이루고,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는 전절 부분은 모두 모나게 꺾어 방정하면서도 균센 힘을 나타내었다. 도법은 충도법(衝刀法)을 주로 삼으면서 절도법(切刀法)으로 수식을 가해 둥글고 윤택하며 고른 필획을 나타내었다. 장법은 각 글자를 정방형의 형태로 고르게 포치하여 평정하면서도 안정감을 나타내었다. 특히 필획이 적은 ‘之’자는 구첩전을 운용하여 좌우의 빈 공간을 가득 채워 포만감이 나타나도록 하였고, ‘書’자에서 ‘曰’의 좌우에 두 개의 세로획을 세움과 동시에 ‘寶’자에서 ‘貝’의 마지막 두 개의 필획은 가로획으로 처리하여 안정감이 나타나게 처리하였다. 또한 ‘諭’자에서 ‘言’의 가운데 두 개의 세로획에서 왼쪽 윗부분을 조금 안으로 들여 ‘之’자와 경계를 이루고 구별하도록 한 것은 교묘한 솜씨라 하겠다. 비록 ‘寶’자에서 ‘缶’의 윗부분에 보수의 흔적이 보이지만, 전혀 손색이 없다. 전체적으로 넓은 보곽(寶郭)과 깊게 새긴 고르고 윤택한 필획, 자간과 행간의 균등함, 정제되고 안정된 장법에서 나타나는 근엄함과 그윽함은 국새의 전형적인 작품이라 하겠다.

○ 지정사례

보물 제1618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皇帝御璽)>(2009년 9월 2일 지정, 국립고궁박물관 소장)가 있다.

○ 참고문헌

- 成仁根,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09.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의 관인』, 2009. 11.
- 사맹해저 광노봉역, 『印學史』, 다운샘 2011. 09.
- 성인근, 「미국에서 환수한 조선왕실 인장문화재의 가치와 과제」, 『文化財』 제47권 제4호, 2014. 12.



○ 내용 및 특징

환수된 국새 3점 중 제작연대가 가장 이른 유서지보는 관찰사·절도사·방어사 등이 임지로 부임할 때 내리는 국왕의 명령서인 諭書에 날인하는 인장이다.(도7, 8) 유서지보는 조선 세종 이후 고종 대까지 사용했으며, 대한제국시기에는 勅命之寶로 명칭이 바뀌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유서지보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연산군 1년(1495년) 5월에 "유서지보의 크기를 施命之寶에 의하여 새로 제조하되, 은 바탕에 금을 올리라."하였다.⁴¹⁾ 同年 6월에는 "전자에 내린 諭書는 유서라는 글자를 圓篆으로 새긴 옥보였었는데, 이제 유서지보라는 네 글자로 고쳐서 曲篆으로 새긴 金寶로 되었으니..."라 하였다.⁴²⁾ 즉 연산군 1년에 옥보였던 유서를 유서지보로 바꾸고 크기는 시명지보에 준하여 은으로 주조한 후 도금한 금보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유서지보는 고종 13년(1876)에 궁중의 寶와 印 총 11顆를 改鑄·改造·修補할 때 제작한 것으로 『寶印所儀軌』에 견양이 기록되어 있다.(도9) 대한제국 때는 칙명지보로 『대례의궤』 서두에 황제지보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금제 1과와 天銀에 도금한 1과, 총 2과를 금보로 제작했다.(도1)

동으로 주조한 후 금도금한 龜鈕形 금보인 유서지보는 예기척을 써서 각 부분의 크기를 정했는데 『보인소의궤』와 『보인부신총수』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도10), [표2 참조] 이를 현대식 cm로 환산한 환산치와 실제 유서지보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현재의 총고는 9.4cm, 보신은 각 변 10cm 정도, 대좌 높이 2.79cm, 인면 보폭 1.03cm, 자경 약 5.3cm 크기이다.

표2. 유서지보 크기에 관한 문헌 비교

분류	『寶印所儀軌』 (1876)	『寶印符信總數』 (1900~1907)	환산치cm
크기	諭書之寶 銅鍍金龜鈕	諭書之寶 銅鍍金	한 변 10.3
	以銅改鑄方三寸六分高一寸郭三分半龜長四寸廣二寸高一寸八分	方三寸六分臺高一寸龜鈕長四寸	臺高 2.9
	用禮器尺腹下有橫穴全體并鍍黃金	廣二寸高一寸八分刻深一分郭廣三分半安於諭書奉安大內	龜鈕: 길이 11.5
			頭高 5.2 폭 3.7

41) 『燕山君日記』 5권 5월16일(戊戌), “諭書之寶大小, 依施命之寶新造, 以銀爲質, 而鍍金.”

42) 『燕山君日記』 6권 6월14일(乙丑), “命鑄金寶, 篆曰 諭書之寶 諭于八道觀察使曰, 前降諭書用諭書二字, 圓篆玉寶. 今改諭書之寶四字, 曲篆金寶, 卿其知悉.”

재료는 『보인소의궤』, 〈諭書之寶一顆所入〉에 “銅寶一顆改鑄後從入次 鍍黃金三錢 水銀二兩錢 汗音黃銀五錢五分 礪砂二錢 砥礪一錢 黃蜜一錢五分”라 적혀있어 황밀로 모형을 만들고, 동으로 주조 후 구뉴와 받침을 은땀하여 형태를 만든 후 수은도금을 입혔음을 알 수 있다.⁴³⁾ 『보인소의궤』에는 총 11과의 보, 인을 제작에 寶匠으로 참여한 장인들은 全興吉, 安順祿, 閔祥浩, 石漢鼎이었으며, 전홍길은 1897년의 『대례의궤』에도 수석 장인으로 등장하는 이름난 보장이었다.

유서지보의 구뉴는 네발로 굳건하게 땅을 짚고 생동감 있는 얼굴을 든 모습인데, 부드러운 이중 음각선으로 표현된 등의 귀갑문, 날카로운 발톱과 다리의 비늘이 비교적 사실적인 느낌을 준다. 배 부분에는 매듭끈을 끼우는 구멍이 뚫려있고, 인면에는 붉은 인주가 많이 남아있다. 보존상태는 사용빈도가 높았는지 또는 傳世 과정에서 손때가 땀는지 도금이 많이 벗겨진 편이고 드러난 동 本色은 黑化되었으며, 받침에도 굵힌 자국이 남아있다. 또한 ‘寶’자를 보면 주조할 때 결락된 부분도 있고, 주성 후에 珪로 갈아낸 흔적도 보인다.⁴⁴⁾(도11)

이러한 유서지보 역시 제작년대 및 배경, 크기, 재료 등이 의궤에 실려 있는 점, 국왕의 인장 중 절도사 등의 임명장에 찍는 행정용 국새로서 역사성이 있는 점, 왕실 금속공예라는 공예사적 의미와 환수문화재라는 상징성까지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하는 것이 옳겠다.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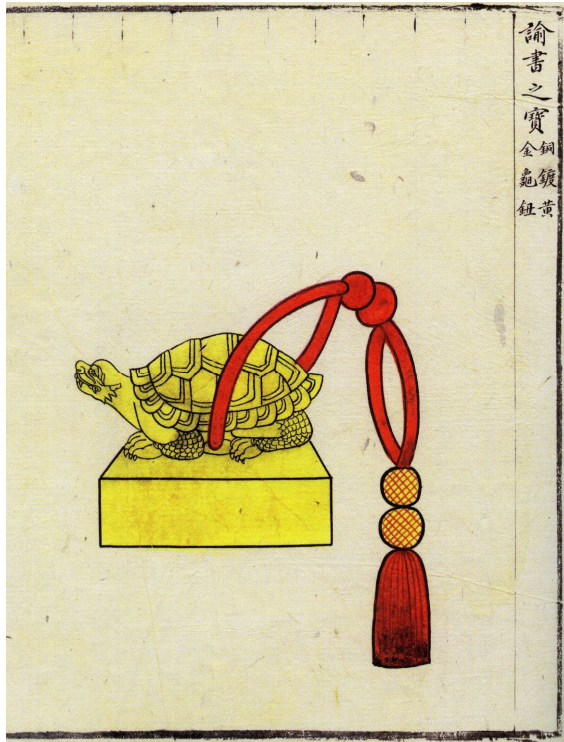
도7. 유서지보, 금동, 1876년(고종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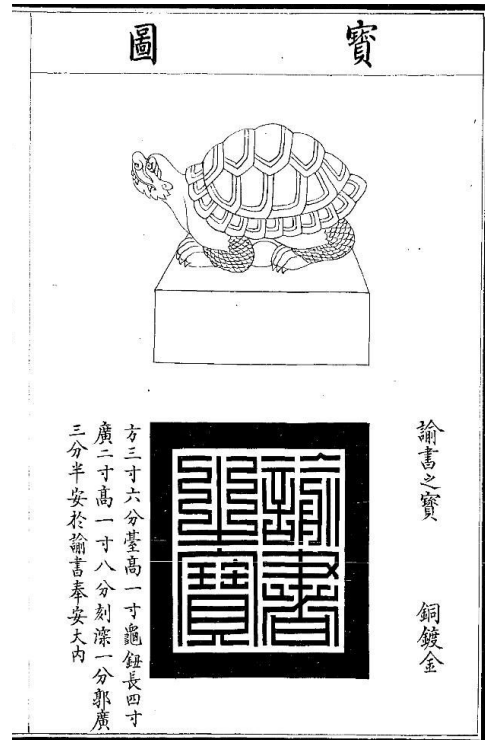
도8. 유서지보의 인문

43) 비상은 주조된 구뉴의 표면 피막을 제거하고 도금전에 표면의 탈지를 위해 사용한다.

44) 『보인소의궤』, 〈寶匠所用〉, “大執介 小執介 圓珪 細珪 助(+乙)伊珪各一箇 廣珪 小廣珪 大珪 小珪各二箇 小玨伊四箇 釘十五箇....”.



도9. 『寶印所儀軌』에 기록된 유서지보



도10. 『寶印符信總數』에 기록된 유서지보의 내용



도11. 유서지보 인문의 세부(줄질, 鑄成시 결락 흔적)

○ 참고문헌

- 『大禮儀軌』, 1897
- 『寶印所儀軌』, 1876
- 『寶印符信總數』, 1900~1907
- 『李朝璽寶印押符信制』, 1910~1915

□

○ 현 상

2014년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반환된 국새(國璽)와 어보(御寶) 그리고 조선왕실의 인장 등 9점 [황제지보(皇帝之寶),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 유서지보(諭書之寶), 준명지보(濬明之寶), 향천심정서화지기(香泉審定書畫之記), 우천하사(友天下士), (雙螭), 춘화(春華), 연향(硯香)] 가운데 하나이다.

6·25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으로 반출했다가 문화재청의 수사요청에 따라 대검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서 서로 수사를 도와 압수한 것이다.

현재 귀갑 등 일부에서 금도금이 벗겨졌고, 인끈 [寶綬] 도 없어진 상태이나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국새(國璽)는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던 인장(印章)을 말한다. 조선 시대에는 국인(國印)·새보(璽寶)·어보(御寶)·대보(大寶)라 하여 왕의 인장이 국

새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대·교린의 외교 문서 및 왕명으로 행해지는 국내 문서에 사용되었다. 또한 왕위 계승 시에는 전국(傳國)의 징표로 전수되었다. 또, 왕의 각종 행차 시에는 그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행렬의 앞에서 봉송되기도 하였다.

새보(璽寶)의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역대 제왕(帝王)의 옥새와 옥보의 제도[璽寶之制]는 한(漢)나라 때에는 6옥새[璽], 당(唐)나라 때에는 8옥새, 송(宋)나라 때에는 8옥새를 일에 따라 사용하였사온데, 당나라의 신새(神璽)·송나라의 진국신보(鎭國神寶)와 같은 것은 중국을 진안(鎭安)하는 중보(重寶)로서 간직하여 두고 쓰지 않았사오나, 그 신새(信璽)와 신보(信寶)는 사신(事神)·발병(發兵)등의 일에 쓰였고, 행새(行璽)와 행보(行寶)는 봉국(封國)·책봉(冊封) 등의 일에 쓰였사오며, 기타 새보의 글[璽寶之文] 내용과 용도는 시대에 따라 각각 같지 않았사온데, 우리 나라는 중국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의 글에,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라고 칭하였사오니, 이는 국내의 보통 일에 쓰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옛 제도에 따라 국왕의 신보(信寶)를 부어 만들어서 사신(事神)·교유(教宥)·공거(貢擧) 등의 일에 쓰게 하옵시고, 국왕의 행보(行寶)도 만들어 책봉(冊封)·제수(除授) 등의 일에 쓰게 하옵시며, 그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는 사대 문서(事大文書)에만 쓰시고 그 밖에는 쓰지 마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0월 12일 정유 5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이같이 세종대에는 중국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 외에 국왕의 신보(信寶)는 사신(事神)·교유(教宥)·공거(貢擧) 등의 일에 쓰고, 국왕의 행보(行寶)는 책봉(冊封)·제수(除授) 등의 일에 사용하였는데 이듬해인 세종 15년 3월에 행보(行寶)와 신보(信寶)를 주조하였다. 기록에는 새보의 재질과 무게 그리고 보문(寶文)이 무엇인 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행보(行寶)와 신보(信寶)가 이룩되었다. 예전에 전국보(傳國寶)가 있었는데, 그 보문(寶文)에는 '국왕 신보(國王信寶)'라고 새겼다. 임금이 집현전에 명하여 옛 제도를 상고하여 이 두 보(寶)를 고쳐 만들게 하였는데, 그 제도는 한결같이 흠사대보(欽賜大寶)에 의하여 모두 금을 쓰고, 신보의 무게는 1백 64냥이고, 행보의 무게는 1백 76냥이었다. 신보의 글은 '국왕 신보(國王信寶)'이고, 행보의 글은 '국왕 행보(國王行寶)'인데, 신보는 사신(事神)·교유(教宥) 등의 일에 쓰고, 행보는 책명(冊命)·제수(除授) 등의 일에 쓰며, '흠사대보'는 사대 문서(事大文書)에만 썼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2일 을묘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그러나 이같은 행보(行寶)와 신보(信寶)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세종 25년에 이르러 그 사용처에 맞춘 인(印)을 다시 검토하여 용도에 맞는 국새들이 제작되었다.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황제(皇帝)께서 준 대보(大寶)의 글귀에, '조선 국왕(朝鮮國王)'이라 일컬어서 경내(境內)의 범상한 일에 쓰기가 마땅치 않으므로, 국왕 신보(國王信寶)를 만들어서 사신(事神)·사유(赦宥)·공거(貢擧) 등의 일에는 이를 쓰게 하고, 국왕 행보(國王行寶)를 만들어서 책봉(冊封)·제수(除授) 등의 일에도 이를 쓰게 하며, 황제가 준 대보(大寶)는 사대문서(事大文書) 이외에는 간직하여 두고 쓰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참상(慘祥)하건대, 행보(行寶)·신보(信寶)는 경내에서 쓴 것인데도 그 글에 아울러 국왕이라고 일컬었으니, 특히 뜻[意]이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또 예전에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글을 만들었는데, 삼가 경전(經傳)을 상고하면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명고(命誥)를 사망에 베푼다.' 하였고, 《국어(國語)》에 말하기를, '말은 신(信)을 밝히[昭]는 것이라.' 하였으니, 마땅히 이 뜻을 취하여 행보(行寶)를 시명지보(施命之寶)로 고치고, 신보(信寶)를 소신지보(昭信之寶)로 고치어, 시명지보는 책봉(冊封)·제수(除授), 보통 행하는 교서(敎書) 등의 일에 쓰고, 소신지보는 신명(神明)을 섬기고 군사를 발하고 물건을 주는 등 일에 쓰오면, 거의 명령을 행하고 신(信)을 보이는 뜻에 합할 것입니다. 또 종전에는 행보(行寶)·신보(信寶)를 과거보는 사람의 권자(卷子)에 쓰고 승지(承旨)가 신봉함(臣封緘)이라고 일컬었는데, 이제 친히 압인(押印)하고 제봉(題封)하면서 인문(印文)은 다 고치었으니 공거(貢擧)에 쓰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과거(科擧)의 인(印)을 따로 만들어서 승지(承旨)로 하여금 신봉함(臣封緘)이라 일컫고 상서원(尙瑞院)에 간직하여 두고서 전시(殿試)에만 쓰게 하면 참으로 사의(事宜)에 합할 것입니다."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0월 2일 계미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곧 예조와 의정부에서 행보(行寶)를 '시명지보(施命之寶)'로 고치고, 신보(信寶)를 '소신지보(昭信之寶)'로 고치어, '시명지보'는 책봉(冊封)·제수(除授), 보통 행하는 교서(敎書) 등의 일에 쓰고, '소신지보'는 신명(神明)을 섬기고 군사를 발하고 물건을 주는 등 일에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검토하였다. 또한 과거(科擧)의 인(印)을 따로 만들 것도 제시하였다.

한편 유서(諭書)에 찍는 '유서지보(諭書之寶)'의 사용도 이미 세종대에는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실록』 132권 「오례」의 내용 가운데 조칙(詔勅)을 맞이할 때와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에 친히 제향(祭享)할 때에 움직이는 대

가(大駕)의 의물(儀物)을 설명하는 과정에 유서지보(諭書之寶)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대가(大駕)를 인도하는 것은 맨 먼저 부령(部令), 【당부(當部)의 영(令).】 다음은 관한성(判漢城), 그 다음은 예조 판서(禮曹判書), 그 다음은 호조 판서(戶曹判書), 그 다음은 대사헌(大司憲), 그 다음은 병조 판서(兵曹判書)이고, 【장관(長官)이 사고가 있으면 차관(次官)이 하게 된다.】 그 다음은 시위군(侍衛軍) 8대(隊)이니, 제1대는 50인으로서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검(劍)을 차는데, 그 2인은 장검(長劍)을 쥐고 좌우(左右)로 나누어 서서 앞서 가고, 그 다음의 1인은 백기(白旗)를 쥐고 중앙에 있고, 그 다음의 1인은 독(纛)을 쥐고 백기(白旗)의 뒤에 있고, 그 다음의 1인은 고(鼓)를 쥐고 왼편에 있고, 1인은 금(金)을 쥐고 오른편에 있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반주창(半朱槍)을 쥐고 가는데, 호군(護軍)이나 혹은 진무(鎭撫) 1인이 무기(武器)와 제복을 갖추고 이들을 영솔(領率)한다. 여러 대(隊)들도 이에 준한다. … …

다음은 우군 8대이니, 제1은 호용(虎勇) 2대, 제2는 호분(虎賁) 2대, 제3은 호익(號翼) 2대, 제4는 호아(虎牙) 2대이며, 그 다음은 중군 4대이니, 제1은 충무(忠武) 2대, 제2는 충좌(忠佐) 2대이다. ……

다음은 육정기(六丁旗)252) 가 좌우로 나누어 서는데, 주작기가 중앙에 있고, 다음은 백택기(白澤旗) 2개가 좌우로 나누어 서는데, 고명(誥命)이 중앙에 있다.

【신는 말이 1필인데, 화전(畫氈)253) 으로서 이를 덮고, 서리(書吏) 2인이 좌우에서 잡고 부축하며, 보마(寶馬)도 이와 같다. 길 인도하는 사람[引路] 10인이 청의에 자주색 두건[紫巾]을 착용하고 앞서 간다.】 대보와 시명보(施命寶)·유서보(諭書寶)·소신보(昭信寶)가 각각 1개씩 차례대로 가고, 상서 소윤(尙書少尹) 1인과 승(丞)·주부(注簿)·직장(直長)·녹사(錄事) 각각 2인씩이 이를 뒤따른다. …… 이하 생략

[『세종실록』, 「오례(五禮)」 대가노부(大駕鹵簿)·법가노부(法駕鹵簿)]

즉 국왕의 각종 행차 때 행렬에서 기타 국새들과 함께 봉송한 것이다. 1444년(세종 26)에 정식(鄭軾)에게 내린 유서에 ‘유서지보’가 찍혀 있어 실존 문서로서의 상한선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유서지보’는 소전(小篆)으로 제작하였고, 이후 1459년에 새로운 ‘유서지보’ 제작 기록은 『연산군일기』에서 “ ‘유서지보’의 크기는 ‘시명지보’에 의해 새로 제조하되, 은을 바탕으로 삼아 금을 도금하라[諭書之寶大小, 依施命之寶新造, 以銀爲質, 而鍍金].”(연산군 1년 5월 16일 戊戌)라고 한 데에서 보인다. 이는 남겨진 여러 문서를 통해 구첩전(九疊篆)으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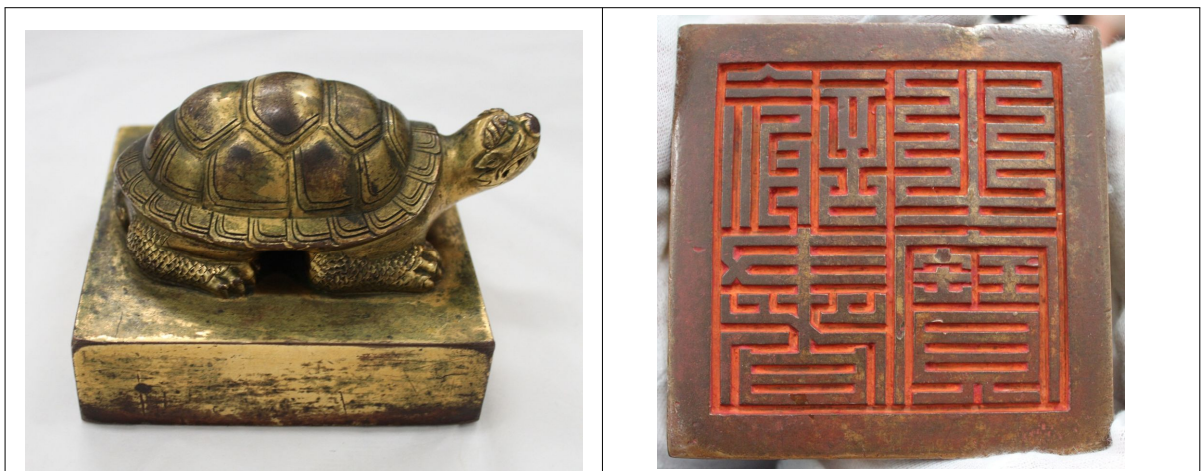
조선 후기에는 이외에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의 어보들이 사용되었다. 서적을 반

포, 하사할 때 쓰는 ‘선사지기(宣賜之記)’·‘선황단보(宣貺端輔)’·‘동문지보(同文之寶)’, 왕이 지은 글에 찍는 ‘규장지보(奎章之寶)’, 각신(閣臣)의 교지에 쓰는 ‘준철지보(濬哲之寶)’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쓰는 ‘준명지보(濬明之寶)’가 있으며, 기타로 ‘흠문지보(欽文之寶)’·‘명덕지보(明德之寶)’·‘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다.

이후 1894년 갑오경장 후에는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종식함으로써 이전의 대보를 폐지하고,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와 ‘대조선대군주지보(大朝鮮大君主之寶)’를 제작해 사용하였고,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대한국새(大韓國璽)’·‘황제지새’·‘황제지보’·‘칙명지보(勅命之寶)’·‘제고지보(制誥之寶)’·‘시명지보(施命之寶)’·‘대원수보(大元帥寶)’·‘원수지보(元帥之寶)’ 등의 국새를 제작, 사용하였다.

지정 대상 유물인 ‘유서지보(諭書之寶)’는 ‘유서(諭書)’에 사용되었던 국새이다. ‘유서’는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리에게 왕명을 내릴 때 ‘밀부(密符)’와 함께 발급한 명령서 외에도 국왕이 왕족 및 관원 그리고 일반 백성을 훈유(訓諭)할 때에 발급하는 ‘훈유유서(訓諭諭書)’, 관찰사 및 어사가 올린 장계(狀啓) 및 계본(啓本)을 참고하여 공적이 있는 관리를 포상할 경우에 발급하는 ‘포상유서(褒賞諭書)’ 등이 있다. 이같은 모든 유서에 국새인 ‘유서지보’를 사용하도록 법전에 규정하였다.

이번에 환수된 ‘유서지보(諭書之寶)’는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를 통하여 1876년(고종 13)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76년 11월 8일의 전교에서 “궁중의 보와 인이 많았으므로 무위소(武衛所)와 호조가 그 개주·개조·수보를 거행하라”는 왕명이 있었다. 당시 개주된 보인은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대조선국주상지보(大朝鮮國主上之寶)’·‘조선왕보(朝鮮王寶)’·‘위정이덕(爲政以德)’·‘소신지보(昭信之寶)’·‘시명지보(施命之寶)’·‘유서지보

(諭書之寶)·‘과거지보(科擧之寶)’·‘선사지기(宣賜之記)’·‘무위소(武衛所)’·‘왕세자인(王世子印)’ 등인데, 해당 유물은 그 중 하나이다. 1876년 이전 사용되었던 ‘유서지보’는 세종대에 처음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459년(연산군 1)에는 새롭게 주조하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조사 유물인 ‘유서지보(諭書之寶)’의 규격을 『보인소의궤』를 통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諭書之寶 銅鍍金

方三寸六分 臺高一寸 龜鈕長四寸

廣二寸 高一寸八分 刻深一分 郭廣

三分半 安於諭書奉安大內

곧, 동도금한 ‘유서지보’의 사방 너비는 3촌 6푼(실측:100.94×100.36mm), 대좌의 높이는 1촌 [실측:27.90mm], 거북 모양의鈕는 길이는 4촌, 너비는 2촌, 높이는 1촌 8푼(실측:길이110.39mm, 너비63.97mm, 높이41.31mm)이었다. 또한 새김 깊이는 1푼, 보좌의 너비는 3푼반 [실측:10.33mm] 이었다. 무게는 3411.5(g)이다.

鈕(鈕)는 거북 모양으로 임진왜란 이후 만들어진 어보에서 많이 보이는 부리부리한 눈과 큰 코, 송곳니와 갈기가 조각되는 등 용두를 닮은 형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귀두는 목이 길고 하늘 높이 치켜 올린 형태를 갖고 있다. 귀갑과 귀갑문대는 2조의 음각선으로 장식하였다.

‘유서지보(諭書之寶)’의 보문(寶文)은 ‘諭書之寶’로 자체(字體)는 ‘구첩전(九疊篆)’이며 배자(配字)는 세로로 2자씩 되어 있다. 인면은 외곽에 광곽을 두른 후 글자를 새겼는데 글자 새김이 깊고 획이 방정한 편이다. 보문(寶文)의 각 글자 자경(字徑)은 52.92mm이고, 필획의 굵기는 26.4mm이다.

○ 지정사례

보물 제1618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大韓帝國 高宗 「皇帝御璽」)] (2009.09.02. 지정,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이 있다.

○ 참고문헌

- 成仁根,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09.
- 成仁根,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國璽의 변화상」, 『역사와 실학』 제36집, 2008. 09.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의 관인』, 2009. 11.
- 사명해 저 광노봉 역, 『印學史』, 다운샘, 2011. 09.
- 성인근, 「미국에서 환수한 조선왕실 인장문화재의 가치와 과제」, 『文化財』 제47권 제4호, 2014. 12.

18.국새 준명지보(國璽 濬明之寶)

가. 검토사항

‘국새 준명지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환수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
- 이와 관련,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환수문화재 ‘국새 준명지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14.8.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0.12) 후 2016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16.4.14) 검토에서 보류됨에 따라 인문인영, 관련문헌 기록 비교의 보완조사('16.5.9)를 실시하였음
- 이에 보완조사 실시후 본위원회('16.6.9) 검토사항으로 부의되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조선왕조어보 관련 관계전문가회의를 개최, 어보·국새 등의 용어를 비롯하여 관련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한 후, 본위원회에 재검토' 라는 사유로 보류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국새 준명지보(國璽 濬明之寶)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고궁박물관)
-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 수 량: 1과(顆)
- 규격(mm): 상세실측도 참고
- 재 질: 옥(玉)
- 뉴 양 식: 거북(龜)

- 보 문: 준명지보(濬明之寶)
- 조성연대: 1889년(고종 26)

라. 어보·국새 등의 용어를 비롯한 관련사항 검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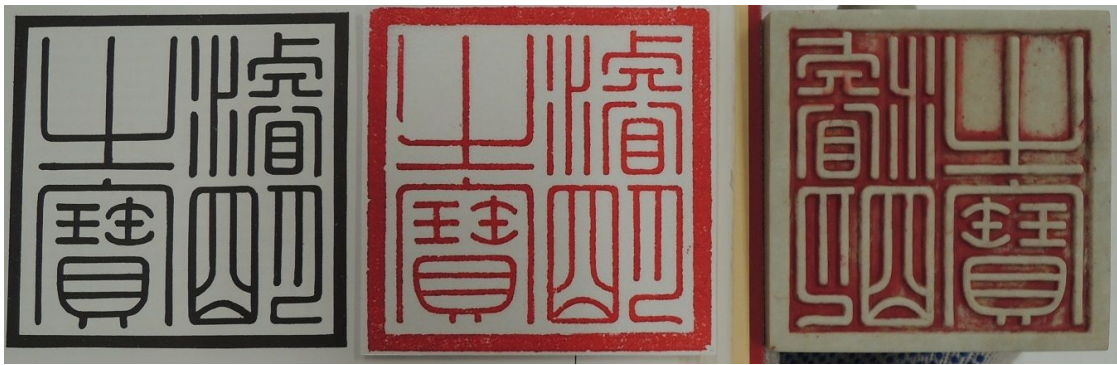
‘황제지보(皇帝之寶)’, ‘유서지보(諭書之寶)’, ‘준명지보(濬明之寶)’ 지정 검토에서 제기된 어보·국새 등의 용어를 비롯한 관련 사항에 대한 조선왕조 어책·어보 및 관련 유물 지정 추진 전문가회의의 의견이 있었다. 어보의 지정범위와 시기를 조선왕조 종묘에 봉안된 1910년까지의 금보, 옥보 등 의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황제지보, 유서지보, 준명지보는 이들 어보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보완조사 종합의견(‘16.5.9)】

지정 대상 유물인 ‘준명지보(濬明之寶)’에 대한 2차 조사는 보문인영 비교 및 실측치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준명지보’의 보문 인영은 환수된 이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작하였고, 이 인영은 전시를 통하여도 공개된 바 있다.



자료 사진은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수록된 인영을 중심으로 ‘환수 이후 새로 찍은 인영’ 그리고 환수된 ‘준명지보’를 비교한 것이다.

3점 모두 필획이 고르고 균등하며, 기필·수필은 모두 원필로 처리하여 부드러운 특징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글자마다 대칭을 이루고,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는 전절 부분은 모두 안은 약간 모나면서도 밖은 둥글게 처리하여 부드러우면서 굳센 느낌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특히 ‘濬’자에서 ‘目’의 위아래 부분과 ‘明’자에서 ‘日’의 네 모서리와 안에서 공간을 분할해주는 3개의 곡선, ‘寶’자에서 ‘缶·貝’의 곡선은 나머지 직선 필획과 대비를 이루어 굳세고 곧은 가운데 부드러운 조화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전체

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준명지보’의 실측치는 『보인부신총수』에서 밝힌 ‘예기척(禮器尺)’의 환산치와 비교하여 약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태종실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예기척’은 주문공(朱文公) 석전의(釋奠儀)에 전통을 둔 것으로 조선 초기부터 사용되었다. 『세종실록』의 「오례(五禮)」 / 「길례(吉禮)」 서례(序例)에는 ‘조례기척도(造禮器尺)’가 남아 있는데, 이곳에 나온 ‘조례기척(造禮器尺)’은 『경국대전』 권6 공전(工典) 도량형(度量衡) 조의 기사를 참고하면 당시 사용되었던 ‘황종척(黃鐘尺)’에 비교하여 8寸 2分 3釐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환산하면 1尺=28.63cm가 된다.

‘준명지보’의 크기는 『경국대전』에서 밝힌 1尺=28.63cm를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준명지보’의 각부에서 1촌(寸)의 길이를 추정할 수 있는 대고(臺高, 1寸 1分)의 실측치가 28.90mm인 사실을 참고한다면 1寸=26.30mm(±a)로 추정된다. 더욱 정확한 실측치를 보여주는 보신(寶身)의 방(方, 3寸 2分)과 광(郭廣, 1分半)의 실측치를 참고하면 ‘준명지보’는 1分=2.63(±0.14~1.07)mm 곧 1分=2.63mm, 1分=2.77mm, 1分=3.70mm 등 혼용되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차이는 덩어리 옥을 깎아 들어가면서 형체를 조각하는 과정에서 생긴 차이로 판단된다. 따라서 ‘준명지보’의 1分은 ‘유서지보’의 기준인 1分=2.83mm, ‘황제지보’에 적용된 1分=2.75mm와도 서로 다른 것이어서 그 시대적 차이가 주목된다.

이를 참고하여 ‘준명지보’의 상세한 실측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준명지보 각부	예기척(禮器尺)	환산치
		실측치
방(方)	3寸 2分	88.64mm
		87.90mm(-0.74)
		88.60mm(-0.04)
대고(臺高)	1寸 1分	30.47mm
		28.90mm(-1.57)
보뉴(寶鈕) 장(長)	4寸	110.87mm
		113.90mm(+3.03)
보뉴(寶鈕) 광(廣)	2寸 7分	74.79mm
		67.82mm(-6.97)
보뉴(寶鈕) 고(高)	1寸 4分	38.78mm
		38.46mm(-0.32)
각심(刻深)	半分	1.39mm
		1.37mm(-0.02)
광(郭廣)	1分半	4.16mm
		5.60mm(+1.44)
자경(字徑)/필획굵기	49.03mm/2.6mm	
중량(重量)	1008.5g	
* ‘준명지보’의 각부에서 기준이 되는 부분은 대고(帶高) 1寸 1分=28.90mm이다. 가장 정확한 실측치를 보이는 곳은 보신(寶身)의 방(方)과 광(郭廣)을 기준으로 할 경우 1分=2.77(±0.14~0.93)mm 정도로 추정된다.		

지정 대상 유물인 ‘준명지보’의 실측치는 『보인부신총수』의 ‘조례기척’과 비교할 때 적게는 약 0.02mm(刻深), 많게는 6.97mm(寶鈕廣)까지 차이가 난다. 이같은 차이는 덩어리 옥을 깎아 들어가면서 형체를 조각하였던 결과 그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내는 보鈕의 너비 부분은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실측했는 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참고한다면 ‘준명지보’의 예기척 환산치와 실측치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조사 개별의견(‘15.10.12)】

○ (지정 가치 있음)

<준명지보>는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사용한 국새로 1889년(고종 26)부터 사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국새로 <흙문지보(欽文之寶)>·<명덕지보(明德之寶)>·<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다. 지정 대상 유물인 <준명지보>는 다른 유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성과 제작 연대·유전 경로가 분명하며, 자료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龜鈕形 玉寶인 <준명지보>는 세자시강원관리를 임명하는 문서에 날인하는 국새로 1889년에 제작된 것이다. 『寶印符信總數』에 세부의 크기가 적혀있고, 『승정원일기』에도 고종의 명에 의한 제작배경과 보관위치, 사용된 예까지 실려 있다.

<준명지보>는 제작연대가 분명한 왕실공예품이라는 점과 세자시강원관리를 임명하는 문서에 날인하는 국새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있고, 환수문화재라는 의미도 있다.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이어서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 대상 유물인 ‘준명지보(濬明之寶)’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관원의 교지에 사용되었던 국새로서 2014년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반환된 국새(國璽)와 어보(御寶) 9종 가운데 1점이다.

조선시대의 국새로 지정된 것은 현재 없으나, 지난 2009년 대한제국기의 「황제어새(皇帝御璽)」가 보물 제1618호로 지정되어 관련 유물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조선시대 왕명 문서에 찍었던 국새는 상당수 유실되었으나 이번에 환수된 ‘준명지보(濬明之寶)’ 통하여 문헌에 기록된 ‘새보(璽寶)’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준명지보’는 다른 유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성(唯一性) 또한 제작 당시의 역사상을 살필 수 있고, 공예사적으로도 제작 연대가 뚜렷하여 다른 자료들과 상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유물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보물 제1618호 부번으로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조선왕조(1392-1897)와 대한제국(1897-1910) 시기 국가에서 제작한 공인(公印)은 각종 국가의례에서 사용한 어보(御寶), 실제 어명을 내리는 데 사용한 인장인 국새(國璽), 각종 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용 인장인 관인(官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의례용 어보는 왕비·왕세자·왕세자빈 등을 해당 지위에 임명하고, 왕의 공덕을 찬양하거나 그 통치를 종합·재평가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책봉호(冊封號)·시호(諡號)·존호(尊號)·묘호(廟號)와 같은 존귀한 이름을 새겼는데, 이러한 어보는 사후 종묘 신실(神室)에 신위(神位)와 함께 모셨다.

이 중에서 국가의례에 사용했던 어보와 왕실과 국가의 업무에 사용했던 국새가 가장 대표적인 인장이다. 이들 인장은 왕권과 국가적 존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제작에서 관리까지 엄격한 법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한일 강제병합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문화재가 국외로 불법 반출되는 와중에 이들 인장의 일부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으로 반출한 인장에 대해 2013년 10월 21일 문화재청이 외교부·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수사 요청을 하였고, 2013년 11월 18일 HSI는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을 압수하였다. 2014년 3월 한미 문화재청과 양국 국회의원 및 국내외 민간단체 등이 조기 반환 여론을 조성하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추어 2014년 4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계되었다.

당시 인계한 인장은 모두 9점으로 국새 3점(<皇帝之寶>·<諭書之寶>·<濬明之寶>), 어보 1점(<壽康太王帝寶>), 보소당(寶蘇堂)의 인장 5점(<友天下士>·<雙

螭>·<春華>·<硯香>·<香泉審定書畫之記>) 등이 있는데, <준명지보>는 국새 3점 중의 하나이다.

현재 보수(寶綬)는 없어졌지만, 보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준명지보(濬明之寶)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국새는 국왕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에 사용했던 인장을 말한다. 왕위의 선양이나 외교 실무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문서에 날인하였던 것으로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하였다. 조선왕조 시대에는 국왕이 중국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을 때 임명장인 고명(誥命)과 함께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수여받아 이를 중국과의 외교문서에 사용하였고, 즉위식에서 후계왕에게 승계하였다. 또한 책봉 등의 업무를 위한 <국왕행보(國王行寶)>, 왕의 명령서인 유서(諭書)에 날인하기 위한 <유서지보(諭書之寶)> 등의 국새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는 자주국으로서 <황제지보(皇帝之寶)> 등 국새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국새는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보

뉴(寶鈕)를 용뉴(龍鈕)로 제작하였다.

국새는 국가최고통치자의 인장인 동시에 국가의 상징이다. 국새라는 용어는 삼국시대부터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인다. 한반도에서 국새를 사용한 기록은 고구려로부터 보이고, 삼국시대에는 국새를 대보(大寶)·국새(國璽) 등으로 불렀으며, 고려시대에는 국새(國璽)·국인(國印)·어보(御寶)·새보(璽寶) 등 다양한 용례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새(璽)와 보(寶)를 왕실 인장의 대명사로 사용하였으나 국새(國璽)와 대보(大寶)만은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의 의미로 한정하였다. 조선시대의 국새는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며, 주로 외교문서에 사용하였다. 또한 왕위 계승 시에는 전국(傳國)의 징표로 전수하였으며, 국왕의 각종 행차 시에는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행렬의 앞에서 봉송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명·청나라로부터 각각 3차례 국새를 받았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사여한 국새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숙종 때에 명나라에서 준 옛 국새의 자취를 찾아 별도로 모조하여 비장해 두고 왕위 계승 때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명·청나라로부터 받은 외교용 국새 이외에 국왕이 발행하는 각종 문서에 사용할 국새를 국내에서 자체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세종 때 중원의 제도를 모방하여 국새로 대체한 <국왕행보(國王行寶)>·<국왕신보(國王信寶)> 등을 제작해서 국왕 문서에 사용하였다. 이후 교명·교서·교지를 비롯하여 과거(科擧) 관계의 문서, 유서(諭書), 서적의 반사 등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국새를 달리하였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국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를 10점 제작하였다. 왕실인사의 호칭이 변경됨에 따라 태후·황후·황태자·황태자비의 어보도 함께 제작하였다. 당시 제작된 국새는 1점을 제외한 모든 국새의 보뉴(寶鈕)가 귀뉴(龜鈕)에서 용뉴(龍鈕)로 바뀌었고, 보문(寶文)은 인(印)에서 새(璽)·보(寶)로 대체하였다. 서체도 기존의 복잡한 구첩전(九疊篆)에서 대부분 간명한 소전(小篆)으로 바뀌었다.

<준명지보>는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사용한 국새로 1889년(고종 26)부터 사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국새로 <흠문지보(欽文之寶)>·<명덕지보(明德之寶)>·<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다.

세자시강원은 춘방(春坊)이라고도 하는데, 세자에게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강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선 초기 서연(書筵)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1466년(세조 12)에 세자시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선시대에 줄곧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후 세자시강원은 국왕을 위시한 왕실의 호칭 변경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1895년(고종 32) 조선에서는 ‘왕세자’를 ‘왕태자’로 고치고, 이듬해인 1896년(건양 1)에는 ‘왕세자시강원’을 ‘왕태자시강원’으로 바꾸었다. 이후 대한제국이 들어선 1897년(광무 1)에 다시 ‘황태자’와 ‘황태자시강원’으로 각각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고종은 시강원 관격(官格) 격상에 대한 명을 내려 “전교하시기를 ‘춘방의 직책은 본래 청렴한 준결들이라야 하니, 마땅히 우대하는 뜻을 보여야 할

것이다. 보덕 이하 시임 및 새로 임명된 인원에게 본원에서 교서를 만들어 특별히 반포하는 일을 지금부터 규례로 기록하라.'라고 하시었다[敎曰, 春坊之職, 本自清雋, 宜示優待之意. 輔德以下時任及新拜人, 自本院撰出敎書, 特爲頒宣事, 自今著式].”(『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7월 18일 임술)라고 하였다. 이후 보름 뒤에 <신명지보>를 비롯한 국새의 새로운 제조를 명하여 “<대조선국보>·<준명지보>·<동문지보>·<흠문지보>·<명덕지보>·<광운지보>를 제조하라 명하시었다[命造成大朝鮮國寶, 濬明之寶, 同文之寶, 欽文之寶, 命德之寶, 廣運之寶]”(『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8월 5일 무인)라고 하였다. 이후 3개월 뒤에 <준명지보>의 사용에 대해 “세자시강원의 교서는 <준명지보>를 청해 찍는 일을 규례로 정하라고 명하시었다[命春坊敎書, 以濬明之寶, 請出安寶事定式].”(『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10월 7일 기묘)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준명지보>는 1889년(고종 26) 8월 5일에서 10월 7일 사이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시강원 관원들은 종3품 보덕(報德)을 비롯하여 필선(弼善, 정4품)·문학(文學, 정5품)·사서(司書, 정6품)·설서(設書, 정7품) 등이 모두 <준명지보>가 찍힌 교지나 교서를 받았다. 이를 보면, <준명지보>는 고종이 세자시강원의 관격을 격상하면서 제작한 국새로 1889년 10월 7일부터 품계에 관계없이 모든 시강원 관원에 대한 교지 및 교서에 찍었던 국새였음을 알 수 있다. <준명지보>의 형제(形制)에 대해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濬明之寶 玉

方三寸二分 臺高一寸一分 龜鈕長四寸 廣二寸七分 高一寸四分 刻深半分 郭廣一分半 安於春坊敎旨奉安大內

즉, <준명지보>는 옥 재질이고, 사방 3촌 2푼(실측 : 寶身은 88.08×88.46mm이고, 높이는 28.30mm), 받침대 높이는 1촌 1푼(실측 : 전체 높이는 69.43mm이고, 臺高는 28.30mm), 귀鈕의 길이는 4촌으로 너비는 2촌 7푼이고 높이는 1촌 4푼이며(실측 : 寶鈕의 길이는 113.15mm이고, 너비는 67.77mm이며, 높이 41.13mm), 새김 깊이는 반 푼, 보곽의 너비는 1푼 반(실측 : 寶郭은 5.25mm)으로 춘방 교지에 안보하여 궁전에 안치하였다.

<준명지보>의 무게는 1008.5g이고, 보鈕(寶鈕)는 귀鈕(龜鈕)로 임진왜란 이후 만들어진 어보에서 많이 보이는 부리부리한 눈과 코, 송곳니와 갈기가 조각되는 등 용두를 닮은 형상을 하고 있다. 귀두는 목이 굵고 짧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귀갑과 귀갑문대는 2조의 음각선으로 장식하여 인공미가 풍부하다.

<준명지보>에 사용한 서체는 소전(小篆)이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중앙 집권제를 실행하면서 문자와 도량형을 통일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사는 승상으

로 있으면서 서동문(書同文) 정책을 실행했는데, 즉 육국문자를 버리고 서주시기 주문(籀文)인 대전을 덜고 더하여 소전을 만들었다. 이를 또한 진전(秦篆)이라고도 일컫는다. 진시황 28년(기원전 219)에 태산·낭야·역산을 순시하고, 39년(기원전 210)에 회계를 순시할 때 소전으로 진시황의 송덕을 기리는 각석을 세웠다. 현존하는 <태산각석>·<낭야대각석>의 원탁 잔본을 보면, 이사가 썼다는 소전은 자형의 구조가 통일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서풍이 매우 규정적이고 단정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 표현인 필획은 일률적으로 둥글고 고르며, 결체는 대칭·균등을 다하였고, 장법 또한 정제되어 조금의 느슨함도 없었다. 형체는 장방형을 나타내면서 각 글자마다 2 : 3의 비율에 합하였고, 원전(圓轉)은 마치 강철을 구부린 것 같이 힘이 안으로 응축하였으며, 엄숙하고 장엄한 면모를 나타내었다.

조선시대 국새에 사용한 서체는 대부분 구첩전이였다. 이를 또한 첩전(疊篆) 혹은 상방대전(上方大篆, 一作 尙方大篆)이라고도 한다. 한인(漢印)의 인문(印文)에서 필획이 적은 글자는 구불거리면서 가득 채워 쓰는 법이 있었다. 송나라 이후 관인은 이러한 필법을 점차 많이 운용하여 크게 발전시켰다. 이후 다시 구첩전이란 명칭이 있었는데, 필획은 구불거리면서 선회하며 가면 갈수록 더욱 세밀하였다. 이는 각 글자를 모두 9번 겹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6번·7번·8번에서 때로는 10번 혹은 그 이상 겹치게 하는 것도 있다. ‘구첩전’이란 명칭은 꺾고 겹쳐서 여러 층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취한 것이다.

이를 보면, 고종이 최초로 전국을 통일하고 황제의 지위에 오른 진시황의 권위와 상징성이 담긴 소전을 구첩전 대신 국새에 사용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또한 중국은 대대로 새보에 사용한 서체가 소전이었기 때문에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용해온 구첩전에서 탈피하여 소전을 국새의 서체에 반영하였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준명지보>는 각 글자의 자경(字徑)은 49.03mm이고, 필획의 굵기는 2.87mm이며, 주문인(朱文印)이다. 4글자를 세로로 2글자씩 분포하고, 필획은 고르고 균등하며, 기필·수필은 모두 원필로 처리하여 부드러우면서도 혼후함을 나타내었다. 글자마다 대칭을 이루고,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는 전절 부분에서 모두 안은 약간 모나면서도 밖은 둥글게 처리하여 부드러우면서 굳센 외유내강(外柔內剛)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도법은 충도법(衝刀法)을 주로 삼으면서 절도법(切刀法)으로 수식을 가해 둥글고 윤택하며 고른 필획을 나타내어 옥저전(玉筋篆, 一作 玉箸篆)의 전형을 이루었다. 장법은 각 글자를 정방형의 형태로 고르게 포치하여 평정하면서도 안정감을 나타내었다. 특히 곡선과 직선을 대비시켜 변화를 나타내었다. 예를 들면, ‘濬’자에서 ‘目’의 위아래 부분과 ‘明’자에서 ‘日’의 네 모서리와 안에서 공간을 분할해주는 3개의 곡선, ‘寶’자에서 ‘缶·貝’의 곡선은 나머지 직선 필획과 대비를 이루어 굳세고 곧은 가운데 부드러운 조화를 나타내었다.

<준명지보>는 <황제지보>·<유서지보>와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보곽(寶郭)의 차이점이다.

<준명지보>의 보곽은 5.25mm로 <유서지보>(10.33mm)와 <황제지보>(11.00mm)의 절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엄하고 위엄이 있는 면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새김의 차이점이다.

<준명지보>의 새김 깊이는 반 푼으로 <유서지보>(1푼)와 <황제지보>(1푼)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장엄하고 위엄이 있으면서 그윽한 맛을 나타내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장법의 차이점이다.

장법은 또한 ‘분간포백(分間布白)’ 혹은 ‘분행포백(分行布白)’이라고도 일컫는다. 이는 필획과 필획 사이, 행간·자간 및 전체 글자의 포국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준명지보>의 필획 굵기는 2.87mm로 <유서지보>(2.64mm)보다 조금 굵지만, <유서지보>가 구첩전을 사용하여 보면을 가득 메워 엄숙하고 긴밀한 반면에 <준명지보>는 소전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성글고 명랑한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유서지보>와 <황제지보>는 같은 소전을 사용하였지만, <황제지보>(5.47mm)의 필획이 2배나 굵기 때문에 더욱 중후하고 혼후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준명지보>는 전체적으로 <황제지보>·<유서지보>가 근엄하고 엄숙하며 그윽한 풍격을 나타낸 것에 비해 맑고 윤택하며 명랑한 풍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황제지보>가 친임관칙지(親任官勅旨)용으로 사용하고, <유서지보>는 국왕의 명령서인 유서(諭書)에 사용한 것에 비해 <준명지보>는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사용한 국새라는 성격 차이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또한 보뉴(寶鈕) 공예에서 <황제지보>·<유서지보>는 장엄하고 정교한 반면에 <준명지보>는 인공미가 풍부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명지보>의 예술적·자료적 가치는 결코 손상되지 않는다. 다만 <황제지보>·<유서지보>에 비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 지정사례

보물 제1618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皇帝御璽)>(2009년 9월 2일 지정, 국립고궁박물관 소장)가 있다.

○ 참고문헌

- 成仁根,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09.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의 관인』, 2009. 11.
- 사명해저 광노봉역, 『印學史』, 다운샘 2011. 09.
- 성인근, 「미국에서 환수한 조선왕실 인장문화재의 가치와 과제」, 『文化財』 제47권 제4호, 2014. 12.

□

○ 내용 및 특징

준명지보는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청인 世子侍講院(春坊) 관원의 교지에 사용하는 국새로 1889년에 제작한 龜鈕形 玉寶이다. 고종 26년(1889) 8월에 왕이 “대조선국보, 준명지보, 동문지보, 흙문지보, 명덕지보, 광운지보를 만들라”고 명하였고,⁴⁵⁾ 同年 10월에는 “세자시강원의 교서에는 준명지보를 청해 찍는 것을 규례로 정하라”고 명하였다.⁴⁶⁾ 『승정원일기』를 보면 같은 해 12월1일에 시강원에서 관리 제수에 준명지보를 청한 예를 볼 때 준명지보는 1889년 8월~9월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⁴⁷⁾

준명지보의 형태는 『대례의궤』나 『보인부신총수』에 수록된 옥제 龜鈕形 황제지보와 매우 유사하나 대체적으로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다.(도12, 13) 부분별 크기에 대해서는 『보인부수총수』와 『이조새보인압부신제』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⁴⁸⁾(도13), [표3 참조]

표3. 준명지보에 관한 내용

분류	『寶印符信總數』(1900~1907)	『李朝璽寶印押符信制』(1910~1915)	환산치cm
크기	濬明之寶 玉 方三寸二分臺高一寸一分龜鈕長 四寸廣二寸七分高一寸四分刻深 半分郭廣一分半安於春坊教旨奉 安大內	濬明之寶 安於春坊官教旨 白玉製方三寸二分臺高一寸一分 龜鈕長四寸廣二寸七分高一寸四 分刻深半分郭廣一分半	한 변 9.2 臺高 3.2 龜鈕: 길이 11.5 높이 4.0 폭 7.7

전체적으로 푸른 빛 결이 있는 옥을 조각하여 만든 준명지보는 기록의 환산치와 달리 총고 약 7cm, 대좌 높이 약 2.8cm이며, 인면(보신)은 한 변이 대략 8.9cm정도이고 보곽은 약 0.5cm이다. 印文은 자경 4.9cm 크기로 4글자 모두 글씨 획이 細長한 편이다. 구뉴의 얼굴은 유서지보와 마찬가지로 수염과 날카로운

45) 『高宗實錄』 26권 8월5일(戊寅), “命造成大朝鮮國寶 濬明之寶 同文之寶 欽文之寶 命德之寶 廣運之寶.”

46) 『高宗實錄』 26권 10월7일(己卯), "命春坊教書 以濬明之寶 請出安寶事定式."

47) 『承政院日記』 136책, 고종 26년 12월1일(壬申), “又以侍講院言啓曰 新除授說書朴箕陽 教書 安寶次 濬明之寶請出之意 敢啓 傳曰 知道.”

48) 『李朝璽寶印押符信制』가 『寶印符信總數』의 내용을 옮겨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빨을 갖춘 용두형이며, 구부린 자세로 네발로 대좌를 굳건하게 딛고 머리를 들고 있다. 등의 귀갑문은 이중 곡선으로 표현하였는데, 덩어리 옥을 쪼아내서 형태를 잡고, 튀어나온 거북의 얼굴과 신체를 조각하고 인문의 자획까지 전각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수정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숨씨가 뛰어나다. 배 아래에는 매듭끈을 끼우기 위한 구멍이 뚫려있다. 인면에는 붉은 인주가 남아 있고 “之”자의 오른 쪽(인문의 향좌측) 획이 결락된 부분이 있다.(도15)

이러한 준명지보는 제작년대가 분명한 왕실공예품이라는 점과 세자시강원관리를 임명하는 문서에 날인하는 국새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있고, 환수문화재라는 의미도 있다.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이어서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

○ 참고문헌

- 『大禮儀軌』, 1897
- 『寶印所儀軌』, 1876
- 『寶印符信總數』, 1900~1907
- 『李朝璽寶印押符信制』, 1910~1915

[도판]



도12. 준명지보, 옥, 1889년(고종26)



도13. 『寶印符信總數』 중의 준명지보



도14. 준명지보 印鈕



도15. 준명지보 인면의 결락부분

□

○ 현 상

2014년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반환된 국새(國璽)와 어보(御寶) 그리고 조선왕실의 인장 등 9점 [황제지보(皇帝之寶),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 유서지보(諭書之寶), 준명지보(濬明之寶), 향천심정서화지기(香泉審定書畫之記), 우천하사(友天下士), (雙螭), 춘화(春華), 연향(硯香)] 가운데 하나이다.

6·25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으로 반출했다가 문화재청의 수사요청에 따라 대검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서 서로 수사를 도와 압수한 것이다.

현재 인끈 [寶綬] 은 없어졌으나,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보인부신총수>

<실제 사진>

○ 내용 및 특징

국새(國璽)는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던 인장(印章)을 말한다. 조선 시대에는 국인(國印)·새보(璽寶)·어보(御寶)·대보(大寶)라 하여 왕의 인장이 국새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대·교린의 외교 문서 및 왕명으로 행해지는 국내 문서에 사용되었다. 또한 왕위 계승 시에는 전국(傳國)의 징표로 전수되었다. 또, 왕의 각종 행차 시에는 그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행렬의 앞에서 봉송되기도 하였다.

새보(璽寶)의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역대 제왕(帝王)의 옥새와 옥보의 제도[璽寶之制]는 한(漢)나라 때에는 6옥새[璽], 당(唐)나라 때에는 8옥새, 송(宋)나라 때에는 8옥새를 일에 따라 사용하였사온데, 당나라의 신새(神璽)·송나라의 진국신보(鎮國神寶)와 같은 것은 중국을 진안(鎮安)하는 중보(重寶)로서 간직하여 두고 쓰지 않았사오나, 그 신새(信璽)와 신보(信寶)는 사신(事神)·발병(發兵)등의 일에 쓰였고, 행새(行璽)와 행보(行寶)는 봉국(封國)·책봉(冊封) 등의 일에 쓰였사오며, 기타 새보의 글[璽寶之文] 내용과 용도는 시대에 따라 각각 같지 않았사온데, 우리 나라는 중국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의 글에,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라고 칭하였사오니, 이는 국내의 보통 일에 쓰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옛 제도에 따라 국왕의 신보(信寶)를 부여 만들어서 사신(事神)·교유(教宥)·공거(貢擧) 등의 일에 쓰게 하옵시고, 국왕의 행보(行寶)도 만들어 책봉(冊封)·제수(除授) 등의 일에 쓰게 하옵시며, 그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는 사대 문서(事大文書)에만 쓰시고 그 밖에는 쓰지 마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0월 12일 정유 5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이같이 세종대에는 중국 황제가 보내 준 대보(大寶) 외에 국왕의 신보(信寶)는 사신(事神)·교유(教宥)·공거(貢擧) 등의 일에 쓰고, 국왕의 행보(行寶)는 책봉(冊封)·제수(除授) 등의 일에 사용하였는데 이듬해인 세종 15년 3월에 행보(行寶)와 신보(信寶)를 주조하였다. 기록에는 새보의 재질과 무게 그리고 보문(寶文)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행보(行寶)와 신보(信寶)가 이룩되었다. 예전에 전국보(傳國寶)가 있었는데, 그 보문(寶文)에는 '국왕 신보(國王信寶)'라고 새겼다. 임금이 집현전에 명하여 옛 제도를 상고하여 이 두 보(寶)를 고쳐 만들게 하였는데, 그 제도는 한결같이 흡사 대보(欽賜大寶)에 의하여 모두 금을 쓰고, 신보의 무게는 1백 64냥이고, 행보의

무게는 1백 76냥이었다. 신보의 글은 ‘국왕 신보(國王信寶)’이고, 행보의 글은 ‘국왕 행보(國王行寶)’인데, 신보는 사신(事神)·교유(敎宥) 등의 일에 쓰고, 행보는 책명(冊命)·제수(除授) 등의 일에 쓰며, ‘흠사대보’는 사대 문서(事大文書)에만 썼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2일 을묘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그러나 이같은 행보(行寶)와 신보(信寶)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세종 25년에 이르러 그 사용처에 맞춘 인(印)을 다시 검토하여 용도에 맞는 국새들이 제작되었다.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황제(皇帝)께서 준 대보(大寶)의 글귀에, ‘조선 국왕(朝鮮國王)’이라 일컬어서 경내(境內)의 범상한 일에 쓰기가 마땅치 않으므로, 국왕 신보(國王信寶)를 만들어서 사신(事神)·사유(赦宥)·공거(貢擧) 등의 일에는 이를 쓰게 하고, 국왕 행보(國王行寶)를 만들어서 책봉(冊封)·제수(除授) 등의 일에도 이를 쓰게 하며, 황제가 준 대보(大寶)는 사대문서(事大文書) 이외에는 간직하여 두고 쓰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참상(慘祥)하건대, 행보(行寶)·신보(信寶)는 경내에서 쓴 것인데도 그 글에 아울러 국왕이라고 일컬었으니, 특히 뜻[意]이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또 예전에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글을 만들었는데, 삼가 경전(經傳)을 상고하면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명고(命誥)를 사방에 베푼다.’ 하였고, 《국어(國語)》에 말하기를, ‘말은 신(信)을 밝히[昭]는 것이라.’ 하였으니, 마땅히 이 뜻을 취하여 행보(行寶)를 시명지보(施命之寶)로 고치고, 신보(信寶)를 소신지보(昭信之寶)로 고치어, 시명지보는 책봉(冊封)·제수(除授), 보통 행하는 교서(敎書) 등의 일에 쓰고, 소신지보는 신명(神明)을 섬기고 군사를 발하고 물건을 주는 등 일에 쓰오면, 거의 명령을 행하고 신(信)을 보이는 뜻에 합할 것입니다. 또 종전에는 행보(行寶)·신보(信寶)를 과거보는 사람의 권자(卷子)에 쓰고 승지(承旨)가 신봉함(臣封緘)이라고 일컬었는데, 이제 친히 압인(押印)하고 제봉(題封)하면서 인문(印文)은 다 고치었으니 공거(貢擧)에 쓰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과거(科擧)의 인(印)을 따로 만들어서 승지(承旨)로 하여금 신봉함(臣封緘)이라 일컫고 상서원(尙瑞院)에 간직하여 두고서 전시(殿試)에만 쓰게 하면 참으로 사의(事宜)에 합할 것입니다.”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0월 2일 계미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곧 예조와 의정부에서 행보(行寶)를 ‘시명지보(施命之寶)’로 고치고, 신보(信寶)를 ‘소신지보(昭信之寶)’로 고치어, ‘시명지보’는 책봉(冊封)·제수(除授), 보통 행하는 교서(敎書) 등의 일에 쓰고, ‘소신지보’는 신명(神明)을 섬기고 군사를 발하고 물건을 주는 등 일에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검토하였다. 또한 과거(科擧)의

인(印)을 따로 만들 것도 제시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이외에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의 어보들이 사용되었다. 서적을 반포, 하사할 때 쓰는 ‘선사지기(宣賜之記)’·‘선황단보(宣貺端輔)’·‘동문지보(同文之寶)’, 왕이 지은 글에 찍는 ‘규장지보(奎章之寶)’, 각신(閣臣)의 교지에 쓰는 ‘준철지보(濬哲之寶)’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쓰는 ‘준명지보(濬明之寶)’가 있으며, 기타로 ‘흠문지보(欽文之寶)’·‘명덕지보(明德之寶)’·‘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다.

지정 대상 유물인 ‘준명지보(濬明之寶)’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관원의 교지에 사용되었던 국새이다.

세자시강원은 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로서 왕세자를 모시고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을 강의하며 도의(道義)를 가르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관원으로는 사(師, 정1품), 부(傅, 정1품), 이사(貳師, 종1품), 좌우빈객(左右賓客, 정2품), 좌우부빈객(左右副賓客, 종2품), 찬선(贊善, 정3품), 보덕(輔德, 정3품), 겸보덕(兼輔德, 정3품), 진선(進善, 정4품), 필선(弼善, 정4품), 겸필선(兼弼善, 정4품), 문학(文學, 정5품), 겸문학(정5품), 사서(司書, 정6품), 겸사서(兼司書, 정6품), 설서(說書, 정7품), 겸설서(兼說書, 정7품), 자의(諮議, 정7품)가 각각 1인이 있었다. 사는 영의정이, 부는 좌우의정 중에 1인이, 이사는 찬성 1인이 겸하였고, 빈객과 부빈객도 모두 겸직이었다. 찬선 이하는 모두 녹관(祿官)이었는데, 찬선과 진선은 겸관으로 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환수된 ‘준명지보(濬明之寶)’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하여 1889년(고종26)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 ‘준명지보(濬明之寶)’, ‘동문지보(同文之寶)’, ‘흠문지보(欽文之寶)’, ‘명덕지보(命德之寶)’, ‘광운지보(廣運之寶)’를 만들라고 명하였다.

[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8월 5일 무인 2번째기사 1889년 조선 개국(開國) 498년]

이같은 조치는 새로운 국새를 만들기 보름여 전 세자시강원의 관격(官格)을 높이고자 하는 고종의 명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후 세자시강원의 교서에 ‘준명지보’를 청하여 찍는 일은 정식이 되었다.

전교하기를,

“춘방(春坊)의 직책은 본래 청렴한 준결들이라야 하니 우대하는 뜻을 보여야 할 것이다. 보덕(輔德) 이하의 시임(時任)과 새로 임명된 인원에게 본원에서 교서(敎書)를 만들어 특별히 반포하는 것을 이제부터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7월 18일 임술 2번째기사 1889년 조선 개국(開國) 498년]



조사 유물인 ‘준명지보’의 규격은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를 참조할 수 있다. 『보인부신총수』는 대한제국 황실의 공용(公用)의 보인(寶印)과 부신(符信)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으로, 고종에 관계된 보인과 부신을 비롯하여 각 궁별로 총 55종(明憲太后殿 6종, 皇后殿 7종, 皇太子殿 13종, 皇太子妃殿 7종, 皇太孫殿 9종, 皇太孫妃殿 6종, 順和宮 2종, 慶善宮 4종, 英親王宮 1종)의 보인·부신이 수록된 자료이다. 이 책을 통하여 ‘준명지보’의 규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濬明之寶 玉

方三寸二分 臺高一寸一分 龜鈕長

四寸廣二寸七分 高一寸四分 刻深

半分 郭廣一分半 安於春坊教旨奉安大內

곧, 옥으로 만들어진 ‘준명지보’의 사방 너비는 3촌 2푼(실측:너비88.08×88.46mm, 높이28.30mm), 대좌의 높이는 1촌 1푼(실측:28.30mm), 거북 모양의鈕는 길이는 4촌, 너비는 2촌 7푼, 높이는 1촌 4푼 [실측:길이113.15mm, 너비67.77mm, 높이41.13mm]이었다. 또한 새김 깊이는 반푼, 광의 너비는 1푼반 [실측:광5.25mm]이었다. 무게는 1008.5g이다.

鈕(鈕)는 거북 모양으로 임진왜란 이후 만들어진 어보에서 많이 보이는 부리부리한 눈과 큰 코, 송곳니와 갈기가 조각되는 등 용두를 닮은 형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귀두는 목이 굽고 짧은 형태이다. 귀갑과 귀갑문대는 2조의 음각선으로 장식하였다.

‘준명지보’의 보문(寶文)은 ‘濬明之寶’로 자체(字體)는 ‘소전(小篆)’이며 배자(配字)는 세로로 2자씩 되어 있다. 인면은 외곽에 광곽을 두른 후 글자를 새겼는데 광곽은 ‘유서지보’, ‘황제지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는 편이다. 또한 새김 깊이에 있어서도 반푼으로 ‘유서지보’와 ‘황제지보’ 두 국새의 절반 정도이다. 각

글자의 자경(字徑)은 49.03mm이고, 필획의 굵기는 2.87mm이다,

○ 지정사례

보물 제1618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大韓帝國 高宗 「皇帝御璽」)]
(2009.09.02. 지정,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이 있다.

○ 참고문헌

- 成仁根,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09.
- 成仁根,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國璽의 변화상」, 『역사와 실학』 제36집, 2008. 09.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의 관인』, 2009. 11.
- 사명해 저 곽노봉 역, 『印學史』, 다운샘, 2011. 09.
- 성인근, 「미국에서 환수한 조선왕실 인장문화재의 가치와 과제」, 『文化財』 제47권 제4호, 2014. 12.

19. 협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

가. 검토사항

‘협주명현십초시’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협주명현십초시’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11.12)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2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협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
- 소유자(관리자) : 손성훈(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길 11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수 량 : 3권3책(권상 34장, 권중 44장, 권하 39장, 발문 2장)
- 규 격(cm) : 半郭 24.8×17.0(32.0×20.4)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52년(단종 1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협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는 과거시험 준비생들의 수요를 염두에 두고, 권람의 교정을 거쳐서 간행한 중국과 한국(신라)의 시인 30명의 시선집이다. 내용은 각 시인의 작품중에서 7言律詩 각 10편씩 총300편을 뽑아 주해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은 경상도 밀양부에서 간행한 지방관판본으로서, 한국인이 그 대상을 선정하고 직접 주해한 최초의 한중시선집으로 매우 귀한 사례에 속하는 책이다. 고려시대의 한문학 및 지방 출판사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책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협주명현십초시』는 널리 유통되지 않은 탓에 후대 시선집 편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우리 시인 4인의 시를 선별하여 편찬한 최초의 우리 시선집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나아가 일시(佚詩)는 물론 주석에서 일문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문헌이다. 곧 동아시아의 서적 유통과 문화 수용의 양상 및 한시의 학습과 활용 양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의 전적문화재이다.

현재 국내에는 동일한 판본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에 2질이 전하고 있으나 손상되거나 결락된 장이 있으므로 거의 완전한 판본으로는 이 책이 유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 조사본 『협주명현십초시』는 고려시대 명현(名賢)이 가려 뽑아놓은 「십초시(十抄詩)」를 바탕으로 신인종(神印宗) 승려인 자산(子山)이 주석을 붙인 시선집(詩選集)이다. 더욱 최치원, 박인범, 최승우, 최광유 등 신라대의 학자와 관련된 시를 선별하여 편찬하면서 일시(佚詩)는 물론 주석을 수록하여 한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책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고려말 조선초 서적 유통과 문화 수용의 양상 및 한시의 학습과 활용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동일한 판본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에 전하고 있으나 손상되거나 결락된 장이 없는 완전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서지사항

夾注名賢十抄詩. 卷上,中,下 / [編者未詳] ; 子山(高麗) 夾注
木板本

[密陽]: [密陽府], [端宗 卽位年(1452)]

3卷 3冊 : 四周雙邊 半郭 25.0×17.0cm, 有界, 10行 20字 注雙行, 上下大黑口,
內向黑魚尾 ; 31.9×20.3cm

版心題: 十抄詩

跋: 景泰三年壬申(단종3년,1452)仲夏初吉…權學敬跋

刊記: 壬申(1452)五月 工未半……及數月 功乃告訖

○ 내용 및 특징

『협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는 당나라 시인 26명과 신라인으로 당나라에 유학한 4명 등, 모두 30명의 시인을 선정하고, 이들이 지은 시를 가리 10수씩 뽑아 모으고, 이 들에 상세한 주석을 붙인 시선집이다. 시를 抄集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점만 알 수 있을 뿐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권람의 발문을 통하여 선집을 한자가 동국인(東國人)이라는 점과 주석을 붙인 자가 고려말기의 신인종(神印宗)의 승려인 자산(子山)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협주에는 작가의 자, 호, 과거, 문집, 벼슬 등과 저작배경, 인명, 지명, 건물 등과 관련한 고사를 밝혀놓았으며, 특히 시구에 전거를 부기해 놓아 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수록된 시는 中唐에서 五代 시기에 활동한 중국의 시인 26명과 입당(入唐) 유학생인 신라인 4명 등 모두 30명이 지은 七言律詩 300수이다. 『협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의 권별 수록시인은 다음과 같다.

권별수록 내역

권차	수록 시인	비고
상권	유우석(劉禹錫), 백거이(白居易), 온정균(溫庭均), 장적(張籍), 장효표(章孝表), 두보(杜甫), 이원(李遠), 허혼(許渾), 응도(雍陶), 장호(張祜)	
중권	조하(趙嘏), 마대(馬戴), 위섬(韋巘), 피일휴(皮一休), 최치원(崔致遠), 박인범(朴仁範), 두순학(杜荀鶴), 조당(曹唐), 방간(方干), 이웅(李雄)	
하권	오인벽(吳仁璧), 한중(韓琮), 최승우(崔承祐), 최광유(崔匡裕), 나업(羅鄴), 진도옥(秦韜玉), 나은(羅隱), 가도(賈島), 이산보(李山甫), 이군옥(李群玉)	

이 가운데에서 권중에 수록된 최치원, 박인범과 권하에 수록된 최승우, 최광유 등 4명은 중국 당나라로 유학 갔다 돌아온 신라 하대(下代)에 활동한 신라인 들이다. 3권으로 나누어 수록한 30인의 시인과 수록된 시의 내용은 2권으로 편성된

주가 달리지 않은 시선집인 『십초시(十抄詩)』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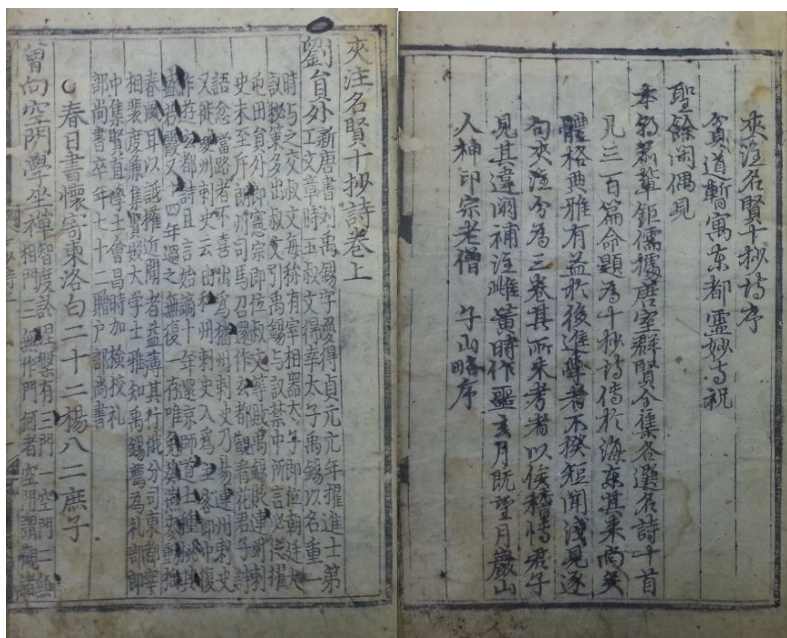
이 『협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의 교정과 검토를 맡고 발문을 쓴 사람은 권람이다. 그의 발문에 의하면 권람이 교정한 『협주명현십초시』의 대본은 1337년(後至元 3)에 안동부에서 간행한 판본이고, 안동판본의 저본은 권사복(權思復)의 사본을 바탕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권사복의 생몰년은 분명하지 않으나 활동시기가 이색(1328~1396)보다는 약간 선행이므로 이 『십초시(十抄詩)』는 늦어도 14세기 전기에는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에 자산이 달은 협주는 학술적 가치고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인용하고 있는 자료중에는 지리·전기·소설·잡록·시화 등 다방면의 일실(逸失)된 서적을 확인할 수 있어서 문헌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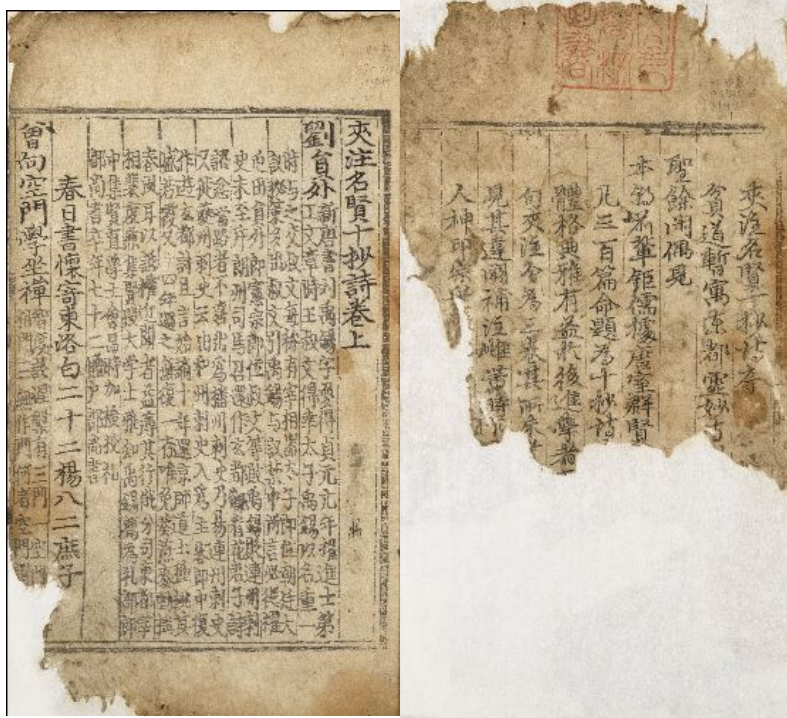
조사 대상본의 권두에는 목록과 자산의 서문이 있고, 권하가 끝난 뒤에는 교정을 담당한 권람의 발문과 이운준(李云俊)의 발문이 있다. 1452년(단종 즉위년)에 쓴 이 발문에는 이 책을 밀양부에서 간행하게 된 배경과 간행의 조력자 및 저본의 유래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런 기록을 통하여 조사본인 『협주명현십초시』는 1337년에 안동부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권람이 교정한 후 1452년경에 밀양부에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권람의 발문에 이어서 붙어있는 밀양(密陽) 유학교수관(儒學教授官) 이운준의 발문을 보면, 권람에게 교정을 부탁한 이는 밀양부사 이백상이며 책판에 쓸 개관용 정서본을 쓴 사람은 儒生인 박학문(朴學問)이다. 문종 2년(1452) 5월에 부사가 교체되어 새로 부임한 이긴(李緊)이 이어받아 완성하였다 한다. 마지막 장에는 경상도관찰출적사인 이승지(李崇之), 통선랑(通善郎)인 홍경손(洪敬孫, 1409~1481), 부사 이긴 등 조력자들과 실무를 맡은 사람들의 명록이 보인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협주명현십초시(지정 신청본)



규장각 소장본(가람 이병기 기증) 협주명현십초시

○ 문헌자료

- 강석중, “십초시 소개 중국 일시연구”, 중국문학 53호, 2007.
- 김건곤, “고려시대의 시문선집”, 정신문화연구 통권 68호, 1997.
- 김은정, “협주명현십초시 협주인용문헌및 전고활용연구”, 한문고전연구29호, 2014
- 심경호, Yoshimura Hiromichi, “조선본 협주명현십초시의 기초적 고찰”, 한자한문연구1호, 2005
- 호승희, “십초시 일고”, 계간서지학보 15호, 한국서지학회, 199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 현 상

누습의 흔적이 약간 있으나 대체로 양호함(제3책 마지막장 후면 가운데부분 일부 손상)

○ 내용 및 특징

夾注名賢十抄詩. 卷上中下 / [編者未詳] ; 子山(高麗) 夾注

木板本

[密陽]: [密陽府], [端宗 卽位年(1452)]

3卷3冊 : 四周雙邊 半郭 25.0×17.0cm, 有界, 10行 20字 注雙行, 上下大黑口, 內向黑魚尾 ; 31.9×20.3cm

版心題: 十抄詩

跋: 景泰三年壬申(1452)仲夏初吉…權擥敬跋

刊記: 於壬申(1452)五月工未半…及數月功乃告訖

『협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는 고려시대 명현(名賢)이 가려 뽑아놓은 『십초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려말기의 신인종(神印宗)⁴⁹⁾ 승려인 자산(子山)이 주석을 붙인 시선집(詩選集)이다. 『십초시』라는 서명은 각 시인들의 대표작을 10수씩 뽑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협주에는 작가의 자, 호, 과거, 문집, 벼슬 등과 저작배경, 인명, 지명, 건물 등과 관련한 고사를 밝혀놓았으며, 특히 시구에 전거(典據)를 부기해 놓아 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십초시』의 편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 책의 하권 끝에 있는 발문에서 권람(權擥, 1416~1465)은 “시초(詩抄)를 한 사람은 동현(東賢)이고, 협주를 단 사람도 동승(東僧)”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명현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수록된 시는 당나라 말기의 대표적 시인 26명과 입당(入唐) 유학생인 신라인 4명 등 모두 30명의 칠언율시 300수이다. 권별로 보면, 권상에는 유우석(劉禹錫), 백거이(白居易), 온정균(溫庭均), 장적(張籍), 장효표(章孝表), 두보(杜甫), 이원(李遠), 허혼(許渾), 응도(雍陶), 장호(張祜) 등, 권중에는 조하(趙嘏), 마대(馬戴), 위섬(韋蟾), 피일휴(皮一休), 최치원(崔致遠), 박인범(朴仁範), 두순학(杜荀鶴), 조당(曹唐), 방간(方干), 이웅(李雄) 등, 권하에는 오인벽(吳仁璧), 한중(韓琮), 최승우(崔承祐), 최광유(崔匡裕), 나업(羅鄴), 진도옥(秦韜玉), 나은(羅隱), 가도(賈島), 이산보(李山甫), 이군옥(李群玉)의 시가 실려 있다. 이중에서 권중의 최치원(875~?), 박인범과 권하의 최승우, 최광유 등 4명이 신라인이다. 이렇게 3권으로 편성된 『협주명현십초시』는 각권마다 15명씩 2권으로 편성된 『십초시』와는 권수의 차이는 있으나 수록된 작품에는 차이는 없다.

수록된 작가와 시로 보아 『협주명현십초시』는 한시 수용의 초기 단계에서 주목하였던 작품과 전고(典故)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입당 유학생이 접하고 익힌 한시 수준을 학습하는 단계를 위해서 편찬되었고, 협주는 선발된 시편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록된 시가 율시의 표현기교가 앞서는 시인들의 시를 대상으로 삼은만큼 이용목적은 주로 “시구의 조탁(彫

49) 태종 7년 12월에 중도종(中道宗)과 통합되어 중신종(中神宗)이 되었다가 세종 6년에 교종으로 통합되었음.

琢)”을 위한 시 학습서로 추측하기도 한다.

『협주명현십초시』는 『십초시』에다 협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편성 시기는 『십초시』의 편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그러나 『십초시』의 편성 시기는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권람은 『협주명현십초시』의 발문에서 당시 자신이 교정한 『협주명현십초시』의 대본은 1337년(後至元 3)에 안동부에서 간행한 판본이며, 안동판본은 권사복(權思復)의 사본을 바탕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권사복은 이색(1328~1396)보다는 선배이므로 『협주명현십초시』는 늦어도 14세기 전기에는 편성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논평까지 포함되어 있는 자산의 협주는 매우 학술적이며 다양한 문헌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협주에서 지리·전기·소설·잡록·시화 등 다방면의 일실 서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헌적 가치가 높다. 협주는 작가, 제목, 시구 등에 달려 있다. 이 중에서 작가 협주는 사서(史書), 시선집(詩選集) 등을 인용함으로써 작가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제목 협주는 그 시의 저작배경이나 인명, 지명, 건물 등과 관련된 고사를 밝혀주고 있다. 또 시구 협주는 시구의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전거들을 부기하였으며, 대체로 인용문헌을 정확하게 소개해 놓았다.

그래서 일인학자 요시무라 히로미치(芳村弘道)는 협주의 특징(“東アジア文學における『十抄詩』『夾注名賢十抄詩』の價値”)에 대해 “전고를 정확하게 제시하였고, 지리·관제 등의 설명을 통해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등 당시 주석서로서 상당히 뛰어나며, 또 종래에 전혀 주석이 없었던 작품들을 상당수 수록하고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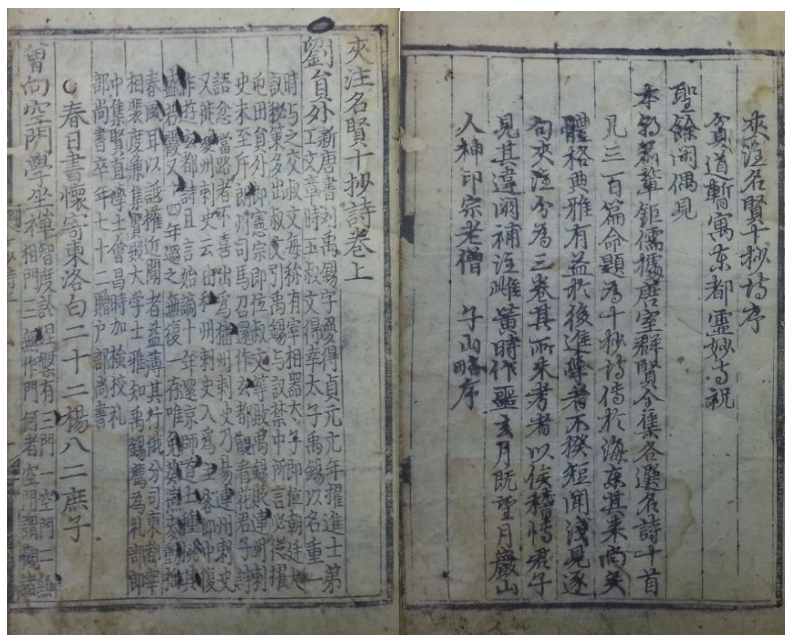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이 책의 권두에는 목록과 자산의 서문이 있고, 권하가 끝난 뒤에는 권람과 이운준(李云俊)의 발문이 있다. 먼저 『협주명현십초시』 권두에 있는 자산이 지은 서문을 통해 편찬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곧 자산은 “동도(경주)의 영묘사(靈妙寺)에 머물고 있을 때 우연히 전대의 명현 30인이 지은 한시 10수씩을 선별하여 삼 백편을 수록한 『십초시』를 보게 되었고, 그 시의 체격(體格)이 전아(典雅)하여 시를 배우는 후학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 각 구마다 협주를 붙이고 3권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다. 곧 그는 『십초시』가 시를 배우는 후학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 협주를 붙인 것이었다.

『협주명현십초시』는 문종 2년(1452)에 밀양의 부백(府伯)인 이백상(李伯常)과 감사상국(監司相國)인 전성이씨(全城李氏)가 주관하고 권람이 교정하여 간행하였다. 곧 권람은 발문에서 “1452년 밀양에서 우연히 본 중간본 『협주십초시』의 주석이 틀린 곳이 많기에 이를 이백상에게 가지고 가서 알렸다. 귀중한 동방의 유품이기는 하나 판본이 매우 희귀하였으므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곳의 405자를 고치고 바로 잡아 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권람은 “이 책은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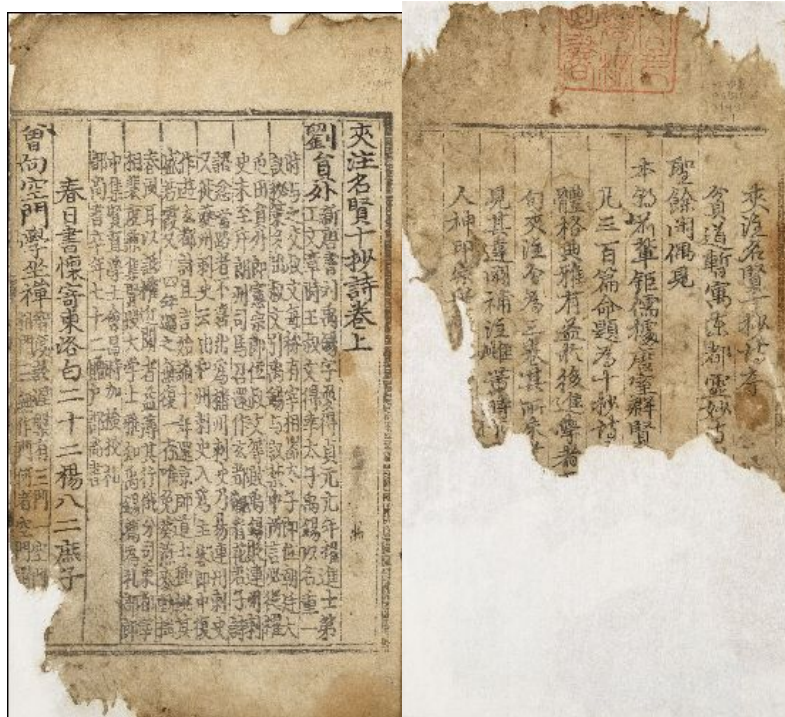
숙왕 6년(후지원3, 1337) 정축년 지금의 안동부에서 간행한 것으로 복성군(福城君) 권사복이 진사일 때 베껴놓은 것을 저본으로 안동부에서 간행”한 사실도 적어놓았다. 이렇게 지정대상본 『협주명현십초시』는 1337년에 안동부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권람이 교정한 후 1452년경에 밀양부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한편 이운준은 발문에서 “밀양부사 이백상이 권람에게 교정을 부탁하였고, 유생(儒生)인 박학문(朴學問)에게 글을 쓰게 하였다. 일이 절반도 완성되지 않은 문종 2년(1452) 5월에 부사가 바뀌었고, 새로 부임한 이긴(李緊)이 그 일을 감독하여 몇 달 만에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밀양에서 판각한 일은 부사 이백상과 이긴이 이어서 간행을 맡았던 것이다. 마지막 장에는 경상도관찰출적사인 이송지(李崇之), 통선랑(通善郎)인 홍경손(洪敬孫, 1409~1481), 부사 이긴 외에 서사(書寫), 감독, 교정을 맡은 박학문, 각수를 맡은 이영춘(李英春), 김순의(金順義), 대선(大禪) 혜수(惠修), 선사(禪師) 혜윤(惠允) 등 간행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다.

표제와 판심제는 『십초시』이다. 3책 모두 앞표지 내면에는 그 책에 수록된 작가와 첫 구절을 일목요연하게 목서해놓았다. 책의 권수면과 뒤표지 내면에는 「松簷」이라는 목서가 있다. 「송첨」은 월성손씨(月城孫氏) 종가인 서백당(書百堂)의 다른 이름이다. 서백당(송첨)은 마을의 입향조인 손소(孫昭, 1433~1484)가 성종 15년(1454)에 지은 집으로 현재 중요민속자료 제23호이다. 손소의 원소장본 또는 월성손씨 종가에서 보관하던 전적이라는 뜻으로 적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지정 신청본)



규장각소장본(가람 이병기 기증)의 손상과 본문가필

이와 동일한 판본은 이 책 외에 규장각한국학연구원⁵⁰⁾과 개인소장본⁵¹⁾ 그리고 일본의 요메이분코(陽明文庫) 소장본 등이 알려져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2009년에 동일한 서명으로 한국학자료총서:39로 영인 발행한 바 있다.

○ 문헌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석중, “십초시 소재 중국 일시연구”, 『중국문학』 53호, 2007

김건곤, “고려시대의 시문선집”, 『정신문화연구』 통권 68호, 1997

김은정, “협주명현십초시 협주인용문헌및 전고활용연구”, 『한문고전연구』 29호, 2014

심경호, Yoshimura Hiromichi, “조선본 『협주명현십초시』의 기초적 고찰”, 『한자한문연구』 1호, 2005

여운필, “『동문선』 시문의 출처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06호집, 2008

호승희, “십초시 일고”, 『계간서지학보』 15호, 한국서지학회, 1995

芳村弘道, “東アジア文學における『十抄詩』『夾注名賢十抄詩』の價值”, 『한국

50) 가람 이병기의 기증본으로 권두의 서문은 아래 반쯤, 다음 장인 목록은 가운데 아래 부분이 손상되어 글자가 결락되었다. 또 시문이 가필되어 있는 등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다.

51) 상하권에 낙장이 있는 3권본.

어문학회 학술포럼 학술대회』, 2007

□

書誌事項

夾注名賢十抄詩. 卷上中下 / [編者未詳] ; 子山(高麗) 夾注
木板本

[密陽]: [密陽府], [端宗 卽位年(1452)]

3卷3冊 : 四周雙邊 半郭 24.8×17.0cm, 有界, 10行 20字 注雙行, 上下大黑口, 內向
黑魚尾 ; 32.0×20.4cm

版心題: 十抄詩

跋: 景泰三年壬申(1452)仲夏初吉...權學敬跋

刊記: 於壬申(1452)五月工未半...及數月功乃告訖

○ 현 상

책의 권수면과 뒤표지 내면에는 「송침(松簷)」이라는 목서가 있다. 「송침」은 월성손씨(月城孫氏) 종가인 서백당(書百堂)의 다른 이름이다. 따라서 본래 양동마을 경주손씨 종택에서 보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장서각에 기탁되어 보존되고 있다. 지정 조사본은 권하의 발문 마지막장 후면 전반부가 일부 손상되었고, 전체적으로 누습의 흔적이 약간 있으나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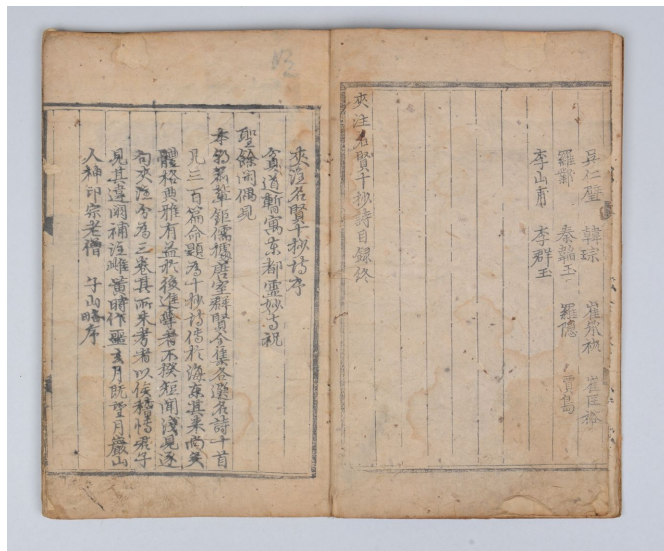
『협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는 고려시대 명현(名賢)이 가려 뽑아놓은 「십초시(十抄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려말기의 신인종(神印宗) 승려인 자산(子山)이 주석을 붙인 시선집(詩選集)이다. 처음 이름은 『명현십초시(名賢十抄詩)』이며, 줄여서 『십초시』라 부르고, 후에 주석(注釋)을 가함으로써 『협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라 하였다. 협주(夾注)에는 작가의 자(字)와 호(號)를 비롯하여 관직사실, 작품과 관련된 고사, 시구(詩句)의 전거(典據) 등을 기록해 놓았다.

서울대 규장각에 전하는 『십초시(十抄詩)』(古 3442-15)는 上,下 2권 1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협주를 붙인 『협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가람古貴 895.1108-H995-v.1-3, 古 3441-39)는 上中下 3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록 작품은 일치한다.

『협주명현십초시』의 권상에는 목록과 신인종 승려 자산(子山)의 서문 그리고 유우석(劉禹錫), 백거이(白居易), 온정균(溫庭均), 장적(張籍), 장효표(章孝表), 두보(杜甫), 이원(李遠), 허혼(許渾), 옹도(雍陶), 장호(張祜) 등의 시가 수록되었다.



表紙 / 目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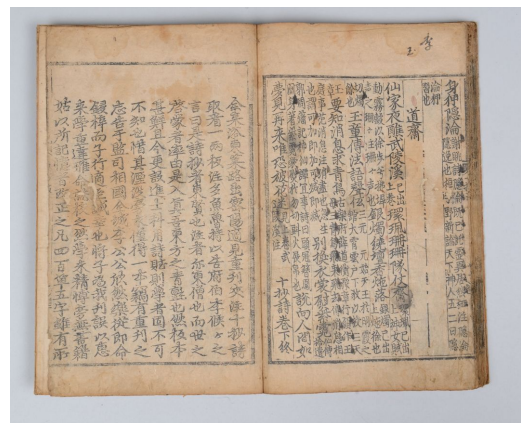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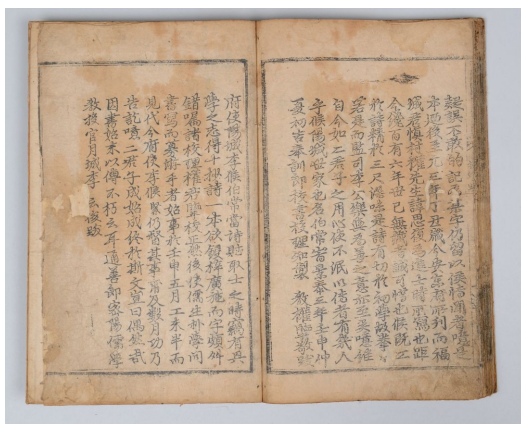


자산(子山) 서문

자산의 서문에는 “동도(경주)의 영묘사(靈妙寺)에 머물고 있을 때 우연히 전대의 명현 30인이 지은 한시 10수씩을 선별하여 삼 백편을 수록한 『십초시』를 보게 되었고, 그 시의 체격(體格)이 전아(典雅)하여 시를 배우는 후학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 각 구마다 협주를 붙이고 3권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다. 권중에는 조하(趙嘏), 마대(馬戴), 위섬(韋蟾), 피일휴(皮一休), 최치원(崔致遠), 박인범(朴仁範), 두순학(杜荀鶴), 조당(曹唐), 방간(方干), 이웅(李雄) 등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최치원과 박인범은 신라의 학자들이다.

권하에는 오인벽(吳仁璧), 한중(韓琮), 최승우(崔承祐), 최광유(崔匡裕), 나업(羅鄴), 진도옥(秦韜玉), 나은(羅隱), 가도(賈島), 이산보(李山甫), 이군옥(李群玉) 등의 율시 그리고 권람(權覽)과 이운준(李云俊)이 쓴 발문(跋文), 마지막 장에는 경상도관찰출적사인 이숭지(李崇之), 통선랑(通善郎)인 홍경손(洪敬孫, 1409~1481), 부사 이긴 외에 서사(書寫), 감독, 교정을 맡은 박학문, 각수를 맡은 이영춘(李英春), 김순의(金順義), 대선(大禪) 혜수(惠修), 선사(禪師) 혜운(惠允) 등 간행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다.



李云俊 跋文 / 權覽 跋文

권람의 발문에는 “1452년 밀양에서 우연히 본 중간본 『협주십초시』의 주석이 틀린 곳이 많기에 이를 이백상에게 가지고 가서 알렸다. 귀중한 동방의 유품이기는 하나 판본이 매우 희귀하였으므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곳의 405자를 고치고 바로 잡아 간행”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 책은 지원3년 [至元3年, 고려 충숙왕 후6년, 1337] 정축년에 지금의 안동부에서 간행한 것으로 복성군(福城君) 권사복(權思復)이 진사일 때 베껴놓은 것을 저본으로 안동부에서 간행”하였다고 적고 있다.

한편 이운준의 발문에서는 “밀양부사 이백상이 권람에게 교정을 부탁하였고, 유생(儒生)인 박학문(朴學問)에게 글을 쓰게 하였다. 일이 절반도 완성되지 않은 임신년 5월에 부사가 바뀌었고, 새로 부임한 이긴(李緊)이 그 일을 감독하여 몇 달 만에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밀양에서 판각한 일은 부사 이백상과 이긴이 이어서 간행을 맡았던 것이다.

따라서 『협주명현십초시』는 한시(漢詩)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에서 1337년에 안동부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권람이 교정한 후 1452년경에 밀양부에서

간행한 판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일한 판본은 이 책 외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개인소장본 그리고 일본의 요메이분코(陽明文庫) 소장본 등이 알려져 있다.

○ 지정사례

지정 사례는 없다

○ 문헌자료

강석중, “십초시 소재 중국 일시연구”, 『중국문학』 53호, 2007

김건곤, “고려시대의 시문선집”, 『정신문화연구』 통권 68호, 1997

김은정, “협주명현십초시 협주인용문헌및 전고활용연구”, 『한문고전연구』 29호, 2014

심경호, Yoshimura Hiromichi, “조선본 『협주명현십초시』의 기초적 고찰”, 『한자한문연구』 1호, 2005

여운필, “『동문선』 시문의 출처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06호집, 2008

호승희, “십초시 일고”, 『계간서지학보』 15호, 한국서지학회, 1995

芳村弘道, “東アジア文學における『十抄詩』 『夾注名賢十抄詩』の價値”,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학술대회』, 2007

20. 박동형 분무공신 관련 유물 일괄 (朴東亨 奮武功臣 關聯 遺物 一括)

가. 검토사항

‘박동형 분무공신 관련 유물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박동형 분무공신 관련 유물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11.12)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2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박동형 분무공신 관련 유물 일괄(朴東亨 奮武功臣 關聯 遺物 一括)
- 소유자(관리자) : 박무남(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길 11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수량/규격 : 표1 참조
- 재 질 : 종이, 비단
- 조성연대 : 18세기

연번	유물 명칭	규격(cm)
1	박동형 양무공신교서	38.4×207.5
2	박동형 고신(1728)	53.1×75.3
3	박동형 고신(1732)	54.8×79
4	박동형 전답사패교지	96×123.5
5	박동형 노비사패교지	97.9×251.7

6	사제문	57.2×64.5
7	감란록	반곽 22.8×15.1, 32.1×20.
8	이십일공신회맹록	반곽 24.7×16.9, 34.1×21.5
9	어제표충윤음	반곽 24.8×17.1, 36.1×23.0
10	만춘고	30.6×20.3
11	박동형 초상-전신좌상본 및 합	172 x 103
12	박동형 초상-반신상본 및 합	45.5 x 30
13	박동형 초상-화첩본	42 x 29.7(화면)/50.5 x36(전체)

라. 조사자 검토 의견

<고문서·전적>

○ (지정 가치 미흡)

박동형 관련 고문서와 전적은 영조 4년(1728)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과 그 전후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들이다. 이들 문서와 전적들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기가 18세기 이후에 해당된다. 이 점은 기존에 문서와 전적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해온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절대연대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박동형 양무공신 관련 유물 일괄』(고문서전적)은 모두 10점으로 무신란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며, 보존 상태도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문서의 발급과 전적의 간행시기가 18세기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의 논의는 이른 것 같다. 현재 무신란 당시 제1등 공신이었던 오명항의 초상과 공신교서는 『오명항 초상 및 양무공신교서(吳命恒肖像—揚武功臣教書)』라는 명칭으로 보물 제1177호(1993.11.5.)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유물도 오명항의 초상화가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 지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박동형 양무공신 관련 유물 일괄』도 박동형의 초상화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살핀 뒤에 공신교서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지정 가치 미흡)

「박동형 양무공신 관련 유물 일괄」(고문서전적)은 모두 10점으로 무신란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다만 문서의 발급과 전적의 간행시기는 1728년으로부터 18세기 말에 해당하여 시기적으로 매우 늦다.

다만 동일한 자료로서 「오명항 초상 및 양무공신교서(吳命恒肖像—揚武功臣教書)」가 보물 제1177호(1993.11.5.)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일괄 유물로서 오명

항의 초상화가 지니는 문화재적 가치 때문이다.

따라서 전적 및 고문서 자료로서의 시대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박동형의 초상화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상화>

○ (지정 가치 있음)

조선시대 초상화는 정형화로 도식적인 성격을 전제로 한다 해도 功臣圖像은 주인공이 역사상 족적이 뚜렷한 실존인물이며 그들의 활동 시 국가에서 발생한 중요사와 직결되며 국가의 회화를 관장하는 도화서 화원들에 공적으로 제작한 것들이기에 그려진 시기가 분명하다. 이에 시대에 따른 양식과 화풍의 변화를 확인이 가능해 기록적이며 역사적인 의의 및 성격과 더불어 우리 회화사에 있어 인물화의 한 분야로서 비중이 지대할 뿐더러 회화 전 분야에 점하는 위상, 나아가 우리 회화의 독자성과 특징 측면에서 주목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전신좌상본 및 함** : 다른 분무공신인 김중만(金重萬) 초상(보물 제715호), 오명항(吳命恒) 초상(보물 제1177호), 박문수(朴文秀) 초상(보물 제 1189호)과 인물표현의 도상과 양식, 장황의 방식에 있어서의 모두 일치한다.

조선시대 마지막 공신인 분무공신으로 녹훈될 때 제작된 것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함께 전하는 반신상본 및 함, 화첩본과 함께 일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반신상본 및 함** :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는 없으나 전신좌상본을 바탕으로 하여 가까운 후대에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함께 전하는 화첩본과는 인물의 크기가 거의 같아서 두 작품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신좌상본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분무공신 김중만(金重萬)초상 (보물 제715호), 박문수(朴文秀) 초상(보물 제1189호)의 경우에도 반신상이 함께 전하여 일괄 지정되었다.

- **화첩본** : 다른 분무공신인 김중만(金重萬) 초상(보물 제715호), 박문수(朴文秀) 초상(보물 제 1189호), 권희학(權喜學) 초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81호) 등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1751년 기공각에 보관한 <훈부화상첩(勳府畫像帖)>의 부분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공신초상의 다양한 수용과 전승에 대하여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함께 전하는 전신좌상본 및 함, 반신상본 및 함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일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정 가치 있음)

박동형 분무공신(朴東亨 奮武功臣) 관련 유물 일괄은 조선시대 마지막 공신인 분무공신 관련 자료 중 잘 보존된 예로서 학술적, 문화적, 미술사적 가치가 크다고 사료된다. 이 중 조사자가 실사한 초상화는 3점인데, 먼저 <분무공신상 족자>는 1728년 당시 도화서에서 그려진 원형이 극히 잘 남아있고 화법도 우수하다. 그리고 1751년 충훈부에 봉안하기 위해 그려진 반신상본과 함께 그려져 종가에 하사된 <충훈부화상첩 부분 족자>와 <본가소장 초상화 화첩본>도 모두 18세기 중엽 초상화의 높은 수준과 기법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반신상의 경우 족자본과 화첩본 모두 후대에 새로 장황되었으나, 원래 족자와 화첩으로 만들어졌음은 족자 보관용 흑색 나무상자, 그리고 화첩본에 표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확실하다. 그리고 반신상 두 점도 그림 자체의 보존상태는 아주 양호하다. 이 일괄유물 중 공신교서나 다른 고문서, 고서 분야와 함께 이 3점의 초상화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박동형 초상 및 합

조사보고서

<고문서·전적>



- 현 상 : 전적류는 보존 상태가 심한 건도 있음
- 내용 및 특징

양무공신 박동형(朴1東6亨1695-1739) 관련 유물로 고문서 6종과 전적 4종 모두 10건이다.

△ 고문서 6종

박동형 양무공신교서(揚武功臣教書) 1 축

박동형 고신(1728) 1 매

박동형 고신(1732) 1 매

박동형 전답사패교지(田畓賜牌教旨) 1 매

박동형 노비사패교지(奴婢賜牌教旨) 1 매

사제문(賜祭文) 1 장

△ 전적 4종

감란록(勘亂錄) 3책

이십일공신회맹록(二十一日功臣會盟錄) 1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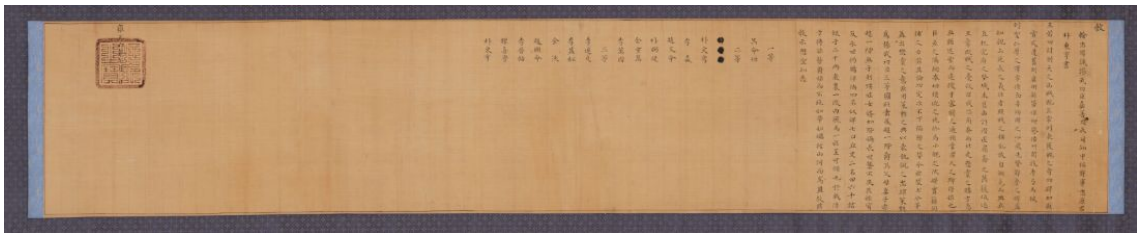
어제표충윤음(御製表忠綸音) 1 책

만촌고(巒村稿) 1책

박동형(朴東亨:1695-1739)은 영조 4년(1728)에 이인좌(李麟佐)가 반란을 일으키자, 태인(泰仁) 지역을 중심으로 공모했던 박필현(朴弼顯)을 관아에 고발하여 체포하는 공적을 세웠고, 난이 평정된 후 3등공신에 녹훈된 인물이다. 이 난은 무신년에 일어난 관계로 무신란(戊申亂)이라고도 한다. 난의 개요는 경종(景宗)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정치적 지위를 위협받게 된 박필현(朴弼顯)·이유익(李有翼)·심유현(沈維賢) 등의 과격 소론파가 갑술환국 이후 정권에서 배제된 남인들을 포섭하여 영조와 노론의 제거를 목적으로 거사했다가 실패한 사건이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경종의 사인에 대한 의혹과 영조는 숙종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었고, 목표는 영조를 폐위하고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증손인 밀풍군 탄(密豐君坦:1698년-1729년)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것이었다.

박동형(1695-1739)의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수부(秀夫), 호는 소와당(笑臥堂) 또는 만촌(巒村)이다.

(1) 박동형 양무공신교서(揚武功臣敎書) 1 축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후 박동형에게 내린 공신교서이다. 박동형은 1728년 무신란의 주동자 중의 한 사람인 박필현을 포획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인물이다. 3등인 수충갈성양무공신에 녹훈하고, 노비 7구 등을 하사한다는 내용이다.

1등 공신은 오명항, 2등공신은 박찬신·박문수·이삼·조문명·박필건·김중만·이만유(李萬圃) 등 7명, 3등공신은 이수량·이익필·김협·조현명·이보혁·권희학·박동형 등 7명이다. 1등은 실제로 난의 진압을 총지휘한 인물, 2등은 직접 일선에서 적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운 인물, 3등은 반역자들을 토벌하는데 종사한 인물들로 나누어 적고 있다.

이 사실은 《영조실록》 4년(1728) 4월 26일조에 “오명항을 1등으로 삼고, 박찬신·박문수·이삼·조문명·박필건·김중만·이만빈(李萬彬)을 2등으로 삼고, 이수량·이익필·김협·조현명·이보혁·권희학·박동형을 3등으로 삼았다. 오명항을 녹훈도감의 당상으로 삼았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처음 녹훈 당시에는 분무공신으로 교서가 교부되었으나 36년이 지난 영조 40년(1764) 3월 20일에 내린 영조의 지시에 따라 양무공신으로 변경되었다.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의종의 徽號인 ‘소천 역도 강명 각검 규문 분무 돈인 무효 열황제(紹天繹道剛明恪儉揆文奮武敦仁懋孝烈皇帝)’에 분무 2자가 들어 있어 이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서를 발급할 때에 미처 살피지 못했다가 뒤에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남아 있는 교서와 관련기록들에는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 것과 그대로 있는 것이 혼재한다.

현전하는 당시의 양무공신교서 중에서 박동형 양무공신교서(揚武功臣敎書)는 물론 1등인 오명항 양무공신교서 역시 “奮”을 절거하고 “揚”으로 고쳐놓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 두 공신교서도 처음에는 분무로 발급한 것을 1764년 이후에 고친 것임을 알 수 있다. 2등 공신의 한명인 이만유가 영조실록에는 이만빈으로, 남아있는 교서와 승정원일기에(이만유교서)는 이만유로 보이는데, 교서는 당시에 수급자들이 확인하는 자료이고 실록은 정조시에 편찬된 것임을 고려하면 교서가 틀렸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교서의 명칭은 발급당시의 것이 분무공신이라도 왕명에 의하여 공신호를 고쳤다는 점에서 유물명칭은 ‘박동형분무공신교서’가 아니라 ‘박동형양무공신교서’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박동형 고신(1728) 1 점

영조 4년(1728) 4월 26일에 내린 교지. 박동형을 “수충갈성분무공신(輸忠竭誠奮武功臣)”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3) 박동형 고신(1732) 1 점

영조 8년(1732) 10월 13일에 내린 교지. 박동형을 “수충갈성분무공신 가선대부 행광양현감 충원군(輸忠竭誠奮武功臣嘉善大夫行光陽縣監忠原君)”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4) 박동형 전답사패교지(田畚賜牌敎旨) 1 점

영조 5년(1729) 7월 17일. 이인좌의 난에 몰수한 역적의 전답을 박동형에게 하사하는 사패교지. 합천 소재 조정좌(曹鼎佐)의 전(田) 1결(結) 34부(負) 6속(束) 과 답(畚) 1결 94부 5속, 안음 소재 정희량(鄭希亮)의 답 4결 55부 5속, 부안 소재 고응량(高應良)의 전 7결 15부 4속, 정희량의 답 1결. 김천 소재 민원보(閔元普)의 전 3결 등을 준다는 내용이다.

(5) 박동형 노비사패교지(奴婢賜牌敎旨) 1 점

영조 5년(1729) 9월 11일. 이인좌의 난에 역적에게서 몰수한 노비를 박동형에게 하사한다는 사패교지. 박동형에게 추가로 28구의 노비를 하사한다는 내용.

(6) 사제문(賜祭文) 1 점

영조 30년(1754) 10월 4일. 예조정랑 전의채(全義采)를 보내어 치제한다는 제문 1장.

(7) 감란록(勘亂錄) 4책

영조 4년(1728)에 있었던 이인좌(李麟佐)의 난의 전말을 기록하여 1729에 간행한 책. 내사기가 있다. 현종실록자로 인쇄한 책이다.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8) 21공신회맹록(二十一功臣會盟錄) 1

영조 4년(1728)에 이인좌의난을 평정한 공으로 녹훈된 분무공신들이 같은 해 7월 18일에 갖은 회맹기록. 개국공신부터 분무공신까지 역대 21공신의 공신 및 그 적장자손들이 회맹제에 참여하였다. “수충갈성분무공신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 충원군신박동형(輸忠竭誠奮武功臣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忠原君臣朴東亨)”으로 되어 있다. 무신자본. 보존 상태가 불량하다.

(9) 어제표충윤음(御製表忠綸音) 1건

이인좌의난을 평정한 지 60년이 되는 정조 12년(1788)에 내린 윤음. 권수제면에는 ‘奎章之寶’가 날인되었다. 내사기는 ‘乾隆五十三年四月 日 內賜故忠原君朴東亨家表忠綸音一件’이고, 수신자는 없다. 임진자본이다. 보존 상태는 불량하다.

(10) 만촌고(巒村稿) 3책

아들 박완신(朴完臣 1722-?)이 편집한 박동형의 문집. 정고본(定稿本)이다. 판서 조엄(趙暉: 1719-1777)이 서문을 썼다.

○ 문헌자료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경기도문화재 조사보고서.

장필기, 영조 대의 무신란,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상주 충주박씨 박동형종가 고문서, 2015.

○ 관련기록

박동형이 무신란에서 공을 세우게 된 과정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성대중의 기록.

《청성잡기 醒言 》

역적 박필현(朴弼顯)이 일찍이 상주(尙州)에 살았는데, 박동형(朴東亨)이 노복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잘 섬겼다. 관상을 잘 보던 박필현은 항상 말하기를,

“박동형은 반드시 귀하게 될 상이다.”

하였다.

무신년(1728)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박필현은 태인(泰仁) 땅을 근거지로 반란하려 하면서, 박동형을 불러서는 고을에서 거둔 세금의 절반을 주며 말했다.

“내가 대사를 일으킬 터인데, 일이 성공하면 너를 곧바로 태인 현감에 제수할 것이요, 성공하지 못하면 네 집에 숨을 것이다. 그때 너는 이 돈으로 나를 먹여 살려라.”

박동형은 이것을 받아 가지고 돌아갔다.

반란이 실패하자 박필현은 박동형에게 달려갔다. 박동형은 그를 꺾어 깊이 숨게 하고는 주(州)로 달려가서 고발하였다. 주에서 박필현을 잡아 죽이고 박동형의 공로를 국가에 상주하니, 국가에서는 그에게 군(君)을 봉해 주고 또 박필현의 재물을 상으로 주었다. 박필현은 박동형이 반드시 귀하게 될 줄은 알았으나 자기 때문에 귀해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朴逆弼顯，嘗居尙州，朴東亨趨走事之，若僕隸。弼顯善相，常曰，東亨必貴。戊申，弼顯將以泰仁叛，招東亨，付以邑稅之半曰，吾舉大事，事成，直拜汝以泰仁，不成，匿於汝，以此餉吾。東亨受之以返。賊敗，弼顯果走東亨，東亨誘使深匿，趨告之州，州馘弼顯，奏東亨功封君，以弼顯之財賞之。弼顯知東亨必貴，而不知以己貴也) *成大中저, 민족문화추진회 박소등 역. 2006.

□

○ 현 상

고문서류는 대체로 양호하나 전적류는 훼손이 심한 유물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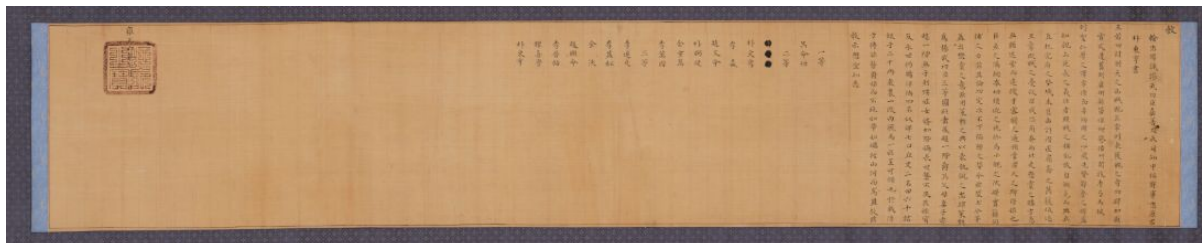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박동형 양무공신 관련 유물 일괄』(고문서전적) 10점 중에서 고문서는 『박동형 양무공신교서(揚武功臣敎書)』, 『박동형 고신(1728)』, 『박동형 고신(1732)』, 『박동형 전답사패교지(田畓賜牌敎旨)』, 『박동형 노비사패교지(奴婢賜牌敎旨)』, 『사제문(賜祭文)』 등 6종, 전적은 『감란록(勘亂錄)』, 『이십일공신회맹록(二十一日功臣會盟錄)』, 『어제표충윤음(御製表忠綸音)』, 『만촌고(巒村稿)』 등 4종이다.

박동형(1695~1739)의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수부(秀夫), 호는 소와당(笑臥堂) 또는 만촌(巒村)이다. 그는 영조 4년(1728)에 이인좌(李麟佐)가 반란을 일으키자 태인(泰仁)을 중심으로 공모했던 박필현(朴弼顯)을 관아에 고발한 공적이 있었다. 이후 그 공적을 인정받아 3등인 수충갈성양무공신(輸忠竭誠揚武功臣)에 녹훈되었다. 당시 1등은 수충갈성결기효력양무공신(輸忠竭誠決幾效力揚武功臣), 2등은 수충갈성효력양무공신(輸忠竭誠效力揚武功臣)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조선시대의 마지막 공신책봉이었다.

고문서류 6종은 그가 생전에 영조로부터 하사받은 5종과 기일(忌日)에 영조로부터 하사받은 『제문』 1종이다. 전적은 4종중에서 『감란록』, 『이십일공신회맹록』, 『어제표충윤음』 등 3종은 하사받은 것이다. 이중에서 『감란록』(현종실록자본)은 영조 5년(1729), 『어제표충윤음』(임진자본)은 정조 12년(1788)의 내사본으로 내사기도 있다. 『이십일공신회맹록』(무신자본)은 1728년 7월 18일에 있었던 회맹기록이므로 회맹당시에 하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만촌고(巒村稿)』는 박동형의 문집으로 간행하지 못한 정고본(定稿本)이다. 이 유물들은 충주 박씨 중원군 종가에서 대대로 소장하다가 2013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되었다. 10종의 유물들을 차례로 살핀다.

(1) 박동형 양무공신교서(揚武功臣敎書)



영조가 수충갈성양무공신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충원군(輸忠竭誠揚武功臣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忠原君) 박동형에게 내린 녹훈교서이다. 박동형은 1728년 무신란의 주동자 중의 한 사람인 박필현을 포획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인물이다. 내용은 먼저 박동형의 공적에 대해 논급한 뒤, 그를 3등인 수충갈성양무공신에 녹훈하고, 노비 7구 등을 하사한다는 것이다.

공적과 포상이 끝난 뒤에는 1등 오명항, 2등 박찬신·박문수·이삼·조문명·박필건·김중만·이만유(李萬囿)⁵²⁾, 3등 이수량·이익필·김협·조현명·이보혁·권희학·박동형과 같이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차례로 나열해 놓았다. 1등은 실제로 난의 진압을 총지휘한 인물, 2등은 직접 일선에서 적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운 인물, 3등은 반역자들을 토벌하는데 종사한 인물들로 구분된다. 끝에는 「옹정육년칠월 일(雍正六年七月 日)」(1728.7)이라는 발급 연월이 있고, 그 위에 「시명

52) 이만유는 오명항에게 하사한 『양무공신교서』에서도 李萬囿으로 되어 있으나 『영조실록』에는 李萬彬으로 되어 있음.

지보(施命之寶)」라는 어보가 찍혀있다.

이 사실은 『영조실록』 4년(1728) 4월 26일에 “오명항을 1등으로 삼고, 박찬신·박문수·이삼·조문명·박필건·김중만·이만빈(李萬彬)을 2등으로 삼고, 이수량·이익필·김협·조현명·이보혁·권희학·박동형을 3등으로 삼았다. (그리고) 오명항을 녹훈도감의 당상으로 삼았다.”⁵³⁾는 기록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 교서에는 훈호(勳號)가 “양무공신”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비해 『영조실록』에는 “분문공신으로 정하였다.”⁵⁴⁾고 되어 있다. 당시 1등인 오명항의 공신교서에도 “양무”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공신교서의 발급연월이 문서에서와 같이 “옹정육년칠월”이라면 같은 해(1728) 7월(녹훈교서 발급일) 이후에 훈호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36년 뒤인 영조 40년(1764) 3월 20일에는 “무신년의 훈명 중에 있는 분무 두 자를 양무로 고치라고 명하였으니, (명나라) 의종의 휘호이기 때문이었다.”⁵⁵⁾는 기사가 있다. 의종의 휘호(시호)는 이보다 훨씬 이전인 인조 22년(1644)에 “소천 역도 강명 각검 규문 분무 돈인 무효 열황제(紹天繹道剛明恪儉揆文奮武敦仁懋孝烈皇帝)”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1728년 4월에는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였다가 바로 고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내에 현전하는 무신자(금속활자)로 1728년 7월 15일 이후에 간행한 『분무원종공신녹권(奮武原從功臣錄券)』 중의 상당한 수는 “奮”을 절거(切去)한 뒤 후대에 목활자로 찍은 “揚”을 그 자리에 붙여 놓은 판본이 대부분이다. 동일한 판본 중의 상당한 수가 이렇게 고쳐서 반사된 점을 볼 때 『영조실록』에서 “분무를 양무로 고치라고 명하였다.”는 연월(1764.3.20.)은 모든 기록을 고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 같고, 실제로는 이 공신녹권에서 보듯이 1728년 7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같다.

53) “以吳命恒爲一等，朴續新·朴文秀·李森·趙文命·朴弼健·金重萬·李萬彬爲二等，李遂良·李益秘·金浹·趙顯命·李普赫·權喜學·朴東亨爲三等。命恒，爲錄勳都監堂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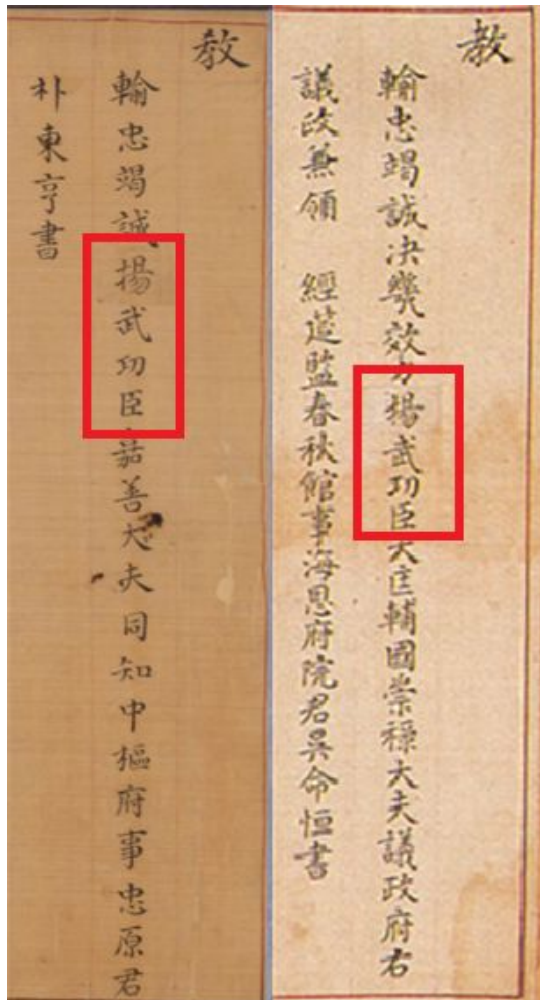
54) “定勳號，輸忠竭誠決幾効力奮武功臣。”

55) “命改，戊申勳名中，奮武二字，爲揚武，以毅皇徽號故也。”



무신자본(1728) 『양무원종공신녹권』의 “奮”을 “揚”으로 고친 모습.

현전하는 당시의 양무공신교서 중에서 박동형 양무공신교서(揚武功臣教書)는 물론 1등인 오명항 양무공신교서 역시 “奮”을 절거하고 “揚”으로 고쳐놓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 두 공신교서는 함께 1728년 7월에 발급 당시 또는 직후에 고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양무공신교서』의 “奮”을 “揚”으로 고친 모습.
(왼쪽은 박동형, 오른쪽은 오명항)

아무튼 “양무공신”과 “분무공신”은 동일한 훈호이기는 하나 이 공신교서에는 “양무공신”으로 되어 있으므로 유물명칭은 『박동형분무공신교서』가 아니라 『박동형양무공신교서』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이 공신교서는 「揚武功臣三等朴東亨」이라는 제첨제가 붙은 붉은 색 비단으로 표지를 감싼 두루말이 형태이다. 내면은 비단에 인찰한 뒤에 필사되어 있고, 2등의 첫 번째 공신인 박찬신(朴繼新)은 1755년의 벽서사건으로 처형되었기 때문에 후대에 이름 세 자를 모두 지워놓았다.

(2) 박동형 고신(1728)

용정 6년(영조4, 1728) 4월 26일에 내린 교지이다. 내용은 박동형을 “수충갈성분무공신(輸忠竭誠奮武功臣)”으로 임명한다는 고신이다.

(3) 박동형 고신(1732)

옹정 10년(영조8, 1732) 10월 13일에 내린 교지이다. 내용은 박동형을 “수충갈 성분무공신가선대부행광양현감충원군(輸忠竭誠奮武功臣嘉善大夫行光陽縣監忠原君)”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박동형은 영조 4년(1728) 4월 26일에 수충갈성분무공신에 녹훈되었고, 5월에는 가선대부, 6월 1일에 충원군에 봉군되었다. 그리고 이때 와서 행광양현감 충원군에 임명한다는 고신이다.

(4) 박동형 전답사패교지(田畓賜牌教旨)

옹정 7년(영조5, 1729) 7월 17일에 영조가 무신란의 역적에게서 몰수한 전답을 박동형에게 하사하니 영원히 전하라는 사패교지이다. 사패 또는 사패교지란 조선 시대 국왕이 신하에게 토지와 노비를 내려줄 때에 내리는 문서이다. 함천에 있는 조정좌(曹鼎佐)의 전(田) 1결(結) 34부(負) 6속(束)과 답(畓) 1결 94부 5속, 안음에 있는 정희량(鄭希亮)의 답 4결 55부 5속, 부안에 있는 고응량(高應良)의 전 7결 15부 4속 그리고 정희량의 답 1결, 김천에 있는 민원보(閔元普)의 전 3결 등을 하사받은 내용이다.

(5) 박동형 노비사패교지(奴婢賜牌教旨)

옹정 7년(영조5, 1729) 9월 11일에 영조가 무신란의 역적에게서 몰수한 노비를 박동형에게 하사하니 영원히 전하라는 사패교지이다. 박동형은 한 해전에 노비 7구를 하사받았는데 이 때 추가로 28구의 노비를 하사받았다. 전답과 같이 민원보, 조정좌, 고응량, 정희량 등의 노비를 하사받았다. 전답사패교지와 대비하면 박동형에게는 조정좌 등 4인의 재산이 하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사제문(賜祭文)

건륭 19년(영조30, 1754) 10월 4일에 왕이 예조정랑 전의채(全義采)를 보내어 박동형의 치제에 내린 제문 1장이다.

(7) 감란록(勘亂錄)

영조 4년(1728)에 있었던 이인좌(李麟佐)의 난, 곧 무신난(戊申亂)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 이듬해인 영조 5년(1729)에 간행한 책이다. 처음 무신년(1728) 3월 14일 조정대신들이 영조께 청하는 글로 시작되며, 편성 특징은 변란의 진행과정 사이에 이광좌를 비롯한 죄인들의 공초(供招)가 초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宣賜之記」라는 내사인과 “雍正七年十一月十二日 內賜忠原君朴東亨勘亂錄一件 命除謝恩 行都承旨 臣趙”라는 내사기와 같이 옹정 7년(영조 5, 1729) 11월에 도승지를 통해 하사한 책이다. 현종실록자를 주로 사용하여 찍은 금속활자본으로 모두 4책

이다.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다.

(8) 이십일공신회맹록(二十一日功臣會盟錄)

영조 4년(1728)에 무신란을 평정한 공으로 녹훈된 분무공신들의 1728년 7월 18일에 있었던 회맹기록이다. 개국공신부터 분무공신까지 역대 이십일공신의 공신 및 그 적장(자)손들이 회맹제를 행하고 참여자를 수록해 놓았다. “수충갈성분무공신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충원군신박동형(輸忠竭誠奮武功臣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忠原君臣朴東亨)”으로 되어 있다. 무신자로 찍은 금속활자본이며, 거의 전장이 누습의 흔적이 있는 등 보존 상태는 좋지 못하다.

(9) 어제표충윤음(御製表忠綸音)

무신란을 평정한 지 1주갑이 되는 무신년인 정조 12년(1788)에 내린 윤음이다. 권수제면에는 「奎章之寶」라는 내사인이 있다. 내사기는 “乾隆五十三年(1788)四月日 內賜故忠原君朴東亨家表忠綸音一件”이며, 내사처(內賜處)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임진자로 찍은 금속활자본이다. 누습의 흔적이 있고, 오른쪽 아래 부분이 손상되어 있는 등 보존 상태는 좋지 못하다.

(10) 만촌고(巒村稿)

박동형의 아들인 박완신(朴完臣, 1722~?)이 엮은 박동형의 문집 3책으로 정고본(定稿本)이다. 서문은 판서 조엄(趙暉, 1719~1777)이 썼다.

○ 문헌자료

경기도문화재 조사보고서.

김진우, 한국인 성씨의 역사, 춘추필법, 2015.

장필기, 영조 대의 무신란,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

○ 현 상

2013년 충주박씨 충원군 종택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한 전적 및 고문서로서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박동형 양무공신(朴東亨 揚武功臣) 관련 유물 일괄」(고문서전적) 10점 중에서 고문서는 「박동형 양무공신교서(揚武功臣敎書)」, 「박동형 고신(1728)」, 「박동형 고신(1732)」, 「박동형 전답사패교지(田畝賜牌敎旨)」, 「박동형 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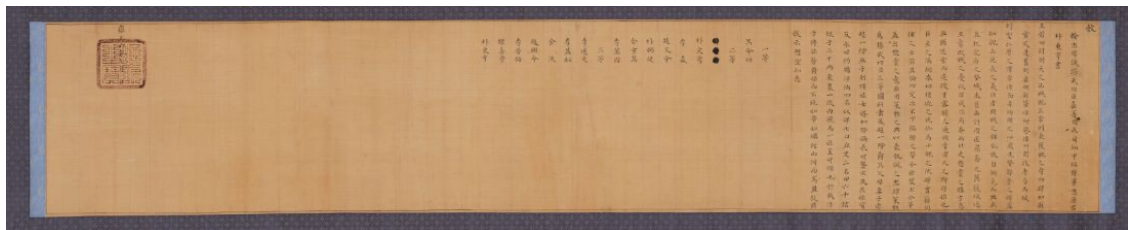
사패교지(奴婢賜牌教旨)」, 「사제문(賜祭文)」 등 6종, 전적은 『감란록(勘亂錄)』, 『이십일공신회맹록(二十一日功臣會盟錄)』, 『어제표충윤음(御製表忠綸音)』, 『만촌고(巒村稿)』 등 4종이다.

박동형((朴東亨, 1695~1739)의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수부(秀夫), 호는 소와당(笑臥堂) 또는 만촌(巒村)이다. 그는 영조 4년(1728)에 이인좌(李麟佐)가 반란을 일으키자 태인(泰仁)을 중심으로 공모했던 박필현(朴弼顯)을 관아에 고발한 공적이 있었다. 이후 그 공적을 인정받아 3등인 수충갈성양무공신(輸忠竭誠揚武功臣)에 녹훈되었다. 당시 1등은 수충갈성결기효력양무공신(輸忠竭誠決幾效力揚武功臣), 2등은 수충갈성효력양무공신(輸忠竭誠效力揚武功臣)이라고 하였다. 양무공신은 본래 분무공신(奮武功臣)이었으나 공신 명칭이 명나라 의종(毅宗)의 시호와 겹치게 되어 1764년(영조40)에 양무공신(揚武功臣)으로 변경되었다.

(1) 박동형 양무공신교서(揚武功臣敎書)

규 격 : 38.4×207.5(cm)

영조가 수충갈성양무공신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충원군(輸忠竭誠揚武功臣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忠原君) 박동형에게 내린 녹훈교서이다. 박동형은 1728년 무신란의 주동자 중의 한 사람인 박필현을 포획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인물이다. 내용은 먼저 박동형의 공적에 대해 논급한 뒤, 그를 3등인 수충갈성양무공신에 녹훈하고, 노비 7구 등을 하사한다는 것이다.



揚武功臣敎書

공적과 포상이 끝난 뒤에는 1등 오명항, 2등 박찬신·박문수·이삼·조문명·박필건·김중만·이만유(李萬圉) 등 7명, 3등 이수량·이익필·김협·조현명·이보혁·권희학·박동형 등 7명 총 15명에게 공신을 책훈한 것이다. 본 녹권은 바로 1등 공신인 오명항에게 녹훈한 교서로서 귀중한 자료이다.

교서의 끝에는 「옹정육년칠월 일(雍正六年七月 日)」(1728.7)이라는 발급 연월이 있고, 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어보가 찍혀있다.

이 공신교서는 「揚武功臣三等朴東亨」이라는 제침제가 붙은 붉은 색 비단으로

표지를 감싼 두루말이 형태이다. 내면은 비단에 인찰한 뒤에 필사되어 있다. 또한 내용가운데 특히 공신명칭을 “분(奮)”을 절거하고 “양(揚)”으로 고쳐놓았고, 2등의 첫 번째 공신인 박찬신(朴纘新)은 1755년의 벽서사건으로 처형되었기 때문에 후대에 이름 세 자를 모두 지워놓은 흔적이 확인된다.

(2) 박동형 고신(1728)

규 격 : 53.1×75.3(cm)

용정 6년(영조4, 1728) 4월 26일에 내린 교지이다. 내용은 박동형을 “수충갈성분무공신(輸忠竭誠奮武功臣)”으로 임명한다는 고신이다.

(3) 박동형 고신(1732)

규 격 : 54.8×79(cm)

용정 10년(영조8, 1732) 10월 13일에 내린 교지이다. 내용은 박동형을 “수충갈성분무공신가선대부행광양현감충원군(輸忠竭誠奮武功臣嘉善大夫行光陽縣監忠原君)”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박동형은 영조 4년(1728) 4월 26일에 수충갈성분무공신에 녹훈되었고, 5월에는 가선대부, 6월 1일에 충원군에 봉군되었다. 그리고 이때 와서 행광양현감 충원군에 임명한다는 고신이다.

(4) 박동형 전답사패교지(田畝賜牌教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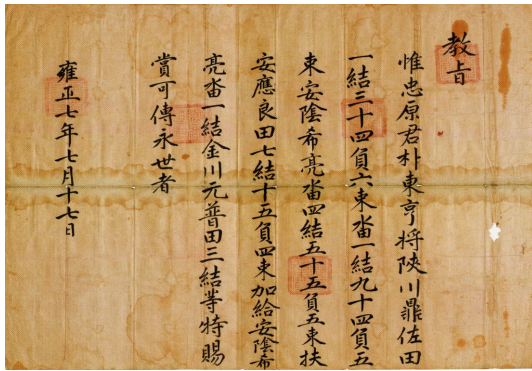
규 격 : 96×123.5(cm)

용정 7년(영조5, 1729) 7월 17일에 영조가 무신란의 역적에게서 몰수한 전답을 박동형에게 하사하니 영원히 전하라는 사패교지이다. 사패 또는 사패교지란 조선시대 국왕이 신하에게 토지와 노비를 내려줄 때에 내리는 문서이다. 함천에 있는 조정좌(曹鼎佐)의 전(田) 1결(結) 34부(負) 6속(束)과 답(畓) 1결 94부 5속, 안음에 있는 정희량(鄭希亮)의 답 4결 55부 5속, 부안에 있는 고응량(高應良)의 전 7결 15부 4속 그리고 정희량의 답 1결, 김천에 있는 민원보(閔元普)의 전 3결 등을 하사받은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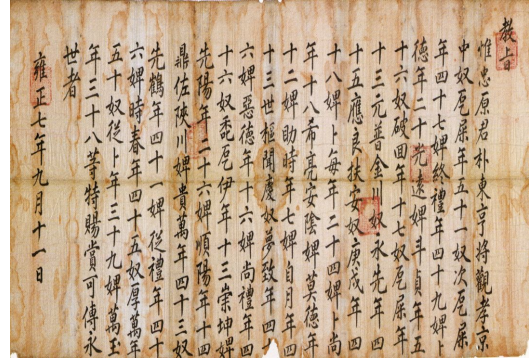
(5) 박동형 노비사패교지(奴婢賜牌教旨)

규 격 : 97.9×251.7(cm)

용정 7년(영조5, 1729) 9월 11일에 영조가 무신란의 역적에게서 몰수한 노비를 박동형에게 하사하니 영원히 전하라는 사패교지이다. 박동형은 한 해전에 노비 7구를 하사받았는데 이 때 추가로 28구의 노비를 하사받았다. 전답과 같이 민원보, 조정좌, 고응량, 정희량 등의 노비를 하사받았다. 전답사패교지와 대비하면 박동형에게는 조정좌 등 4인의 재산이 하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田畓賜牌教旨



奴婢賜牌教旨

(6) 사제문(賜祭文)

규 격 : 57.2×64.5(cm)

건륭 19년(영조30, 1754) 10월 4일에 왕이 예조정랑 진의채(全義采)를 보내어 박동형의 치제에 내린 제문 1장이다.

한편, 전적류는 모두 4종이다. 그 중 『감란록』, 『이십일공신회맹록』, 『어제표충윤음』 등 3종은 하사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 『감란록』(현종실록자본)은 영조 5년(1729), 『어제표충윤음』(임진자본)은 정조 12년(1788)의 내사본이다. 『이십일공신회맹록』(무신자본)은 1728년 7월 18일에 있었던 회맹기록이므로 회맹당시에 하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만촌고(巒村稿)』는 박동형의 문집으로 간행하지 못한 정고본(定稿本)이다.

(1) 감란록(勘亂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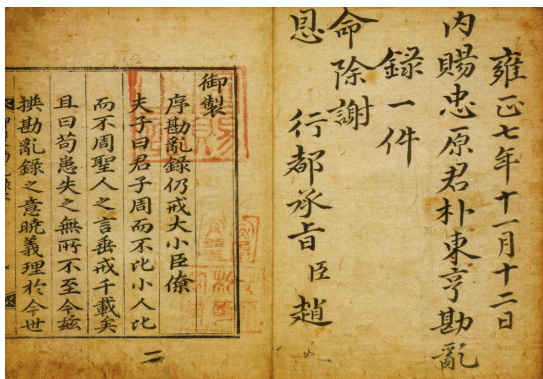
규 격 : 반곽 22.8×15.1, 32.1×20.5(cm)

영조 4년(1728)에 있었던 이인좌(李麟佐)의 난, 곧 무신난(戊申亂)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 이듬해인 영조 5년(1729)에 간행한 책이다. 처음 무신년(1728) 3월 14일 조정대신들이 영조께 청하는 글로 시작되며, 편성 특징은 변란의 진행과정 사이에 이광좌를 비롯한 죄인들의 공초(供招)가 초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宣賜之記」라는 내사인과 “雍正七年十一月十二日 內賜忠原君朴東亨勘亂錄一件 命除謝恩 行都承旨 臣趙”라는 내사기와 같이 옹정 7년(영조 5, 1729) 11월에 도승지를 통해 하사한 책이다. 현종실록자를 주로 사용하여 찍은 금속활자본으로 모두 4책이다.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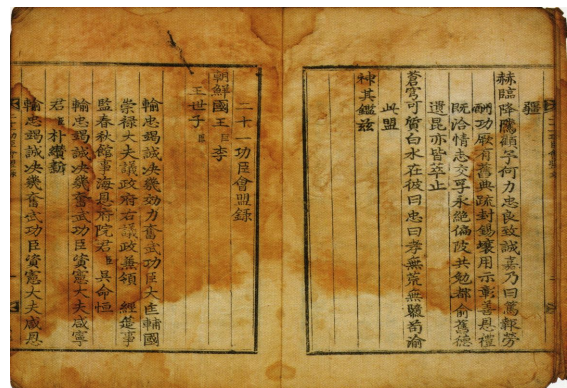
(2) 이십일공신회맹록(二十一功臣會盟錄)

규 격 : 반곽 24.7×16.9, 34.1×21.5(cm)

영조 4년(1728)에 무신란을 평정한 공으로 녹훈된 분무공신들의 1728년 7월 18일에 있었던 회맹기록이다. 개국공신부터 분무공신까지 역대 이십일공신의 공신 및 그 적장(자)손들이 회맹제를 행하고 참여자를 수록해 놓았다. “수충갈성분무공신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충원군신박동형(輸忠竭誠奮武功臣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忠原君臣朴東亨)”으로 되어 있다. 무신자로 찍은 금속활자본이며, 거의 전장이 누습의 흔적이 있는 등 보존 상태는 좋지 못하다.



勘亂錄



二十一功臣會盟錄

(3) 어제표충윤음(御製表忠綸音)

규 격 : 반곽 24.8×17.1, 36.1×23.0(cm)

무신란을 평정한 지 1주갑이 되는 무신년인 정조 12년(1788)에 내린 윤음이다. 권수제면에는 「奎章之寶」라는 내사인이 있다. 내사기는 “乾隆五十三年(1788)四月日 內賜故忠原君朴東亨家表忠綸音一件”이며, 내사처(內賜處)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임진자로 찍은 금속활자본이다. 누습의 흔적이 있고, 오른쪽 아래 부분이 손상되어 있는 등 보존 상태는 좋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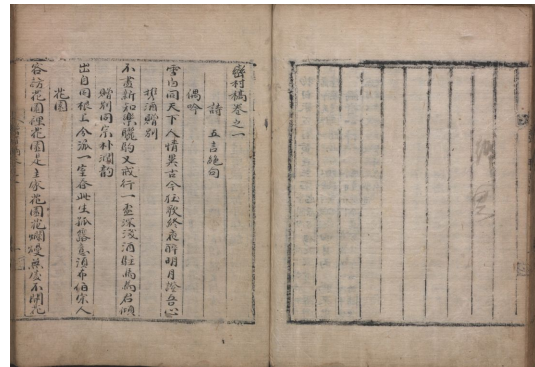
(4) 만촌고(巒村稿)

규 격 : 30.6×20.3(cm)

박동형의 아들인 박완신(朴完臣, 1722~?)이 엮은 박동형의 문집 3책으로 정고본(定稿本)이다. 서문은 판서 조엄(趙巖, 1719~1777)이 썼다.



御製表忠綸音



巒村稿

○ 지정사례

『오명항 초상 및 양무공신교서(吳命恒肖像—揚武功臣敎書)』 (보물 제1177호, 1993.11.5. 지정)

○ 문헌자료

경기도문화재 조사보고서.

장필기, 『영조 대의 무신란』,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초상화>

□

○ 현 상

문중이 정성을 다해 성심성의껏 보관해 한 인물에 대해 동일초본에서 비롯한 全身坐像과 半身像 및 函이 함께 유존됨. 전신좌상은 유소를 비롯해 옛 장황을 견지한 상태이나, 반신상은 후대 장황으로 바꾼 점에서 차이가 보인다. 다만 이 초상들의 보관함은 처음 초상 제작 때 것으로 사료된다. 화면은 꺾임에 따른 일정 방향으로 생긴 균열과 일부 오염을 제외하곤 초상 자체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경상북도 상주 용안에 세거해온 충주박씨 충원군 박동형 종가소장으로 문중 소장 고문서와 함께 이들 초상화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되어 있다. 박동형(朴東亨, 1695~1739)은 무신란 발발 당시 반란 주동자의 한 사람인 박필현을 포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공신의 반열에 올라 충주박씨가문을 공신 가문으로 격상시킴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1728년 당시 그려진

<분무공신상>과, 1751년에 이모된 반신상이다.

奮武功臣은 조선 영조 4년(1728)에 이인좌의 난을 다스린 공으로 1등 오명항 1명, 2등은 박문수와 김중만 등 7명, 3등은 박동현 등 7명 모두 열다섯 사람에게 상으로 준 훈명이다. 나중에 양무공신으로 고쳤으며 분무공신은 조선시대 마지막 공신책봉이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정형화로 도식적인 성격을 전제로 한다 해도 功臣圖像은 주인공이 역사상 족적이 뚜렷한 실존인물이며 그들의 활동 시 국가에서 발생한 중요사와 직결되며 국가의 회화를 관장하는 도화서 화원들에 공적으로 제작한 것들이기에 그려진 시기가 분명하다. 이에 시대에 따른 양식과 화풍의 변화를 확인이 가능해 기록적이며 역사적인 의의 및 성격과 더불어 우리 회화사에 있어 인물화의 한 분야로서 비중이 지대할 뿐더러 회화 전 분야에 점하는 위상, 나아가 우리 회화의 독자성과 특징 측면에서 주목된다.

오사모에 단령, 소매 안으로 처리한 두 손, 배경 없이 교의에 앉아 있는 전신 좌상, 쌍학홍배와 학정금대, 표피가 덮인 교의, 족좌 위에 놓인 두 발 등 일반 공신상의 전형적인 형태로 그린 화가의 기량을 알려주는 섬세한 필치에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인다.

○ 지정사례

<金重萬肖像>, 대본1 소본 2, 보물 제715호

<朴文秀肖像>, 대소 2본, 보물 제1189호 외 지방문화재

○ 문헌자료

『상주 충주박씨 박동형종가 고문서』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英祖實錄』

『黨議通略』

『歸鹿集』 『勳府畫像帖記』

□

-전신좌상본 및 함

○ 현 상

한 폭 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축에는 원환, 배목, 배목장식으로 구성된 고리 2개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에 갈색 끈에 녹두색 술이 달린 유소가 끼워져 있다. 하축의 마구리는 목재로 만들어 부착했다. 초상화는 결봉 없는 한 폭의 비단에 그려졌으며, 이를 보관하는 목재 함이 함께 전하고 있다.

먼지와 곰팡이 등으로 약간 오염되어 있고, 여기저기 꺾임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태는 안정적이고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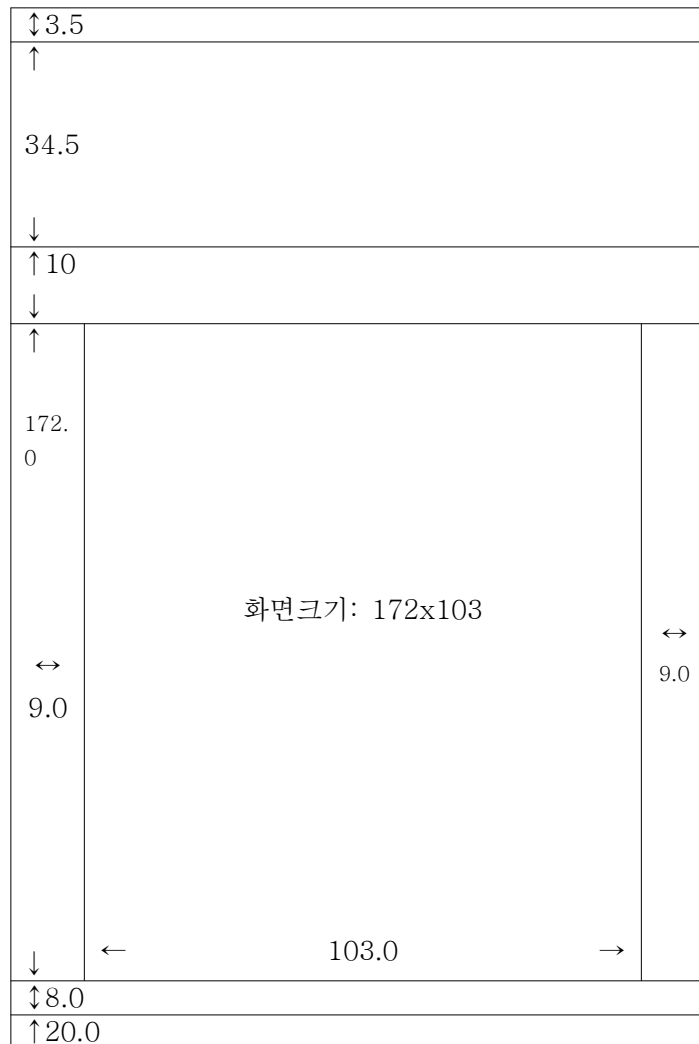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박동형(朴東亨 1695~1739)의 본관은 충주, 호는 소와당(笑臥堂), 만촌(巒村)이다. 1728년 이인좌, 정희량 등이 주도하여 발생한 무신란의 주동자의 한 사람인 박필현(朴弼顯)을 붙잡는데 공을 세워 분무공신(奮武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이 작품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두 손을 소매 속에 모아 잡은 채 교의에 앉아 있는 전신좌상이다. 배경은 생략되었으며 바닥에는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다. 교의에는 표피가 덮여 있고, 두 발은 족좌 위에 놓았다. 쌍학흉배와 학정금대를 착용하고 있다. 등신대의 인물을 실감나게 표현했으며 전체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했다.

초상화를 보관했던 주칠 목함이 함께 전해지고 있다.

<박동형 초상(전신좌상) 규격>



↓
↕4.0

-반신상본 및 함

○ 현 상

한 폭 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황은 최근에 새로 한 것으로 전통적인 양식을 따르지 않았다. 초상화는 결봉 없는 한 폭의 비단에 그려졌으며, 이를 보관하는 목재 함이 함께 전하고 있다. 함은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저기 꺾임이 많고, 안면에 비단이 들뜬 곳이 있다.

○ 내용 및 특징

박동형(朴東亨 1695~1739)의 본관은 충주, 호는 소와당(笑臥堂), 만촌(巒村)이다. 1728년 이인좌, 정희량 등이 주도하여 발생한 무신란의 주동자의 한 사람인 박필현(朴弼顯)을 붙잡는데 공을 세워 분무공신(奮武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이 작품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은 상반신의 모습인데, 전신좌상을 축소하여 그린 듯하다. 옆으로 살짝 돌린 얼굴의 각도와 이에 따른 이목구비의 표현, 명암의 처리 등에서 매우 흡사하다. 세부표현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전체적으로 정교함이 두드러진다.

<박동형 초상(반신상본) 규격>

↕1.5		
↑		
27		
↓		
↑3.5		
↓		
↑		
45.5	화면크기: 45.5x30	

↓	←	30.0	→
↕3.0			
↑21.0			
↓			
↕2.7			

-화첩본

○ 현 상

겉면은 갈색의 거친 종이로 포장했다. 화첩을 펼치면 짙은 녹색의 천으로 회장을 돌렸다. 우측면은 홍갈색 바탕의 냉은지(冷銀紙)에 쌍용문을 압인하였고 “충원군박동형(忠原君朴東亨)”이라고 우측 상단에 묵서로 썼다. 좌측면은 상반신의 초상화이다. 모두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테두리는 금지로 마감했는데 최근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백색의 하드보드지에 화첩 하단 양쪽을 끼우도록 하여 보관 중인데,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박동형(朴東亨 1695-1739)의 본관은 충주, 호는 소와당(笑臥堂), 만촌(巒村)이다. 1728년 이인좌, 정희량 등이 주도하여 발생한 무신란의 주동자의 한 사람인 박필현(朴弼顯)을 붙잡는데 공을 세워 분무공신(奮武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이 작품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은 상반신의 모습인데, 전신좌상을 축소하여 그린 듯하다. 전체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했으며 반신상본과 인물의 크기와 비례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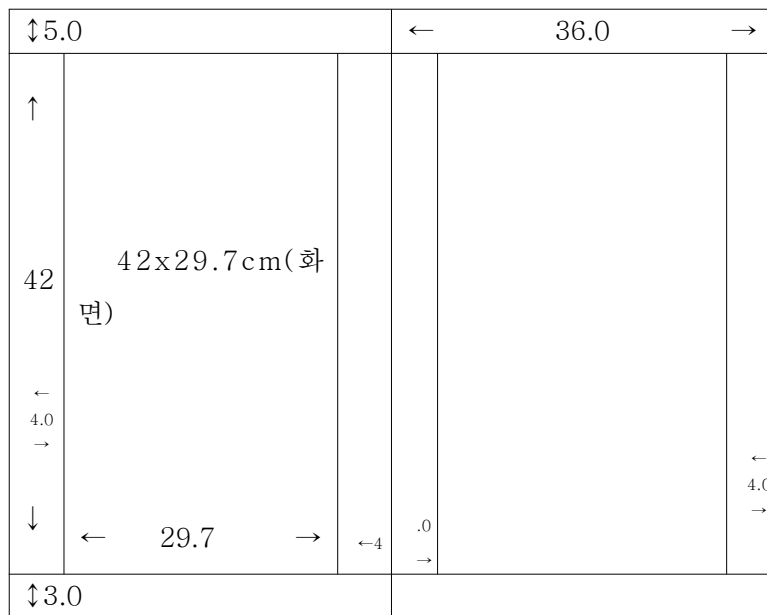
현재 분무공신으로 김종만, 박문수의 경우 전신상본, 반신상본, 화첩본이 함께 전하고 있으며, 권희학(權喜學), 이삼(李森)은 화첩본이 전하고 있다. 이중 김종만, 권희학의 경우에는 박동형 화첩처럼 우측 냉은지의 이력, 좌측 상반신의 초상이라는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지질, 회장 등이 일치한다. 박문수의 경우 파첩하여 양면을 상하로 재구성하여 족자로 개장했고, 이삼의 경우에는 초상화만 분리하여 다른 문서와 함께 다시 화첩으로 개장했다.

분무공신이었던 조현명(趙顯命)의 문집인 『귀록집(歸鹿集)』에 수록된 「훈부화상첩기(勳府畫像帖記)」에 따르면 1751년에 분무공신 14명의 반신상을 다시 그려 <훈부화상첩(勳府畫像帖)>을 만들어 기공각(紀功閣)에 보관했다고 한다. 이때 조현명, 박문수, 김종만, 이보혁(李普赫)은 초상화를 새로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집

에 있던 구본(舊本)을 이모(移摹)했다고 한다. 현재 전하는 여러 화첩본의 분무공신초상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당시 기공각 보관본과 더불어 부분을 제작하여 해당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박문수의 경우 그의 이력에 졸년(1756년)과 시호까지 적혀져 있어 화첩본 초상의 제작이 더 후대의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김종만의 경우에서 보듯이 공신호, 이름 부분과 나머지 이력의 글씨가 달라 후대에 추가로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박동형의 경우 <훈부화상첩>이 제작되었을 때 이미 사망했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이력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화첩본은 1751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박동형 초상(화첩본) 규격>



□

○ 현 상

<분무공신상 족자> : 1728년에 그려진 분무공신상으로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보관용 흑제 목상자도 완비되어 있다. 그림 자체도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었고, 족자의 제반 요소들도 잘 보존되어 조선시대 마지막 공신상의 원형을 잘 보여준다.

<충훈부화상첩 부분 족자> 및 <본가소장 초상화 화첩본> : 1751년(영조27)에 반신상을 다시 그려 충훈부에 한본 보관하고 본가에도 내려 주었는데 그중 한본은 족자이고 한 본은 화첩으로 장황되어 있다. 족자는 새로 수리하였으나 흑색 나무상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부터 족자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화첩본도 거

의 같은 도상이다. 화첩본도 현 상태는 원상태가 아니라 새로 장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면과 반대면(접으면 마주보는 면)에 ‘忠原君 朴東亨’이라는 표제가 적혀 있는데, 이 면은 원래의 표지(혹은 내표지)로 보인다. 화면과 직접 닿지 않게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 내용 및 특징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분무공신과 관련 유물들이다. 박동형은 분무공신 3등에 책록되었는데, 1728년 당시 그려진 <분무공신상>과 1751년에 그려진 반신상 2점이 모두 잘 남아있다. 족자본 2점은 흑색 목상자도 보존되어 있으나 화첩본은 새로 장황되었으나 초상화는 잘 보존되어 있다.

○ 지정사례

분무공신상으로는 <金重萬 肖像>(대본1,소본2폭)(보물제715호), <박문수 분무공신상>(대소2본,보물제1189) 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지방문화재로도 몇 점 지정되었음.

○ 문헌자료

『분무녹훈도감의궤(奮武錄勳都監儀軌)』(1728년) - 당대의 기록임.

○ 기 타

후손인 충주 박씨 충원군 종택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 보관되어 있다.

보고 사항

21. 석조불상의 관리방안 개선사항 보고

가. 보고사항

석조불상의 문화재 성격(동산, 건조물)으로 인해 보존·관리상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 및 관련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나. 보고사유

- 석조불상의 문화재 성격(동산, 건조물)으로 인해 보존·관리상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게 됨
- 이와 관련, 기 진행된 회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배경 :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95년 지정)의 매각 문제로 인해 석불의 성격 논의가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게 됨
- 현황
 - 석불은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됨
 - 지정 후 석불에 대한 현상변경 및 주변 건축행위 등은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대상임
 - 석불을 제외한 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주변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정하지 않음
- 문제점
 - 동산과 건조물의 관리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으로 인해 파생되는 보존·관리상의 혼선

라. 개선방안

- 동산문화재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하지 않으므로 주변 행위규제 사항이 없으며, 소유자 변경 및 장소 변경시 신고로 같음

- 건조물문화재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 주변 행위규제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장소 변경시에도 현상 변경 허가를 득해야 함
- 현행 규정상 동산문화재와 건조물문화재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나, 석불의 양태·조성위치·입지형태 등을 고려하여 구분·관리

구분	1유형(85건)	2유형(9건)	3유형(39건)
특성	압각된 마애불 또는 지상에 고정된 입불	지상에서 분리되어 있거나, 전시관 등에 보관된 석불	지상에 고정되어 있으나, 보호각 등에 모셔져 있는 석불
관리방법	건조물/허용기준 유지	동산/허용기준 해제	건조물/허용기준 최소화

- (①유형) 땅에 고정하여 설치할 목적으로 조성되었거나 통상적 이동이 곤란한 석불은 건조물로 구분

*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등 85건

☞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합리화 지속 추진

- (②유형) 박물관 등에 전시되어 있거나, 대좌와 기단석 등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은 석불은 동산으로 구분

*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강릉박물관 內),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 9건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및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해제

- (③유형) 그 밖의 불상은 건조물로 구분하되, 불당 안에 예불대상으로 모셔져 있는 경우는 보존해야 할 역사문화경관을 최소화

* 안동 안기동 석조여래좌상 등 39건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유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최소화

마. 향후계획

○ 동산 및 건조물 구분에 따른 문화재 지정 및 관리

- 문화재 지정신청시 건조물 성격의 석불은 동산(불상·조각) 전문가 참여로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심의

· 건조물로 구분한 석불(123건)은 건축문화재분과에서 지정내용을 재확인함으로써 문화재 성격에 부합한 관리 일원화, 지정하자 치유

- 동산으로 구분한 석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해제하고, 향후 보존처리 등 문화재관리 사항은 동산문화재분과에서 심의

○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매매 관련

- 동산으로 구분된 석불의 소유자 변경 및 장소 변경은 신고사항이므로 신고절차에 따라 처리

*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지정구역 해제 선행

- '16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원예산(65백원)은 사업비 정산시, 전액 환수 검토('17년)

- '16년 이전 기 지원된 국고보조사업 지원예산은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붙임 1. 관련 회의 경과 보고
2. 석불의 성격별 구분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관련 회의 경과 보고

-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매매계약('16.1.18)
 - 매도인 밀양 천황사 주지, 매수인 사천 백천사 주지
 - * (천황사 측 주장) '95년 지정당시 동산문화재과에 지정신청한 석불은 동산문화재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대상이 아니고, 동 법 제40조에 따라 소유자 변경 및 보관장소 변경은 신고사항이므로 현상변경허가절차 없이 신고 후 이전하겠다고 주장

- 제3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16.3.17)
 -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매각에 따른 불상 이전 타당성 검토
 - ☞ 부결(본 석불은 역사성과 장소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원래의 자리에 있음이 타당함)

- 제1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소위원회('16.5.26)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검토
 - ☞ 보류(석조불상의 문화재 성격(동산, 건조물)을 재검토하고, 수정된 도면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첨부하여 검토하기로 함)

- 제6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위원회('16.6.16)
 -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대상 여부 검토
 - ☞ 부결(동산, 부동산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장소성이 중시되는 본 석불은 기존과 같이 현상변경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제1차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동산+건축)('16.7.21)
 - 석불 문화재 성격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여부 검토
 - ☞ 부결(석불의 동산·건조물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장소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 보존을 위해 현상변경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설정기준을 정할 것)

【붙임 2】

석불의 성격별 구분

연번	구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1	① 유형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충남 서산시 운산면
2	① 유형	국보 제109호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경북 군위군 부계면
3	① 유형	국보 제144호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전남 영암군 영암읍
4	① 유형	국보 제199호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경북 경주시 건천읍
5	① 유형	국보 제201호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경북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6	① 유형	국보 제307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충남 태안군 태안읍
7	① 유형	국보 제308호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전남 해남군 삼산면
8	① 유형	국보 제312호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경북 경주시 남산동
9	① 유형	보물 제42호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전북 남원시 주천면
10	① 유형	보물 제43호	남원 만복사지 석조여래입상	전북 남원시 왕정동
11	① 유형	보물 제46호	익산고도리석조여래입상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12	① 유형	보물 제60호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13	① 유형	보물 제62호	경주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	경북 경주시 서악동
14	① 유형	보물 제63호	경주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경북 경주시 내남면
15	① 유형	보물 제71호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경남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16	① 유형	보물 제75호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7	① 유형	보물 제84호	강릉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	강원 강릉시 내곡동
18	① 유형	보물 제93호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19	① 유형	보물 제96호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20	① 유형	보물 제97호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충북 괴산군 연풍면

연번	구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21	① 유형	보물 제100호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22	① 유형	보물 제115호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경북 안동시 이천동
23	① 유형	보물 제116호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경북 영주시 순흥면 석교리
24	① 유형	보물 제121호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경북 경주시 동천동
25	① 유형	보물 제122호	경주 울동 마애여래삼존입상	경북 경주시 울동
26	① 유형	보물 제136호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경북 경주시 배반동
27	① 유형	보물 제159호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경남 함안군 군북면
28	① 유형	보물 제187호	경주 남산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경북 경주시 내남면
29	① 유형	보물 제197호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충남 청양군 청양읍
30	① 유형	보물 제198호	경주 남산 불곡 마애여래좌상	경북 경주시 인왕동
31	① 유형	보물 제199호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경북 경주시 남산동
32	① 유형	보물 제201호	경주 남산 탑곡 마애불상군	경북 경주시 배반동
33	① 유형	보물 제215호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서울 종로구 구기동
34	① 유형	보물 제216호	보은 법주사 마애여래의좌상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35	① 유형	보물 제217호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충남 부여군 임천면
36	① 유형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충남 논산시 관촉동
37	① 유형	보물 제221호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	경북 영주시 가흥1동
38	① 유형	보물 제222호	합천 치인리 마애여래입상	경남 합천군 가야면
39	① 유형	보물 제243호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	대구 동구 도학동
40	① 유형	보물 제264호	합천 해인사 석조여래입상	경남 합천군 가야면
41	① 유형	보물 제295호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42	① 유형	보물 제355호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충남 홍성군 홍북면

연번	구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43	① 유형	보물 제375호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경남 함양군 마천면
44	① 유형	보물 제376호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경남 함양군 함양읍
45	① 유형	보물 제377호	거창 양평리 석조여래입상	경남 거창군 거창읍
46	① 유형	보물 제378호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경남 거창군 거창읍
47	① 유형	보물 제406호	제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충북 제천시 한수면
48	① 유형	보물 제407호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49	① 유형	보물 제423호	남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전북 남원시 대산면
50	① 유형	보물 제427호	예천 동본리 석조여래입상	경북 예천군 예천읍
51	① 유형	보물 제431호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경북 경산시 와촌면
52	① 유형	보물 제461호	나주 철천리 마애칠불상	전남 나주시 봉황면
53	① 유형	보물 제462호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전남 나주시 봉황면
54	① 유형	보물 제490호	구미 금오산 마애여래입상	경북 구미시 남통동
55	① 유형	보물 제508호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충남 예산군 삽교읍
56	① 유형	보물 제530호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경남 거창군 위천면
57	① 유형	보물 제536호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충남 아산시 송악면
58	① 유형	보물 제581호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경북 경주시 양북면
59	① 유형	보물 제615호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인천 강화군 하점면
60	① 유형	보물 제655호	철곡 노석리 마애불상군	경북 철곡군 기산면
61	① 유형	보물 제657호	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서울 은평구 진관동
62	① 유형	보물 제665호	경주 낭산 마애보살삼존좌상	경북 경주시 배반동
63	① 유형	보물 제666호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경북 경주시 배동
64	① 유형	보물 제679호	김천 광덕리 석조보살입상	경북 김천시 감문면

연번	구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65	① 유형	보물 제680호	영주 신암리 마애여래삼존상	경북 영주시 이산면
66	① 유형	보물 제794호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충남 예산군 봉산면
67	① 유형	보물 제822호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경기 이천시 관고동
68	① 유형	보물 제913호	경주 남산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경북 경주시 내남면
69	① 유형	보물 제914호	정읍 보화리 석조이불입상	전북 정읍시 소성면
70	① 유형	보물 제944호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	전남 보성군 읍어면
71	① 유형	보물 제946호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전남 순천시 낙안면
72	① 유형	보물 제981호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경기 하남시 교산동
73	① 유형	보물 제982호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경기 이천시 마장면
74	① 유형	보물 제983호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	경기 안성시 죽산면
75	① 유형	보물 제984호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충북 영동군 용산면
76	① 유형	보물 제988호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경북 군위군 부계면
77	① 유형	보물 제1122호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경북 구미시 황상동
78	① 유형	보물 제1123호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전북 남원시 산내면
79	① 유형	보물 제1200호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전북 고창군 아산면
80	① 유형	보물 제1324호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경기 시흥시 대야동
81	① 유형	보물 제1401호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82	① 유형	보물 제1417호	보은 법주사 석조희견보살입상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83	① 유형	보물 제1436호	거창 농산리 석조여래입상	경남 거창군 북상면
84	① 유형	보물 제1820호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서울 서대문구 홍지문길
85	① 유형	보물 제1828호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서울 성북구 암암동
86	② 유형	보물 제81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	강원 강릉시 죽헌동

연번	구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상	
87	② 유형	보물 제139호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강원 평창군 진부면
88	② 유형	보물 제319호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경북 김천시 대항면
89	② 유형	보물 제493호	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경남 밀양시 내일동
90	② 유형	보물 제979호	공주 서혈사지 석조여래좌상	충남 공주시 관광단지길
91	② 유형	보물 제996-1호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경북 영주시 풍기읍
92	② 유형	보물 제996-2호	영주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북 영주시 풍기읍
93	② 유형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서울 종로구 구기동
94	② 유형	보물 제1213호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남 밀양시 산내면
95	③ 유형	국보 제233-1호	산청석남암사지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남 산청군 삼장면
96	③ 유형	보물 제45호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전북 익산시 삼기면
97	③ 유형	보물 제58호	안동 안기동 석조여래좌상	경북 안동시 안기동
98	③ 유형	보물 제89호	영암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전남 영암군 군서면
99	③ 유형	보물 제108호	부여 정림사지 석조여래좌상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00	③ 유형	보물 제118호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경북 상주시 함창읍
101	③ 유형	보물 제119호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경북 상주시 서성동
102	③ 유형	보물 제120호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경북 상주시 함창읍
103	③ 유형	보물 제203호	청도 박곡리 석조여래좌상	경북 청도군 금천면
104	③ 유형	보물 제219호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충남 논산시 연산면
105	③ 유형	보물 제220호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06	③ 유형	보물 제244호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대구 동구 도학동
107	③ 유형	보물 제245호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리

연번	구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108	③ 유형	보물 제246호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경북 의성군 단촌면
109	③ 유형	보물 제265호	합천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경남 합천군 가야면
110	③ 유형	보물 제296호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보살좌상	경북 김천시 증산면
111	③ 유형	보물 제307호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북 김천시 증산면
112	③ 유형	보물 제317호	청도 운문사 석조여래좌상	경북 청도군 운문면
113	③ 유형	보물 제370호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울산 울주군 상북면
114	③ 유형	보물 제371호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경남 진주시 천수로
115	③ 유형	보물 제424호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경북 예천군 용문면
116	③ 유형	보물 제425호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북 예천군 용문면
117	③ 유형	보물 제433호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충북 괴산군 칠성면
118	③ 유형	보물 제436호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남 창원시 성산구
119	③ 유형	보물 제491호	양산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경남 양산시 물금읍
120	③ 유형	보물 제492호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121	③ 유형	보물 제519호	창녕 관룡사 석조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122	③ 유형	보물 제541호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강원 홍천군 내촌면
123	③ 유형	보물 제542호	홍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강원 홍천군 내촌면
124	③ 유형	보물 제546호	제천 물태리 석조여래입상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125	③ 유형	보물 제565호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기도 평택시
126	③ 유형	보물 제600호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광주 동구 윤림동
127	③ 유형	보물 제676호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경북 영천시 신녕면
128	③ 유형	보물 제681호	영주 흑석사 석조여래좌상	경북 영주시 이산면
129	③ 유형	보물 제985호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연번	구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130	③ 유형	보물 제995호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 불좌상 및 목조광배	경북 봉화군 물야면
131	③ 유형	보물 제998호	양산 미타암 석조아미타여 래입상	경남 양산시 소주동
132	③ 유형	보물 제1121호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 불좌상	경북 성주군 가천면
133	③ 유형	보물 제1636호	영주 부석사 석조석가여래 좌상	경북 영주시 부석면

22.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 관련 보고

가. 보고사항

오대산사고에 보관하였던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기록 문화 유산의 우수성 및 역사성을 알리고자 추진하는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의 전시부분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나. 보고사유

- 2016년 제21차 설계심사위원회(9.22) 회의결과 지적된 전시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관계전문가 추가자문(10.18)을 받은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자 함.

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조선왕조실록 및 한국의 기록유산의 전시 아카이브 구축
 - IT기술과 기록유산을 접목한 멀티미디어형 전시관 건립
- 위 치 : 월정사 자연명상지구 내 신축 월정사전시관 인접지역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보조율 50%)
- 건축규모 : 토지면적 : 7,602m², 건축연면적 : 2,823m², (지하1층/지상2층)
*전시관부지는 월정사 제공
- 총사업비 : 99억(13년:4억/ 15년:10억/ 16년:50억 /17년:35억)
- 사업기간 : 2013~2017

라. 주요 경과

- ('13. 7) 문화자원개발사업(광특회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14.1. ~ '14.11.) 강원도 계약심사 승인, 평창군 일상감사, 과업내용변경, 강원도 계약심사 재심사, 평창군 일상감사 재승인, 용역업체 선정
- ('14.11. ~ '15. 3.) 타당성 용역 조사 (지방비, 국비 총 4천만 원)
- ('15. 10) 재정투융자심사 승인

- ('15.12~'16.6) 오대산사고 건축 설계 및 전시 기본설계 완료
- ('16.8.10)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축 설계 및 전시 기본설계 승인요청
- ('16.9.22) 오대산사고 전시관 설계 심사위원회 개최
- ('16.9.25)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축 설계 조건부 승인

마. 향후 계획

- 2017.12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공사 시행 시 건축 및 전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주요공정에 대한 자문을 받아 사업 시행토록 함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전시전문가 자문실시

23.간송미술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 및 소장품 지정 확대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청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품의 지정 확대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문화재청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품의 지정 확대 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것임.

다. 업무협약 개요

- 일시 : 2016.10.7.(금) 10시 30분
-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주요참석
 - 간송미술문화재단 : 전성우(이사장), 김은영(간송C&D 대표), 전인건(사무국장)
 - 문화재청 : 청장, 유형문화재과장
- 주요내용
 - 소장품 지정 확대(이정의 삼청첩 등 37건)
 - 지정문화재의 일반 공개(전시, 학술심포지움, 교육)
 - 보존협력(교육 및 인력 양성 포함)

라. 소장품 지정 확대 계획 보고

- 지정 추진 대상(안) : 총 37건(붙임 1 참조)
 - 이정 삼청첩 등 회화 20건, 정명공주 화정 등 서예 13건, 청자양이병 등 도자 4점

❖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지정문화재 현황(붙임 2 참조)

- 국보 : 제70호 훈민정음 등 12건
- 보물 : 제283호 백자 박산형뚜껑 향로 등 20건
- ※ 도자 11건, 불교조각 4건, 전적 4건, 회화 1건

○ 지정절차

- 취득경위 관계자료, 연구성과 등 제출
- 전시 출품 및 홈페이지 사진 공개 등 정보공개동의서 제출
- 인문학적인 조사 및 과학적 조사 병행

○ 추진일정

- '16.8.24. :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품' 협력 관련 업무협약(DDP)
- '16.10.7. : '문화재청과 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서' 체결
- '16.11. : 지정조사단 지정 추진 대상 목록 검토
- '16.11~12월 : 분야별 지정조사(회화, 서예, 도자)
- '17.1월~3월 :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심의

마. 향후계획

-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 및 조속한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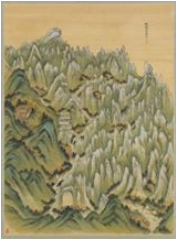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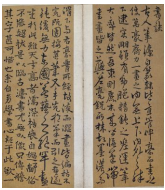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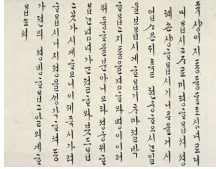





[붙임 1]

지정 추진 대상 목록(안)

일련 번호	작가	작품명	대표사진	재료	크기(세로×가로)	비고
1	이정(李霆)	삼청첩 (三清帖)		黑絹 金泥	25.5×39.3cm	畫: 20면 書: 21면 題跋: 16면
2	이정(李霆)	풍죽 (風竹)		絹本 水墨	127.5×71.5cm	
3	이징(李澄)	산수영모첩 (山水翎毛帖)		絹本 淡彩	31.0×21.0cm	畫: 16면 題詩: 37면
4	김명국 (金明國)	비급전관 (秘笈展觀)		紙本 淡彩	121.5×82.5cm	
5	이명욱 (李明郁)	어초문답 (漁樵問答)		紙本 淡彩	173.0×94.0cm	
6	정선 (鄭敼)	해악전신첩 (海嶽傳神帖)		絹本 彩色	32.5×49.5cm	畫: 21면 書: 50면
7	정선 (鄭敼)	경교명승첩 (京郊名勝帖)		紙本 淡彩	27.4×27.4cm	畫: 33면 書: 9면

8	정선 (鄭敼)	풍악내산총람 (楓嶽內山總覽)		絹本 彩色	100.8×73.8cm	
9	정선 (鄭敼)	관동명승첩 (關東名勝帖)		紙本 淡彩	32.3×57.8cm	畫: 13면
10	정선 (鄭敼)	청풍계 (淸風溪)		絹本 淡彩	133.0×58.8cm	
11	정선 (鄭敼)	여산초당 (廬山草堂)		絹本 淡彩	68.7×125.5cm	
12	심사정 (沈師正)	촉잔도권 (蜀棧圖卷)		紙本 淡彩	58.0×818.0cm	
13	김홍도 (金弘道)	마상청앵 (馬上聽鶯)		紙本 淡彩	117.2×52.0cm	
14	김홍도 (金弘道)	고사인물도 8폭 (故事人物圖 八幅)		紙本 淡彩	52.6×111.9cm	

15	김홍도 (金弘道)	과로도기 (果老倒騎)		絹本 淡彩	56.6×134.6cm	
16	김홍도 (金弘道)	낭원투도 (蘭苑偷桃)		紙本 淡彩	49.8×102.1cm	
17	김홍도 (金弘道)	절로도해 (折蘆渡海)		紙本 淡彩	58.3×105.5cm	
18	김득신 (金得臣)	궁재일품첩 (兢齋逸品帖)		紙本 淡彩	22.4×27.0cm	畫: 8면 題跋: 1면
19	신윤복 (申潤福)	미인도 (美人圖)		絹本 彩色	114.0×45.5cm	
20	김정희 (金正喜)	난맹첩 (蘭盟帖)		紙本 水墨	22.8×27.0cm	上卷 畫: 9면 書: 4면 下卷 畫: 6면 書: 6면
21	정명공주 (貞明公主)	화정 (華政)		紙本 墨書	146.0×73.5cm	
22	정명공주 (貞明公主)	유합(類合)		紙本 墨書		

23	이광사 (李匡師)	서결(書訣)		紙本 墨書		2책 각 41면
24	혜경궁 (惠慶宮)	한글궁체 (한글宮體)		紙本 墨書		
25	정조(正祖)	정혜공 연시연시 (靖惠公延諡宴詩)		紙本 墨書		
26	김정희 (金正喜)	서원교필결후 (書員嶠筆訣後)		紙本 墨書	23.2×9.2cm	書: 24면 畫: 4면
27	김정희 (金正喜)	명선 (茗禪)		紙本 墨書	115.2×57.8cm	
28	김정희 (金正喜)	화법서세 (畫法書勢)		紙本 墨書	각폭 129.3×30.8cm	
29	김정희 (金正喜)	대평고회 (大烹高會)		紙本 墨書	각폭 129.5×31.9cm	

30	김정희 (金正喜)	호고연경 (好古研經)		紙本 墨書	각폭 129.7×29.5cm	
31	김정희 (金正喜)	차호호공 (且呼好共)		紙本 墨書	각폭 135.7×30.3cm	
32	김정희 (金正喜)	계산무진 (谿山無盡)		紙本 墨書	62.5×165.5cm	
33	김정희 (金正喜)	침계 (淸溪)		紙本 墨書	42.8×122.7cm	
34		청자양이병 (靑磁兩耳瓶)			높이 22.0cm	
35		청자양각도철정형 향로 (靑磁陽刻饗饗鼎 形香爐)			높이 17.0cm	
36		백자청화동자조어 문병 (白磁靑畫童子釣 魚文瓶)			높이 24.9cm	
37		백자사옹원인 (白磁司饗院印)			높이 10.0cm	

[붙임 2]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지정문화재 현황

□ 국가지정문화재(20건)

종별	지정번호	지정명칭	비고
국보	65	청자 기린형뚜껑 향로	
	66	청자 상감연지원앙문 정병	
	68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70	훈민정음	
	71	동국정운 권1,6	
	72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	
	73	금동삼존불감	
	74	청자 오리모양 연적	
	135	신윤복필 풍속도 화첩	
	149-1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권4,5	
	270	청자 모자원숭이모양 연적	
	294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 병	
소계	12건		
보물	238	백자 박산형뚜껑 향로	
	283	금보	
	284	금동여래입상	
	285	금동보살입상	
	286	청자 상감포도동자문 매병	
	287	분청사기 박지철채화문 병	
	348	분청사기 상감모란문 반합	
	349	청자 상감국화모란당초문 모자합	
소계	8건		
합계		20건	

□ 시·도지정문화재(4건)

종별	지정번호	지정명칭	비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28	삼층석탑	
	29	석조팔각승탑	
	30	석불입상	
	31	석비로자나불좌상	

24. '국보 제209호 보협인석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방안 관련 논의' 소위원회 구성(안) 보고

가. 보고사항

'국보 제209호 보협인석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방안 관련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과 관련해 보고합니다.

나. 관련근거

-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
-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 ①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8조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다. 보고사유

- 2015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및 국정감사(유은혜 의원) 결과, 석층의 수평재로 사용된 동전 교체 및 석탑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보존관리 필요 의견이 지적됨.
- 이에 국보 제209호 보협인석탑의 구조적 안정성 방안 및 원형복원, 학술연구 등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해 면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보고드립니다

라. 보협인석탑 현지 조사 결과

- 조사일자 : 2016. 10. 7.(금)
- 조사장소 : 동국대학교박물관 전시실
- 조사자 의견
 - 장기적인 안전성을 고려하여 전체 해체 후 동전 제거 및 과학적 조사와 종합학술연구 계획 수립·진행
 - 해체 이후 석탑에 대한 2차 훼손 및 복원 우려 문제. 동전 대신 면진 역할이 충분히 가능한 재료 등을 이용하여 보호·고정하는 방안 고려

마.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10명 내외로 구성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